

博士學位論文

그레엄 그린의 소설과 포스트콜로니얼리즘



濟州大學校 大學院

英語英文學科

朴 安 子

2005년 12월

博士學位論文

그레엄 그린의 소설과 포스트콜로니얼리즘



濟州大學校 大學院

英語英文學科

朴 安 子

2005년 12월

그레엄 그린의 소설과 포스트콜로니얼리즘

指導教授 金 仙 姬

朴 安 子

이 論文을 文學 博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5年 12月

朴安子の 文學 博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大學院

2005年 12月

Graham Greene's Novels and Postcolonialism

Park Ahn Ja

(Supervised by Professor Kim Sun-Hee)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DOCTOR OF ARTS

DEPARTMEN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December 2005

목 차

I. 서 론 1

II. 상실과 혼돈의 대지:

Journey without Maps 11

1. 오물, 잡초 그리고 해충
2. 야만과 미개의 사회
3. 흑과 백의 위계질서
4. 반복되는 정복의 역사

III. 원시의 땅과 도덕적 타락:

The Heart of the Matter 49

1. 식민담론과 타자화
2. 문명화의 사명과 그 허상
3. 열악한 환경과 생존적 투쟁
4. 절망과 고독의 군상들

IV. 대영제국의 연륜과 경험:

The Quiet American 82

1. 침묵과 예속의 오리엔탈리즘
2. 경륜의 영국인과 패기의 미국인



3. 미국적 이상주의의 허상
4. 대영제국의 빛과 그림자

V. 몰락하는 대영제국과 부상하는 미제국주의:

The Honorary Consul 122

1. 고독한 이방인의 인종적 혼종과 정체성
2. 앵글로 아르헨티나 클럽과 거꾸로 게양된 유니언 잭
3. 고통과 억압의 그린랜드(Greeneland)
4. 대영제국의 전통과 연속성

VI. 식민지 회복과 새로운 제국의 개척:

Ways of Escape 162

1. 그린의 여행과 도피적 글쓰기
2. 도피처, 제 3세계의 실상과 현실
3. 제국주의에 대한 향수와 회상
4. 은밀한 제국주의의 옹호자

VII. 결 론 204

Bibliography 210

Abstract 228

I. 서 론

20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작가 중의 한 사람인 그레엄 그린(Graham Greene : 1904-1991)이 작품 활동을 한 시기는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제국주의가 붕괴되고 미국 제국주의가 새로운 세력으로 급부상한 시기이다. 제국주의는 18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중반까지 불과 200년의 짧은 역사를 통하여 세계 역사상 전대미문의 커다란 영향력을 전 지구적으로 끼쳤고, 그 여파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특히 영국인에게 있어서 제국은 단순히 강령이나 원칙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 상태이자 의식 구조였고 이들의 상상을 지배한 하나의 강력한 힘이였다. 이것은 아마도 대영제국이 남긴 가장 영속적인 유산 중의 하나일 것이다. 그런 영속성을 갖고 고전으로 읽혀 온 영국소설은 19세기 이후 해외 제국에 가담해 왔고 당대 주된 목소리를 담당해 왔다. 그러나 빅토리아조 중엽과 달리 20세기 작가들은 과거의 절대 진리에 대한 해체, 해명할 수 없는 불가해성, 불확실성에 사로잡힌다. 이들 작가의 회의와 비판주의는 당시 유럽 포스트모더니즘의 현상이며 이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불확실성은 제국주의의 붕괴로 인해 더 강해졌다. 쇠퇴기의 작가들은 제국주의 이념에 대한 의심이나 회의 그리고 어떤 비전도 제시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꼈다. 사양 길에 접어든 제국주의 시대의 마지막 담론을 떠맡은 이들은 식민 담론을 새롭게 추구하기 위한 도덕적 물음의 제기와 상상적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이런 제국 해체기를 경험한 그린은 변화된 시대조건에 상응하는 작가적 태도와 목소리를 새롭게 가다듬어야 했다. 그는 식민지 소멸의 당혹스러움을 감추고 제국 쇠퇴기에 부합하는 담론을 고심하게 된다. 식민지 상실 후 북해의 한 작은 섬으로 남겨진 영국의 위상에 아랑곳없이 그린은 여전히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의 건설과 그 위대한 제국의 신화에 젖어서 살았다. 화려

한 제국의 신화를 창조하며 세계를 누비고 다녔던 과거의 제국주의자처럼, 그린의 방랑하는 삶도 이에 대한 반영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그린의 작품 무대가 서아프리카, 콩고, 멕시코, 베트남, 아르헨티나 등 국제적으로 폭넓은 지역에 펼쳐져 있다는 사실은 오대양 육대주의 광활한 원격지를 거느렸던 팩스 브리타니카(Pax Britannica)의 위세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그린은 자신의 작품 배경이 되는 이곳들을 통칭하여 "그린랜드(Greenland)"라 불렀으며, 이는 북극 근처에 있는 동토의 땅 "Greenland"의 패로디이다. 이 그린랜드가 풍기는 분위기는 이름 그대로 뭔가 긴장되고 억눌려 있으며 살벌하게 얼어붙어 있다. 많은 비평가들은 그린의 세상을 악의 온상으로 보았고 그의 어두운 세계관으로 인하여 늘 선악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고통과 억압이 만연한 세계에 이끌려왔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린의 그린랜드를 설정한 원인을 정신분석학적 혹은 신앙적 측면에서 분석하면서, 이를 어린 시절의 억눌림에 대한 기억과 원죄로 물든 인간 세상 그리고 선악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이라고 설명한다.¹⁾ 해외를 무대로 쓴 작품 중 *The Power and the Glory*의 무대가 되는 혁명 중의 멕시코나, 민족해방운동의 열기에 휩싸인 *The Honorary Consul*의 파라과이, 제국주의 쟁탈전이 벌어지는 *The Quiet American*의 베트남, *Monsignor Quixote*의 배경이 되고 있는 프랑코 총독(General Franco) 사후의 스페인 등은 모두가 전쟁이나 혁명의 와중에 있는 세계사의 격변 현장이었다. 이같은 배경 하에 인간들은 깊은 고통과 절망 속에서 부패와 파멸을 겪게 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의 고통과 절망이 인

1) 마리아 꾸또(Maria Couto)는 이에 대해 그린의 어린 시절부터 지옥에 대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악으로 물든 끔찍한 세상과 이에 대한 그의 관심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장치로 그린랜드를 늘 활용한다고 설명한다. Maria Couto, *On the Frontier - Politics and Religion in the Novels* (London: Macmillan, 1988) p. 66; 신학적 입장에서 이를 해석하는 안토니 보르케스(Anthony Burgess)는 그린의 갖고 있는 얀센주의(Jansenism - 원죄론을 강조하는 신학 이론)가 억압에 시달리는 현장으로 그를 끌어냈고 그런 장면을 잘 재현하기에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고자 영국을 떠나 그린랜드로 갔다고 말한다. Anthony Burgess, "Politics in the Novels of Graham Greene," *Journal of Contemporary History* vol. 2 (1967): p. 125; 이밖에도 그린의 다루는 정신적 고민은 그린랜드 속에서 겪는 도덕적 갈등이며 이는 새로운 각성을 얻기 위한 정신적 여정이라고 보는 관점도 있다. George Woodcock, *The Writer and Politics* (Michigan: Porcupine Press, 1948) p. 143.

간 본연의 선악의 문제에서 파생된 것이 아니라 정치사회적 모순관계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이들 지역의 상황적 절박함을 도외시한 채 그린랜드의 도입을 단순히 선악의 문제에 집착하는 그린의 정신적 성향으로 파악하거나, 인간의 타락상을 리얼하게 그리기 위한 그의 의도적 고안이라고만 풀이하는 것은 일면적 해석이 될 위험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린랜드는 비록 소설 속에 나타나는 가상의 공간이지만 그 자체가 정치, 사회적으로 휩박받고 있는 식민지이자 제 3세계이며, 제 1세계와의 정치 구도 속에서 그 종속관계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작중 인물들이 겪는 고난과 질곡을 인간의 내면이나 악한 본성과 연결지어 국한시켰던 기존의 분석틀을 깨고, 그 고통과 죄의 근원을 새로운 시각에서 추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에 대한 비평은 오랫동안 종교적 주제와 인간의 근원적 문제의 한정된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 그린의 작품에 대한 비평 동향을 살펴보면 60년대까지의 비평은 *The Power and the Glory*, *The End of the Affair*, *Brighton Rock*과 같은 종교소설에 집중되고 있다. 이 시기에는 로버트 애반스(Robert Evans), 허버트 하버(Herbert Harber), 프랜시스 키클(Francis Kunkel), 사무엘 하인(Samuel Hynes), 로저 셰록(Roger Sharrock), 쿨슈레스타(J. P. Kulshresta) 등의 비평가들을 중심으로 정통 가톨릭적 접근이 주를 이룬다.²⁾ 이러한 경향은 70년대에 들어서면

2) 예를 들어 *The Power and the Glory*에 대한 비평의 경우만 보더라도 허버트 하버(Herbert Harber)는 위스키 신부의 죽음을 성인품에 오를 정도로 숭고한 죽음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Herbert Harber, "The Two Worlds of Graham Greene," *Modern Fiction Studies* III (1957); 프랜시스 키클(Francis Kunkel)은 위스키 신부의 겸허한 회개를 중심으로 신만이 그런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다는 구원론적 관점을 주장한다. Francis Kunkel, *The Labyrinthine Ways of Graham Greene* (New York: Paul P. Appel, 1960); 쿨슈레스타(Kulshresta)는 위스키의 죽음을 영웅적, 순교자적 최후로 파악하며 그를 통해 신의 권능과 영광이 드러난다고 분석한다. J. P. Kulshresta, *Graham Greene: The Novelist* (Delhi: Macmillan, 1977); 그 외에 로저 셰록(Roger Sharrock) 역시 위스키의 용감한 회개와 타인에 대한 연민을 강조하며 그의 성인다움을 찬양하는 종교주의에 기반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Roger Sharrock, *Saints, Sinners, and Comedians: The Novels of Graham Greene* (Notre Dame, IN: Notre Dame UP, 1984).

서 그의 작품의 정치적 주제에 비평적 관심이 기울여지면서 약간의 변화를 보인다. 그레이엄 스미스(Graham Smith)가 지적하듯이 그린의 초기소설은 신앙문제를 중심으로 한 개인의 내면세계가 그의 작품의 전반(全般)을 이루었으나 원숙기에 접어들면서 정치와 종교의 문제라는 두 주제가 복잡하게 얽히고 그 딜레마 속에서의 교회의 역할이 소설의 기본틀이 되고 있다.³⁾ 그러나 전반적으로 비평의 흐름은 종교적 관점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정치 이데올로기와 신앙의 갈등 속에서 결국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그린의 소설 분석 연구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⁴⁾ 80년대에 이르면서 기존의 관점과 다른 새로운 시각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마리아 꾸또(Maria Couto), 주디스 아담슨(Judith Adamson), 존 스펠링(John Spurling) 등은 세계사의 변동에 따른 그린 개인의 의식변화를 문학과 정치의 병립구조 속에서 파악한다. 이 비평가들은 특히 말년의 그린의 제국의 상실과 새로운 헤게모니의 등장 과정에서 보인 민감한 반응에 주목한다. 그러나 이들 역시 문학과 정치의 통합적 주제를 단지 중도적 입장에서 다루었을 뿐이다.

종전과는 다른 비평적 관점이 90년대에 등장한다. 예를 들면 바흐친(Mikhail Bakhtin)의 대화이론을 채택하여 그린의 소설을 대화적 소설로 파악하고 언어의 이어성(heteroglossia)과 대화적 관계를 조명하는 “그린 다시 읽기(re-reading Greene)”라는 새로운 시도가 등장한다.⁵⁾ 이밖에 구조주의 혹은 후기 구조주의 이론에 입각하여 그린의 소설에 나타나는 서술기법을 분석하는 방법론도 도입된다. 즉, 이들은 그린의 작품 속에서 등장인물들이 겪는 갈등을 모순어법(oxymoron)을 통한 역설의 구현이라고 해석한다.⁶⁾

3) Graham Smith, *The Achievement of Graham Greene* (Brighton: The Harvester Press, 1986) p. 180.

4) 그린은 가톨릭 신앙 속에서 인간성의 옹호자 역할을 하고자 했다. 파시즘과 테러가 난무한 시대에 그린은 로마 가톨릭시즘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 했다. A. A. DeVitis, *Graham Greene* (Boston: Twayne Publishers, 1986) p. 8.

5) Brian Phillip Kennedy, “Cultural Critical and Catholic Politics: A Dialogic Re-reading of the Novels of Graham Greene,” diss., U of Miami, 1993.

한편 1980년대부터 종교편향주의에 치우친 주류 비평과 결별을 선언하는 포스트콜로니얼리즘적 관점이 등장하면서 인도나 아프리카 등 제 3세계 출신 비평가에 의한 참신하고 진지한 접근이 서서히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중심부의 거대담론에 안주했던 그린의 내러티브는 주변부 지식인의 비평적 저항에 봉착하게 된다. 예를 들어 조지 헤론(George Heron)은 *The Heart of the Matter*를 제국주의 소설이라고 규정한다. 그는 타락한 스코비(Scobie)를 두둔하며 인간적 과오를 동정해온 기존의 시각을 뒤엎고 있다.⁷⁾ 수잔 케데(Suzanne Kehde)는 *The Quiet American*에 나타난 주인공의 갈등관계를 개인적인 것으로 파악했던 종전의 해석과 달리 포스트콜로니얼리즘적 관점에서 예리하게 분석한다.⁸⁾ 그밖에 자키아 파탁(Zakia Pathak)은 *The Quiet American*의 푸옹(Phuong)의 문제를 가부장제와 식민체제의 굴레에 놓인 제 3세계 여성의 입장에서 접근한다.⁹⁾ 그 중에서도 나이지리아 출신이며 칼라바르(Calabar) 대학 영문학과 교수인 오귀드(S. E. Ogude)는 가장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비평가로서 일찌감치 그린 작품에 나타난 아프리카의 부정적 편향에 크게 반발한다. 그는 아프리카에 대한 그린의 편집광적인 집착을 식민지 병리 현상으로 진단하고 있다.¹⁰⁾ 그러나 아직까지도 제 3세계 출신 소수학자만이 그린에 대한 포스트콜로니얼리즘적 비평을 시도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오귀드의 단호하고 해방적인 실천은 대단히 독보적이고 획기적인 작업으로 보인다. 그동안 가톨릭적 접근이 대세를 이루는 비평계

6) Richard Creese, "Graham Greene and Modern Narrative Practice," diss., UCLA, 1984.

7) George Heron, "Imperial Fiction: Graham Greene, *The Heart of the Matter*," *Wasafari* 4 (1986): pp. 15-19.

8) Suzanne Kehde, "Engendering the Imperial Subject," *Fiction of Masculinity: Crossing Cultures, Crossing Sexualities* ed. Peter Murphy (New York: New York UP, 1994): pp. 241-54.

9) Zakia Pathak, "The Prisonhouse of the Orientalism," *Textual Practice* 5.2 (1991): pp. 195-218.

10) S. E. Ogude, "In Search of Misery: A Study of Graham Greene's Travel in Africa," *Odu (Ile-Ife, Nigeria)* 11 (1975): pp. 45-60.

에서 그런 소설에 나타난 정치적 측면은 비평의 초점에서 항상 제외되어 왔고, 그런 이유 때문에 그의 소설은 제국주의적 요소가 다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요소에 의해 은폐되어왔음을 부정할 수 없다. 특히 현재 국내에서 포스트콜로니얼리즘적 관점에서의 그런에 대한 작품 비평은 아직까지도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포스트콜로니얼리즘적 접근 방법에 의한 그런 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더 요구된다 하겠다.

포스트콜로니얼리즘 비평은 지금까지 영문학의 영역에서 영소설이라는 정전이 식민 지배를 강화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왔을 뿐 아니라 고전이라는 필독서로 오랫동안 아무런 검증이나 여과 없이 읽혀져 온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 지배문화로서의 영문학에 대한 비판적 독해, 혹은 뒤집어 읽기를 시도하는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은 정전을 “새롭게 다시 읽고 해석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다시 말해서 포스트콜로니얼리즘 비평은 전통적인 영문학 텍스트의 “다시 읽기(re-reading)”를 역사적 맥락 속에서 시도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의식의 탈식민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서양 고전을 비서양인의 입장에서 다시 읽는 작업은 소외되고 배제되어온 주변인으로서의 자아 성찰이며, 주변과 중심의 자리바꿈의 시도이고 우리의 주체의식을 바로 세우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이 문학과 문화를 논의하는 분야에서 중요한 논점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은 1978년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가 *Orientalism*을 발표하면서부터이다.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은 “포스트콜로니얼리즘에 대한 준거이자 촉매(the conformity and catalyst for postcolonialism)”¹¹⁾라고 말할 수 있다. 사이드는 서구인이 동양인에 대해 가진 편견을 오리엔탈리즘이라 부른다. 그 편견에는 근대화에 뒤쳐진 낙후된 세계, 문명화를 이루지 못한 미개한 세계, 합리주의 대신 동양적 신비주의가 지배하는 세계라는 표상들로 가득차 있다. 이는 동양을 지배하고 재구

11) Leela Gandhi, *Postcolonial Theory: A Critical Introduction* (New York: Columbia UP, 1998) p. 85.

성하며 억압하기 위한 서양의 의도적 인식체계를 뜻한다. 그는 서양이 동양을 어떻게 이질적인 타자로 배제하고 억압해왔는가를 계보학적으로 추적한다. 이처럼 사이드는 서양의 지식체계에 담겨있는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밝혀내어 서양의 식민담론을 비판할 수 있는 새로운 인식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의 선구적 이론가로 평가된다.

과거에 식민주의가 의식을 식민화하는 작업을 수반했다면 그것에 대한 저항인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은 다름 아닌 “의식을 탈식민화시키는 작업”이다. 따라서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은 과거의 식민주의와 현재의 신식민주의를 함께 이해하기 위한 징검다리이고 이것이 바로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이 지니는 의미의 현재성이며 중요성일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식민주의와는 전혀 무관해 보일 뿐 아니라 가톨릭 신앙에 바탕을 둔 인본주의 작가로 추앙받아온 그린을 포스트콜로니얼리즘 비평의 대상으로 설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첫째, 그의 작품 활동의 시기를 들 수 있다. 그의 작품들은 주로 영국의 식민지 지배력이 점차 쇠퇴해 가면서 미국으로 힘의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던 20세기 중후반에 쓰여졌다. 그런 까닭으로 그의 작품은 제국주의 패권의 이동을 극명하게 확인시켜줄 뿐만 아니라 영국민의 의식의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식민주의라는 시대 상황에 맞춰 그린의 작품을 포스트콜로니얼리즘적 관점으로 분석하는 것은 문학이라는 문화적 생산을 제국과의 상호 관련성 속에서 탐색하는 작업이다. 이는 축소된 영국의 국제적 위상 속에서 그린에게 요구되는 작가로서의 역할과 기술(記述)상의 테크닉을 놓고 그가 직면해야 했던 갈등의 흔적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둘째, 작가의 개인적 관심과 취향 때문이다. 그는 영국의 식민지였던 제 3세계의 정치에 관심이 많았고 이 지역을 두루 여행하면서 이를 소재로 한 작품을 많이 남겼다. 이러한 이유로 그의 행적은 마치 자유와 정의에 대한 관심 특히 제 3세계에 대한 서구 지식인의 양심으로 잘못 인식되어 왔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 유럽의 식민 통치를 받았던 약소국가를 선호한 그의 취향과 동기에 대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추적연구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다. 제 3세계를 배경으로 한 그린의 많은 소설을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의 잣대로 들여다보면 비서양을 열등한 타자로 묘사했으며, 비서양에 대한 부정적 정형화를 강조하고 있음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린을 다시 읽는 과정은 그가 교묘하게 감추어 놓은 비서양에 대한 잘못된 정체성을 밝혀내는 작업이 될 것이다.

셋째, 현재까지 그린의 작품에 대한 분석이 세계사에 대한 인식이나 사회정치적 관점이 배제된 상태로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앞서 설명했듯이 그의 작품에 대한 비평의 주류는 대부분 종교적 혹은 인본주의적 차원에서 다루어지거나 인물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작가이자 해외 통신원으로서 세계사의 격동을 직접 체험하고 그 현장의 소리를 전달했던 그린 자신과 그의 작품은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그의 문학 세계에 질게 나타나는 자전적 요소를 간과하지 않고 역사의 소용돌이에서 배태된 그린의 작품을 포스트콜로니얼리즘적 관점에서 다시 읽어내는 작업은 매우 의미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본 논문은 그린의 작품 *Journey without Maps*, *The Heart of the Matter*, *The Quiet American*, *The Honorary Consul*, *Ways of Escape* 을 텍스트로 하여 작품의 주제, 구성, 인물, 언어, 기교, 비유, 상징 등을 중심으로 작품속에 침잠되어 있는 제국주의적 요소와 그 양상을 포스트콜로니얼리즘적 관점에서 심층 분석, 검토하고 비서구인의 입장에서 “그린 다시 읽기”를 시도함으로써, 그린 문학에 대한 기존의 서구 중심의 평가를 넘어서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포스트콜로니얼리즘 비평과 그린의 만남은 지금까지 몰랐던 그린의 새로운 모습을 다각도로 조명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지적한 그린랜드에 대한 관점 교정이 전제되어야 하며, 서구의 우선성과 중요성을 주장하는 그린의 담론이 내

용에 있어서 폐쇄적이며 타자를 제외시켜 온 점에 대해 분석해야 할 것이다. 즉, 그의 작품들이 어떻게 제국주의와 아무런 갈등도 없이 계속 공존할 수 있었는지의 물음에 대한 대답을 구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본고의 핵심은 그의 작품에서 별다른 제재 없이 존속되어온 제국주의적 경향을 포스트콜로니얼리즘적 시각으로 들춰냄으로써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의 내러티브가 끊임없이 주변부를 소외시키며 편견으로 얼룩진 식민담론이었음을 밝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본론에서 다루어질 그린의 다섯 편의 작품은 초기 작품부터 말기 자서전까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을 연대기적 순서로 분석할 것이다. 이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작가의 의식 변화와 식민지 해체 이후 역사적 과도기에서 그린이가 보여 온 작가적 입장을 일목요연하게 비교, 분석하려는 목적이다.

첫 작품 아프리카 여행기 *Journey without Maps*에는 원주민에 대한 근거 없는 정형화와 편견이 악의적으로 투사된다. 해외를 배경으로 한 이 첫 작품은 그린이의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이 형성되는 과정과 그것이 흑인들에게 가차없이 적용되는 부분 그리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집요하게 반복되며 고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작품 곳곳에 침잠되어 있는 영국인의 도도한 목소리와 선민의식을 간파함으로써 서양의 우월성이 강화되고 아울러 원주민의 미개함이 확대, 과장되고 있음을 분석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The Heart of the Matter*에서는 아프리카로 파견된 영국인 식민관료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서서히 허물어져가는 도덕적 타락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고자 한다. 기존의 비평이 주인공 스코비의 성격파악에 주력하며 가톨릭 신자인 그의 인간적 오류와 죄의식, 자살을 종교적 관점만으로 주로 다루었다면, 본 논문에서는 스코비란 개인을 식민지 변방인 아프리카 사회와 연결지어 분석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The Quiet American*에서는 베트남 여자를 놓고 두 남성이 벌이는 사랑의 삼각관계를 단순한 개인적 싸움으로 치부해온 기존의 비평에서

벗어나 이를 국가적인 차원으로 확대, 분석할 것이다. 두 남성 사이의 갈등을 치열한 강대국 사이의 파워게임이며 사랑싸움을 빙자한 영국과 미국의 맞대결이라는 관점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네 번째 *The Honorary Consul*에서는 남미인도 아니고 영국인도 못되는 주인공 플라르(Plarr)가 혼혈아로서 겪는 애매한 정체성과 문화적 갈등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즉, 재외 영국인으로서 “남미에 대한 타자화”를 멈추지 않는 그가 중심부 문화에 머무르기 위해 영국성(Englishness)을 계속 고수하고 집착하는 부분을 분석할 것이다. 또한 국력의 쇠퇴에서 비롯된 영국인의 박탈감과 상대적으로 커지는 반미감정에 대해서도 지적하려고 한다.

다섯 째 그린의 자서전 *Ways of Escape*에서는 그가 평생 고난의 땅, 그린랜드를 찾아 나선 이유와 그 고난의 의미 그리고 도피의 실체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그린의 오랜 방랑이 단지 그의 개인적 성향 뿐 아니라 식민지에 대한 향수와 미련이며, 후기 식민체제에 적응하지 못하는 그린의 지배국민으로서의 오만함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종속민들을 착취하고 이용하려는 식민근성을 부각시켜 그의 오리엔탈리즘적 성향을 강조하게 될 것이다.

II. 상실과 혼돈의 대지:

Journey without Maps

1935년 1월부터 3월까지 그레엄 그린은 난생 처음으로 유럽대륙을 벗어나 서부 아프리카 지역에 위치한 영국의 식민지인 시에라리온(Sierra Leon)¹⁾, 라이베리아(Liberia)²⁾, 프랑스령 기니(Guinea)³⁾ 등을 여행한다. 그는 혹독한 기온과 습기, 온갖 곤충들과 갖가지 질병들이 가득한 이 지역을 말라리아에 걸려 죽을 고비를 넘기며 수백마일의 오지를 횡단한다. *Journey without Maps*는 바로 그 탐험의 기록이다.

그린의 여행지인 시에라리온은 라이베리아와 더불어 19세기 이래 영국의 무역과 선교 활동의 발판이 되었다. 또한 제국의 지속적인 핵심지역으로서 서아프리카에서 영국의 영향력을 확산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했다. 과거 선조들이 이룩해놓은 식민지 건설은 그린에게 아프리카 탐험을 용이하게 했고, 그런 점에서 1936년에 나온 그의 첫 여행기인 *Journey without Maps*

- 1) 시에라리온은 서아프리카 대서양연안에 위치한 인구 약 500만명의 나라로 수도는 프리타운이다. 시에라리온의 식민지 역사는 1787년 영국에서 이송되어 온 351명의 북아메리카 해방노예와 60명의 백인여성들(런던의 매춘부)이 정주하면서부터이고, 그 후 영국은 1896년 시에라리온을 보호령으로 선포하게 된다. 1920년부터 독립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마침내 196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며 1971년 공화국이 되었다. "Sierra Leon," *U. S. Department of State, Bureau of African Affairs*, Sep. 2005 <<http://www.state.gov>>.
- 2) 라이베리아(Liberia)는 시에라리온과 기니, 코트디부와르에 둘러싸인 대서양 연안의 국가이며 인구는 약 330만명, 수도는 몬로비아이다. "자유의 나라"라는 의미를 지닌 라이베리아는 1821년 미국 흑인 노예의 필요성이 감소되면서 해방노예를 이주시키기 위해 생겨난 나라이다. 독립이 보장되면서 이들의 귀환이 장려되었고 1871년 영국은 독립국 라이베리아를 맨 먼저 승인하며 원조를 시작한다. Andrew Porter, 석화정 역, 『유럽 제국주의 연구의 현황과 과제』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1) p. 112.
- 3) 정식 명칭은 기니 공화국(Republic of Guinea)이며 인구는 848명, 수도는 코니크리이다. 북쪽으로는 기니비사우, 세네갈, 말리, 동쪽으로는 코트디부아르, 남쪽으로는 시에라리온, 라이베리아와 접하고 있고 서쪽으로는 대서양에 면해있다. 1890년 세네갈에서 분리돼 프랑스 식민지로 편입되었다가 1958년 독립한 나라이며 공용어로 프랑스어를 사용한다. "Guinea," *U. S. Department of State, Bureau of African Affairs*, Sep. 2005 <<http://www.state.gov>>.

는 단순한 기행문이나 모험 이야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비록 이 책은 그린의 초기 작품에 해당되지만 그의 식민주의적 관점을 농밀하게 드러내며 서양 우월주의에 사로잡힌 그의 식민담론의 단초를 제공한다. 또한 그린의 뇌리 속에 한번 각인된 아프리카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시각은 그의 말기 작품에 이르기까지 계속 견지되고 답습된다. 한 예로 2002년도에 빈티지 클래식스(Vintage Classics) 출판사에서 나온 이 책의 표지가 오지여행 도중 그린을 말라리아에 걸리게 해 생명의 위협까지 주었던 커다란 아프리카 모기의 삽화로 되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상징적이다.

1. 오물, 잡초 그리고 해충

빅토리아 시대의 여행기는 떠나면 땅에 대한 환상적인 소재와 과장된 이야기로 가득차있었고 정복해야할 원주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고 미지의 땅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린 역시 어렸을 때 많은 탐험기를 읽고 아프리카 대륙에 대해 호기심을 품었으며 신비와 기이함으로 가득 찬 대륙을 동경해왔다. 특히 라이더 해거드(Rider Haggard)의 *King Solomon's Mines*를 읽은 후 이 소설의 주인공과 자신을 동일시했으며 이 경험이 그린으로 하여금 전대미답의 아프리카 오지에 뛰어들게 했다.⁴⁾ 그러므로 그가 처음으로 아프리카 탐험을 가게 된 동기도 권태와 자살충동으로부터의 탈피보다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이끌림 때문이다.

1935년 그린은 아프리카 내륙을 탐험했다. 그는 뜨거운 열대 기후와 황열병, 심지어 죽음을 무릅쓰고 두 달간 수백 마일의 오지를 정확한 지도도 없

4) Marie-Françoise Allain, *The Other Man: Conversation with Graham Greene*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83), p. 65.

이 횡단했다. *Journey without Maps*는 여행에서 일어난 일과 주민들과의 만남 그리고 서아프리카의 이상야릇한 풍습과 생활양식에 대한 얘기를 전한다. 그린은 이 여행기의 첫 머리를 해충과 질병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한다.

I had read in a British Government Blue Book that May:

The rat population may fairly be described as swarming, the wooden and corrugated iron houses lend themselves to rat harbourage. . . . The absence of any attempt by the government, not only to take effective steps to control yellow fever of plague, but even to arrange for the notification of yellow fever, as well as the complete lack of medical supervision of ships touching the Liberian coast. . . . The great majority of all mosquitoes caught in Monrovia are of a species known to carry yellow fever.⁵⁾

영국 정부의 공식 문서에서 라이베리아는 이와 같이 쥐와 모기가 서식하는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나라로 소개된다. 공신력 있는 믿을만한 정보를 통해 작가가 사전 지식을 얻듯이, 독자들은 그린의 기행문을 통해 라이베리아에 대한 견문을 얻는다. 그러나 아름다운 자연경관이나 이국적 정취에 대한 언급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그의 여행기는 서두부터 아프리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득하다. 그가 전달하는 아프리카에 대한 주관적인 지역정보는 주민들의 생활상 대신 해로운 벌레들의 서식처이자 전염병의 온상이라는 언급으로 점철되어 있다. 그린의 기행문 전체를 통틀어 특히 해충에 대한 언급은 상당히 많이 나온다. 잦은 언급은 곧 독충의 창궐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도 쥐에 대한 묘사는 대표적인 예이다.

5) Graham Greene, *Journey without Maps* (London: The Bodley Head, 1978) p. 4. 이후 이 작품에 대한 인용은 쪽수만을 명시한다.

I wanted something to make me sleep; but drink was quite useless for that purpose and most of the night I lay awake listening to the rats cascading down the walls, racing over the boxes. I had already learned that one could not touch the earthen floor with naked feet without catching jiggers under the nails; now I learned that at night anything left outside a case would be eaten - by cockroaches or rats. They would eat anything: shirts, stockings, hair-brushes, the laces in one's shoes. (147)

밤마다 잠을 방해할 뿐 아니라 온갖 물건들까지 먹어치우는 쥐는 참으로 무시무시하고 가공할 동물이다. 가장 혐오스러운 동물들이 박멸되거나 퇴치되지 않고 인간의 삶 속에 파고들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독자들에게 극도의 불쾌감과 거부감을 불러일으킨다. 인간에게 직접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이 동물에 대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그 수가 많기 때문이다. 쥐들의 그 엄청난 수는 런던의 가장 복잡한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수에 버금간다.

There are said to be as many rats as human beings even in England in the large towns, but the life they lead is subterranean. Unless you go down into the sewers or haunt the huge rubbish dumps which lie beyond the waste building lots under a thin fume of smoke, you are unlikely to meet a rat. It needs an effort of imagination in Piccadilly Circus to realize that for every passing person, there is a rat in the tunnels underneath. (147)

그린은 여기서 득실거리는 많은 쥐를 실감나게 그리기 위해 그 숫자를 피카

디리 광장의 인파에 비유하고 있다. 물건을 마구 집어 삼키는 쥐의 게걸스러움은 물론이고 대도시 인구수만큼 많은 쥐가 인간의 주거지역에 서식한다는 사실을 문명인들은 믿기 어려울 것이다. 이처럼 아프리카는 영국에서 가장 더럽고 지저분한 “하수구”나 “쓰레기더미”의 이미지에 연결된다.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쥐가 흉측한 모습으로 떼지어 다니는 모습은 우리의 상상을 말할 수 없을 만큼 혐오스럽고 불결한 이미지로 가득 채운다. 게다가 이곳의 쥐는 “요람 속 아이의 코와 귀를 갉아먹으며, 한번은 굶주린 쥐가 폐쇄된 탄광 안에 들어온 사람을 집어삼키기도 했다(They have nibbled at the ears and noses of infants in their cribs; starving rats once devoured a man who entered a disused coal-mine.)” (149).

이처럼 식인쥐는 각종 병균의 매개체일 뿐 아니라 심지어 사람을 물어뜯는 공포의 대상이기도 하다. 여행을 하는 동안 줄곧 해충의 위협에 시달리며 고통을 겪은 그린은 아프리카를 인간의 땅이라기보다 해충의 땅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이 책의 끝 부분에서 피곤이 쌓이고 건강이 나빠짐에 따라 아프리카에 대한 기억을 “옷을 갉아먹던 바퀴벌레, 바닥의 쥐, 목구멍으로 넘어오는 먼지, 손톱 밑의 진드기, 피부에 달라붙던 개미(. . . cockroaches eating our clothes, rats on the floor, dust in the throat, jiggers under the nails, ants fastening on the flesh.)” (164) 뿐이라고 술회한다. 게다가 이 나라는 개미의 왕국이며 한 번 물리면 칼에 베인 것처럼 아픔을 유발시키는 이 개미야말로 “숲 속의 진정한 주인이자 통치자(the real owners and rulers of the bush)”(113)라고 말한다. 그린의 여행기의 무대인 아프리카에서 소위 사람은 살지 않는 것처럼 완전히 배제된다. 즉, 식민지를 빈 공간(emptiness)으로 보는 그린의 견해는 이곳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기정사실을 부인한다.⁶⁾ 그러므로 곤충의 위력에

6) Alastair Pennycook, *English and the Discourses of Colonialism* (London: Routledge, 1998) p. 55.

압도당해 무력해진 사람 대신 곤충이 아프리카의 실제 통치자로 행세한다.

집요할 만큼 계속 반복되는 “해충”과 “오물”에 대한 언급은 깨끗하고 안전한 유럽 문명과 대조를 이루며, 쓰레기와 질병 그리고 이를 떠안고 살아가는 아프리카인들은 제거해야 할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해충에게 가할 수 있는 박멸 행위와 야만인을 근절하는 인종학살은 동격을 이룬다. 살 가치가 없는 쓸모없는 해충이 죽음의 표적이 되듯이, 지구상에서 없어진 열등하고 약소한 민족의 말살과 이들의 생명권의 파괴는 정당화된다. 여기서 스벤 린드크비스트(Sven Lindqvist)의 말은 이를 뒷받침하는 패러다임 즉, 사회다윈주의⁷⁾을 연상시킨다. 그에 따르면 인류의 최하등 종족은 도덕적, 지적 퇴보의 가장 끔찍한 모습을 보이며 멸종할 운명에 처해있고 그 이유는 어둠, 태만, 그리고 야만적 무지가 유럽의 지식, 산업 및 빛의 약진과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⁸⁾

이처럼 아프리카의 야만과 어둠은 유럽의 앞선 지식과 고도의 산업을 통해 추방하고 척결해야할 대상이 된다. 낯선 아프리카에 대한 적개심이 갈수록 증폭됨에 따라 그린은 악의적 표현을 서슴지 않는다. 그가 부패와 질병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힐수록 그의 표현방식 역시 지나칠 만큼 뒤틀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프리카에 사는 모든 생명체는 “악의 화신”으로 둔갑하며 온갖 부정적 이미지가 이들에게 가차 없이 투사된다. 이제 아프리카는 악의적 생명체가 득실거리는 흉악한 땅으로 전락한다.

한편 그린의 또 다른 여행지인 시에라리온은 서부 해안에 위치한 나라이

7) 멜서스(T. R. Malthus)의 인구론에서 "생존경쟁과 자연선택"이라는 아이디어를 얻은 찰스 다윈(Charles Darwin)의 『종의 기원』(*The Origin of Species by Means of Natural Selection*) (1859)은 애초 생물학적 기초에서 출발했으나 유럽의 제국주의를 강화하는 이론적 기초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진화론은 발표 이후 때마침 유행하던 강대국에 의한 식민지 쟁탈 현상과 연결되어 곧바로 사회다윈주의(Social Darwinism)로 비약되었다. 당시 스펜서(H. Spencer)는 제국주의가 열등 인종을 지상에서 쓸어버림으로써 문명 세계의 구축과 발전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진화론은 왜곡의 정도가 심해지면서 인종차별과 사회우생학 등 사회적 병리 현상도 나타났다. S. Samuel Shermis, "Social Darwinism," *Introduction to Social Justice*, 1998, Purdue University, North Carolina, Oct. 2005 <<http://www.ioa.com/~shermis>>.

8) Sven Lindqvist, 김남섭 역, 『야만의 역사』 (서울: 한겨레 신문사, 2003) p. 213.

며 적도와 거의 맞닿아 있는 곳이다. 그린의 “세상에서 가장 건강에 해로운 지역(the unhealthiest clime of the world)”(23)이라고 하는 이곳은 대서양중에서도 “묘지(graveyard)”(23)로 알려진 위험지역이다. 뜨거운 열기로 인해 해상 여행자들은 이질, 광기, 열사병에 쉽게 감염되며 “아무리 강인한 사람도 더위 때문에 불쾌감을 느끼며 인내심이 강한 사람도 버텨내지 못한다(The hardest men are offended with the heat, and the stiffest clowns cannot resist it.)” (23). 죽음과 질병이 맹위를 떨치는 수도 프리타운(Freetown)은 또 다른 묘지가 된다. 가장 위생적이라는 수도에서조차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다.

There wasn't a cinema that a white man could go to, and books of course rotted in the damp or developed worms. You developed worms too yourself, after you'd been out a little time; it was inevitable; nobody seemed to mind. Freetown, they told you, was the healthiest place on the Coast. The day I left, a young man in the educational department died of yellow fever. Worms and malaria, even without yellow fever, are enough to cloud life in “the healthiest place along the Coast.” (38)

습기 때문에 종이는 곧 눅눅해지고 벌레들 때문에 책은 썩어버린다. 책 한 권, 영화 한 편 볼 수 없는 이 곳은 백인들에겐 척박한 황무지이다. 온전한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곳에서의 문화생활은 한가한 사치 행위에 불과하다. 사람들은 종교와 정치 그리고 책 얘기로 대화를 시작하다가도 어느새 화제는 말라리아, 전염병, 열병으로 바뀌고 만다.

실제로 그린도 간타(Ganta) 지방에서 열병에 걸렸고 20살의 키니네를 삼킨 후 두꺼운 모포를 둘러쓰며 죽을 고비를 넘겼던 경험을 그의 자서전

*Ways of Escape*에서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곳에서 매일 키니네를 정량 먹는 일은 “마치 식사 때 식탁포를 까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 . as natural as the tablecloth at meals.)” (20) 행위이다. 그린은 마을에서 추장이 따라주는 술도 마시지 않으며 황달에 걸릴까봐 두려워 강물에서 목욕조차 하지 않는다. 그는 “어떻게 리빙스턴이 문명 세계로 돌아가지 않고 그토록 오랜 생활을 할 수 있었는지 믿을 수 없다(. . . almost incredible that Livingstone could have gone on for so long without returning to civilization.)”(243)라고 의문을 제기한다. 이처럼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은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며 불모의 땅에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폐해진 이들은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 여기저기 산재해있는 죽음의 무덤은 아프리카의 숲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위험한 동물이 득실거리는 숲을 통과하며 그린은 “뱀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머리 위를 맴도는 덩치 큰 새의 울음소리 그리고 온 천지에 가득한 개미(snakes, the sound of heavy birds creaking invisibly overhead, and ants everywhere)” (180) 등을 만난다. 초록빛을 잃은 황량함만 있을 뿐 전망이나 경치의 변화 등 눈길을 끌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숲에서 그는 “나무뿌리와 바위를 피하기 위해 땅바닥에서 시선을 뺄 수 없었다(the eyes had to be kept on the ground all the way to avoid the roots and boulders.)” (181). 반면 그린은 영국의 시인 하우스먼(A. E. Housman)의 시를 인용하며 아프리카 숲의 황량함과 서양 숲의 생명력을 대조하고 있다.

Tell me not here, it needs not saying,
 What tune the enchantress plays
 In aftermaths of soft September
 Or under balancing mayes.
 For she and I were long acquainted

And I knew all her ways. (182)

And full of shade the pillared forest

Would murmur and be mind. . . . (183)⁹⁾

이처럼 서양의 숲에는 아름다운 요정이 살며 길은 녹음이 우거지고 마치 오랜 친구와도 같이 정답고 친근하다. 그 길목을 훤히 알고 있기에 길을 헤매지 않아도 되고 자연이 곧 내 것이 됨으로써 자연과 나는 하나가 된다. “살아있는 생명력과 아름다움(active natural force and beauty)”(180)을 지닌 유럽의 숲에 비해 아프리카의 숲은 위험한 동물이 수시로 출몰하며 아름다리나무 대신 밭에 채이는 나무뿌리와 바위, 죽은 잡초밖에 없다. 따라서 아프리카의 숲에서 유럽의 숲처럼 향수와 매혹적 느낌을 얻기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곳은 화분에 뒤섞여있는 “죽은 잡초(dead weed)”이며, 이는 “정신적 혼란(mental derangement)”(183)을 암시한다. 하우스먼의 시에 나타나 있듯이, 서양의 숲은 살아있는 생명체이며 인간은 자연을 동경하고 그 속에서 일치를 이루고자 한다. 그러나 그린에게 아프리카의 숲은 어느 누구의 동경과 일치의 대상도 되지 못하며 “숲은 살아 있었던 적도 없으니, 죽은 숲이라고 말하는 것도 잘못(It was wrong to think of it as dead, for it had never been alive.)”(183)인 것이다.

아프리카는 유럽을 벗어나 본적이 없는 그린에게 첫 여행지였다. 그는 유럽식 숲이 아닌 뾰뾰한 밀림에 압도당했고 “공화국의 대부분이 밀림으로 뒤덮여 있고 지도상에도 제대로 표시되어 있지 않다(The Republic is almost entirely covered by forest, and has never been properly mapped.)”(41)라고 했다. 오지 탐사에 앞서 그린은 암담함과 두려움을 드러낸다.

9) A. E. Housman, 'Epitaph on an Army of Mercenaries' (1914) XL, 9-14. 12-13.

I had never been out of Europe before; I was a complete amateur at travel in Africa. I intended to walk across the Republic, but I had no idea of what route to follow or the conditions we would meet. Looking at the unreliable map I had thought vaguely that we would go up to the Sierra Leone railway terminus at Pendembu, then go across the frontier the nearest way and strike diagonally down to the capital. There seemed to be a lot of rivers to cross, but I supposed there would be bridges of some kind; there was the forest, of course, but that was everywhere. One apparently reliable book I had read on Sierra Leone mentioned a number of prospectors who had crossed the border into what was supposed to be an uninhabited part of the forest looking for gold and had never returned; but that was a little lower down. (44)



지도는 단순한 그림이 아닌 문명의 상징이다. 또한 여행자에겐 필수적인 이정표이며 길잡이이다. 그러므로 초행길을 가는 여행자에게 지도가 없는 곳에서의 삶은 힘겹고 고달프게 마련이다. *Journey without Maps*라는 제목은 바로 이러한 힘들고 고된 여정을 암시한다. 사실상 그린어 찾아가는 곳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필품은 물론 그 외의 문화적 생활을 전혀 누릴 수 없는 삭막하고 황폐한 땅이다. 이러한 곳으로의 지도없는 여행은 “상실”, “혼돈”, “실종”, “좌초” 등의 부정적이고 위험한 요소를 내포한다.

그린이 감행했던 이정표 없는 여행은 그야말로 나침반 없는 표류이자 정신적 혼란을 의미한다. 그에 따르면 미국지도는 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을 큰 글씨로 “식인종 지구(cannibals area)”(42)라고 표시해 놓았다고 한다. 사람들은 지도상의 밀림을 보며 식인종을 떠올리거나 “머리가 두개 달

린 인간과 전설상의 짐승인 엘도라도(Eldorado, two-headed men and fabulous beasts)”(42)를 생각하게 된다. 이처럼 정확하지 않은 지도는 쓸모없을 뿐 아니라 이를 참고하는 일은 더 위험한 일이다. 따라서 엘도라도를 찾아 떠난 탐험가들은 서양의 숲에 나오는 아름다운 요정이 아닌 식인종의 위협에 노출된다. 이들에게 아프리카의 밀림은 죽음의 무덤이 된다.

반면에 미국지도와 달리 영국인은 미개발된 오지를 빈 공간으로 남겨두었는데, 이는 아프리카 영토에 대한 전횡을 암암리에 시사한다. 비평가 패니콕(Pennycook)에 따르면 여행가나 작가는 신대륙을 비어있는 공간 즉, 타블라 라사(tabula rasa)로 묘사했고 그곳을 자신들의 언어, 문화, 영토적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곳으로 인식했다고 한다.¹⁰⁾ 다시말하면 피지배국민은 역사, 문화, 신앙, 지식이 모두 결여되었기 때문에 이런 빈 공간을 채워주는 것이 유럽인의 명백한 임무라고 믿는 것이다. 오귀드(Ogude)가 분석했듯이 그린에게 있어서 이 탐험은 마치 백인 밀수꾼이 아프리카 대륙을 마음껏 누비고 다니는 것처럼 텅 빈 공간에 유럽인의 사명을 전파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¹¹⁾ 그러므로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지도조차 갖고 있지 못한 아프리카는 역사도 진보도 없는 곳으로 규정되고, 유럽인에 의한 탐험과 정복은 문화적 변혁의 이름으로 정당화된다.

2. 야만과 미개의 사회

자연환경과 지리조건에 대한 묘사에서 드러난 그린의 부정적인 시각은 그 대륙에 사는 원주민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원주민은 언제나 집단적인 군

10) Pennycook, p. 55.

11) S. E. Ogude, “In Search of Misery: A Study of Graham Greene's Travel in Africa,” *Odu (Ile-Ife, Nigeria)* 11 (1975): P. 77.

집 형태로 묘사되고 포괄적인 한 무리로만 다루어지며 이들 개개인의 특성이나 주관성은 무시된다. 원주민들을 하위 인간으로 취급하는 그린은 이들을 “우스꽝스런 메뚜기들(silly grasshoppers)”(58)에 비유한다. 곤충수준으로 격하된 원주민들은 “고깃덩어리 위에 몰려든 파리떼(flies on a piece of meat)”(31)로 묘사되고 떼지어 다니는 군상들의 흉칙함은 그 압도적 숫자에 비례한다. 인격적 무게와 가치를 갖지 못한 원주민들은 “크리스마스 때 홀본 가게에서 팔았던 양철 장난감(tin toy figures sold in Holborn at Christmas time)” (30) 등에 비유된다. 그린은 이 여행기의 앞머리에서 “아프리카는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야수의 형태를 지니고 있다(Africa may take the form of an unexplained brutality.)”(8)라고 지적한다. 아프리카의 바다, 대지, 숲, 사람 모두는 문명인의 시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미개함과 원시성을 함의한다. 앞서 지적했듯이 질병의 온상인 아프리카의 대지와 숲이 죽음의 이미지와 연결되면서 섬뜩한 공포심을 유발시켰다면, 이 장에서 살펴보게 될 원주민의 생활상은 문명과 단절된 인간의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혐오스러운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그린이 부지 마을(Buzie county)에 들렀을 때 마을 주민들은 난생 처음 보는 백인을 에워싸고 가까이 주시한다.

They had never before had a chance of examining white people closely. . . . This intent unamused stare got on the nerves. And they were so ugly, so diseased. The thought of disease began to weigh on my mind; I seemed to swallow it in the dust which soon inflamed my throat. (145)

이처럼 그린은 흑인들의 시선을 매우 부담스러워 하면서 마치 그 눈길을 통해 더러운 병균이라도 옮은 듯 역겨워한다. 그는 “배설물(the dung)”, “창녀

(the bitches)”, “발바닥 종기(the sores on the feet)” (145) 등 가장 지저분한 수식어를 동원하여 이들의 걸모습을 묘사한다. 병균과 오물에 범벅된 이들의 모습은 인간 이하의 물건처럼 취급받는다. 원주민과의 대면은 그에게 불안과 불신으로 가득찬 경험이 되며 거기서 느낀 무의식적인 적대감과 공포심 등이 그가 보인 가장 전형적인 반응임을 알 수 있다. 원주민을 더러운 벌레처럼 생각하는 그의 편견은 이들과의 유대관계를 불가능하게 한다. 그린의 들렀던 마을 중 가장 깨끗하다는 카일라훈(Kailahun)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이 곳에서 그린은 처참한 광경을 목격한다.

Kailahun, in memory, has become a clean village, one of the cleanest we stayed in, but what impressed me at the time was the dirt and disease, the children with protuberant navels relieving themselves in the dust among the goats and chickens, the pock-marked women smeared about the face and legs and breasts with some white ointment they squeezed from a plant in the bush and used for beauty and for medicine. They used it for smallpox, for fever, for toothache, for indigestion, for every ailment under their bleak sun. (60)

“불결”과 “질병”은 마치 아프리카의 대명사처럼 이제 그린의 화두가 된다. 최소한의 의학 상식도 모르는 이 원주민들은 수액을 만병통치약처럼 사용한다. 의료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이들에게 질병은 퇴치의 대상이 아닌 숙명이며 삶의 일부이다. 염소와 닭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이들은 인간이라기보다 차라리 짐승에 가까운 존재이다. “마마 자국이 있는 여자”와 “배가 불룩한 아이들”은 바로 질병과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현실을 대변한다. 어느 날 그린의 타피(Tapee)와 코스트(Coast)의 중간 지점에 있는 마을에 이르렀을 때 가엾은 한 남자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그에게 찾아온다.

He asked me whether I was a doctor and I said that I had a few medicines, but when he told me it was gonorrhoea he suffered from, I had to admit that nothing I had with me would help him. The information took a long time to penetrate. The sight of a white man had made him hope; he just stood there waiting for the magic pill, the magic ointment, then moved dispiritedly away to sit in his own hut and wait for another miracle. (259)

원주민은 백인인 그린을 “희망”이라고 생각하며 심지어 그린에게 “기적의 마술”을 기대한다. 절망적인 원시 상태에서 병에 걸려도 약이라고는 수액이 전부인 그들에게 서양의 알약이나 연고는 생명의 묘약일 수밖에 없다. 그린은 새삼 문명의 위력을 절감한다.

아프리카인을 대하는 그린의 태도에 대해 마리아 꾸또(Maria Couto)는 여행이 길어짐에 따라 그린의 백인으로서의 위세는 점차 줄어들며, 반면에 흑인 사회를 들여다볼수록 그들에 대한 동정심과 이해의 폭이 점차 커지고 있다고 평한다.¹²⁾ 그러나 그린에 대한 꾸또의 이런 우호적이고 긍정적인 평가를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갈수록 누적되는 원주민에 대한 몰이해와 경계심 그리고 두려움에서 비롯된 적대적 관계가 여전히 그린의 태도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린은 이들을 가엾게 여기거나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기회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이 명백하다. 물론 아프리카인을 서술한 그린의 냉정하고 부정적인 내러티브로 보아 그를 잔학함을 즐기는 가학자로 단정 짓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그의 내러티브에서 병든 흑인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동정심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오히려 오취드의 지적처럼 그린은 “철

12) Maria Couto, *Graham Greene: On the Frontier - Politics and Religion in the Novels* (London: Macmillan Press, 1988) p. 118.

저하게 냉혹하고 무정한 백인의 시선(the heartless perfect eye of white man)”(33)으로 아프리카의 구석구석을 관찰하고 있다는 분석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¹³⁾

한편 라이베리아의 오지학교에서는 거치른 자연과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을 가르친다. 매우 외지고 으스스한 곳에 위치한 오지학교에 가려면 커다란 숲을 따라 들어가야 한다. 이상하게 잘린 나무들이 늘어선 길은 곧 뻑뻑한 덩불 사이로 사라져버린다. 이곳의 아이들은 대부분 오지학교를 다니며 초능력을 가진 이 학교의 교장은 야자잎으로 만든 무시무시한 가면을 쓰고 악마춤을 춘다. 원주민 아이들은 이 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성인취급을 받지 못한다. 과거에 어느 부락에서는 이 과정이 7년이나 지속되었다. 이들은 숲으로 가기 전 “각 부족의 상징인 문신(tattoo which is the symbol of each tribe)”(95)을 맨살 위에 칼로 새긴다. 살벌하고 혹독한 이 학교는 아이의 생사도 개의치 않은 채 오지에서의 맹훈련을 강행한다.

The children are confined to the bush; if a child dies his belongings are deposited outside his parents' hut at night as a sign that he is dead, and he is buried in the bush. When the children emerge again they are supposed to be born away. (95)

이 학교의 교육 목적은 지식 전달이 아닌 오로지 거친 자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전략을 스스로 터득하게 하는데 있다. 사치스런 지식 교육이 무의미한 이 곳에서는 오직 질병과 죽음을 극복하는 것만이 절대 가치로 통한다. 매서운 오지 훈련이 왜 중요한지 그린은 실생활을 통해 경험한다. 그는 바라훈(Balahun) 선교지에 있는 슈페리어 신부(Fr. Superior)에게 전갈을 보낸다. 꼬박 하루가 걸리는 곳에 인편으로 편지를 전달하는 방법은 그린의 보

13) S. E. Oguide, “Graham Greene’s Africa,” *Odu (Ile-Ife, Nigeria)* 14 (1976): p. 42.

기에는 가히 중세적인 방식이다. 그러나 누구도 심부름꾼에게 노자나 수고비를 주지 않는다. 심부름꾼은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통로만 있는 뻥뻥한 수림을 헤쳐지나가면서도 결코 길을 잃는 법이 없다. 그러므로 이들이 “영국의 우체국만큼 신뢰할만한(as reliable as the English post office)” (65) 정확성과 신속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오지학교의 훈련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그린은 여기서 영국의 우체부가 교통과 통신망의 발달로 편리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하며 보수를 받는 대신, 아프리카에서는 무보수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자체가 목숨을 건 위험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유럽인으로서의 그린은 아프리카인들의 의료나 교육 등 이들의 생활상을 돌아보며 두 문명간의 엄청난 차이와 다름을 인식하며 그가 매긴 인종적 우열 순위에 의해 그 변별성은 더 강조된다. 즉, 원주민에게서 자신들과 “같음”을 발견하지 못한 유럽인들은 자신들의 기준으로 원주민의 문화를 저울질한다. 유럽인들은 원주민의 이질적 문화의 다양성을 무가치한 것으로 치부할 뿐 본질적 차이에 대해 어떤 이해도 기울일 생각을 하지 않는다.¹⁴⁾ 말하자면 타자가 지닌 이해할 수 없는 갖가지 상이함을 접하며 유럽인들은 오직 “같음”과 “다름”이란 단선적 반응만을 보이는 것이다. 문화란 그 지역의 구체적이고 오랜 삶의 역사에서 발생하는 필연적 산물이며 그 적합성의 우열을 견줄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와의 문화적 “차이”는 유럽인들에게 곧 차별과 경멸의 근거로 작용한다. 또한 타자의 이질적인 문화 기반은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퇴치와 개혁의 대상이 된다. 작품 곳곳에서 그린은 느끼는 원주민 문화에 대한 맹목적인 거부감과 근거 없는 두려움은 그에게 계속해서 정신적 불균형을 가중시킨다. 그러므로 그린은 오지학교의 타당성에 대해 아프리카의 특이한 문화적 배경 하에서 이해하기보다는 잔혹

14) Abdul R. JanMohamed, “The Economy of Manichean Allegory: The Function of Racial Difference in Colonial Literature,” *“Race,” Writing, and Difference* ed. Henry Louis Gates, Jr. (Chicago: Chicago UP, 1986) p. 85.

하고 야만적인 학교 운영 방식만을 부각시킨다.

오지학교에 이어 그린은 마을 추장의 이색적인 장례식을 우연히 목격한다.

Christianity and paganism both marked the dead man's grave, for there was a rough cross stuck on the mound to propitiate the God whom the old chief had accepted on his deathbed, while in a pit close by, following a pagan rite, sat eight wives, naked except for a loin-cloth. Other women were smearing them with clay; it was rubbed even into their hair. (92)

추장이 죽은 후 기독교와 이교라는 상반된 문화가 망자의 묘에 동시에 새겨진다. 두개의 이질적인 종교는 십자가와 진흙이라는 가장 단순한 형태로 드러난다. 단지 십자가만이 꽃혀있을 뿐 정작 장례식에 참석한 유가족은 온몸과 머리까지 진흙으로 뒤덮은 8명의 미망인들이다. 게다가 사람이 죽은 후 장례식을 치루는 3일 동안 연일 악마춤이 계속되는데 이 춤을 추는 사람은 다름 아닌 오지학교의 교장이다. 40일째 되는 날 그는 나무이빨을 끼우고 라피아(Raffia) 야자 치마를 흔들며 장례식 때와 똑같은 전통춤을 춘다. 그린은 악마의 가면을 쓰고 마을의 대소사를 관여하는 그의 모습이 영국의 럭비 학교 교장 토마스 아놀드(Thomas Arnold)¹⁵⁾보다 더 무섭다고 전한다. 진흙 범벅이 된 미망인들과 교장의 악마춤을 보고 그린은 야릇한 감정에 휩싸인다. 그는 실제 지기타(Zigita)지방에서 악마춤을 본 후 자신도 모르게 악한 기운에 사로잡히게 되었다고 말한다.

15) 토마스 아놀드(Thomas Arnold, 1795-1842)는 고전주의를 신봉하는 영국의 교육자이며 1827-1842년까지 럭비 학교(Rugby School)의 교장을 역임했다. 엄격한 감독 체제를 도입한 그의 교육 개혁은 럭비 뿐 아니라 수학, 역사, 외국어 등 중등 교과목에 많은 영향을 미쳤고 고전에 입각한 정통적 커리큘럼의 사용을 주장했다. "Thomas Arnold," *Encyclopedia.com, The Columbia Encyclopedia*, Sixth Edition, 2001-2005, Sep. 2005 <<http://www.encyclopedia.com>>.

There was certainly something bad about Zigita. I never felt quite well again until I reached the Coast. It was not that I believe in the devil's power so much as in the power of my own mind. The suggestion of malice and evil here was so great that I could imagine it influencing my mind until I half believed, and a half-belief can be strong enough to affect the health. So in a way I was just as glad to leave Zigita as the carriers were. They broke into song as soon as they got beyond its boundaries. (160)

악의 세력에 대한 그린의 언급은 “유럽인은 아프리카 대륙을 야만과 미신, 광신에 사로잡힌 곳이자 신의 경멸과 저주를 받은 곳이며 식인종이 사는 나라로 취급한다”는 프란츠 파농(Frantz Fanon)의 지적을 연상시킨다.¹⁶⁾ 깨끗한 상복이 아닌 진흙으로 범벅이 된 미망인이나 장례미사가 아닌 망자를 위한 악마춤 따위는 서양인의 눈에 야만과 미신의 의식에 불과하다. 이해와 소통에 앞서 아프리카 문화에 대한 본능적인 역겨움과 감출 수 없는 두려움을 그린은 떨쳐내지 못한다.

앞서 잡초가 무성한 아프리카의 숲을 정신적 혼란 상태로 비유했듯이 아프리카의 토속 종교를 접한 후 그린은 또 한번의 신앙적 혼란에 빠진다. 가톨릭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지의 뿌리깊은 이교 문화에 압도당한 그는 전통춤과 주물 숭배를 철저히 믿는 원주민에게 기독교를 전파하는 일이 무척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As for the dances and the fetish worship, the missionaries have not the power to stop them if they wished to; Christianity here has its back to the wall. Converts are

16) Frantz Fanon, *The Wretched of the Earth* (New York: Grove Press, 2004) p. 32.

comparatively few. (89)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그린은 원주민들이 개종을 해도 물질적인 혜택이 전무했고, 단지 공포로부터의 해방이나 희망을 얻는 등의 영적인 혜택에 불과했기 때문이라고 파악한다.

이처럼 원주민의 실태를 일일이 돌아보며 그린은 아프리카와 문명 세계와의 엄청난 괴리를 절감한다.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듯 진화가 정지된 아프리카의 원시사회에서 문명은 단절되고 전파될 가능성조차 없어 보인다. 아프리카식 교육과 의료, 종교에 길들여진 이들은 서양문명을 유입해야 할 필요성을 미미하게 느낄 뿐이다. 원시와 현대의 메울 수 없는 간격은 수천 년의 시간의 간극만큼이나 까마득하고 막막하게 보인다. 따라서 서양 문명의 씨앗이 뿌려진들 그것이 전파될 소지는 매우 희박하다. 서로의 우열을 가릴 비교 대상도 되지 못하는 기막힌 아프리카의 현실 앞에서 그린은 황당함과 막막함만을 느낀다.

이와 같이 소통과 이해부족에서 오는 문화적 괴리는 공포와 의심을 유발시키며 전체 작품을 통하여 아프리카에 대한 적대감과 거부감을 가증시킬 뿐이다.¹⁷⁾ 한편 마리아 꾸또는 이와는 전혀 다른 견해를 제시하는데, 그녀에 따르면 그린에게 있어서 아프리카는 사심없는 우정과 따뜻하고 선 마음이 통하는 정신적 본원이었다.¹⁸⁾ 그러나 설사 “마음이 통하는 세계”를 꿈꾸었다 하더라도 소통과 상호 이해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그의 정신적 불균형은 깊어갈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꾸또의 견해처럼 그린의 아프리카에서 정신적 본원을 찾았다기보다는 오히려 정신적 충격과 괴리감만을 얻었다고 보는 것이 훨씬 타당할 것이다.

17) Ogude, "Graham Greene's Africa," p. 57.

18) Couto, p. 13.

3. 흑과 백의 위계질서

그린은 서아프리카 숲속을 관통하는 오지 여행에 필요한 장비를 나르기 위해 짐꾼을 고용하며 이들과 고된 행군을 함께 한다. 그러나 40일 동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을 넘나들면서도 그린의 원주민 짐꾼들과 나눈 대화나 교감은 이 작품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이들은 개별적으로 묘사되는 법이 없고 다만 하나의 집단으로 일반화된다. 이들을 대변하는 일반적 코드는 야만과 무식 그리고 미개와 불결이다. 유럽인이 쓴 대부분의 책들은 원주민과의 교류를 서술하거나 그들의 언어를 자세히 소개하지 않는다. 즉, 삶의 현장에서 원주민과 접촉하며 일어나는 구체적인 일들은 언급되지 않는다. 원주민들은 어디를 가든 늘 유럽인과 동행하며 숫자상으로도 압도적으로 많지만 이들의 언어는 침묵으로 일관될 뿐이다.¹⁹⁾ 이들은 인격적 주체라기보다 하나의 도구로 취급된다.

이런 현상은 마치 제국주의자들이 정복한 나라의 자원을 관리하듯이, 원주민은 식민담론을 구사하는 작가에 의해 단지 소설의 “소재”로만 이용된다. 이들은 정형화(stereo type)의 과정에서 열등 인종으로 분류, 강등되며 마치 주인의 기분에 따라 조종당하는 장난감처럼 묘사된다. 한 명의 백인이 아프리카인 일개 소대를 지휘하는 듯한 상명하복 과정은 곧 식민지배자와 피지배자의 종속 관계를 드러낸다.

“Off!” I said. I felt like a subaltern facing my platoon for the first time. I couldn't really believe that when I said “Off!” the twenty-five carriers would be set in motion. I stood back and watched them with an odd feeling of pleasure, an absurd

19) Mary Louise Pratt, “Scratches on the Face of Country: What Mr. Barrow Saw in the Land of Bushman,” *Race, Writing, and Difference* ed. Henry Louis Gates, Jr. (Chicago: Chicago UP, 1986) p. 139.

sense of pride, when like a long mechanical toy they were set in motion and wavered and straightened and strode out through the village. (70)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유럽인은 원주민을 복종하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새 주인임을 인식시키며 더 깊은 예속을 강요한다. 이에 대해 잔모하메드(JanMohmed)는 유럽인들이 갈수록 나르시즘에 빠져 원주민을 인간이하로 과소평가하며 이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투사한다고 분석한다.²⁰⁾ 우리는 여기서 다수의 흑인 무리를 백인 혼자 마음대로 주무르려는 그런의 식민 이데올로기를 엿볼 수 있다.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의 이론가 호미 바바(Homi Bhabha)가 지적하듯이 이와 같은 “식민 이데올로기는 편견과 차별을 포함하는 낡은 신화적 흔적과 같은 것으로써 식민 통치자는 이것이 현존하는 것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²¹⁾ 그러므로 그런은 자신이 차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통제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들 위에 군림한다.

백인의 임무를 흑인에 대한 통제와 지배라고 믿고 있는 그런에게 흑인의 임무는 백인에 대한 헌신적 봉사과 충성일 수밖에 없다. 그는 자신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짐꾼들을 마치 로봇과 같은 존재로 생각한다. 길게 늘어선 인간이란 “장난감 기계”를 마음대로 조종하며 그는 쾌감과 자만심을 느낀다. 이와 같은 심리상태에 대해 바바는 식민주의자란 자기만이 주인이라고 믿는 자기과시주의자인 반면에, 명령의 사슬에 얽매인 원주민은 의사무력증에 빠지며 이는 식민주의자를 더욱 유혹하고 자극하게 한다고 분석한다.²²⁾

원주민들을 마치 개인의 소유물인 것처럼 함부로 다루는 그런의 태도는 원주민 짐꾼들의 일상에 대한 언급에서도 잘 드러난다.

20) JanMohamed, p. 85.

21) Homi K. Bhabha, *Location of Culture* (London: Routledge, 1994) p. 175.

22) Bhabha, p. 233.

They are used to one meal in the day at evening, they live on the edge of subsistence. It was always the same through-out the four weeks of marching; whenever they had a breakfast they worked badly, grumbled and made palavers; when food became scarce they worked well and were happy. On one occasion they spent nearly forty-eight hours without food and at the end of that time they were fresher than they had ever been. (129)

그린은 원주민들이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 일당을 지급하지만 이들에 대한 인간적 대우는 고사하고 끼니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는다. 개인적 오지탐험을 위해 고용한 이들에게 최소한의 편의제공이나 정당한 보상에 대해서도 일체 염두에 두지 않는다. 게다가 “길목마다 덫을 쳐야할 만큼(every road had been guarded by a trap)” (255) 표범이 많은 지역에서도 이들의 잠 자리는 맹수의 공격에 그대로 노출된 바깥 공터에 제공된다. 심지어 이틀 동안 아무 것도 주지 않고 이들을 강행군시켰다는 그린의 증언은 착취에 다름 아닌 백인의 횡포임을 드러낸다. 오히려 음식을 주면 일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논리로 자신의 부당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그의 모습은 악독한 식민주의자의 전형을 보여준다.

따라서 비평가 장 이브 모니어(Jean-Yves Monnier)의 비판처럼 식민주의는 잘못된 정책이며 흑인에 대한 굴욕적인 차별이자 노동력의 착취이다. 서아프리카에서 문명은 바로 착취를 의미한다.²³⁾ 그린은 스스로도 이것이 수탈 행위임을 인정하며 극히 “인색한 임금(the meanest economy)”(39)을 주는 자신을 일컬어 “부당한 고용주(unjust employer)”(169)라고 밝힌다.

23) Jean-Yves Monnier, “Myth and Reality: Graham Greene's View of Africa in *Journey without Maps*,” *Commonwealth Essays and Studies* 11.1 (1988): p. 62.

The platelayers in Sierra Leone are paid six pence a day without their food. Civilization here remained exploitation; we had hardly, it seemed to me, improved the natives' lot at all. (61)

위의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린은 문명이 곧 착취이며 원주민의 삶을 향상시키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값싼 노동력을 거의 무보수로 이용하는 노동 착취의 실태에 대해 결코 반성하거나 개선하려는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그린은 이들의 불평이나 반발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자신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한다. 릴라 간디(Leela Gandhi)는 이런 태도를 대해 서양식민자는 노예를 하나의 물건으로만 인지하며, 그의 인간성은 인종주의와 폭력이라는 비인간적 병리상태에 기반하고 있다고 날카롭게 비판한다.²⁴⁾ 그러므로 서구지배자의 잘못된 인간성을 그대로 반영하는 그린은 그 중에서도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충성을 다하지 않는 짐꾼의 우두머리 반데(Vande)를 꽤 씩하게 생각한다.

In “France” the trouble with the carriers came to a head. Their complaints, the phrase “too far”, “too far”, had got on my nerves. . . . The trouble was I did not know the extent of my authority and I did not know which of them I could trust. Vande I suspected; the headman was a cheerful rogue with his pipe and his cloth cap and his rattle; but it sometimes seemed to me that he let the carriers have their own way too often. (167)

24) Leela Gandhi, *Postcolonial Theory: A Critical Introduction* (New York: Columbia UP, 1998) p. 37.

그린은 이 우두머리를 신뢰할 수 없는 사기꾼이라고 비난하며 짐꾼들의 불복종을 그의 탓으로 돌린다. 그리고 제멋대로 구는 짐꾼들의 방자한 행동을 유치한 소아병적 증상으로 치부한다. 패니콕은 이를 두고 원주민들은 어린 아이와 같아서 어른처럼 성숙해지기 위한 엄격한 도덕적 훈련과 교육이 행해져야하며, 유치한 반항을 다스릴 엄격한 규율과 권위적 통치가 필요하다고 분석한다.²⁵⁾ 식민지 기획을 성공시키기 위해 통치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원주민을 지배하고 통제했듯이, 짐꾼의 이용가치를 최대화시키고 자신이 세운 계획을 이루기 위해 그린은 이들에 대한 강압적 규율과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통치의 당위성을 굳게 믿는 그에게 “너무 멀다”는 짐꾼들의 불멘소리는 가당치 않는 항의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이 여행기에서 나온 짐꾼들의 유일한 대사와 불평은 완전히 묵살되며 이들의 목소리는 침묵으로 일관된다.

흑인에 대한 멸시와 백인으로서의 우월감은 그린으로 하여금 과대 망상적 자기도취에 빠져들게 한다. 그는 광블래밀(Kpangblamil)에서 추장 아들의 안내를 받으며 마을을 탐방한다. 전체의 길이가 150야드 남짓한 이 작은 마을을 둘러본 후 그는 “마치 산업 시찰을 끝낸 왕족과 같은 기분이 들었다 (I felt much as a member of the royal family must feel after a tour of an industrial fair.)”(125)라고 말한다. 흑인에 대해 느끼는 뿌리깊은 경멸감은 무식한 일용 노동자는 말할 것도 없고 교육받은 크리올(Creole)²⁶⁾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들 현직 관리들이 충성심을 보일수록 역설적이게도 그린은 더 심한 거부감을 느낀다.

25) Pennycook, p. 60.

26) 19세기에 접어들면서 크리올은 상업, 교회, 정치면에서 식민통치자와 원주민간의 가교역할을 담당하며 이들의 활약은 점점 중요성을 띠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이 이룩한 상업적 성공이나 정치적 세력의 확보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결코 동등한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다. 위협을 느낀 영국은 젊은 영국인 부관을 현지에 파견하며 크리올의 세력을 약화시킨다. 1892년 행정 개편 후 정부 인사 40명 중 18명이던 숫자를 1912년에는 93명 중 15명으로 인원수를 줄였다. 인종차별이 심해지며 정치 이외의 전문직에서도 크리올이 추방되는 반면 덜 위협적인 보호령 소속의 흑인은 받아들여졌다. Heron, p. 16.

They had enough power to express themselves in a soured officious way; they had died, in so far as they had once been men, inside their European clothes. They didn't complain, they hinted; they didn't fight for what they wanted, they sourly prevaricated. (33)

이처럼 프리타운에 사는 크리올은 체제에 순응적이며 식민 제도의 부당성에 항의하기는커녕 오히려 식민 제도를 더 옹호하고 지지한다. 서양옷을 입음으로써 이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외양만 바뀐 것이 아니라 의식 자체도 변화된다. 흑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자긍심도 버린 이들은 “조롱받는 사회 집단(a deprecable social group)”²⁷⁾이자 식민 체제에 길들여진 무기력한 앞잡이일 뿐이다. 흑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부정하는 이들은 백인을 동경하며 백인처럼 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인들은 흑인을 고용하면서도 각 직업에 합당한 자가 없다는 생각을 근본적으로 갖고 있었고, 그런 역시 크리올 사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태도를 보인다.

They wore uniforms, occupied official positions, went to parties at Government House, had the vote, but they knew all the time they were funny, funny to the heartless prefect eye of the white man. If they had been slaves they would have had more dignity; there is no shame in being ruled by a stranger, but these men had been given their tin shacks, their cathedral, their votes and city councils, their shadow of self-government; they were expected to play the part like white men and the more they copied white men, the more funny it was to the prefects. They were withered by

27) Ogude, “Graham Greene's Africa,” p. 50.

laughter; the more desperately they tried to regain their dignity the funnier they became. (33)

이처럼 그린은 유럽화 특히 영국 사람처럼 변화한 원주민에게 혐오감을 갖는다. 그는 세련되고 똑똑한 크리올보다 차라리 어리숙하고 무식한 짐꾼을 더 선호한다.²⁸⁾ 또한 교육받은 중류계급의 흑인을 경멸하며 이들의 변신을 어설픈 코메디로 빈정거린다. 백인이 되기 위한 탈바꿈은 그 가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희화화된다. 서양옷을 걸치고 서양식 관습을 따른다고 해도 이는 한낱 어설픈 흉내에 불과할 뿐 자신들의 신분상승이나 국적 취득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이들은 개화된 종속민으로서 비록 관직을 부여받았지만 본래의 천한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서양인에게 예속되어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피지배자의 양가적 반응은 지배자의 모범을 충실히 따르는 듯하면서 동시에 “엥터리 흉내”에 의한 결점을 보이기 때문에 늘 지배자의 “조롱”의 대상이 된다. 게다가 불안정한 모방은 완벽한 모델인 지배자로 하여금 그의 우월성을 확인시켜줌으로써 지배권력을 공고히 하는데 기여한다.²⁹⁾

바바에 의하면 식민주의자의 양가적 지배욕망은 피지배자를 지배하기 쉽도록 만들기 위해 “나를 닮아라”고 요구하면서 동시에 식민지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나와 같아서서는 안된다”는 모순된 요구를 한다는 것이다.³⁰⁾ 그린의 태도 역시 허용과 금지가 뒤섞인 양가적 요구를 보이고 있다. 말하자면 그는 흑인으로 하여금 자기 정체성을 버리고 백인을 닮음으로써 스스로 저항을 포기하게 만들고 지배가 용이하도록 하는 한편, 흑인들이 완전한 모방을 통해 백인을 닮아 더 똑똑해지고 결점이 없어진다면 그들 속에 잠재된

28) Oguide, “Graham Greene's Africa,” p. 50.

29) 박상기, 「탈식민주의의 양가성과 혼종」, 『탈식민주의- 이론과 쟁점』 고부웅 외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3) p. 237.

30) Bhabha, p. 89.

저항의식이 싹터서 백인의 권력기반을 잃어버릴까봐 조바심을 내는 모순된 태도를 보인다.

어느 날 그린은 크리올이 사는 마을 팬다메이(Pandamei)에 들른다. 울타리와 정원이 있는 콘크리트집에 서양옷을 입고 흰 가발을 쓴 흑인이 모자를 벗으며 그린을 반겼다. 천박한 얼굴의 중년의 사나이는 자신의 바보스럽고 아침을 떠는 모습이 들킬까봐 애써 감추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넨다.

He said, "The chief had everything prepared for you last night." and again he laughed as much as to say, "I know I'm laughable, I'm only a black and you are a white, you are laughing at me, but you needn't think I don't laugh too." (132)

이 대목에서 그린은 중년 흑인의 “교활한 겸손(sly civility)”³¹⁾을 간파한 듯하다. 겉으로는 주인에게 공손하고 정중하게 대하는 척하지만 이들이 보이는 예의는 거짓이며 위선이다. 이들이 취하는 저자세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보다는 야침과 비굴함이며 이는 위장된 겸손의 형태로 왜곡되어 나타난다. 언제나 굽실거리는 이들의 태도는 지배자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기보다 오히려 불안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항시라도 이들의 마음이 돌변하면 지배자인 자신들을 겨냥하여 공격과 복수를 할 수도 있다고 의심을 품기 때문이다. 피지배인들의 내재된 저항의식을 가장 두려워하는 서양인들은 이들의 과도한 모방이나 복종이 결코 반갑지 않은 것이다.

여기서 흰 가발을 쓰고 마치 영국 신사처럼 예의를 차리는 중년 흑인의 태도는 “혼종성”을 보인다. “가장 영국화된 자”가 “가장 순종적”이고 식민 권력에 봉사하지만 이들의 모방은 여전히 부분적 유사성만을 지닌다. 그러므로 피지배자의 혼종성은 지배자를 추종하는 모방(mimesis)인 듯 하면서

31) Bhabha. p. 98.

도 암암리에 전복을 기도한다.³²⁾

그린이 프랑스령 간타(Ganta) 지방에 있는 데계 학교(Ecole de Djiecke)에 들렀을 때 큰 안경에 가발과 서양식 옷을 요란스럽게 차려입은 흑인이 그를 마중하러 기차역에 나왔다. 거드름을 피우며 상당히 으스대는 이 흑인은 불어로 여러가지를 캐물었지만 그린은 그의 불어를 이해하지 못한다. 현지관리인 그는 직업적 우월감에 넘쳐있고 스스로를 자기 동족보다 월등한 존재로 생각하며 스스로 “프랑스 관료주의(French officialdom)”(187)에 빠져있다. 프랑스의 힘을 빌려 필요 이상으로 허세를 부리는 그의 행동을 그린은 매우 위선적으로 보고 있다.

I could see his little thin black body swelling under the drill, for he personified the power of France. He asked me to see my passports and after a search in the baggage I found them and showed him the word “France” in the list of countries for which the passport available. (187)

이처럼 흑인은 자신의 서투른 불어 실력에 개의치 않고 현지 관리로서 식민지 업무에 충실하려고 애쓴다. 오히려 본국에서 파견된 프랑스인보다 더 엄격하고 까다롭게 굴며 자기 민족을 더 업신여기고 멸시한다. 양어깨에 식민 본국 프랑스의 힘을 실은 듯 의기양양한 척 위압감을 주려는 그의 “프랑스 식 환대(French hospitality)”(187)를 그린은 허풍이며 과장이라고 조소한다. 피지배자인 그는 지배국의 언어로 말하려고 애쓰며 원주민으로서 자신의 신분을 벌충하기 위해 자신의 민족의 이익과 상처되는 이적 행위도 서슴지 않는다.³³⁾ 이와 같은 유형의 인물은 가장 충성스러운 식민 본국의 앞잡

32) 혼종된 피지배자는 지배자와의 완전한 동일성이 아닌 “부분적 유사성”을 통해 “위장”의 저항적 효과를 노린다. 박상기, p. 237.

33) Edward Said, “Yeats and Decolonization,” *Nationalism, Colonialism, and Literature* eds.

이 노릇을 하며 자기 민족을 억압하고 심지어 배반하는 행위도 주저하지 않는다. 매국적인 이적 행위를 오히려 영웅시하는 이들은 스스로 분열상태에 놓여 있다.

이런 현상을 두고 파농은 식민주의는 피지배국민을 손아귀에 쥐고 이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모든 정보를 다 지우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왜곡된 논리로 피지배국의 과거의 역사를 뒤집어놓고 파괴한다고 비난한다.³⁴⁾ 따라서 흑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파괴된 후 그들이 갖고 있던 역사의식이나 주체의식도 함께 지워진다. 그들은 이제 자신이 어느 나라에 소속되며 무엇을 위해 충성을 해야 할지 갈등의 경계에서 불안에 떨 뿐이다. 그들의 존재양식은 곧 식민지 흑인의 삶을 대변하는 문화적 디아스포라(diaspora)³⁵⁾를 보여준다. 고유문화의 말살과 지배 문화의 교합으로 인한 이질적 자아와 인종적 변질은 곧 디아스포라에서 비롯된 불안정한 변증법적 변화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4. 반복되는 정복의 역사

그린은 아프리카 오지 탐험을 끝내고 나서 여행기 *Journey without Maps*를 집필한다. 첫 장에서 그는 아프리카에 대해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것이 “수많은 단어와 이미지 그리고 마녀, 죽음, 불행(a crowd of words and images, witches and death, unhappiness)”⁽⁸⁾이라고 밝히고 있다. 반면 남아프리카라는 말을 들으면 바로 대영제국과 케이프 주 식민지 총독인 세

Terry Eagleton, Fredric Jameson, and Edward Said (Minneapolis: Minnesota UP, 1990) p. 81.

34) Frantz Fanon, *The Wretched of the Earth*, p. 210.

35) 일반적으로 디아스포라(이산)는 이주와 동일한 뜻으로 사용되지만 포스트콜로니얼리즘에서 이산은 고향 없음(unhomeliness) 즉, 고향 같은 공간이 주는 안식과 위안을 폭력적으로 침묵하는 것, 모호한 정체성, 문화적 오염, 경계에 서있는 추방자의 형상을 의미한다. Gandhi, p. 163.

실 존 로드³⁶⁾(Cecil John Rhodes), 케이프 타운의 옥스퍼드 거리와 트라팔가(Trafalgar) 광장, 케냐에 사는 영국인 농부와 귀족들 그리고 로디지아(Rhodesia)산 “제국 담배(Empire Tobacco)” (8) 등을 떠올린다고 했다. 이는 영국 문화가 뿌리내린 개화 지역과 그렇지 못한 지역과의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여행에서의 감흥이나 이국적 정취의 매력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는 그린의 여행기는 아프리카에 대한 온갖 부정적이고 살벌한 묘사로 가득하다. “책은 썩고, 피아노는 제 소리를 내지 못하며, 심지어 전축판까지 휘고 마는(books rot, pianos go out of tune, and even a gramophone record buckles.)” (52) 서아프리카의 숨막히는 날씨는 그 더위만큼 사람을 숨통 막히게 만든다. 수많은 벌레와 더러운 동물이 들끓은 최악의 위생상태는 현지인들의 생활을 위협한다. 이런 상황에서 책을 읽거나 음악을 감상하는 문화생활은 그야말로 사치스런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오지 탐험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그린은 육체적 한계와 문명 세계에 대한 강한 애착을 느낀다. 가지고 온 식료품이 바닥이 나자 그는 “문명의 벼랑 끝(the edge of civilization)”(253)에 서있음을 절감하며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I suppose my digestion was suffering from the tinned foods,
rough rice, the dry tough African chickens, and five eggs a
day. For the only way to economize our tinned supplies,
which threatened to run short, was to eat off the country,

36) 영국 출신인 세실 존 로드(Cecil John Rhodes, 1853-1902)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1870년 남아프리카로 건너가 다이아몬드광, 금광을 경영하며 자산가로 성장하였고 1880년 이후에는 정계에도 진출하였다. 아프리카 식민지 정치가인 그는 1889년 광산채굴권과 경찰권 등을 포함한 남아프리카 주식회사(British South Africa Company) 설립의 특허를 획득했다. 다음 해 케이프주 식민지 총독이 되었고 1890년대에는 다이아몬드광, 금광 뿐만 아니라 철도, 전신 사업 등도 경영하여 남아프리카의 경제계를 지배하고 거대한 재산을 모았다. 그는 전형적 제국주의자로 인근지방에 대한 무력 정복을 꾀하였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정복지를 로디지아라 명명했다.

“Cecil John Rhodes,” *Bartleby.com, Great books online, The Columbia Encyclopedia*, Sixth Edition, 2001-05, Columbia University Press, Sep. 2005 <<http://www.bartleby.com>>.

rice, eggs and chickens, for meal after meal. I had just enough energy to note depressingly in my diary: “Last tin of biscuits, last tin of butter, last piece of bread.” (180)

오지에서 조금 벗어난 인가가 있는 지역도 그 사정은 별 다를 바 없다. 듀오고마이(Duogobmai)는 라이베리아에서 가장 지저분한 지역이다. 그 중에서도 조르조(Zorzor)는 아주 황폐한 곳이다. 백인이 이 지역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어디에도 개화된 흔적은 없다. 그린은 “그 어느 곳에도 백인 정착민들이 본국의 도덕과 대중 예술을 제대로 전파시킨 곳이 없었다(. . . certainly no part where the white settler has been most successful in reproducing its morals and its popular art of his country.)”(8)라고 전한다.

패니콕에 따르면 영국인은 해외 식민지에서 언제나 “문명경계선(civil line)”이라고 불리우는 영역 내에서 생활했다고 한다. 즉, 울타리가 쳐진 높은 대지위에 집을 지어 주위에 득실거리는 병과 죽음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는 것이다.³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인들은 그저 여기서 머물며 시름 시름 기력을 잃어가고 있다. 몬로비아(Monrovia)강에서 남편이 익사한 후 크루프(Croup)부인은 6개월간 혼자 지내며 자주 흐느껴 운다. 또 다른 선교사는 정신착란을 일으켰다. 신앙적 열의는 한 때의 자취로만 남아있을 뿐, 이들은 감상에 빠지고 유약해져 낙오자처럼 살아간다. 물론 오지만큼 맹수의 공격이나 밀림에서의 잦은 실종과 같은 위험은 없지만 무기력과 자포자기, 정신 착란과 자살 등 죽음에 이르는 요소는 어디에나 만연해 있다.

하링스빌(Harlingsvill)에 도착한 그린은 목조건물과 큰 도로, 화물 자동차를 보는 순간 한바탕 웃으며 소리치고 싶어 한다. 오지의 별거벗은 미개인이 아니라 바지와 셔츠를 제대로 입은 사람을 만나자 그는 문명의 품에 안

37) Pennycook, p. 65.

긴 듯 편안함을 느낀다. 이제 그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최악의 지루함과 두려움 그리고 탈진 상태(the worst boredom I had ever experienced, the worst fear and the worst exhaustion)”(263)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오귀드의 분석처럼 그린은 문명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기 위해 질병과 절망, 비참함으로부터의 자극이 필요했던 것이다.³⁸⁾ 그러나 개화된 도시마저도 문명 수준은 보잘것없이 미미하며 신선한 맥주조차 구하기 어려울 만큼 이곳에서의 생활은 불편하고 궁핍하다.

Civilization, of course, even at the Grand Bassa level, offered a little more than that; it offered iced beer in the home of the PZ manager over the store which was just closing down from want of trade, fresh Liberian beef of unbelievable toughness.

I remember for what a long time I was able to think of fruit, for far longer and with more longing than I thought of beer or iced drinks. (264)

이처럼 생필품이 턱없이 모자란 문명의 벼랑 끝에서 그린은 예기치 못한 생활고에 맞닥뜨린다. 하물며 짧은 여행이 아닌 타향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영국인들이 음식과 기후 조건이 맞지 않는 곳에서 겪는 고통은 말할 것도 없다.

그린은 몬로비아(Monrovia)에 거주하는 35명 남짓의 백인의 일상을 소상히 관찰한다. 이들의 직업은 주로 의사, 상인, 금 밀수업자, 선박회사 직원 그리고 영사 등이다. 술 마시는 일 외에 딱히 할 일이 없는 이들은 아침식사를 마친 후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맥주로 하루를 시작하고, 다음 날 새벽 4시에 위스키를 마시며 헤어진다. 이들은 자신들이 무위도식하며 살 수밖에

38) Ogude, “In Search of Misery,” p. 59.

없는 이유에 대해 온갖 구실을 갖다댄다. 열대 지방에서는 책에 습기가 차서 독서를 할 수 없어서, 혹은 이 곳에 온 목적이 원주민 교화라는 선의를 위해 온 것이 아님을 스스로 알고 있고 더 이상 자신을 기만할 수 없기 때문에, 또는 만날 수 있는 여자가 극히 제한되어 있어서 바람을 피울 수 없으므로, 그리고 즐길 수 있는 운동 경기도 마땅히 없고 본국의 소식을 정기적으로 접할 수 없기 때문에 등등 그 까닭은 수없이 많다.

게다가 잦은 전근과 언어 장벽으로 제대로 행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영국인 관료를 두고 그린은 “통역으로 현지의 말을 겨우 몇 마디 알아들으며 이 지역 저 지역으로 옮겨 다니는 지방 행정관이 현지 사정을 어떻게 소상히 알 수 있겠느냐(What could a District Commissioner really know, shifted from district to district, picking up only a few words of the languages, dependent on an interpreter?)”(61)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이곳 행정관이나 상인은 라이베리아에 어떤 희망이나 기대도 걸지 않는다. 다만 죽음과도 같은 정체의 늪에서 오직 술과 라디오만을 유일한 즐거움으로 삼을 따름이다.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을 연구하는 리드(Leeds)대학 영문과 교수 엘레크 보에머(Elleke Boehmer)가 정확하게 설명했듯이, 부패와 불의가 판치는 유배의 땅인 식민지는 양식있는 사람이 가기를 꺼리는 곳으로서 외견상 진보와 도덕적 청렴을 지향하는 빅토리아 여왕시대의 사회 이면에 숨겨진 무의식의 어두운 세계이다.³⁹⁾ 따라서 문명화의 사명은 허황된 꿈이자 위선이고 이들의 체류와 정착 자체가 무의미하게 보인다.

그러나 모든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영국인들이 철수하지 못하는 이유는 오귀드의 지적처럼 바로 “백인의 담론(white argument)” 때문이다. 아프리카에 대한 백인 특권의 옹호를 의미하는 이 말은 곧 백인으로 하여금 아프리카를 착취하도록 시간과 기회를 허락하는 것이 흑인들에게 가장 이로운 것

39) Elleke Boehmer, *Colonial and Postcolonial Literature* (Oxford: Oxford UP, 1995) p. 26.

이란 명제를 내건다.⁴⁰⁾ 이처럼 백인들이 포기할 수 없는 자신들의 특권에 매달리며 아프리카에 오히려 더 이끌리는 까닭에 대해 그린은 아래와 같이 분석한다.

It wasn't easy to analyse the fascination behind the dirt and disease, but it was more than a personal fantasy, satisfied more than a personal need. Different continents have made their call to different ages, and people at every period have tried to rationalize in terms of imperialism, gold or conquest their feeling for an untouched land, for a country that hath yet her maidenhead, never sacked, turned, nor wrought, the face of the earth hath not been torn, nor the virtue and salt of the soil spent by manurance; the graves have not been opened for gold, the mines not broken with sledges, nor their images pulled down out of their temples. (152-53)

그린의 솔직한 고백처럼 그 이유는 황금과 신대륙을 차지하려는 백인들의 탐욕 때문이다. 가능성과 꿈, 소망이 이루어지는 광대한 땅이자 신분 상승과 부를 얻을 수 있다는 제국에 대한 상상은 인간의 끝없는 정복욕을 자극한다. 오귀드는 이에 대해 그린은 아프리카에서 사라진 꿈의 파편을 보았으며 아프리카에 대한 그의 까닭모를 강한 집착은 곧 식민제국에 대한 동경이라고 풀이한다.⁴¹⁾

그린은 이 책의 앞부분에서 “아프리카 지형이 인간의 심장과 같이 생겼다 (The shape of Africa is roughly that of the human heart.)”(30)라고 말한다. 이 말은 곧 우리의 마음을 담은 심장이라는 장기가 알 수 없는 공간

40) Ogude, “In Search of Misery,” p. 59.

41) Ogude, “Graham Greene's Africa,” p. 42.

인 것처럼, 제대로 된 지도가 없어 구체적인 지리조차 알 수 없는 아프리카는 미지의 세계임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온 천지에 인간이 발길이 닿지 않은 처녀지와 미개발의 오지가 널려있는 이곳은 이상야릇한 호기심을 발동시킨다.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는 세관에서 그린은 그가 들고 돌아온 유일한 전리품을 보며 잠시 생각에 잠긴다. 방대한 식민지 개척을 이룩한 조상에 비해 그 후예인 그린이가 갖고 온 것은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은 장신구 몇 점과 종이쪽지 그리고 낡은 칼(a few pieces of silver jewellery, a piece of script, an old sword)”(297)에 불과하다. 보잘것없는 전리품 앞에서 그는 두고 온 황금 광산에 대한 아쉬움과 탐욕을 감추지 못한다. “아직 파헤치지 않은 금이 묻혀있는 무덤, 망치로 부시지 않은 광산(the graves not opened yet for gold, the mine not broken with sledges)” (297) 등 약탈과 훼손의 손길이 닿지 않은 원형 그대로 보존된 황금 광산은 그 자체로 무한한 가치와 매력을 지닌다. 엄청난 가능성의 영역으로 비춰지는 식민지는 일확천금을 얻어 개인적 야망을 이룰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준다. 바바가 주장하듯이 이런 심리 상태 즉, 식민지 건설의 환상은 광대한 영토와 권력 소유에 대한 흥분된 쾌감에 휩싸이게 하며 국가적 명예심에 빠져들게 한다.⁴²⁾ 그린은 여기서 프로이드를 인용하며 이러한 욕구가 과거 식민지 정복 시대로 돌아가고 싶은 본능적 회귀라고 주장한다.

Freud has made us conscious as we have never been before of those ancestral threads which still exist in our unconscious minds to lead us back. The need, of course, has always been felt, to go back and begin again. Mungo Park⁴³⁾,

42) Bhabha, p. 200.

43) 몽고 파크(1771~1806)은 스코틀랜드 출신 의사이자 탐험가로서 1795년 아프리카 내륙탐험 진흥협회에 의해 기획된 탐험대의 일원으로 발탁되었다. 이 탐험의 목적은 신비의 도시 팀부트(Timburtu)

Stanely⁴⁴), Livingstone⁴⁵), Conrad represented only another method to Freud's, a more costly, less easy method, calling for physical as well as mental strength. (295)

위에서 언급된 탐험가와 작가는 식민 정복 사업에 참여했거나 지지했고 모두 제국주의자의 반열에 오른 이들이다. 힘든 여정을 통해 육체적 한계와 죽음까지 직면했던 그린은 이들의 인간적 강인함과 숭고한 희생을 높이 산다. 모니어는 그린이 아프리카에 가게 된 이유에 대해 그린은 원시적 삶에 이끌렸고 1926년 가톨릭으로 개종했지만 굳건한 믿음은 없었으며, 위선적이고 세속적인 사회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의 충동이 작용한 탓이라고 보고 있다.⁴⁶) 다시 말하면 그린은 병든 서양 사회가 원시 문명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믿었고 서양에서는 이미 사라진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아프리카는 아직도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의 위치와 니제르(Niger) 강의 정확한 경로와 발원지를 알아내는데 있었다. 감비아(Gambia)강에서 출발한 그의 탐사 작업은 회교도의 방해로 받아 난관에 봉착했으나 끝내 니제르 강을 따라 세구(Segu)에 이르는 길을 정복하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우기에 2차 탐사를 강행한 나머지, 짝을 포함한 전 대원이 이질에 걸려 죽거나 의사당했다. 이 니제르 강 유역의 탐험을 시초로 내륙 탐방이 성행하기 시작했다. “Mungo Park,” *About.com*, 2005, New York Times Company, African History Resources, Sep. 2005 <<http://africanhistory.about.com>>.

44) 헨리 스탠리(Henry Stanley)(1841~1904)는 북웨일즈의 벽촌에서 출생하여 17세에 미국으로 건너가 남북전쟁에 종군한다. 1865년 신문 통신원이 되어 에티오피아 등지에 주재하였으며 1869년 아프리카에서 소식이 끊긴 리빙스턴의 행방을 찾으라는 <헤럴드> 사장의 밀령을 받아 리빙스턴을 극적으로 구한다. 그 후 1877~1884년 벨기에 국왕의 후원을 얻어 콩고 지방을 탐험하고 콩고 자유국 건설의 기초를 닦았으나 그 과정에서 원주민을 학살하거나 이들을 노예로 부리는 등 악명높은 일을 저질러 비난을 사기도 했다. “Henry Stanley,” *BBC online*, BBC Historic Figures, Sep. 2005 <<http://www.bbc.co.uk/history>>.

45) 데이비드 리빙스턴(David Livingstone)(1813~1873)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선교사이자 남아프리카 탐험가이다. 1840년 런던 전도 협회의 의료선교사로서 남아프리카에 파견되어 1841년 전인미답의 오지에 들어가 전도 사업 및 교역 루트 탐색 활동에 주력했다. 1852~1856년에는 케이프타운을 출발하여 육로로 루안다를 거쳐 대륙을 횡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저서로 『남아프리카 전도 여행기』 등을 남겼고 노예사냥 실태를 폭로함으로써 노예무역 금지에 이바지했다. “David Livingston,” *Wholesomewords*, Christian Biography Resources, Nov. 2005 <<http://www.wholesomewords.org>>.

46) Monnier, p. 62.

그러나 그린은 반문명주의자나 자연회귀론자가 아니며 그의 작품에서 “고상한 야만인(noble savage)”⁴⁷⁾을 찬양하거나 원시에 이끌린 흔적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아프리카인은 불가사의하고 위험한 풍습과 의식을 행하는 야만적인 이교도로 채색되며, 아프리카는 순수한 원시인이 사는 행복으로 가득한 에덴이 아니라 암흑과 미개에 둘러싸인 검은 대륙으로 둔갑한다. 그린은 검은 대륙에서 악마적 기운에 휩싸이며 원시적 삶을 통해 문명에 대한 지독한 향수와 애착을 느낀다. 그러므로 그가 오지에 가게 된 이유는 앞의 모니어의 설명처럼 결코 서양 문명에 대한 불만 해소나 죄에 물들지 않는 고상한 야만인에 대한 동경 때문이 아니다. 위의 인용문에 나타났듯이 그 이유는 실종과 죽음을 무릅쓰고 불굴의 개척 정신으로 대륙을 종횡무진했던 영국의 탐험가들 팍, 스탠리, 리빙스턴처럼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정복의 역사를 다시 이어갈 필요성을 그린 스스로가 받아들이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오귀드는 그린의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빅토리아 시대의 탐험 정신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매우 중요한 동기로 분석한다.⁴⁸⁾ 직접 오지 여행을 경험한 그린은 비록 작가이지만 탐험가와 같은 정신적, 육체적 모험을 실행에 옮겨본 것이다. 즉, 탐험가들이 느꼈던 “이끌림의 본성(nature of fascination)”⁽²⁹⁶⁾에 스스로 감지되어 과거로의 여행을 다녀온 셈이다. 이 여행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린은 식민지 재정복에 대한 의무감은 조상의 피를 통해 대대로 무의식중에 흐르며 그 역사는 부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린의 여행은 이러한 무의식의 표출이며 위대한 조상의 대열에 끼고 싶은 영웅심의 발로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작품은 주관적 인상으로 채색된 검은 대륙, 아프리카의

47) Pennycook, p. 57. 소위 “noble savage”라고 불리는 자연 상태의 순수한 원시인은 특별히 18세기 유럽의 낭만주의와 목가주의 그리고 루소의 자연론 사상과 관련된다. 당시 사람들은 본래의 선한 인간이 문명의 때에 의해 오염되었다는 믿음으로 인해 야만을 찬양하거나 이상시했다.

48) Ogude, “Graham Greene's Africa,” p. 41.

굴절된 표상을 보여준다. 그린은 철저하게 냉혹하고 무정한 백인의 시선으로 아프리카의 구석구석을 관찰하며 그의 눈에 비친 아프리카의 자연, 지리, 원주민과 문화는 야만과 원시의 집합체로 왜곡되어 나타난다. 그는 “부당한 고용주”로서 짐꾼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며 흑백의 주종 관계 하에서 이들을 지휘하는 인종적 오만을 드러낸다. 열병에 걸리고 생필품 부족에 시달리며 “문명의 벼랑 끝”까지 내몰린 그린에게 아프리카는 해충으로 가득한 오지, 야만과 원시의 땅, 죽음의 위협 등 다시 떠올리기에조차 끔찍한 기억의 단편으로 남는다.

*Journey without Maps*에서 “지도”는 문명의 상징물이다. “지도”조차 없는 아프리카는 문명의 불모지이자 텅 빈 공간 즉, 타블라 라사로서 서양 문명의 이식을 필요로 하며, 광대한 미개발의 오지는 무한한 개척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결국 죽음을 무릅쓴 오지 탐험을 통해 고통스럽고 끔찍한 시간을 경험하고도 그린의 아프리카에 대한 끝없는 동경과 이끌림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조상 대대로 이어져온 식민지적 환상과 정복욕 때문인 것이다.

III. 원시의 땅과 도덕적 타락:

The Heart of the Matter

2차대전 중인 1941년, 그린은 M16이라는 영국군 비밀조직(Secret Service)의 요원으로 발탁되어 서아프리카에 근무하며 아프리카의 상황을 영국에 비밀리에 알리고 영국에서 보낸 암호를 해독하는 일을 맡는다. 그는 시에라리온의 수도 프리타운 힐 스테이션(Hill Station) 저지대의 방갈로에서 생활했다. 그곳은 불결하고 비위생적인 습지이며 모기와 쥐가 들끓는 곳이었다. 그가 살았던 이 지역에 대한 상세한 묘사는 이 장에서 분석하려고 하는 *The Heart of the Matter*의 곳곳에 빈번하게 등장한다. 그린은 그가 아프리카에서 경험했던 생존에 대한 위협과 악몽과 같은 기억으로 아프리카의 모양을 인간의 심장과 비슷하다고 묘사한다.¹⁾ 여기서 마음을 담는 장기인 심장은 우리의 무의식이며, 알 수 없는 깊고 어두운 암흑의 상징이자 리비도의 세계를 의미한다. 심장과 같이 생긴 아프리카는 단순히 지도모양만 닮았을 뿐 아니라 실제 그 곳에서의 생활도 어두운 내면의 심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경험이었던 것이다. 아프리카라는 황량하고 거치른 환경 속에서 인간은 점점 더 타락하고 피폐해져 갈 수밖에 없다고 그는 생각한다.

그린은 1948년도에 *The Heart of the Matter*를 발표한다. 1940년 *The Power and the Glory*를 발표한 후 전시 중에 처리해야 할 엄청난 전보와 보고서들 때문에 그는 한동안 소설을 쓰지 못한다. 전쟁이 끝난 후 사무실은 폐쇄되었고 안보상의 이유로 비밀 파일과 암호책들도 소각되었다. 그러나 그가 비밀요원으로 겪었던 많은 경험을 틈틈이 적어두었던 메모들은 차후 이 소설에 창의적으로 이용된다. 따라서 이 작품은 그의 실제 체험과 대

1) Graham Greene, *Journey without Maps* (London: The Bodley Head, 1978) p. 30.

단히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작품이다.

1. 식민담론과 타자화

소설의 도입부에서 시리아인 유세프(Yusef)는 “두꺼운 허벅지와 털이 난 큰 손(the huge thighs and a large hairy hand)”²⁾을 지닌 우둔하고 세련되지 못한 모습으로 등장한다. 글을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는 문맹인 그는 지적으로 모자란 사람이며 “더러운 개(a dirty dog)”⁽⁷⁰⁾라고 불리운다. “소문에 유세프는 가짜 다이아몬드를 팔고, 진짜는 밀수하며 질이 나쁜 술을 팔고 육군 병원 간호원을 유혹한다는 말이 있더군요(They say he passes false diamonds, smuggles real ones, sells bad liquor, seduces the nurses from the military hospital.)”⁽⁷⁰⁾라는 부분에 언급되듯이, 그는 돈을 부정한 방법으로 모으는 사기꾼이자 사생활이 문란한 비도덕적인 인물로 묘사된다.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Said)는 문학 작품에 일반적으로 나오는 아랍인에 대한 오리엔탈리즘적인 표현을 인종학적으로 지적한다.

The Arab is associated either with lechery or bloodthirsty dishonesty. He appears as an oversexed degenerate, capable, it is true, of cleverly devious intrigues, but essentially sadistic, treacherous, low. Slave trader, camel driver, moneychanger, colorful scoundrel: these are some traditional Arab roles.³⁾

2) Graham Greene, *The Heart of the Matter* (New York: The Viking Press, 1952) p. 90. 이후 이 작품에 대한 인용은 쪽수만을 명시한다.

3) Edward Said, *Orientalism* (New York: Vintage, 1979) p. 499.

사이드의 정확한 분석처럼 유세프는 간호원을 유혹하는 “호색한”이며 다이아몬드를 밀수하는 부정한 “음모자”이자 고리대금을 하는 “환전상”이다. 이 소설에서의 유세프의 행적과 직업은 사이드가 제시한 일반적 유형에 모두 들어맞는다. 아랍인 유세프가 사회의 암적 존재로 소개된 데 이어 이 지역에 사는 흑인들은 “하등인간”으로 등장한다. 거짓말을 일삼는 이들은 경찰서에 용의자로 잡혀왔어도 진실을 털어 놓지 않으며 이들의 부정직함은 백인의 공무를 방해하기까지 한다.

From eight-thirty in the morning until eleven he dealt with a case of petty larceny: there were six witnesses to examine, and he didn't believe a word that any of them said. . . . He had known police officers whose nerves broke down in the effort to separate a single grain of incontestable truth: they ended, some of them, by striking a witness, they were pilloried in the local Creole papers and were invalided home or transferred. It woke in some men a virulent hatred of a black skin. (148-49)

이처럼 흑인은 윤리의식과 공공질서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으며 사회 정의를 위협하는 존재로 왜곡되어 나타난다. 타락한 현지인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한 톨의 진실”도 밝히지 못한 식민지 경찰관은 업무에 시달린 나머지 신경쇠약이 되거나,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범인과 시비를 가리다 오히려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만다. 아프리카라는 부패와 타락의 온상에서 근무하는 동안 이들은 정신병 증세까지 보이거나 임기도 채우지 못한 채 현지를 떠나기도 한다. 비도덕적이고 타락한 흑인은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집단으로서 정의롭고 양심적인 백인 경찰관과 대조된다. 이와 같은 위악적인 표현은 백인의 희생으로 인해 더 두드러지게 보인다.

이처럼 비서구라는 타자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부정적 이미지는 정형화되며 일단 확립된 이미지는 좀처럼 변하지 않고 굳어진다. 이것은 식민지 담론의 주요한 특징이며, 바바(Bhabha)가 주장했듯이 일단 굳어진 고착성은 엄격성과 불변의 질서를 갖게 된다.⁴⁾ 이러한 변치 않는 고착성은 아래에 나오는 인도인의 묘사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는 지저분하고 신뢰할 수 없는 인도인의 이미지로 착색된다.

Harris giggled and Wilson, raising his eyes from the finger which traced the lines upon his palm, watched the fortune-teller with apprehension. The Indian went inflexibly on. His turban was bowed under Wilson's nose and bore the smell of stale food - he probably secreted stray pieces from the larder in its folds. (66)



여기서 인도 사람은 비과학적이고 미신적인 행위를 일삼는 점쟁이로 등장하며 그가 착용하는 커다란 터번모는 마치 썩은 음식을 훔쳐 모은 듯 역겨운 냄새를 풍긴다. 그런 인도인이 쓰는 모자에 부정적 이미지를 부여하며 이는 독자에게 불결과 부패의 상징으로 각인된다. 이에 비해 백인 윌슨(Wilson)에 대한 묘사는 정반대이다. “윌슨은 지나치게 부드러운 살결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다. 그 얼굴은 분홍빛으로 혈색이 좋고 살이 포동포동했다(Wilson passed his fingers over the too smooth skin. The face looked pink, healthy and plump.)”(64)라는 표현처럼 적당히 살이 찌고 분홍빛 피부를 가진 윌슨의 모습은 깡마르고 새까만 흑인 원주민과 대비를 이루며 이와 같은 문화적 이질감은 “검은 피부에 대한 맹렬한 증오심(a

4) 식민담론에서 화자는 타자를 열등한 위치에 확보해두기 위해 타자의 정형적인 속성을 끊임없이 반복시키며 이런 과정은 고착성이 획득될 때까지 계속된다. Homi K. Bhabha, *Location of Culture* (London: Routledge, 1994) pp. 145-46.

virulent hatred of a black skin)”(149)으로 드러난다.

한편 이 소설의 주인공인 스코비는 흑인 병사의 알아들을 수 없는 얘기를 마치 “벽 위에 쓰여진 상형문자 같다(like a hieroglyphic on a wall)”(196)고 말한다. 유럽인에게 있어서 원주민의 언어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언어는 원시시대의 상형문자에 비유되고 있다. 이처럼 그린이가 갖고 있는 오리엔탈리즘적 편견으로 말미암아 아프리카 문화의 다양성과 이질성은 철저히 무시되고 그 자리에 원시성과 미개성이 가미된다.

사이드의 설명처럼 오리엔탈리즘은 비서양이 서양보다 약했기 때문에 비서양을 억누른 권력 담론이고 그것은 비서양이 갖는 이질성을 그 약함과 관련지어 무시하고자 하는 것이다.⁵⁾ 따라서 타민족의 이질성은 전적으로 자민족 중심으로 평가되며 수용할 수 없는 차이는 서양 우월주의적 잣대에 의해 배제된다. 뿐만 아니라 원주민 개개인의 특성이나 주관성은 무시되며 언제나 포괄적인 한 무리로 다루어진다. 이들은 단지 정형화된 이미지의 대상이며 소설의 “소재”로만 취급된다.

Scobie drove slowly. The rough street was crowded. Thin black bodies weaved like daddy-long-legs in the dimmed head-lights. (31)

여기서 흑인은 하나의 인격체를 지닌 개인이 아닌 집단 즉, 한 덩어리의 단위로 운집해 있으며, 희미한 헤드라이트 불빛에 비춰진 이들의 모습은 지저분한 구정모기떼로 비하되어 묘사된다. 이에 대해 파농(Fanon)은 원주민의 부정적이고 야만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식민지배자들은 동물학적 개념을 사용한다고 주장한다.⁶⁾ 따라서 흑인들은 동물 중에서도 가장 하등

5) Said, *Orientalism*, p. 204.

6) 동물학적 개념으로 원주민을 표현하는 식민지배자는 원주민의 동작이 파충류의 몸짓과 같다고 한다. Fanon, *The Wretched of the Earth* (New York: Grove Press, 2004) p. 41.

곤충류인 해충에 비유됨으로써 불결의 대명사인 모기떼와 동격을 이룬다.

흑인을 인간적으로 경멸하고 무시하는 어조는 처음 도착한 월슨에게 음식을 조심하라는 동료들의 충고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즉, “시리아인 탈리트 (Tallit)같은 노인은 자신들이 타조처럼 든든한 큰 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유럽 사람이 무엇을 소화시키는지 알려고 하지 않는다(These old people like Tallit, have stomachs like ostriches and he won't learn what a Western stomach will take.)”(69)라고 일러준다. 딱치는 대로 마구 먹는 원주민의 식습관과 그 엄청난 소화능력을 타조라는 동물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아프리카의 야만성에 대한 묘사는 다음의 인용문에서 그 극치를 이룬다.

Somewhere in the darkness two rats scuffled. These waterside rats were the size of rabbits; the natives called them pigs and ate them roasted; the name helped to distinguish them from the wharf rats, who were a human breed. (33)

앞에서 언급한 모기와 더불어 쥐는 인간에게 온갖 질병을 옮기는 해로운 동물이며, 여기서 흑인들이 토끼만큼 큰 쥐를 구워먹는다는 믿기 어려운 사실은 혐기적인 원시성을 극대화시킨다. 박멸의 대상이 되는 더러운 쥐를 식용으로 삼는 이들의 식습관을 언급함으로써 그린은 소름끼치는 야만성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처럼 지배와 피지배민족간의 이분법적인 묘사는 교양-문맹, 세련-원시, 위생-불결 등 양극화의 뚜렷한 대조를 보인다.

따라서 비서구인에 대한 정형적인 속성은 작품 내내 온갖 부정적인 요소와 함께 부각되며, 식민지 담론에서 타자를 열등한 위치에 붙잡아두기 위한 악의적 표현은 반복된다. 일자무식 유세프는 셰익스피어 연극을 본 후 글을 배웠으면 하는 생각이 들만큼 셰익스피어에 심취하며 영국문학을 찬양한다. 다음 인용에 언급된 바와 같이 아침에 가까운 그의 발언은 자신의 모습을

더 일그러뜨리며 왜곡시킨다.

I have great appreciation of Shakespeare. The Royal Ordnance Corps have very fine actors and they have made me appreciate the gems of English literature. I am crazy about Shakespeare. Sometimes because of Shakespeare I would like to be able to read. . . . There are so many subjects I would like to talk to you about. I should like to hear the philosophy of your life. . . . Not a man like you, Major Scobie. I have such an admiration for your character. You are a just man. (274)

아랍인 유세프는 셰익스피어의 위대성을 언급하며 그의 작품을 “영문학의 보배”라고 칭찬한다. 문맹인 그가 글을 깨우치려는 동기가 될 만큼 그는 셰익스피어로 대변되는 서양문학에 도취된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영문학 텍스트는 가장 고귀하고 완벽한 대리 영국인 역할을 했고, 올바른 행동에 대한 도덕적 가치의 근원이 된다.⁷⁾ 문학은 여기서 도덕적 가르침의 대체물이 되며, 유세프는 문학을 통해 영국인의 행위와 도덕적 가치가 동일하다는 인식을 갖게 된다. 따라서 그는 무식하고 타락한 자신과는 대조적인 스코비의 훌륭한 됴됨이에 대해서도 존경을 표한다. 이는 앵글로색슨족의 명석함과 솔직함, 고귀함에 대한 찬양이다.⁸⁾ 이와 같이 그린은 문화, 지성, 도덕, 인격 면에서 서양인의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함을 거듭 강조하며 서양우월주의를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앞서 아프리카인에 대한 차별적인 묘사가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했다면

7) Gauri Viswanathan, *Masks of Conquest: Literary Study and British Rule in India* (Oxford: Oxford UP, 1998) p. 159.

8) Said, *Orientalism*, p. 39.

유독 유세프와 알리(Ali)와의 관계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그려진다. 이들은 유색인이지만 예외적으로 이름이 부여되었고 주인공 스코비와 오랜 개인적 친분을 맺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신상에 대해 스코비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 조지 헤론(George Heron)이 설명했듯이 유세프와 알리는 스코비의 타락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지만, 그 비중에도 불구하고 이들 개개인의 내적 고백이나 성격 묘사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힘들다.⁹⁾ 알리는 스코비가 아프리카에 부임한 이래 15년 동안 집안일을 돌봐온 하인이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인을 섬긴 유순하고 충직한 인물이다. 시종 알리는 스코비가 여행을 가거나 업무를 볼 때 말없이 모든 일을 도와주는 그에게 없어서는 안되는 수족에 해당하는 하인이다. 스코비는 부인 루이스(Louise)보다 더 오랜 세월동안 알리와 지냈지만 그가 하는 집안일이나 심리 상태, 또 그의 사생활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 반면에 알리는 죽기 전까지도 스코비의 부인 루이스나 스코부의 정부 헬렌(Helen)보다 스코비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보이며 충성을 바친다.

15년을 함께 지낸 시종과 주인은 눈빛만 봐도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서로 익숙한 사이이다. 주인 스코비는 시종인 알리를 깊이 신뢰하며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불륜과 불법 거래 등으로 자신의 삶이 복잡하게 얽히고 곤경에 빠져들게 되자 스코비는 무고한 알리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게다가 유세프가 알리를 없애기 위한 죽음의 덫을 치는 것을 방임한다. 자신이 아랍인 유세프와 몰래 만나 암거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아는 유일한 사람인 알리를 용의자로 여긴다. 스코비는 지금까지 충실하게 자신을 섬기던 알리의 모습은 다 사기였다고 생각하며 그의 위장된 겸손과 교활함에 분개한다. 그 순간 스코비는 “흑인을 믿지 말라(Never trust a black.)”(264)던 교훈을 떠올리며 알리의 거짓된 충성을

9) George Heron, “Imperial Fiction: Graham Greene, *The Heart of the Matter*,” *Wasafari* 4 (1986): p. 16.

복수하고자 그를 죽이려고 한다. 따라서 타자인 알리는 충직과 배반, 순진과 교활, 신뢰와 의구 등의 양가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존재이다.

바바는 이런 속성을 두고 피지배자는 지배자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존재 즉, 불가해하고 신비로운 동양인인 동시에 전지전능한 지배자의 시선에 의해 훤히 파악되는 대상이라고 분석한다.¹⁰⁾ 다시 말하면 피지배자는 온순하고 무해하며 인식가능한 대상이지만, 동시에 야만적이고 위협적이며 불가해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스코비는 알리의 충성과 사랑을 요구하면서도, 동시에 알리가 자신을 배신하고 증오하고 있다는 두려움을 품고 있다. 피지배자에 대해 갖는 근본적 불신과 두려움은 지배자로 하여금 “편집적 두려움”에 떨게 하고 이는 “공격성”으로 표출된다.¹¹⁾ 두려움에 떠는 지배자가 피지배자에게 공격성을 보이듯이, 알리의 배반과 음모가 두려운 나머지 스코비는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는다.

한편 15년의 체류 기간 동안 스코비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은 시리아 출신 회교도 유세프이다. 경찰관인 스코비가 현지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중재하듯 유세프는 스코비 개인의 일상사를 은밀히 중재한다. 스코비는 경찰관으로서의 양심을 속이고 유세프의 검은 돈을 받음으로써 스스로 위험한 유착관계에 놓이게 되며, 유세프는 이런 스코비의 공인으로서의 약점을 교묘히 이용한다. 일자무식이지만 이재에 밝을 뿐 아니라 세상을 영악하게 살아가는 세속적 수완을 명쾌하게 제시하는 유세프의 두뇌는 모든 암거래와 음모의 저장고처럼 보인다. 윌트 주디스(Wilt Judith)는 이에 대해 스코비의 머리에 해당하는 또 다른 자아로서의 유세프가 스코비의 행동과 판단을 통제한다고 해석한다.¹²⁾ 따라서 스코비의 정신은 유세프의 조종을 받으며, 그의


10) Bhabha, p. 81.

11) Bhabha, p. 82.

12) Wilt Judith, “The Cave of the Body: *The Heart of the Matter*,” *Religion and the Art* 1.3 (1997) p. 77.

육체는 자신의 수족이자 모든 시중을 정성껏 드는 알리에 의해 움직여진다.

이제 몸과 마음을 다 유색인에게 빼앗긴 스코비의 타락은 불가항력이 된다. 작품의 끝부분에서 순종적이고 천진한 하인이 약삭빠른 밀고자로, 협조적이고 호의적인 후원자가 음흉한 배신자로 돌변하는 상황은 정직하고 양심적이고 무고한 서양인 스코비의 긍정적인 면을 더 부각시킨다. 이처럼 지배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기 위해 그와 대립적 관계에 있는 상대역(counter-part)을 필요로 한다. 착한 서양인을 부각시키기 위해 악한 비서양인의 역할은 필수적이며 이는 식민 담론의 기본구도를 이룬다. 교활하고 부도덕한 흑인 알리와 아랍인 유세프는 정직하고 성실한 백인 스코비와 대칭을 이루며, 이들 사이의 극단적인 대비는 그 이항 대립적 구도를 첨예하게 보여주고 있다.



2. 문명화의 사명과 그 허상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영국의 사회 사상가이자 비평가인 존 러스킨(John Ruskin)은 1870년 옥스퍼드 대학 예술학 교수직 취임 연설에서 영국의 의무와 제국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요지로 연설을 했다.

This is what England must either do, or perish: she must found colonies as fast and as far as she is able, formed of her most energetic and worthiest men; seizing every piece of fruitful waste ground she can set her foot on, and there teaching these her colonists that their chief virtue is to be fidelity to their country, and that their first aim is to be able to advance the power of England by land and sea.¹³⁾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19세기 말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명문 사립학교는 제국의 지도자 양성소로서 지식교육보다 관료로서의 자질교육에 주력하게 된다.¹⁴⁾ 이들 학교에서는 장차 식민지 사업을 수행할 미래 세대를 양산할 목적으로 지리, 역사, 제식 훈련 등이 주요 과목으로 채택되었다.¹⁵⁾ 빅토리아조 후기, 에드워드 왕조 동안 영국의 젊은이들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성장했으며 이들에겐 제국주의적 가치관과 애국적 정서가 상당히 팽배해 있었다. 또한 타민족을 지배하고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제국주의적 남성성(Imperial Manliness) 즉, 용기, 신체적 강인함, 애국적 헌신 등의 덕목이 강조되었다.¹⁶⁾

약천후 속에서도 관할 지역의 야간 근무를 게을리 하지 않는 스코비는 성실한 식민지 관료이다. 그가 아프리카의 울창한 밀림에 쏟아지는 비에도 아랑곳없이 순찰하는 대목은 제국주의적 남성성과 애국적 헌신을 강조하는 루드야드 키플링(Rudyard Kipling)¹⁷⁾의 시를 연상시킨다.

Now, this is the road that the White Men tread

13) John Ruskin, "From Lecture on Art - Imperial Duty," *The Norton Anthology of English Literature* 7th ed., Vol. 2 eds. M. H. Abrams et al. (New York: Norton, 2000) pp. 2019-20.

14) 해로우(Harrow) 학교 웰던(J. E. C Welldon) 교장은 다음과 같이 학생들에게 훈화를 했다. "오늘 날의 소년들은 미래의 정치가이자 행정가들이다. 이들의 손에 제국의 미래가 달려있다. 부디 이 숭고한 의무에 부적합한 인물이 되거나 조상들이 이룩한 제국을 망가뜨리는 일이 없기를 기원한다. 이 훌륭한 이상을 가슴에 품고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주기를! 이것이 내가 축원하는 바이다!" J. E. C Welldon, "The imperial purpose of education," *Proceedings of the Royal Colonial Institute 1894-5*, vol. 26, p. 839. C. C. Eldridge, *The Imperial Experience: from Carlyle to Forster* (New York: St. Martin's, 1996) pp. 92-93에서 재인용.

15) Eldridge, p. 89.

16) Alastair Pennycook, *English and the Discourses of Colonialism* (London: Routledge, 1998) p. 63.

17) 루드야드 키플링(Rudyard Kipling)(1865-1936)은 인도 봄베이에서 출생한 영국의 시인이자 소설가이다. 늑대에 의해 키워진 소년의 이야기를 그린 *The Jungle Book*과 인도를 배경으로 한 소설 *Kim* 등으로 명성을 떨쳤으며 1907년 영국인으로서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그는 영국 식민정책과 인종차별주의를 지지했고, 그의 시집 *Barrack-Room Ballads*를 포함한 많은 작품들이 제국주의를 옹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 애국시인으로 칭송되었다. "Rudyard Kipling," *The Literature Network*, Sep. 2005 <<http://www.online-literature.com/kipling>>.

When they go to clean a land-
 Iron underfoot and levin overhead
 And the deep on either hand.
 We have trod that road-and a wet and windy road-
 Our chosen star for guide.
 Oh, well for the world when the White Men tread
 Their highway side by side!¹⁸⁾

이 시의 요지는 “머리 위로 번갯불이” 내리쳐도 “발에는 단단한 군화”를 신고 “비에 젖고 바람 부는 길”을 걸어 “대지를 깨끗하게 하는 일”은 무질서와 혼돈을 평정하기 위한 백인의 임무라는 내용이다. 야간순찰을 도는 스코비의 모습처럼 이 시에서 비바람치고 어두운 길을 깨끗하게 걸어가는 백인의 발걸음은 비장해 보인다. 엘드리지(C. C. Eldridge)에 따르면 키플링이 지향했던 제국은 법과 질서 그리고 규율로 대변되며 암흑과 무질서, 혼란을 평정하여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¹⁹⁾ 이 과정에서 식민지 관료는 온갖 어려움에 부딪치지만 힘든 여건 속에서도 자신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즉, 키플링의 영웅은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정의로운 행정가로서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높은 이상을 위해 노력하며 원주민의 신뢰를 얻어 제국의 발전을 도모한다. 그러므로 키플링이 찬양하는 영웅적 행위와 사상은 너무도 위대하고 숭고하여 마치 전 인류를 위한 복음처럼 들린다.

한편 9월까지 계속되는 이 지역의 비는 그 소리가 워낙 요란해서 “양철 지붕위에서 북을 치는 것(drumming on the iron roofs)”⁽²²⁵⁾처럼 시끄럽지만 곧 익숙해져야 하며, “대지를 깨끗이 하기위한(to clean a land)” 역사적 사명을 부여받은 이들에게 “비에 젖고 바람 부는 길(a wet and windy road)”을 걷는 것은 백인에게 주어진 숙명이자 신성한 의무이다. 즉, 모진

18) Rudyard Kipling, ‘A Song of the White Men’ (1899), 9-16.

19) Eldridge, p. 114.

기후와 거친 환경을 극복하고 적응하는 것은 식민 통치자의 기본적 과제이며, 이들은 어떤 악조건도 굴하지 않고 식민지 팽창사업을 확대시켜나가야 한다고 믿는다. 스코비를 비롯한 이곳의 동료들은 이러한 식민 이데올로기의 소유자이다. 동일한 근무지에 파견된 동창생 해리스(Harris)와 윌슨 역시 오랜 우기와 유행하는 열병에도 아랑곳없이 견재하고 있음을 자랑한다.

We are in the middle of the rains now - and how it does rain. There's a lot of fever about, but I've only had one dose, and E. Wilson has so far escaped altogether. We are sharing a little house together, so that you can feel that Old Downhamians even in this wild and distant part stick together. (157)

해리스와 윌슨은 떠나면 이국땅의 거친 환경과 싸우는 가운데 같은 학교 출신이라는 동질의식을 더 강하게 느낀다. 열악한 기후 조건과 질병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들은 조국에 대한 충성심으로 무장되어 있으며 제국주의 팽창사업에 앞장선다. 이 시대의 영국인에게 있어서 제국의 지배는 종속민에게 혜택을 베푸는 온정어린 통치이며, 미개한 민족을 개화시키는 문명화는 그들에게 맡겨진 숙명적인 사명이자 성스러운 위업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신념은 현실에서 도전받고 수많은 어려움에 봉착한다. 실제로 식민지 통치 과정에서 자격 미달의 관료를 선발, 배정했던 행정적 문제가 지적되었고, “극도의 이상함, 참을 수 없는 매너, 남자답지 못함, 무능력” 등이 문관시험에서 매일 맞닥뜨리는 일이었다.²⁰⁾

20) 식민지 행정에서 신사적 영국 행정가의 이상적 모델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다. 1858년 이후 대학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이나 전통 사립학교 출신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합격하게 되었다. 1876-1886년 동안 봄베이 주재 37명의 영국인 문관들 가운데 5명이 정신이상자였고, 7명이 건강상의 이유로 조기 은퇴했으며 13명은 건강상태가 몹시 나빴다. 박지향, 『제국주의: 신화와 현실』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p. 165.

이 작품의 주인공 스코비의 경우를 보아도 그에게서 식민 관료로서의 뚜렷한 직업의식이나 강한 자부심을 찾기는 어렵다. 이 소설에는 키플링 시에 나타난 제국의 이상을 품은 늙은 관료가 아니라, 나약하고 패기가 없는 스코비나, 색욕에 빠져 사창가를 전전하는 율슨같은 한심한 인물들이 등장한다. 스코비는 15년이란 긴 세월동안 아프리카에 머물렀지만 그에게는 체류에 대한 목적의식도 희박해 보이며 공무상의 어려움이나 고민도 별로 없어 보인다. 더욱이 식민체제라는 억압 상황에서 당연히 느낄 법한 양심의 가책과 성찰은커녕 이념적 갈등이나 체제에 대한 최소한의 회의도 겪지 않는다. 소시민적인 그는 사회 정치적 문제보다 개인적 인간관계에 연연한다. 공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그는 근무시간에도 정부 헬렌의 집을 수시로 방문하며 사사로운 애정관계에 몰두할 뿐이다. 그의 유일한 관심은 부인과 정부의 행복이며 이를 위한 불륜과 암거래도 서슴지 않는다.

이와 같이 식민관료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그는 법과 질서의 파수꾼이 아니라 오히려 파괴자가 된다. 그 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나약한 그는 현실을 직면하거나 타개하지 못하고 자살이라는 도피책을 강구한다. 따라서 그는 제국주의적 강한 남성상과는 동떨어진 인물이며, 그의 비도덕적 행각은 식민 관료로서의 자질에 의문을 품게 한다. 헤론에 따르면 스코비는 직업상 가져야 할 최소한의 정치적 관심도 갖지 않는 것처럼 보이며, 이러한 스코비를 “정의로운 인물, 스코비(Scobie, the just)”(274)라고 평가하는 말은 너무 지나쳐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한다.²¹⁾

스코비처럼 유약하고 무능한 어린 문관이 현지에서 끝내 적응하지 못하고 희생된 또 다른 예가 있다. 바로 팸버튼(Pemberton)의 경우이다. 아직도 사춘기 소년의 티를 벗어나지 못한 그에게 아프리카 식민지 관료로서의 막중한 의무는 압박감으로 작용했고 낮은 환경과 심한 고독감은 그의 자살을 부채질한다. 스코비는 클레이 신부(Father Clay)와 함께 자살 현장을 조사한다.

21) Heron, p. 17.

팸버튼의 시신을 덮었던 하얀 천을 걷어내자 “사춘기의 여드름(the pimples of puberty)”(88)이 맨 먼저 드러난다.

Father Clay followed him. The body had been laid on the bed with a sheet over the face. When Scobie turned the sheet down to the shoulder he had the impression that he was looking at a child in a night-shirt quietly asleep: the pimples were the pimples of puberty and the dead face seemed to bear the trace of no experience beyond the class-room or the football field. (88)

따라서 행정적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자격미달의 사춘기 소년을 식민지 관료로 임명한 것은 잘못된 선민의식과 인종적 오만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옆방의 프레이저(Fraser)가 휴가를 다녀온 뒤 “그대와 내가 죽어갈 때, 우리는 무엇을 염려할까, 그 이유와 원인을 염려할까(What will we care for, the why and the wherefore? When you and I, are pushing up the daisies?)”(52)라는 노래를 매일 밤 부른 것도 이들의 타향 생활이 매우 힘겹고 고통스러운 것임을 의미한다. 동시에 머지않아 이곳이 “백인의 무덤(the white man's grave)”(157)이 되리라는 것을 암시한다. 헤론이 언급한 것처럼 키플링적 열정과 힘이 부족한 젊은 문관들은 작가에 의해 조롱 받고 유린당한다.²²⁾ 이들은 여러 해 동안 모교와 연락이 두절되다가 우연히 교지를 받고 매우 기뻐하며 본국과의 유일한 연락망을 소중하게 여기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은 낯설고 외로울 뿐만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식민지란 특수한 상황에 결국 적응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다.

Scobie read, in a handwriting as unformed as the face, a

22) Heron, p. 18.

script-writing which hundreds of his school contemporaries must have been turning out all over the world. (88)

이 말은 팸버튼 이외에도 전 세계에 걸쳐 식민지에서 희생된 영국인의 수가 적지 않으며 거기에는 어린 티가 나는 얼굴이나 아직 필적조차 틀이 잡히지 않은 아주 젊은 나이의 관료들도 포함되었음을 시사한다. 문명화의 사명에 불타 선불리 뛰어난 아프리카의 생활이 특히 어린 관료들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고역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러스킨의 책동에 의해 “영국에 대한 사랑에 불타 스스로 목숨을 던져 제국의 총알받이가 된(. . . to cast themselves against cannon-mouths for love of England.)”²³⁾ 이들의 희생은 서구의 책임이나 문명화의 사명과 같은 화려한 정치 슬로건 이면에 숨겨진 어두운 그늘이며 제국주의적 기만과 망상임이 드러난다. 정치가이자 저널리스트인 찰스 마스터맨(Charles Masterman)의 글은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한다.



We always conquered and never assimilated our conquests; we were so just and so unloved. . . . For the spirit of that Empire - clean, efficient, austere, intolerably just - is the spirit which has banished to these forgotten barrack-prisons and behind high walls the helpless young and the helpless old, the maimed, the restless, and the dead. It was the very machine of empire, involving human denigration of denial of freedom, which really undermined the imperial ideal.²⁴⁾

23) 존 러스킨(John Ruskin)은 1870년 옥스퍼드 대학 취임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식민관료의 최고 덕목은 모국에 충성을 바치는 것이며 이들의 임무는 땅 끝, 바다 끝까지 영국의 힘을 떨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시대는 아무리 먼 곳에 파견되더라도 공민권을 빼앗겼다고 생각하지 않고 조국에 대한 사랑으로 스스로 목숨을 던져 총알받이가 될 젊은이를 찾는다.” John Ruskin, “Lecture on Art - Imperial Duty,” *The Norton Anthology of English Literature* 7th Vol. 2, pp. 2019-20. Eldridge, p. 41에서 재인용.

24) Charles Masterman, *In Peril of Change* (London: T. Fisher Unwin, 1905) p. 138.

잘못된 제국의 통치에 동조하며 압제자 역할을 했던 조지 오웰(George Orwell) 역시 인도 경찰서에서 근무했던 자신의 고통스러웠던 경험과 기억을 떠올리며 참회한다.

For five years I had been part of an oppressive system, and it had left me with a bad conscience. Innumerable remembered faces - faces of prisoners in the dock, of men waiting in the condemned cells, of subordinates I had bullied and aged peasants I had snubbed, of servants and coolies I had hit with my fist in moments of rage haunted me intolerably. I was conscious of an immense weight of guilt that I had got to expiate.²⁵⁾

말하자면 오웰의 증언을 통해 우리는 그가 당시 상황에 대한 말 못할 혐오와 뼈아픈 통회를 하고 있으며, 체제의 일원으로서 옹지 못한 식민 독재에 합류했음을 인정하는 자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당시 지식인들 역시 식민통치 과정에서 영국인의 인종적 오만이 상당한 오류를 낳았고, 무식하고 야만적인 인종을 계몽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은 시간낭비이며, 차라리 “영국에서 그늘진 곳”의 가난과 고통에 주력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말했다.²⁶⁾ 따라서 법과 질서를 대변하는 키플링의 제국은 무질서와 암흑, 죽음이 난무하고 규율과 봉사, 의무를 기치로 내걸은 관료들은 도리어 폭력과 억압, 착취를 일삼는다. 식민사업의 동조자로서 선민사상에 젖어있던 이들의 자부심은 햄버튼의 죽음이나 오웰의 고백처럼 수치심과 죄책감, 절망감으로 먹칠된다. 최소한 *The Heart of the Matter*에서 늙은 키플링의 후예다운 투철한 신념과 숭고한 이상의 소유자는 찾아보기 어렵다.

25) George Orwell, *The Road to Wigan Pier* (London: Penguin Books, 1978) pp. 179-80.

26) Eldridge, p. 65.

그린은 실제 서아프리카 열대 식민지 사회를 돌아본 후 쓴 *Journey without Maps*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If one must condemn, one should condemn not the outposts but the headquarters of Empire, the country which has given them only this: a feeling for respectability and a sense of fairness withering in the heat. (40)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의 입장은 식민 체제 자체에 대한 비판이나 부정이 아니다. 오히려 식민 본국과 멀리 떨어진 변방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통치상의 맹점과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²⁷⁾ 그러므로 이역만리 떨어진 곳에서 진보와 선진 사상을 전달하겠다는 이들의 문명화의 사명은 개인의 희생을 담보로 하며, 피폐해진 개인의 삶 속에서는 그 사명감도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윤리적 지상명령처럼 여겨졌던 제국의 임무가 더 이상 순수하고 고상한 이타적 봉사가 아니며 인류를 위한 헌신적 봉사도 아님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다.

3. 열악한 환경과 생존적 투쟁

문명화의 역사적 위업을 가로막는 장애 요소 중 하나는 열악한 자연 환경이다. 열대 지방의 습막히는 더위와 지리한 장마는 현지 주재원들에게 이겨내기 힘든 악조건으로 작용한다. 즉, 문명의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하는 원시적

27) 영제국에서 중앙으로부터의 통제가 느슨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관료의 수적 제한과 비효율성 때문이었다. 식민지 행정의 주 부서라 할 수 있는 식민성은 형편없는 건물에 위치해 있었고 소규모 부서로 철저한 감독이 불가능했다. 외교적 전문성을 갖고 있지 못한 런던의 관리들은 거의 식민지를 방문하지 않았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당면한 어려움을 잘 알지 못했으며, 식민지가 어디 위치하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었다. L. H. Ganne & Peter Duignan, *The Rulers of British Africa, 1870-1914* (London: Croom Helm, 1978) p. 46.

주거환경과 더불어 나쁜 기후 조건은 이들에게 악재가 된다. 기본시설조차 되어있지 않은 목욕탕만 봐도 낙후된 생활조건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Scobie walked into the bathroom, disturbing a rat that had been couched on the cool rim of the bath, like a cat on a gravestone. . . . The bath of scratched enamel with a single tap which always ceased to work before the end of the dry season: the tin bucket under the lavatory seat emptied once a day: the fixed basin with another useless tap: bare floorboards: drab green black-out curtains. (37)

스코비는 자신의 방갈로를 고참에게 빼앗겨 저지대의 이층집으로 밀려난다. 그의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목욕탕은 건기가 되면 물 공급도 끊기며 제대로 된 위생시설을 갖추지도 못했다. 게다가 저지대는 원래 습지를 말려 집을 세운 곳이어서 비만 오면 당장 습지로 변하는 땅이다. 온종일 램프불을 켜고 있어도 구두에 곰팡이가 슬 정도로 습하며 책들이 썩지 않도록 매일 습기를 제거해야 한다. 더위에 지친 루이스는 남편 스코비에게 애꿎은 날씨에 대해 불평을 한다.

His hand was dripping with sweat. . . . “It's so hot in the car.” “I'll be glad when the rains come.” “Will you?” “If only they just went on for a month or two and then stopped.” (21)

“손가락과 손가락이 닿기만 하여도 곧 땀이 흐를 만큼(. . . if it were only a finger lying against a finger, sweat started.)” (39) 참기 힘든 더위 때문에 사람들은 비를 기다리지만 이 우기 또한 보통 한두 달 넘게 지속될 만큼 지루하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부적합한 습하고 더운 날씨는

역설적이게도 여러 해충이 창궐하는 데는 이상적인 조건이 된다. 누추하고 낙후한 주거공간마저 곤충에게 자리를 내어준 지 오래다. 밤이면 더 기승을 부리는 이들의 침입으로 안방은 벌레들의 소굴이 된다.

Misery is worse in the darkness: there's nothing to look at except the green black-out curtains, the Government furniture, the flying ants scattering their wings over the table: a hundred yards away the Creole's pye-dogs yapped and wailed.

“Look at that little beggar.” he said, pointing at the house lizard that always came out upon the wall about this time to hunt for moths and cockroaches. (57-58)

이처럼 서아프리카는 더운 날씨와 지저분한 환경은 벌레들이 살기에 최적의 서식지가 된다. “도마뱀은 벽 위에서 잽싸게 움직이더니 작은 턱으로 나방의 날개를 물고 잠시 쉬고 있고, 개미들은 작은 소리를 내며 전구 주위에 와서 부딪치는(The lizard flicked across the wall and came to rest again, with the wing of a moth in his small crocodile jaws, the ants struck tiny muffled blows at the electric globe.)” (60) 등 온갖 벌레가 안방까지 득실거리며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글거린다. 퇴치와 박멸의 대상인 해충들은 혐오감과 공포심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각종 질병을 옮긴다. 특히 모기가 원인인 말라리아는 이곳에서 성행하는 악명 높은 전염병이며,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 “우기를 알리는 썩은 듯한 공기(. . . the stale air was heavy with the coming rains.)” (114) 또한 해충과 더불어 불결, 부패, 질병, 죽음을 연상시킨다. 아래의 인용처럼 악천후를 무릅쓰고 관할구역을 순찰하는 스코비 역시 몸과 마음이 다 문드러지며 썩어 들어가는 “부패감(a sense of corruption)”(196)을 느낀다.

He put on his mackintosh and went out again in the rain.
Wounds festered in the damp, they never healed. Scratch
your finger and in a few hours there would be a little coating
of green skin. He carried a sense of corruption up the hill.
(196)

이와 같이 비위생적인 환경과 나쁜 기후는 인간이 거주하기에 적합하지 못한 악조건이 된다. 쏟아지는 빗속에서도 스코비의 순찰은 계속되지만 식민지의 관료로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려는 그는 주위의 환경으로 인해 유혹을 받는다. 조그만 상처도 몇 시간만 내버려두면 상처가 굵는 이 곳에서 육체적인 건강을 지키기도 어렵지만 정신적으로 온전하게 버티기도 쉽지 않다. 육체는 물론 정신마저 썩어 들어가게 될까봐 스코비는 두려워한다. 상처의 부패는 곧 정신적 해이와 타락을 상징한다. 헤론이 지적했듯이 아프리카의 어두운 분위기는 스코비가 타락과 죄에 연루되는 과정에서 그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²⁸⁾ 아프리카 근무에 대해 불만을 품는 헤리스도 이런 척박한 환경에 대해 노골적인 혐오감을 드러낸다.

“Been here long?” “Eighteen bloody months.” “Going home soon?” “When I do get home you'll never see me here again . . . I hate the place. I hate the people. I hate the bloody niggers. Mustn't call'em that, you know.” (5)

따라서 식민지 사업과 관련하여 본국에서 이주해온 영국인들은 아프리카에서 살아남기 위한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강구한다. 현대 시인과 버어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를 좋아하는 루이스는 책을 열심히 읽고, 시나 소설을 읽는 일 외에는 할 일이 없는 월슨은 덤고 지지분한 방에서 “골든 트레저리 시집

28) Heron, p. 17.

(*The Golden Treasury*)”(4)을 읽는다. 프레이저는 휴가에서 돌아온 후 향수 병을 이기기 위해 매일 같은 곡조의 노래를 부른다. 치과 위생법을 잘 알고 있고 하루 5번씩 양치를 하는 해리스는 “이런 고약한 기후에도 내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식사 전후에 반드시 이를 닦기 때문이야(It's cleaning my teeth before and after every meal that's kept me well in this bloody climate.)”(62)라고 말한다. 이들은 모두 문학 서적을 탐독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건강관리를 하는 등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폐해지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생존하기 위해 발버둥친다. 바퀴벌레를 많이 잡는 자에게 챔피언십을 주는 유치한 오락 행위도 이들이 고안해 낸 삶의 한 방편이다.

“I couldn't sleep until we'd had out hunt.” Wilson said with irony, “There might be a silver cup.” “Stranger things have happened, old man. The Cock-roach Championship.”

To and fro across the room Wilson and Harris padded, weaving their lights, smashing down their shoes, occasionally losing their heads and pursuing wildly into corners. (73-74)

바퀴벌레 잡기는 근무가 끝난 후의 무료하고 따분한 일상을 보내기 위한 방법이다. 이들은 밤마다 해충을 쫓아다니고 벌레를 많이 때려잡은 자에게 상금과 상패를 주는 시합을 한다. 권위와 위엄을 갖춘 식민지 관료답지 않게 우스꽝스럽고 어이없는 이런 모습은 그들에게는 일종의 생존전략이며 살아남기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다. 그러므로 문명화의 미명 아래 행해지는 식민지 사업은 빗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며, 그 허위성은 개개인이 겪는 고독과 절망, 죽음을 통해 다시 한번 여실히 드러난다.

소설 전반에서 아프리카의 순수한 미에 대한 언급은 극히 드물며, 뜨거운 열기에 대한 불만스런 표현이 계속된다. “비열과 악의와 속물근성에 적합한 기후(It's climate for meanness, malice, snobbery.)”(27)라고 불평하는 스

코비의 말은 곧 그가 사는 세상이 지옥 자체이며 죽음과 부패가 만연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정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나름대로의 생존 방식을 추구하는 데 반해, 스코비는 교민사회에서 소외되며 이방인처럼 곁도는 생활을 한다. 리사 비어먼(Lisa Bierman)이 언급했듯이 스코비가 처한 상황은 모국 영국땅을 떠나 황량하고 쓸쓸한 불모지에 떨어진 씨앗에 비유될 수 있다.²⁹⁾

따라서 황무지에 뿌리를 내린 스코비의 마음엔 평화와 안정이 깃드는 날이 없다. 그는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싫어하며 부인이 사고모임에 나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문학에도 취미가 없다. 또한 서장 승진을 앞두고도 진급에 별 관심이 없고 부서장으로 은퇴하면서도 개의치 않는다. 더욱이 루이스와 결혼할 때 가톨릭에 입교하였으나 종교를 통해 영혼의 안식을 구하기보다 지나친 죄의식에 사로잡힌다. 그는 평화를 갈구하지만 스스로가 불안한 환경을 조성할 뿐이다. 비평가 비어먼의 지적처럼 스코비는 자신의 집을 점점 “빈약한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을 뿐 아니라 조국도, 문화도, 종교나 지식도 없는 사람으로 변화해 가며, 이러한 결핍 현상은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이다.³⁰⁾ 그러나 이 모든 원인은 그가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 머무르기로 결정한 탓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모든 정황에 비추어보아 15년간의 아프리카 장기근속으로 인한 후유증과 이곳의 외부적 환경이 그의 염세적 성격을 형성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즉, 그의 부정적 사고나 비관적 행동은 내재화된 외부 환경의 결과이다.

많은 비평가들은 그린의 작품에 가득한 절망과 어둠의 이미지를 두고 여러 의견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 비평가 마리 베아트리스 메스네(Marie-Beatrice Mesnet)는 암흑세계에 대한 그린의 집착을 그의 신앙적

29) Lisa Bierman, "Scobie Reconsidered: A Casualty of Catholicism or Conscience?," *Renaissance* 1 (2000): p. 66.

30) Bierman, p. 67.

표현이라 분석한다. 즉, 천진하고 아름다운 얼굴 이면에 숨겨진 사탄의 추악함을 그린의 꿰뚫어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³¹⁾ 한편 존 스펀링(John Spurling)은 그린의 작품을 가톨릭 신학과 관련짓지 않고 동시대 타 작가와의 연관성 속에서 파악한다. 다시 말해 그린은 가치 상실의 시대에 방황하는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 신성모독을 도입했고, 신앙적 양심을 지키지 못한 스코비의 좌절감은 종교적 범위를 벗어난 유럽 사회의 혼돈과 동시대 작가들의 고민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한다.³²⁾ 반면 주디스 아담슨(Judith Adamson)은 다른 견해를 제시한다. 즉, 스코비가 자신의 임무를 제대로 행하지 못하고 심각한 도덕적 혼란에 빠지는 것은 그가 대변하는 서양문명의 몰락을 시사한다고 해석한다.³³⁾ 또 마틴 그린(Martin Greene)은 이 작품에 나타난 어두운 분위기를 제국주의의 쇠퇴와 연결짓기도 한다.³⁴⁾

이처럼 그린의 작품에 나타나는 절망과 어둠의 이미지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도 불구하고 *Journey without Maps*에서 그린의 직접 밝혔듯이, 아프리카는 그에게 최악과 불행, 죽음 등의 이미지를 불러일으킨다. 이는 스코비가 타락과 죄의 나라로 떨어지는 필요충분조건이 된다. 헤론은 가톨릭 신자인 스코비가 자살을 서서히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어서 아프리카의 기후가 그 빌미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³⁵⁾ 조그만 상처도 곧 화농이 생기는 습한 기후에서 이제 절망에 빠진 스코비는 서서히 악의 구렁텅이로 말려

31) 메스네는 스코비가 너무 쉽게 지옥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가 사는 프리타운의 불결함과 황폐함 등은 인간의 어두운 내면을 상징한다고 설명한다. Marie-Beatrice Mesnet, *Graham Greene and The Heart of the Matter* (London: The Crescent Press, 1954) p. 11.

32) 스펀링의 설명에 따르면 이 시대 작가들은 세기말경에 태어나 20세기에 들어와 빅토리아 시대의 사회질서와 가치기준이 붕괴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세대이며, 염세적 주인공을 통해 자신들의 세기말적 인식을 반영한다. John Spurling, *Graham Greene* (London: Methuen, 1983) p. 71.

33) Judith Adamson, *Graham Greene: The Dangerous Edge, Where Art and Politics Meet* (London: Macmillan, 1990) p. 80.

34) Martin Greene, *The English Novel in Twentieth Century: The Doom of Empire* (London: Routledge, 1984) p. 18.

35) Heron, p. 17.

들게 된다. 주위 사람들처럼 아프리카에서 살아남기 위한 자구책도 세우지 못한 그는 한번 매몰된 죄의식에서 도저히 헤어 나오지 못한다. 즉, 삶에 대한 적극적 자세나 애착이 결핍된 그는 문제 해결 능력이나 의지조차 상실해버린 것이다. 그런 스코비가 죄의 하중을 이기지 못하면서도 동시에 아프리카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식민지라는 해방된 공간이 주는 자유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미지의 광범위한 공간인 제국은 본국에서는 기이하게 여겨지거나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인간에게 돈벌이와 이민, 성적 방종 등을 허용하는 곳이기 때문이다.³⁶⁾

이처럼 모든 가능성과 도피의 영역이자 억압된 욕망의 배출구 역할을 하는 제국은 스코비의 도피처가 되기에 충분하다. 영국이라는 규범적 사회에서는 차별의 대상이 되는 밀수와 불륜도 이곳에서는 큰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페트릭 브랜트링거(Patrick Brantlinger)의 지적처럼 아프리카는 영국 소년이 어른으로 성장하는 곳이자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마치 아이들처럼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 있는 곳이다.³⁷⁾ 즉, 아프리카는 거대한 시험장으로 도덕적 성장과 타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스코비는 이 시험장에서의 단련을 성장의 기회로 삼지 못하고 타락의 유혹에 빠져 스스로 도태되고 만 것이다.

4. 절망과 고독의 군상들

제국 신화의 창조자로서 키플링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이다. 그는 “제국의 찬송가”를 노래했고 1890년대 제국주의적 팽창

36) Edward Said, *Culture and Imperialism* (New York: Vintage, 1994) p. 134.

37) Patrick Brantlinger, “Victorians and Africans: The Genealogy of the Myth of the Dark Continent,” *“Race,” Writing and Difference* ed. Henry Louis Gates, Jr. (Chicago: Chicago UP, 1986) p. 209.

의 분위기를 선동하였으며 그것을 만드는 데 기여하였다.³⁸⁾ 그는 “백인의 짐”이라는 문구를 창조해냄으로서 제국주의 사업을 영국 국민의 소명으로 선전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키플링은 시를 통해 가장 훌륭한 나라의 일꾼으로 발굴된 젊은이들을 제국의 성스러운 제단에 바치도록 종용하며, 식민지 정복의 위대한 제단에 몸 바칠 자에게 향수병 따위의 유량의 설움은 한낱 감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애국심을 고취시킨다.

Take up the White Man's burden
 Send forth the best ye breed
 Go bind your sons to exile
 To serve your captives' need;
 To wait in heavy harness
 On fluttered folk and wild
 Your new-caught, sullen peoples,
 Half devil and half child.³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명화의 사명을 띠고 “백인의 짐”을 기꺼이 떠맡으려 하는 영국인들에게 아프리카는 결코 호락호락한 땅이 아니었다. “아프리카에서 몇 달 지내는 동안 억양이 변하고 높은 어조와 불성실하게 말하게 되는(Here intonations changed in the course of a few months; became high-pitched and insincere.)” (39) 이들은 본국에서 쓰는 영어의 어투조차 낯설게 들린다. 남편 스코비를 따라 이 곳으로 온 루이스의 얼굴은 “애틀브린 약과 같은 누런 상아색으로 변했고, 한 때 황금빛이던 머리카락은 지금은 땀에 젖어 검고 영겨 있다(Her face had the yellow-ivory tinge of atabrine; her hair, which had once been the colour of bottled

38) 박지향, p. 186.

39) Ruyard Kipling, 'A Song of White Men's Burden' (1899), II. 1-8.

honey, was dark and stringy with sweat.)” (16). 아내의 변해버린 모습을 스코비는 안타깝게 쳐다본다. 게다가 절규에 가까운 루이스의 하소연은 그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든다.

Ticki, I can't bear this place any longer. I know I've said it before, but I mean it this time. I shall go mad. Ticki, I'm so lonely. I haven't a friend, Ticki. (58)

“티키”는 그녀가 남편 스코비를 부를 때 쓰는 애칭이다. 루이스는 남편의 근무지에 따라와 낮은 환경에 적응하려고 하지만, 엘리트 출신 백인 여성인 그녀가 살아가기에 이곳은 너무도 황량하고 살벌한 곳이다. 마음을 의지할 친구가 없는 그녀는 오로지 독서로 그 무료함과 적적함을 달랜다. 그러던 어느 날 본국에서 온 젊은 회계사 윌슨이 접근해오자, 그녀는 곧 사랑에 빠지며, 그와의 만남은 그녀의 유일한 낙이 된다. 유부녀 루이스를 사랑하고 그녀와 키스한 사실을 자백하는 윌슨에게 스코비는 “태양으로 인한 일종의 일사병(It was just a touch of sun.)” (140) 때문이며, “기후와 과로 탓(It's climate and you are overwrought.)”(267)이니 가서 쉬도록 타이른다. 15년 동안 그런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며 이 일을 문제 삼기는커녕, 남편의 일 대하듯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스코비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불륜의 사실을 남편에게 스스럼없이 밝히는 루이스의 태도 또한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도덕적 판단력을 상실하고 가치관마저 흔들리게 된 것을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 살벌한 환경 탓으로 생각한다. 어린 나이에 지사주임으로 발령받은 팸버튼도 그 지방의 유일한 백인이다. 그는 외로움을 함께 나눌 친구가 없었고 카드나 술 이외에 벗 삼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 죽음을 택한 그에게 자살은 유일한 해결책이었다.

실제로 아시아, 아프리카에서 활동하는 민간인과 군인들의 사망률은 엄청나게 높아서 영국에서 세계 각지로 파견된 군인들 가운데 시에라리온에서는 1,000명 가운데 483명이, 황금 해안(Golden Coast)에서는 669명이 사망하였다.⁴⁰⁾ 이 통계가 증명하는 바와 같이 열대 아프리카는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열악한 환경임을 보여준다. 게다가 높은 사망율로 악명높은 시에라리온과 황금 해안이 바로 이 작품의 무대인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실제 죽음이란 최악의 상황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대부분의 백인들이 거의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방황하거나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경우를 작품을 통해 볼 수 있다.

12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사목한 랭크(Rank) 신부 역시 사제직에 대한 소명의식을 잃었을 뿐 아니라 스스로 무능한 신부라고 비하한다. 타국에서의 절망과 고독을 마약으로 달래며 살아가는 그는 스스로를 자책하며 모든 원인이 기후에 있다고 말한다.



“The dying,” Father Rank said, “that's what I'm here for. They send for me when they are dying.” He raised eyes bleary with too much quinine and said harshly and hopelessly, “I've never been any good to living, Scobie.”. . . “You see, I'm not a reading man, Scobie: I never had much talent for loving God as some people do. I wanted to be of use, that's all. Don't listen to me. It's the rains. I haven't talked like this for five years.” (198-99)

12년 동안의 사목생활 중 지금까지 개종자가 겨우 15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에서 이 지역이 선교활동 하기에 극히 힘든 곳임을 알 수 있다. 단지 성무

40) 반면에 남아프리카에서의 사망율은 12명에 불과했다. 열대 아프리카는 진정 “백인의 무덤”이었던 것이다. 박지향, p. 222.

일도와 몇 권의 종교서적만이 꽂혀있는 작은 책상은 빈약한 그의 영성과 얽어지는 신앙심을 의미한다. 선교사들은 스스로가 신앙의 힘이 약해지는 데 두려움을 느꼈고 우상을 숭배하는 원주민을 개종시키는 것보다 스스로가 우상숭배에 빠져들까 봐 성령으로 굳게 무장해야만 했다.⁴¹⁾

이처럼 선교사들이 쉽게 원주민화되는 경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의 불모지인 아프리카에 투입된 것은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문명화의 사명이라는 의무감이 포교를 앞세워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즉, 제국주의는 신이 주신 사명이 되었고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는 제국은 사회적, 정신적 개혁을 기다리는 거대한 교구가 되었다. 19세기 동안 선교사와 국가의 관계는 더욱 밀접한 의존 관계로 발전하였다. 선교사들은 토착민들 사이에서 생활하고 일하면서 지역 사정에 대한 많은 지식을 지니고 있었다. 영국 정부에 지리적, 전략적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선교사들은 “영국을 위한 길 개척자”라고 불리었다.⁴²⁾ 선교 사업의 성과는 곧 식민지 획득이라는 결과를 낳았고 제국의 깃발과 무역은 종종 십자가를 따라 다녔다.⁴³⁾ 이처럼 기독교 선교와 제국주의의 관계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았다.

그러나 외방선교라는 성스러운 의무와 소명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시간이 갈수록 퇴색되어가고 평화와 희망의 복음은 그 빛을 잃고 만다. 멀쩡하던 사람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거나 비정상적인 행동을 거듭하며, 무기력과 죄의식에 빠져들 때마다 이들은 한결같이 아프리카 땅을 저주한다. 이들이 제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일탈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제력과 도덕성의 부족이 아니라 아프리카라는 열악한 환경 즉, 외부적인 조건으로 그려진다. 그곳에 사는 한 그 누구도 부패나 질병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결국 불행과 파멸에 이르게 된다고 그들은 항변한다. 제임스 스캔넬(James Scannell)이

41) Simon Smith, *British Imperialism, 1750-1970* (Cambridge: Cambridge UP, 1998) p. 213.

42) Smith, p. 71.

43) Michael Dolye, *Empires* (New York: Cornell UP, 1986) p. 170.

설명하듯이 식민지는 건전하지 못한 사람들의 폐기처리장이자 자신의 욕구를 채우지 못한 사람들의 피난처이며, *The Heart of the Matter*의 등장인물은 이런 유형의 사람들에 속한다.⁴⁴⁾

작품에서 가장 모범적인 인물인 스코비 역시 아내의 여비 마련 때문에 경찰관의 신분으로 만나서는 안되는 밀수업자 유세프와 몰래 거래를 한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예상하고 있었으며 응분의 댓가를 받게 될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스코비는 “아마 당신이 나만큼 오랜 동안 여기 살았다면 비록 경찰관이지만 사무국에서 교섭을 금하고 있는 인물과도 관계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Perhaps when you have been here as long as I have, you will realize the police are meant to deal with people who are not received at the Secretariat.)”(154)라고 말하며 오히려 자신의 범법 행위를 정당화한다. 따라서 “여기” 즉, 아프리카는 누구나 쉽게 양심을 파묻게 되는 “백인의 무덤”이자 정의가 얼어붙는 동토의 땅이다. 스코비는 “덕행과 선량한 삶(virtue and the good life)”(203)을 추구하려고 애쓰지만 죄의 유혹에 빠지며 제 아무리 현실을 직시하려해도 “비는 그의 눈앞을 흐리게 한다(The rain blurred his[Scobie's] eyes.)”(203). 자신의 그릇된 행위를 반성하기 위해 스코비는 고해성사를 하기로 마음을 먹는다. 그러나 “걸음을 옮길 때마다 그의 두 발이 흙 속에 빠지며(The ground sucked at his[Scobie's] feet as they trod.)”(203) 교회로 가려던 그의 발걸음은 으레 그의 정부인 헬렌의 오두막으로 향해있음을 깨닫는다.

The first spatter of the returning rain licked his face. He thought: I'd go back and go to bed, in the morning I'd write

44) James Scannell, “The Method is Unsound: The Aesthetic Dissonance of Colonial Justification in Kipling, Conrad and Greene,” *Style* 30.3 (1996): p. 428.

to Louise and in the evening go to Confession: the day after that God would return to me in a priest's hands: life would be simple again. (203)

이처럼 스코비는 루이스에게 모든 잘못을 빌고 고백성사를 통하여 새롭게 거듭나려고 결심한다. 그러나 우비를 입고 순찰을 도는 스코비의 마음은 어느 새 헬렌의 “넛센 오두막(Nissen hut)”(203)에 머문다. 강우기가 시작되는 저녁, 랭크 신부가 자괴감에 빠져 스스로의 무능과 타락을 고백한 동기도 비 때문이었듯이, 언제나 모든 죄의 시발점은 비이며 수많은 해충이 창궐하는 아프리카는 온갖 악의 근원지이자 타락의 온상으로 그려진다. 따라서 이 곳에서의 삶은 비와 암흑, 악행, 죄로 이어지는 순환 회로를 끊임없이 맴도는 것이다.

스코비는 부인의 여비마련을 위해 유세프의 돈을 빌린 사실을 직장동료에게 숨기며 정부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불륜을 비밀에 부친다. 그는 직장 동료들에게 거짓말을 하며 건전하지 못한 여자관계를 은밀히 즐긴다. 오직 충실한 종 알리만이 그가 오랫동안 아껴왔던 인물로 남겨진다. 그러나 스스로 저지른 불륜, 뇌물 수수로 인해 타락의 세계에 떨어지면서 스코비는 알리마저 의심하며 모두가 사기꾼으로 알고 있는 유세프에게 오히려 의지한다. 가톨릭 신자이면서도 신에게 의지하기는커녕 걱정이 있을 때마다 유세프를 찾아가며 상황이 악화될수록 더 그를 신뢰한다. 패트릭 매카시(Patrick McCarthy)는 스코비의 대인관계가 모두 기만으로 얽혀 있으며, 이는 시리아 밀수꾼과 영국 배교인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분석한다.⁴⁵⁾

*Heart of Darkness*에서 커츠(Kurtz)가 문명과 원시의 고통스런 분열을 겪었듯이, *The Heart of the Matter*에서 스코비는 도덕과 타락의 첨예한

45) Patrick McCarthy, “Camus, Orwell and Greene: The Impossible Fascination of the Colonised,” *Camus's L'Étranger: Fifty Years On* ed. Adele King (New York: St. Martin's, 1992) p. 227.

갈등의 산물이 된다. 전자의 탐험대가 아프리카 오지에 들어 갈수록 문명의 껍질을 벗고 야만성에 사로잡혔던 것처럼, 후자의 인물들 역시 아프리카에 오래 머물수록 도덕적 시험을 겪으며 마치 블랙홀과도 같은 어둠의 심연으로 빠져든다. 엘드리지의 지적처럼 아프리카 오지에는 신도 도덕적 규율도 없다. 유럽의 초기 문명 시대의 고대인처럼 내면이 문명화되지 못한 검은 자아(black self)가 드러난다.⁴⁶⁾

그러므로 문명의 통제권 밖에 방치된 루이스와 윌슨은 불륜을 저지르며 랭크 신부는 마약에 중독이 된다. 팸버튼은 자살을 하고 그 밖에 다른 관료들은 정신이상에 걸려 본국에 송환된다. 식민지 행정가로서 가장 양심적인 인물이던 스코비도 결국 불륜, 밀수 등 온갖 사회악을 저지르며 죄책감에 시달리다 자살을 택한다. 세상의 빛과 소금인 교회의 선교사명이나, 문명의 빛을 미개의 땅 아프리카에서 밝히려던 문명화의 사명은 모두 퇴색된다. 개인의 타락은 집단의 타락을 유발시키며 도덕성의 상실은 식민지 관료 사회의 기강을 흔들어 놓는다. 비정상이 정상으로 통하고, 몰상식이 상식으로 치부되는 사회에서 그들이 내세운 선진 정치와 종교는 무용지물이 된다.

브랜트링거가 언급했듯이 백인들은 검은 대륙의 신화 즉, 아프리카를 어둠과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도록 구해준다는 속임수로 제국주의의 야욕을 은폐시키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한 백인의 사회적, 도덕적 타락을 모두 아프리카의 탓으로 돌리고 자신들의 희생에 대한 책임을 전가한다.⁴⁷⁾ 따라서 모두가 파멸에 이르는 아프리카 땅 즉, 백인의 무덤은 백인들 스스로가 판 자업자득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문제의 발단과 책임의 소지가 아프리카에 있다고 본질을 왜곡시킴으로써 스스로를 자위하며 면죄를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그린은 *The Heart of the Matter*에서 오리엔탈리즘적 시각

46) Eldridge, p. 75.

47) 빅토리아인이 조작해낸 검은 대륙의 신화는 탐험가와 선교사가 아프리카의 악의 세력을 몰아낸다고 주장한다. Brantlinger, p. 217.

을 유지하면서 유색 인종을 “원시의 이름”으로 타자화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묘사의 반복을 통해 고착화된다. 한편 제국주의의 이상을 품고 아프리카에 파견된 백인 식민관료들은 숨막히는 날씨와 지저분한 환경에 맞서며 아프리카에 정착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그러나 제국주의적 남성성과 거리가 먼 이들은 오히려 식민지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해악을 끼친다. 백인 사회를 구성하는 식민관료와 그 가족, 신부 등은 체류 기간이 길어질수록 무기력감과 고독감에 시달리다 점점 피폐해지며 결국 일탈과 파멸에 이르게 된다. 그린은 아프리카라는 그린랜드의 사회적, 물리적 상황을 암담하고 절망적으로 몰고 가며 백인들의 타락의 동기를 어쩔 수 없는 상황적 불가피성으로 보이도록 유도한다. 이로써 면죄부를 제공받은 백인들은 모든 도덕적 책임을 아프리카로 전가하며 자신들의 인간적 과오를 묵인하고 있는 것이다.



IV. 대영제국의 연륜과 경험:

The Quiet American

그린은 1951부터 1955년 동안에 네 번의 겨울을 인도차이나 전쟁을 취재하기 위해 웨스턴 프레스(*The Western Press*)의 베트남 현지 리포터로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다. *The Quiet American*은 이 시기의 리포터로서의 그린의 경험을 다룬 소설이다. 이 작품에 나오는 주인공 파울러(Fowler) 역시 그린과 같은 직업을 갖고 있는 영국에서 파견된 리포터이다. 그린 스스로도 언급했듯이 소설의 주인공은 작가와 유사성을 갖고 있으며, 그것은 마치 자궁에서 나온 태아와 그 모체와의 관계와 유사하다고 비유하고 있다.¹⁾

그린은 혁명이나 전쟁 등 세계 도처에서 발생한 정치적 사건에 관심이 많은 작가였다. 그는 정치적으로 불안한 지역을 여행하며 그 지역의 사정을 신문이나 잡지에 기고하곤 했다. 이 소설에서도 그는 일인칭 화자인 영국인 파울러의 시각으로 미국의 정치 이데올로기와 대외정책을 비판한다. 다른 작품에 비교해서 르포르타지(reportage)의 성격이 훨씬 짙게 나타나는 이 소설은 그린의 직접 회견장에서 취재하거나 헬기를 타고 전쟁터를 둘러봤던 경험을 그대로 옮기고 있다. 그린 점에서 이 작품에는 그린의 관점이 파울러에게 상당 부분 전이되었고, 화자 파울러는 그의 입을 통해 그린의 입장을 여과없이 대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린이 이 작품을 쓴 것은 1955년이었고, 당시는 유럽의 구제국주의 국가 중 유일하게 프랑스가 식민지전쟁을 치루고 있는 시기였다. 그는 이 작품 곳곳에서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나 나약해져버린 영국 제국주의의 몰락에 대한 향수와 더불어, 미국의 지나친 독주와 간섭 그리고 그에 따르

1) Graham Greene, *Ways of Escape* (London: The Bodley Head, 1980) p. 17.

는 위험과 종말을 마치 20년 후에 야기될 일을 꿰뚫어보듯 경고하고 있다. *The Quiet American*이 나온 지 15년 후 1970-72년 동안 베트남을 취재했던 글로리아 에머슨(Gloria Emerson)은 그린에 대해 “그린은 이 곳에서 향후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를 다 알고 있었다. 그리고 아주 작고 조용히 소설을 통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He had always understood what was going to happen here and in that small, quiet novel, told us everything.)”라고 술회한다.²⁾ 그런 점에서 이 소설은 에머슨이 언급했듯이 미국의 참전과 그 결과에 대한 예언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침묵과 예속의 오리엔탈리즘

중년의 영국인 파울러(Fowler)는 프랑스 군대가 공산주의자와 대치해서 싸우고 있는 인도차이나(Indo-China) 전쟁의 현황을 취재하기 위해 영국의 신문사에서 베트남에 특파된 기자이다. 중년에 접어든 그는 2년 째 영국에 두고 온 부인과 별거중이다. 부인과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던 그는 집과 거의 소식을 끊고 지내며 베트남 현지에서 만난 나이 어린 여성과 동거 생활을 한다. 2년 전 댄스홀 그랑 몽드(Grand Monde)에서 18세 댄서인 푸옹(Phuong)을 우연히 만나 사귀게 된 파울러는 그녀의 낮은 지적 수준과 무지에 놀란다. “만일 히틀러가 대화 중에 나왔다면 히틀러가 누구냐고 물어 보았을(If Hitler had come into the conversation, she would have interrupted to ask who he was.)”³⁾ 만큼 푸옹은 무식하다. 최소한의 기본 상식도 모르는 그녀는 파울러에게 있어서 성적 파트너에 불과하다. 파울러

2) Gloria Emerson, “Our Man in Antibes,” *Rolling Stone* 9 March (1978). Couto, p. 155에서 재인용.

3) Graham Greene, *The Quiet American* (London: William Heinemann, 1955) p. 5. 이후 이 작품에 대한 인용은 쪽수만을 명시한다.

는 오직 젊은 퓨옹의 몸만을 원하며 그런 그에게 그녀는 “안락한 안식처(a comfortable lay)”(173)를 제공한다. 그녀는 “그를 위해 요리를 하고 파이프를 준비해주었으며 그의 쾌락을 위해 편안하고 부드럽게 침대 위에 눕는다(She cooked for me[Fowler], she made my[his] pipes, she gently and sweetly laid out her body for my[his] pleasure.)” (181). 파울리는 “베트남 사람과 함께 잠자리를 하는 것은 마치 새와 함께 하는 것과 같다. 그들은 베갯 머리맡에서 노래하고 재잘거린다. 퓨옹의 뼈 또한 새처럼 연약했다(To take an Annameese to bed is like taking a bird: they twitter and sing on your pillow. Her bones were as fragile as a bird's.)”(5)라고 말한다.

여기서 퓨옹이라는 이름은 불사조(phoenix)의 뜻을 갖고 있지만 이 새가 다시 살아난다는 신화적인 의미는 없다. 단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녀의 말이 마치 새의 재잘거림에 비유되고 그녀의 존재가 새로 비하될 뿐이다. 재잘거림은 원래 베트남 여성의 일상적인 말투이다.⁴⁾ 그러나 영어와 불어에 서투른 퓨옹의 재잘거림은 침묵으로 나타나며 이 침묵은 곧 그녀의 언어가 된다. 퓨옹은 자신에 대한 얘기나 감정, 살아온 과거에 대해 일체 언급을 하지 않는다. 그녀의 억압된 침묵은 하위 계층의 언어이다. 로버트 영(Robert Young)에 의하면 여성은 자신을 선언할 수 있는 위치를 부여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만 대변되고 끊임없이 가부장제와 제국주의의 대상으로만 반복적으로 쓰인다고 지적한다.⁵⁾ 이 작품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으며 하나의 주체로서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없는 그녀는 대변이라는 재현양식에 몸을 맡길 뿐이다. 그러므로 강요된 침묵 속에서 재현되는 그녀의 모습은 서양 남자의 요구에 따라 움직이고 복종

4) Zakia Pathak, “The Prisonhouse of the Orientalism,” *Textual Practice* 5.2 (1991): p. 204.

5) Robert Young, *White Mythologies: Writing History and the West*. (London: Routledge, 1990) p. 164.

하는 수동적인 타자이다.

자키아 파탁(Zakia Pathak)이 지적하듯이 언어능력도 문화적 소양도 없는 그녀에게 만일 정체성이 있다면 그것은 “베트남 여자”라는 것과 “새”라는 것일 것이다.⁶⁾ 그녀의 침묵과 무지에 파올러는 실망과 좌절을 느끼지만 “그가 바라는 것은 그녀의 몸뚱어리뿐이다(I only want her body.)” (70). 매일 밤 파올러가 신을 벗고 넥타이를 푼 후 침대에 누우면 그녀는 어김없이 차를 타기 위해 물을 끓이고 아편 덩어리를 반죽하기 위해 가스난로에 불을 켜다. 충실한 하녀와 같은 그녀의 존재는 끓는 주전자에서 나오는 “수증기의 소리(the hiss of steam)”이자 “컵이 부딪치는 소리(the clink of a cup)”이며 “밤의 특정한 시간(a certain hour of the night)”이고 “휴식의 약속(the promise of rest)”⁽⁵⁾이다. 램프 불빛을 받으며 정성껏 아편 파이프를 준비하는 퓨옹을 보며 그는 샤를르 보들레르(Charles Baudelaire)의 시를 떠올린다.




My child, my sister
Think of the rapture
Of living together there!
Of loving at will
Of loving till death
In the land that is like you. . . .
Their mood is adventurous. (8)⁷⁾

6) Pathak, p. 205. 파탁은 여기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이 퓨옹을 여성이자 동양인인 이중타자로 인식하지 않으며 성의 문제와 타자의 침묵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파탁은 그녀의 텍스트에 겹쳐진 제국주의와 남성주의 담론을 동시에 분석해야한다고 주장한다.

7) 샤를르 보들레르(Charles Baudelaire)의 *Le Fleur du Mal*에서 발췌한 이 시의 제목은 “여행으로의 초대”(L'invitation au Voyage)이다. 이 시는 댄디즘(dandyism)의 이상을 추구하며 호화판 탐미 생활에 빠져 대마초와 여자에 탐닉했던 문란한 보들레르의 인생을 그대로 반영한다. 또한 아버지의 유산을 탕진하며 방종한 삶을 살았던 그는 동양에 대한 신비주의적 동경을 늘 갖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Barry Wayne Veinotte, “Charles Baudelaire,” *Empirezine.com*, The Poetry Empire, Oct. 2005 <www.empirezine.com>.

여기서 “나의 아이와 누이(my child, my sister)”는 퓨옹을 지칭하며 “마음대로(at will)”는 세상의 근심 걱정을 털어버리고 사랑 놀음이나 하며 무사태평으로 살고 싶은 소망을 뜻한다. 즉, “목숨이 다 할 때까지(till death)” 지상에서 맛볼 수 있는 최대의 쾌락을 즐기며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삶을 의미한다. 파올러는 이런 유흥과 환락이 허용되는 “곳(land)”에서 “방랑자처럼(adventurous)” 유랑하며 사는 생활을 동경하는 것이다.

여기서 동양은 뒤틀린 욕망의 장소로 재현된다.⁸⁾ 즉, 도덕적 타락과 혼란스럽고 분방한 삶에 대한 환상이 동양에 투사된다. 이러한 환상은 서양 남자에게 지속적인 매혹을 갖게 하며 무절제하고 방종한 생활을 탐닉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매춘부가 무려 수백 명이나 되는 사이공(Saigon) 시내의 “오백 명 소녀들의 집(the House of Five Hundred Girls)”⁽⁴⁰⁾은 바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장소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It was the hour of rest in the immense courtyard which lay open to the sky. Hundreds of girls lay on the grass or sat on their heels talking to their companions. The curtains were undrawn in the little cubicles around the square - one tired girl lay alone on a bed with her ankles crossed. There was trouble in Cholon and the troops were confined to quarters and there was no work to be done: the Sunday of the body.
 (40-41)

이처럼 동양에 대한 환상은 서양 남자들의 성적인 지배욕을 자극시킨다. 파올러는 정부 퓨옹에게 매일 밤 자신의 아편 시중을 들도록 한다. 그는 램프 불 위에서 아편을 반죽하는 그녀의 살 냄새를 “가장 연한 아편 향기(the faintest fragrance of opium)”⁽⁸⁾에 비유하며 그녀의 피부색깔은 “조그만

8) John McLeod, *Beginning Postcolonialism* (London: Macmillan, 2000) p. 77.

불꽃 빛(the small flame)”(8)이라고 말한다. 게다가 그녀가 즐겨 입는 꽃무늬 옷을 보며 언젠가 북쪽의 운하에서 본 “토속적인 약초(an indigenous herb)” (8) 즉, 대마초를 기억해낸다. 처음 만났을 때 “하얀 무도회 옷(a white ball-dress)”(44)을 입었던 그녀는 순결을 의미하는 “하얀 비단 바지(white silk trouser)”(12)를 즐겨 입는다. 이런 그녀를 보며 그는 “영국집에 가고 싶지 않다(I never wanted to go home.)”(8)고 생각한다. 이처럼 서양 남자에게 있어서 동양에 간다는 것은 본국에서의 사회적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구속없이 자유로운 삶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한다.

파울러는 또한 “양쪽 끝이 상아로 되어 있는 2피트 남짓한 대나무 파이프(more than two feet of straight bamboo pipe, ivory at either end)”(6)를 좋아한다. “아편을 피운 애인은 프랑스에서도 되돌아온다(A lover who smoked would always return, even from France.)”(6)는 베트남의 미신을 믿는 퓨옹은 언제나 정성스럽게 파울러의 파이프를 준비한다. 서양 지배자의 애욕의 대상인 퓨옹은 앞서 “오백명 소녀의 집”에 고용된 수백 명의 매춘부처럼 파울러의 성적 노리개에 불과하다. 억압된 욕망의 배출구이자 통제된 삶의 해방구인 동양은 계속해서 편견이 가득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나타난다.

Across the way a metisse with long and lonely legs lay coiled after her smoke reading a glossy woman's paper, and in the cubicle next to her two middle-aged Chinese transacted business, sipping tea, their pipes laid aside. (196)

이처럼 사이공 시내 매음굴은 도덕적인 서양 남자를 타락시키는 퇴폐의 온상이다. 이 곳에는 아편과 섹스에 탐닉하며 문란하게 살아가는 한심한 아시아인들이 대낮부터 들락거린다. 이들의 모습은 쾌락적이고 비생산적이며 매

우 게으르게 비쳐진다. 파농(Fanon)은 이러한 정형화된 묘사에 대해 와글거리는 인구, 신경질적인 군중, 무표정한 얼굴, 사생아같이 보이는 어린이들, 양지쪽에 축 늘어져 있는 나태, 흐리멍덩한 생활의 리듬 등이 모든 것이 식민지 언어의 일부라고 분석한다.⁹⁾

그린의 서양 중심적인 식민 담론은 계속 이어진다. 하버드 대학 출신인 엘리트 청년 파일(Pyle)은 장차 푸옹이 “산고와 배고픔, 추위와 류머티즘으로 고통을 겪겠지만 자신들처럼 사상이나 관념 때문에 겪는 고통을 경험하지 않을 것 (Phuong will suffer from childbirth and hunger and cold and rheumatism, but she will never suffer like we do from thoughts and obsessions.)”(173)이라고 말한다. 즉, 그는 푸옹을 하등 동물같이 본능만 갖고 있는 저급한 인간으로 보고 있으며 고차원적인 유럽인과는 질적으로 다른 별개의 인종으로 취급하고 있다. 사고 능력이 없는 그녀에게 적어도 육체적 고통은 있을지 모르나 정신적 고통은 있을 리가 만무하다고 믿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식민지 여성은 관능, 무지, 미개의 상징으로, 지배계급의 남성은 이성, 도덕, 진보의 모습으로 묘사된다. 종속민을 대표하는 푸옹은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존재로서 남성 식민지배자의 보호 하에 놓이게 된다. 그러므로 파올러가 보기에 푸옹은 “유럽 여자들과는 달리 매우 작고 깨지기 쉬워서 (She looks so small and breakable unlike European women.)” (204)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이다. 그녀는 식민 지배자에 의해 쉽게 상처입거나 정복당하기 때문에 동시에 보호를 필요로 한다. 이처럼 식민주의자들은 종속민을 타자로 구성하면서 스스로를 남성으로, 그리고 타자를 여성으로 이원화시킨다. 여기서 동양은 고전적이고 복종적인 여인이나 애욕의 대상이 되며, 영국인의 남성성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여자같고 어린아이 같은 속성을 갖는다.¹⁰⁾

한편 파일은 베트남의 여인 푸옹과 결혼하기를 원한다. 그가 결혼을 원하

9) Fanon, *The Wretched of the Earth*, p. 41.

10) 박지향, 『제국주의: 신화와 현실』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p. 163.

는 이유는 진정 그녀를 깊이 사랑하고 동정해서라기보다 이기적인 자존심과 욕정에 이끌려서이다. 문명의 혜택을 입지 못한 식민지 하층민을 아내로 맞아들이기에 앞서 파일은 미국에서의 그녀의 생활을 머리 속으로 그려본다. 그는 지저분한 라 쏘므 거리(Boulevard de La Somme)의 비위생적인 정육점에서 고기 값을 깎던 그녀가 뉴잉글랜드의 깨끗한 가게를 보면 좋아하겠지 하고 흐뭇한 상상을 한다. 파일은 일종의 문명화의 사명감을 갖고 그녀가 겪게 될 문화적 충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여성사교클럽과 카드놀이(the women's social club and Canasta)”(203)를 미리 가르칠 계획을 세운다. 그 외에도 “미제 냉장고, 전용 자동차, 최신 텔레비전 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권을 갖게 될 아이(a deep freeze, a car for herself and the newest television set and children with American citizens)”(172)에 이르기까지 그는 그녀에게 베풀게 될 엄청난 혜택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 이에 대해 사이드(Said)는 *The Quiet American*에는 토착민을 교육시켜 서양 문명에 동참시킬 수 있다는 믿음 즉, 문명화에 대한 사명감이 엿보인다고 설명한다.¹¹⁾

파울러와 파일을 동시에 사랑하는 퓨용은 아편을 반죽하며 런던으로 가고 싶다는 얘기를 파울러에게 건넨다. 그는 런던에서 어떤 옷을 입어야 하며, 어디에서 살아야 할지, 그리고 그녀가 책에서나 보았을 지하철과 이층 버스에 대한 얘기를 한다. 현대판 신데렐라처럼 꿈에 부풀은 그녀는 고층건물과 자유의 여신상도 보고 싶다고 서양 세계를 무척 동경한다. 두 남자의 출신 국가인 두 서양 문명국은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전쟁과 혁명의 소용돌이에서 가난과 멸시 속에 자란 그녀에게 미국과 영국은 지상 낙원이 된다. 또한 서양 남성은 동양 여성을 문명화의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이자 현재의 질곡을 벗어나게 해주는 구원자로 등장한다. 이처럼 모든 것을 바쳐 오로지 백인 남성에게 매달리는 퓨용의 모습은 비단 황인종만이 아닌 식민지 유색

11) Said, *Culture and Imperialism*, p. 32.

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파농은 이에 대해 흑인에게는 탈출구가 단 하나 뿐이다. 그것은 백인의 세계로 향하고 있고, 백인의 관심을 끌기 위한 흑인의 집착, 백인의 강력한 힘에 대한 흑인의 동경이라고 분석한다.¹²⁾

이처럼 백인의 성역으로 진입하려는 강한 욕망은 비단 퓨옹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큰언니 헤이(Hei)는 부모 없이 자란 퓨옹을 “좋은 유럽인과 결혼시키는 일에 매우 단호하다(She had been determined on a good European marriage.)” (44). 동생의 혼사를 위해 안간힘을 쓰는 언니는 “오줌과 불의의 냄새가 나는 베트남 거주지(the Vietnamese Surete that seemed to smell of urine and injustice.)”(24)에서 벗어나 “산고, 추위, 배고픔, 류머티즘(rheumatism)”을 겪지 않게 해줄 서양 남자를 열심히 물색한다. 그랜드 몬드에서 처음 파일을 만난 그녀는 동생이 “아주 예쁘고 충실한 여자(very beautiful and loyal girl)”(47)라고 강조하며 그에게 노골적으로 접근한다. 파일이 보스톤(Boston)에서 온 미국인임을 듣고 흡족한 언니는 그의 아버지의 직업과 나이를 캐물으며 신상조사를 한다. 아버지의 나이가 65세라는 얘기를 듣자 그녀는 “나이든 사람들은 손자들을 좋아해요. 내 동생에게 손자들을 보고 기뻐할 부모가 계시지 않은 건 슬픈 일입니다(Old people love grandchildren. It is very sad that my sister has no parents to rejoice in her children, when the day comes.)”(48)라고 대답한다. 마치 위험한 도박을 하듯 처음 보는 서양남자와 혼담을 주고받는 언니의 모습에서 유럽인과의 결혼이 이들에게 얼마나 간절한 미래의 꿈인지를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탁은 언니가 이들의 혼인관계에 위협을 준다고 해석한다. 즉, 이 결혼은 뿌리 뽑힌 백인과 무식한 동양인의 결합이고 이들에겐 미래에 대한 보장이거나 후세에 대한 기대가 없으며, 단지 불모와 죽음의 이미지가 따라다닐 뿐이라고 주장한다.¹³⁾

12) Frantz Fanon, 이석호 역, 『검은 피부 하얀 가면』 (서울: 인간사랑, 1998) p. 66.

한편 파일은 미국 경제 사절단에서 일하는 퓨옹의 언니를 “아주 매력적이고 교양을 갖춘 여성이자 영어도 잘한다(What a charming, cultivated woman. And she spoke English so well.)”(48)라고 칭찬한다. 이해할 수 없는 원주민의 말을 새들의 울음이라고 무시하는 이들에게 베트남인으로서 영어를 잘 구사하는 그녀는 돋보일 수밖에 없다. 식민통치국을 동경하고 그 문화를 습득하고자 하는 그녀는 모방을 통해 영어를 배우고 익힌다. 퓨옹과 달리 일찍이 해외에서 무역업에 종사했던 그녀는 능숙한 영어와 업무 능력을 무기로 미국의 경제 사절팀에 발탁되며 그곳에서 일을 한다.

이런 현상은 지배-피지배의 양자가 혼합되고 교차하는 주변영역에서 종속민은 식민주의자에게 저항도 하지만 동시에 모방하려고 하며, 자신이 지배받는 약자가 아니라 스스로를 적극적인 행위자로 되살리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¹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적극적인 행동은 식민통치의 일익을 담당함으로써 식민체제의 기반을 다지는 역효과를 낳을 뿐 권력의 위계질서를 결코 뛰어넘지 못한다. 따라서 거의 모든 식민지 종속민은 선악, 상하, 강약, 주종과 같은 이원론적 구분에서 언제나 악하고, 비천하며, 힘이 없고, 예속된 군상으로 그려진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가난하고 무식한 제 3세계 여성은 언제나 타자로 소외되고 등한시되며 그들의 위치는 식민 담론의 주변으로 밀려난다.

2. 경륜의 영국인과 패기의 미국인

파올러는 인도차이나전쟁을 취재하기 위해 베트남에 파견된 영국인 기자이다. 32세의 젊은 미국인 파일은 하버드를 우등으로 졸업하고 미국 경제

13) Pathak, p. 205.

14) 박지향, p. 9.

원조 사절단의 일원으로 베트남에 파견되어 온 사람이다. 댄스홀에서 한번 만난 파울러의 애인 퓨옹을 좋아하게 된 젊은 미국인 파일은 파울러에게서 그녀를 빼앗으려 한다. 사랑을 마치 한낱 카드 게임처럼 생각하는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장의 카드 패를 자신만만하게 내놓는다. 파울러보다 유리한 패를 갖고 있다고 믿는 그의 태도는 사뭇 당당하고 도전적이다.

“I think I ought to put all my cards on the table. I'm not rich. But when my father dies I'll have about fifty thousand dollars. I'm in good health - I've got a medical certificate only two months old, and I can let her know my blood count.”. . . “Well, to make certain we can have children together.” (96)

이처럼 파일은 삼각관계에 얽힌 민감한 결혼 관계를 단순한 자본의 논리로 풀려고 한다. 돈만 있으면 만사형통이라고 믿는 그는 사랑마저 흥정의 대상으로 삼는 천박한 배금주의자이다. 또한 자신은 아버지에게서 5만 달러를 받을 상속자이고 건강 상태가 좋으며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과시한다. 사랑과 순정보다는 달러와 건강, 생식력 등 물질적, 정력적 힘으로 밀어붙이는 파일에 비해 파울러는 “젊지도 않고 미래도 없는 약자(I hadn't youth, a future and I was weak.)”(109)에 불과하다. 갑작스럽게 “미화 5만 달러와 혈구수, 건강진단서(fifty thousand dollar, blood-count and a medical certificate)”(96)를 도전장으로 내미는 파일의 태도에 황당해진 파울러는 “이것이 미국식 사랑의 방법이나(Is that how you make love in America?)”(96)고 따진다. 이에 파일은 주저하기는커녕 계속 저돌적인 자세로 우격다짐하듯 “당신은 그녀에게 무엇을 제공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영국으로 떠날 때 200달러를 주거나 혹은 그녀에게 가구들을 남겨줄 것입니

까(What can you offer her? A couple of hundred dollars or will you pass her on with the furniture when you leave for England?)”(97)라고 묻는다.

파일의 개입으로 파울러와 퓨옹의 관계는 파국을 맞을 위협에 처하며, 2년 넘게 데리고 살아온 정부를 막무가내로 빼앗아가려는 파일의 과렴치함에 파울러는 할 말을 잃는다. 댄스홀에서 딱 한번 만난 후 퓨옹과 사랑에 빠졌다며 그녀로 하여금 둘 중 한명을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파일의 청혼은 거의 황포에 가깝다. 생떼를 쓰며 애인을 강탈하려는 그의 태도는 그야말로 후안무치이다. 화가 난 파울러가 그를 때리려 하자, 파일은 “나는 대학에서 권투를 했죠. 그리고 내가 훨씬 젊다고 생각한다(I did boxing at college - and I am so much younger.)”(90)라며 설상가상으로 완력까지 동원하려 한다.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처한 파울러는 “그의 자신감이 환율의 가치에서 나오는 것일까(Is confidence based on a rate of exchange?)”(76)라고 생각한다. 또한 “달러에 대한 사랑은 결혼은 물론 이혼까지도 포함하며 선의와 깨끗한 양심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을 파멸로 이끌기도 한다(A dollar love, of course, would include marriage and divorce and lead everybody with good intentions, a clear conscience to Hell.)”(76)고 이들의 불안한 미래를 예견한다. 이에 대해 닐즈 한센(Niels Hansen)은 퓨옹을 두고 벌이는 이들의 경합은 파울러의 나라 영국과 파일의 나라 미국 중 어느 나라가 더 많은 재원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로 귀착되며 결국 유럽과 미제국주의 간의 경쟁으로 비약된다고 지적한다.¹⁵⁾

어느날 파일은 취재차 팻트 디엠(Phat Diem) 전선으로 떠난 파울러를 만나러 간다. 그가 사선을 넘어 파울러를 방문한 목적은 그로 하여금 퓨옹을 포기하겠다는 확답을 얻기 위해서이다. 퓨옹의 문제로 안절부절 못하는 그

15) Niels Bugge Hansen, “The Unquiet Englishman: A Reading of Graham Greene's *The Quiet American*,” *Occasional Papers* eds. Graham D Caie, Michael Chesnutt, Claus Fairch, Lis Christensen (Copenhagen: Copenhagen UP, 1978) p. 251.

는 1주일 후면 사이공으로 돌아올 파울러를 기다리지 못하고 목숨을 건 모험을 감행한다. 언제나 마음 내키는 대로 사는 그는 도중에 해군 순찰대나 프랑스 항공기의 습격을 받을 수도 있고 베트남에 의해 목이 잘려 나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전혀 못한다. 자신의 몰염치한 행동이 파울러에게 쓰러린 고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듯이, 지금의 어린애같은 몰지각한 행동이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예의도 염치도 남의 아픔도 아랑곳 하지 않는 그는 도덕과 고통에 관한 한 불감증 환자이다. 그의 “소년다운 기질(his boyishness)”(70)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파울러는 더 이상 “지각없는 행동(senseless behavior)”(73)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고 경고한다. 이에 파일은 모든 것은 오로지 그녀를 사랑한다는 “좋은 동기(good intention)” (72) 때문이라고 대꾸한다. 이와 같이 그에게 “동기”는 선의이며 “동기”만 중요할 뿐 이로 인해 파급될 주위의 고통과 야기될 문제는 안중에도 없다.¹⁶⁾

사이공으로 돌아온 후 파일은 영어를 잘 모르는 퓨옹에게 청혼을 하며 파울러로 하여금 자신의 말을 불어로 통역해 달라고 가당치 않은 요구를 한다. 그러나 퓨옹을 잃는 것은 “죽음의 시작(the beginning of death)”(100)이라고 여기는 파울러에게 이런 부탁은 스스로에게 사형 언도를 내리는 것과 다름없다. 그에게 남은 여생이 고작해야 10년쯤으로 생각하는 파울러는 말년의 쓸쓸한 고독을 두려워하며 더욱 퓨옹에게 집착한다.

I just don't want to be alone in my last decade, that's all. I
wouldn't know what to think about all day long. I'd sooner
have a woman in the same room - even one I didn't love.

16) 이 부분은 그린의 소설 *The Power and the Glory*의 레르스(Lehrs)남매를 연상시킨다. 멕시코가 배경인 이 소설에서 그린은 독일계 미국인을 등장시킨다. 신문을 읽고 위스키 신부가 현상 수배범인 줄을 알면서도 이들은 그에게 은신처를 제공한다. 그린은 여기서도 너무도 순진하고 세상 물정에 어두운 미국인의 결점을 드러낸다. James Hazen, "The Greeneing of America," *Essays in Graham Greene* ed. Peter Wolfe (Florida: Penkeville, 1987) p. 11.

But if Phuong left me, would I have the energy to find another? (133)

파울러는 언제나 “우리의 존재가 보잘 것 없으며 죽음이란 순식간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오는 것임(We didn't want to be reminded of how little we counted, how quickly, simply and anonymously death came.)”(60)을 의식한다. 이제 자신에게 남겨진 것은 “고령의 나이와 편집장의 의자와 고독(old age, an editor's chair, loneliness)”(142)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본국의 처와 남남처럼 사는 그에게 푸옹은 유일한 기쁨이며, 인생의 종말에 있어서 “안락한 가정”(a nursing home)”(133)은 마지막 희망이다. 파일의 등장으로 그는 “이 달에 혹은 내년엔 푸옹이 떠날 것(This month, next year, Phuong would leave me.)”(50)을 염려하며 행복을 잃지 않을까 조바심을 낸다. 더욱이 파일의 갑작스런 청혼으로 평온한 그들의 삶이 궁지에 몰리고 위태로워지자 파울러는 본처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푸옹과 결혼하려고 한다.

그린은 앞서 미국 달러(dollar)에 대한 사랑이 인간관계를 파멸에 이르게 할 것을 경고했듯이 이제 결혼을 둘러싼 파일의 행동을 전면적으로 비난한다. 그는 19세기 영국 시인인 클라우(A. H. Clough)의 시 ‘Amours de Voyage’의 2편을 이 소설의 표제에 실었다.

I do not like being moved; for the will is excited
and action is a most dangerous thing; I tremble for
something factitious.

Some malpractice of heart and illegitimate process
We're so prone to these things, with our terrible
notions of duty.¹⁷⁾

인용된 위의 시는 곧 파울러의 심리 상태를 그대로 대변한다. 오랜 혼인 생활을 경험한 파울러는 결혼 자체에 대해 회의적이며 이런 이유로 인해 퓨옹과의 관계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 동거를 해왔다. 반면 여자를 사귀어 본 적이 없는 파일은 첫눈에 반한 퓨옹을 차지하기 위해 혈안이 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일은 결혼 상대자와 의사소통도 제대로 할 수 없으며 그녀의 성장배경이나 과거사에 대해서도 전혀 모른다. 시인 클라우가 표현했듯이, 파일은 “마음을 잘못 다스림(malpractice of heart)”으로써 일시적 흥분 상태에 빠지거나 충동적 결정을 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그의 선부른 “행동은 상당히 위험하다(. . . action is a most dangerous thing. . . .)”고 볼 수 있다. “지금의 환경에서는 그녀가 행복할 수 없다(She can't be happy in her situation.)”(71)고 보는 파일은 그녀를 구해주고자 한다. 그러나 시에서 언급되었듯이 그 자체가 “지독한 의무감(terrible notions of duty)”이며 과연 순정인지 욕정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그의 행동은 “위선적(factitious)”으로 보인다.

한편 부인으로부터의 이혼동의서를 기다리는 파울러에게 예기치 않는 발령장이 날아든다. 본사의 편집장으로 승진했음을 알리는 전보를 보고도 그는 기뻐하기는커녕 “공허한 특권(an empty privilege)”(81)이라 생각한다.

Expulsion meant the end of a whole life: it meant the victory of Pyle, and there, when I returned to my hotel, waiting in my pigeon-hole, was in fact his victory, the end - the congratulatory telegram of promotion. . . . I was to be the new foreign editor. (81)

영국으로의 귀환과 본사에서의 승진은 그에게 가정의 재결합과 사회적 성공

17) A. H. Clough, 'Amours de Voyage' (1858), II.

이 아닌 참담한 패배를 의미한다. 퓨옹과의 새 출발이 유일한 삶의 기쁨인 그가 영국 본사의 편집장 자리를 수락하는 대신 그녀를 포기하고 파일에게 승리를 안겨줄 리가 만무하다. 늙고 가난한 파올러는 돈 많고 패기 넘치며 젊은 파일에 맞설 수 있는 비장의 무기는 경험밖에 없음을 깨닫는다. 이제 베트남에 남기로 결심한 그는 경쟁자 파일을 상대로 그의 도전을 받아들인다.

I was able to be a reporter no longer: I was to have opinions, and in return for that empty privilege I was deprived of my last hope in the contest with Pyle. I had experience to match his virginity, age was as good as a card to play in the sexual game as youth. (81)

여기서 파일의 순수와 무지는 미숙하고 경험이 없는 신생국가 미국을 상징하며, 파올러의 경험과 연륜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영국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퓨옹을 둘러싼 두 남자의 싸움은 단순한 사랑의 삼각관계가 아니다. 이는 영국과 미국이 베트남이란 식민지의 패권을 놓고 벌이는 강대국 간의 힘의 대결이다. 꾸또(Couto)의 지적처럼 *The Quiet American*의 내러티브는 사적인 갈등과 공적인 피해 그리고 국가간의 마찰과 국제정치 문제를 교대로 다루고 있다.¹⁸⁾ 파일의 집요한 구애와 유리한 결혼조건 때문에 파올러는 파일이 곧 승리하여 그녀를 차지하게 되리라고 초조해한다. 모든 상황이 불리해진 그는 “이제 여기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Where am I going from here?)”(77)라고 고민한다. 이 말은 단지 사랑을 잃은 한 남자의 상실감과 무력감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수반한 미국의 패권주의의 부상과 이제는 과거의 영광이 되어버린 영국의 제국주의의 약화를 암시하는 것이다.

18) Maria Couto, *Graham Greene: On the Frontier - Politics and Religion in the Novels* (London: Macmillan Press, 1988) p. 145.

냉전의 시기에 있어서 미국인의 사고를 이끌었던 봉쇄 정책의 지지자 조지 케넌(George Kennan)은 미국을 서구 문명의 수호자라고 옹호하며 그 임무가 늙은 대영 제국에서 청년기를 맞은 미국으로 이양되었다고 주장한다.

There was no doubt in his mind that Europe and American were uniquely positioned to lead the world, a view that caused him to regard his own country as a sort of “adolescent” growing into the role once played by the British empire.¹⁹⁾

이제 세계무대의 주역으로 나타난 미국과 그 힘은 개개인의 삶의 구도에도 변화를 일으킨다. 더 이상 자기 집에 오지 않는 풍용을 생각하며 망연자실해진 파올러는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파일은 또한 젊음을 갖고 있다. 그를 부러워하는 것이 얼마나 서글픈 일인가(I was the poor man. He has youth too. How sad it was to envy Pyle.)”(69)라며 비탄에 잠긴다. 애인을 하루아침에 빼앗긴 억울함과 초라한 신세를 한탄스러워하는 그의 울부짖음 역시 실연의 아픔 뿐만 아니라 엄청난 식민지를 거느렸던 대영제국이 차기 주자 미국에게 그 자리를 빼앗긴 울분과 노골적인 질투심을 나타낸다. 로버트 펜들튼(Robert Pendleton)은 이에 대해 *The Quiet American*은 주인공 세 인물과 관련된 애정 드라마가 아니라 영국의 정치적 위기 상황을 빗대어 언급하고 있으며 미국의 독재와 횡포에 회의적인 작가의 염세적인 관점이 잘 나타나 있다고 분석한다.²⁰⁾ 그러므로 개인의 사랑싸움 뿐 아니라 국가간의 세력다툼에서 바뀌어버린 판도와 인정할 수 없는 현실은 미국인에 대한 적개심으로 비약된다.

19) Said, *Culture and Imperialism*, p. 285.

20) Robert Pendleton, “Arabesque of Influence: The Repressed Conradian Masterplot in the Novels of Graham Greene,” *Conradiana* 25.2 (1993): p. 90.

파일을 통해 드러난 미국인에 대한 혐오감은 베트남에 주재하는 그 밖의 다른 미국인에게도 어김없이 적용된다. 이 소설에는 파일을 포함한 세 명의 미국인이 등장한다. 경제공무원인 파일과 죠(Joe) 그리고 통신원 그랜저(Granger)는 미국인의 정신세계와 행동양식을 여러 각도에서 보여준다. 죠는 마음씨가 좋고 온화하며 자신감이 넘친다. 통신원 그랜저는 요란하고 공격적이며 거친 군대식 말투를 쓴다. 이기적이고 지각없는 행동을 연발하는 파일은 “못된 양키(He was a damned Yankee.)”(15)이다.

한센의 지적처럼 이들은 그린의 의도적으로 고안해낸 인물이며 1950년대 유럽인의 눈에 비친 미국인의 건방진 행동양식과 사고방식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전형이다.²¹⁾ 항상 좋은 향수를 사용하며 사교계의 사람처럼 보이는 죠는 미국인이 자주 출입하는 컨티넨탈 바(Continental Bar)에서 술을 시킬 때마다 의자를 소란스럽게 끌며 웨이터를 부른다. 그는 이 전쟁을 치루는 프랑스인과 달리 “크고 떠들썩하며 소년다운 중년의 허풍장이(big, noisy, boyish and middle-aged, full of sour cracks)”(20)이다. 파울러는 그 중에서도 무례하고 잘난 척하는 그랜저를 가장 싫어한다. 같은 외신 통신원으로서 회견장에서 예의에 어긋나고 주제 넘는 그랜저의 행동을 익히 봐온 파울러는 그를 자신이 증오하는 미국의 “자유의 여신상(the Statue Liberty)”(240)과 같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의 건들거리는 모습이 허울 좋은 상징만 있을 뿐 “의미 없이 잘못 디자인된 조각상(ill-designed and meaningless statue)”(240)이라고 꼬집는다.

술김에 모두가 사창가에 몰려가던 날 많은 여자들이 그랜저에게 매달린다. 그랜저는 여자들을 “남성의 전리품(a tribute to manhood)”(41)으로 생각하며 “승리감에 상기된다(flushed and triumphant)”(41). 파울러는 자신의 팔을 잡아당기는 여인에게 “나는 가난한, 아주 가난한 영국인이오(Je suis un Anglais, pauvre, très pauvre.)”(42)라고 외치며 그녀를 그랜저에

21) Hansen, p. 188.

게 떠민다. 마침 현장에 있던 파일은 자신도 똑같이 봉변을 당할까봐 뒷주머니에 있던 달러와 베트남 화폐를 모두 주려고 한다. 이처럼 미국인은 술집, 사창가를 전전하며 환락에 빠져 사는 타락한 인물로 묘사된다.²²⁾ 이들은 미국 달러를 험하게 뿌리며 수많은 가난한 창녀들을 농락하는 오만 방자함을 보인다. 낭패감에 빠진 “가난한 영국인 파올러”는 달러의 위력을 미대사관에서 또다시 실감한다.

어느 날 파일의 치졸한 행동에 몹시 화가 난 파올러는 그에게 따지러 미대사관을 찾아간다. 울분을 삼키며 찾아간 미 대사관 건물은 “화장실조차도 냉방이 된(Even their lavatories were air-conditioned. . . .)” (192) 좋은 시설을 갖추었고, 습도나 온도 등 “조절이 잘된 공기가 눈물까지 곧 말려버리자(. . . presently the tempered air dried my tears.)” (192) 그는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 이제 미국에 대한 혐오감이 갈수록 커지는 그는 “코카콜라가 들어있는 미국인의 물품꾸러미와 그들의 이동병원 그리고 대형 승용차와 최신 총포류(the whole pack of them with their private stores of Coca-Cola and their portable hospitals and their Wydecars and their latest guns)”(32)에 진저리를 낸다. 또한 자신을 속이고 파일과 밀애를 즐기는 퓨옹을 의심하며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며 캐묻는다.

22) 사이공과 인근 초롱(Cholon)지역은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확장에 확장을 거듭했다. 한 때 인구 50 만명에 불과했던 이 도시가 1966년 인구 300만명으로 늘어났다. 이 지역은 생필품 결핍에 시달리는 피난민과 미국인들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신흥 엘리트들이 뒤섞여 사는 기지촌 도시로 변모하며 커져만 갔다. 나이트클럽의 음악은 모두 미국풍으로 퇴폐적이고 자유분방한 분위기가 깔려 있었다. 꽃으로 장식된 중심부 도로와 원색의 빌라톤 건너편에는 흥등가가 점차 위력을 과시하기 시작했다. 1966년에는 약 3만명의 전쟁고아 소녀들이 창녀로 전락했는데, 이 숫자는 미군의 증가 속도만큼이나 빨랐다. 이런 사회에 기생하기 마련인 청소년 폭력 조직은 오래된 미국의 마피아 조직만큼이나 위협적이었다. 20만명을 웃도는 폭력 조직들이 밤의 세계를 지배했다. 그러나 빈곤한 도시 서민과 농민들의 걱정거리는 막상 전쟁이 아니고 기아였다. 매년 베트남에 퍼붓는 10억 달러 이상의 전비 중 많은 부분이 나이트클럽, 레스토랑, 바 등을 통해 도시 사람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다. 미국의 물자 지원이 베트남 사회에 더 큰 해악을 끼치고 있었다. 한 사람이 하룻밤에 포커 게임으로 잃거나 따는 돈이 농부 한 사람의 평생 수입보다 많았다. 도시에서 농촌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원조는 이질감만 가속화시켰다. Michael Maclear, 유경찬 역, 『베트남 10,000일의 전쟁』 (서울: 을유문화사, 2002) pp. 258-61.

“When did you last see Pyle?”. . . . I began - almost unconsciously - to run down everything that was American. My conversation was full of poverty of American literature, the scandals of American politics, the beastliness of American children. It was as though she were being taken away from me by a nation rather than by a man. Nothing that America could do was right. (182)

그러므로 파일에 대한 증오는 삼각관계에서 오는 개인적 질투심 뿐 아니라 노골적인 반미감정까지 뒤섞여 더 증폭된다. 게다가 베트남에 사는 다른 미국인들의 거만하고 부도덕한 생활도 눈에 가시가 된다. 제임스 하젠(James Hazen)의 분석처럼 그린의 작품에 나오는 악한들은 거의 미국인이며 돈 많고 거만한 이들은 유럽 사람들의 일에 끼어들기를 좋아한다. 이들의 목적은 모두 같취이다.²³⁾ “미국인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옳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보는 파올러는 미국의 도덕성을 전적으로 불신하며 미국인은 물론 미제 물건만 봐도 심한 거부감에 사로잡힌다. 따라서 이 소설은 영국과 프랑스라는 구 제국주의 국가의 지배력이 미국으로 이전되면서 각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들 간의 갈등을 그린 정치적 알레고리이다. 또한 역사의 부침에 대한 작가의 비관적 관점이 알레고리적 특성을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3. 미국적 이상주의의 허상

이 소설의 등장인물인 파일은 실제 베트남과 필리핀에서 활동했던 CIA요원이자 군사고문단 단장이었던 에드워드 랜스데일 대령(Colonel Edward

23) Hazen, p. 12.

Landsdale)을 모델로 한 인물이다. 랜스데일은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방법을 연구했고, 필리핀의 소요사태를 진압했으며 이어 남베트남의 고 딘 디엠(Ngo Dinn Diem)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되었다.²⁴⁾ 하버드에서 극동문제학 학위를 받은 파일은 엘리트 출신 경제 관료이며 그의 책장에는 “『공산 중국의 진보』(*The Advance of Red China*), 『민주주의의 도전』(*The Challenge of Democracy*), 『필리핀 전쟁사』(*A History of the War in the Philippines*), 『서구의 역할』(*The Role of the West*)”(28)과 같은 책들이 꽂혀있다. 파일은 미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도차이나 전쟁에 참가하여 공산주의와 프랑스 식민주의가 아닌 제3의 힘을 형성하려한다. “동양에서 민주주의가 승리하도록 하라(Win the East for democracy.)”(32)라고 가르친 그의 교수는 그에게 요크 하딩(York Harding)이 쓴 “『제3의 힘』(*A Third Force*)”(23)이란 책을 준다. 그러나 파일이 맹신하는 저널리스트 하딩은 방콕에서 도쿄로 가는 길에 딱 한번 베트남을 방문했으며 고작 해야 그곳에 일주일 가량 체류했을 뿐이다. 모든 상황을 이상적으로 끼워맞춘 하딩의 이론은 현실성이 결여되며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

하딩의 이상을 실현하도록 베트남에 파견된 파일의 역할과 임무는 다음과 같은 역사적 고증 자료에서도 밝혀진다. 파일의 실제 모델인 랜스데일 대령이 베트남에서 수행할 역할은 젊은 이상주의자 고 딘 디엠에게 힘을 실어주고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날개를 달아주는 일이었다. 랜스데일의 임무는 그레엄 그린의 소설 *The Quiet American*에 나오듯이, 프랑스 세력과 공산주의자들을 압도할 수 있는 제 3 세력을 조성하여 전파시키는 것이었다.²⁵⁾

어느날 파일은 미대사관 파티에서 미국 상원의원을 대상으로 자신의 생각

24) Richard West, “Graham Greene and *The Quiet American*,” *The New York Review of Books*(NYRB) 16; 38.9 (1991): p. 49.

25) 당시 국무장관 덜레스(J. F. Dulles)는 랜스데일에게 “베트남에 가서 필리핀에서 했던 것처럼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필리핀에서 랜스데일은 군사적 도움 뿐 아니라 필리핀의 정치, 사회, 경제 등 전반적인 국정 후원자 역할을 했었다. Maclear, p. 102.

을 서슴없이 얘기한다. 이는 실제로 랜스데일이 수행했던 역할이다. 베트남에 온지 여섯 달도 채 안된 과일은 프랑스와 영국의 옛 식민주의에 대해 비판하며 두 나라의 방식으로는 아시아인의 믿음과 지지를 획득할 수 없음을 지적한다. 그는 “오염되지 않은 제3의 힘(a Third Force free from a taint)”(160)으로 사심 없는 통치를 펴면 베트콩을 물리칠 수 있다고 장담한다. 여기서의 “제3의 힘”은 구 식민주의자 프랑스로도 공산주의도 아닌 바로 새로운 미국의 힘을 의미한다.

과일의 허무맹랑한 사고방식은 당시 미 대통령 존슨(L. B. Johnson)²⁶⁾을 연상시킨다. 존슨은 원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베트남이 막강한 미국을 상대하기는 어렵다고 믿었다.²⁷⁾ 이에 대해 리차드 웨스트(Richard West) 역시 과일의 행동이 미국의 기본적인 외교 정책과 일치하고 있다고 지적한다.²⁸⁾ 따라서 현지 상황을 알지도 못한 채 어설픈 이상주의를 부르짖는 『제 3의 힘』의 저자 요크 하딩이나, 그의 이론을 맹신하는 과일 그리고 외교적 지식이 없는 존슨 대통령 등 이들 미국인 모두는 미국의 허점과 오류를 드러낸다. 즉, 이들은 국제관계에서는 강대국도 함부로 힘을 쓸 수 없는 미묘한 경우가 있고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는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다. 사이드는 특히 *The Quiet American*의 경우를 지목하여 미국의 전지구적 지배력을 대원칙으로 삼는 이들의 몰지각함에 대해 비난한다.

In Graham Greene's novel *The Quiet American*, universities and think tanks received huge government subsidies to pursue ideas and they justify the serious responsibilities of

26) 케네디(J. F. Kennedy)의 뒤를 이어 대통령에 오른 존슨(L. B. Johnson)은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위한 훈련이나 경험이 많지 않았다.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그는 멕시코를 제외하고 외국에 나가본 적이 없었다. 해외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그는 어려움에 직면했다. 그러나 존슨은 어떤 일이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먼저 앞세우는 버릇이 있었다. Maclear, p. 211.

27) Maclear, p. 211.

28) West, p. 50.

American global reach. There is a kind of monotony to the regularity of schemes, phrases, or theories produced by successive generations. That is a desire for mastery and domination based on almost petulant misinterpretations and ignorance.²⁹⁾

그러므로 인류의 자유 수호라는 구호 아래 세계의 경찰국가 노릇을 하려는 미국은 공산주의와 싸우고 있는 프랑스를 지원한다. 오랜 식민지 전쟁으로 경제적 압박에 직면한 프랑스는 “미국의 지갑”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베트남에서의 모든 정치, 경제적 지위를 포기한다.³⁰⁾ 소설에서도 프랑스 대령이 공개적으로 미국의 보급품을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는 기자회견장에서 “프랑스인들은 미국을 위해 그들의 피를 흘리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중고 헬기 한대도 보내지 않는다(The French are spilling their blood for America and America will not even send a second-hand helicopter.)”(80)라고 주장한다. 이제 아시아에 관심이 미미했던 미국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에 대한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함에 따라 그 지배력을 강화하게 된다.³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대한 정보와 경험의 부족은 그 나라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갖게 만든다. 아시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과일 역시 “최소한 베트남인들은 프랑스들을 증오하는 것처럼 미국을 증오하지는 않을 것 (At least they won't hate us like they hate the French.)”(230)이라는

29) Said, *Culture and Imperialism*, p. 290.

30) Maclear, p. 106.

31) 당시 미 상원 재정분과위원이었던 윌리엄 풀브라이트(William Fulbright)는 허술했던 미국의 군사 원조 과정을 이렇게 증언한다. “하루에 100만 달러씩 제공한다는 약속이 상원에는 통보조차 되지 않았다. 인도차이나라는 말은 하나의 수사에 불과했다. 나를 포함한 재정분과위원 중 사이공에 가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미국은 막대한 돈을 지원하기로 예산을 책정했지만 “서구의 역할”이란 명제만 있었을 뿐 지역에 대한 상세한 정보에는 어두웠다.” Maclear, p. 107.

착각에 빠져있다. 베트남의 현지 사정에 어둡고 종속민의 정서를 무시했던 그는 제 3의 힘을 신봉하며 오로지 서구의 역할에만 충실하려고 한다. 그의 행동논리는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³²⁾이며, 이는 약소국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정당화시킨다.

제 3의 힘으로 인도차이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파일은 하딩의 이론을 적용하여 떼(Thé)장군을 지원한다. 왜냐하면 그는 떼장군처럼 공산주의와 프랑스 식민주의 양쪽에 맞서 싸우는 자와 손을 잡으면 자신의 계획을 관철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위험천만한 파일의 계획을 알아차린 파올러는 설익은 하딩의 이상주의를 버릴 것과 꽤거리를 거느린 산적에 불과한 떼장군을 더 이상 믿지 말라고 충고한다. 또한 “떼장군과 수천 명의 무리들은 공산주의자로부터 동양을 구제할 수 없다(General Thé and a thousand men aren't going to save the East from communism.)” (205)는 점을 인식시키며 “퓨옹과 함께 당신 나라로 돌아가서 제3의 힘을 잊으라(Go home with Phuong. Forget the Third Force.)”(205)고 종용한다. 베트남에 오래 살며 경험과 연륜이 많은 파올러는 그의 선부른 행동이 무지와 맹목에서 나온 것이라고 안타까워한다. 지금 파일이 배워야 할 것은 베트남의 “진정한 배경(real background)”(23)이라고 파올러는 생각한다. 즉, “황금빛 논, 어부의 연약한 갈고리, 지뢰 폭발로 파괴된 길을 복구 작업하는 소녀들의 모자, 격추된 비행기(. . . the gold of the rice-fields, the fishers' fragile cranes, the hats of the girls repairing the road where

32) 이 표현은 1837년 멕시코와의 전쟁에 즈음해서 미국의 저명한 언론인 존 어 설리반(John O'Sullivan)이 신문사설에서 남긴 말이다. 그는 “멕시코는 앵글로 색슨족의 월등한 기력에 융합하거나 굴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패망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사람들은 북미 전 대륙을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자 동시에 자신들의 뛰어난 기술과 문명과 기독교를 전파하는 것은 신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라 굳게 믿었다. 그 후 이 말은 자신들의 부당하고 기만적인 침략행위를 정당화시키는 논리로 이용되었고 오늘날까지도 미국의 외교 방침의 기초를 이루는 지배개념이 되었다. “Manifest Destiny,” *The Great Nation of Futurity, The United States Democratic Review* Vol 6.23, Cornell University, Nov. 2005 <<http://mtholyoke.edu>>.

a mine had burst, the drone of planes.)” (23) 등 추상적인 이론서가 아닌 베트남의 진짜 얼굴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파울러의 만류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일은 제 3의 힘을 키우려는 떼장군에게 화약을 제공하며 플라스틱 폭탄을 실험하도록 도와준다. 이것은 “제3의 힘의 실현화(. . . that's what the Third Force came down to. . . .)”(187)를 위한 것이다. 베트남 친구 헝(Heng)이 가르쳐준 폭탄 저장고에서 빈 드럼통과 주형을 본 순간 파울러는 “파일이 어떤 개인이 아닌, 한 나라, 한 대륙, 하나의 세계에 대해서 유익한 일을 하기로 결심했다(He was determined to do good, not to any individual person but to a country, a continent, a world.)”(13)는 것을 알아차린다. 즉, “전 세계를 변화시키려는(the whole universe to improve)” (24) 파일의 터무니없는 철학을 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초강대국 미국이 엄청난 영향력으로 세계 곳곳의 이권에 개입하여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한다는 믿음 곧 미국적 세계관을 그는 신봉하는 것이다.³³⁾

어느 날 파일의 사주를 받은 떼장군 일당이 플라스틱 폭탄을 실험하던 중 많은 인명이 처참하게 희생된다. 폭탄이 터지는 순간 광장은 피로 얼룩지고 삼륜거 운전수는 다리가 잘려나가며 어린 아이의 시체를 무릎에 놓고 여인은 울부짖는다. 자신의 과오로 빚어진 끔찍한 사건을 보면서도 정작 파일은 너무도 태연하다. 신발에 묻힌 피를 보고도 그는 아무렇지도 않는 듯 “장관을 만나러 가기 전에 신을 닦아야겠다(I must get the shoes cleaned before I see the Minister.)”(212)라고 말할 뿐이다. 파일의 비인간적인 태도를 보고 파울러는 더욱 분개하며 그의 무서운 냉혹성과 도덕적 불감증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에 그린은 제 1장의 표제에 “고통은 숫자에 의해 가증되지 않는다. 한

33) Said, *Culture and Imperialism*, p. 55.

육체는 전 세계가 느낄 수 있을 만큼의 모든 고통을 포함한다(Suffering is not increased by numbers; one body can contain all the suffering the world can feel.)”(240)라고 언급하고 있다. 불행한 사건을 두고 그 경중을 사상자 수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한 사람이 당한 고통일지라도 최소한 양심의 가책과 도덕적 책임감을 느끼는 것이 인간에 대한 예의라고 그린은 주장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사실은 미국의 세력 팽창과 도덕적 불감증에 대한 그린의 열등감과 반발의식이 외견상 도덕적 양심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되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보잘 것 없는 종속민 한 사람이 겪는 인간적 아픔이나 비애에 대하여 일말의 동정도 보이지 않는 파일의 태도는 소위 세계인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한다는 명분이 허위와 모순에 찬 것임을 보여주는 반증이다. 폭탄이 터지던 날, 사고현장에는 단 한명의 미국인도 없었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sufficiently important)” (214) 베트남인만 희생된다. 사전 통보를 받은 미국인은 모두 피신하였으나 베트남 사람들에게겐 테러에 대한 경고가 전혀 전달이 되지 않았으며, 200파운드의 폭탄은 여자와 어린이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 공격을 한다. 그러므로 제 3세계의 억압받는 민중들의 자유와 존엄성을 소중히 여긴다는 이가 바로 폭탄 사건을 일으킨 조종자라는 사실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에 찬 행동임이 드러난다.³⁴⁾

“광기(insanity)”(213)에 가까운 살상행위를 저지른 파일에게 파올러는 이렇게 울분을 터뜨린다. “나는 이곳에서 미국인이 싸우는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앵무새같은 구호를 외치며 동양에 들어가지 마시오(I haven't seen any American fighting around here. Don't go on in the East with that parrot cry.)”(123)라고 비난한다. 비평가 수잔 케데(Suzanne Kedhe)가 설

34) 그린은 여기서 “세계의 자유”를 옹호하는 척하는 허위적인 미국의 외교정책을 비난하고 있다. 미국은 결코 인접국가의 정의나 민주주의에 관심이 없으며 이들이 떠드는 “자유 수호”라는 구호에는 오직 한 가지 목적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미국의 이익과 안보를 추구하고 소비 지향적 문화를 전 세계에 퍼뜨리려는 속셈이다. Couto, p. 167.

명하듯이 이는 외견상으로는 인도주의적으로 보이지만 미국이 인도차이나에 온 실질적인 이유를 조롱하며 진정한 민주주의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각성시키고 있는 것이다.³⁵⁾

그린은 여기서 말로만 떠들어대는 미국의 이상주의를 날카롭게 꼬집고 있으며 그들의 대외정책의 잘못된 오류를 파헤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사이드의 지적처럼 *The Quiet American*은 자유를 위해 싸우거나 선행을 베푸는 것으로 은폐되었던 제국주의적 속성을 여실히 폭로하고 있다. 차가운 이념으로 무장한 파일은 인간을 철저히 도외시하며 파울러의 적나라한 비판에도 아랑곳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는 “그들은 단지 전쟁 사상자에 불과합니다. 어쨌든 그들은 민주주의를 위한 올바른 명분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They were only war casualties. Anyway they died in the right cause for Democracy.)”(234)라고 말하며 무고한 희생을 미화시키고 있다.

그린은 이 책의 서장 첫 표제에 바이런(Byron)의 시 ‘Don Juan’의 1편을 인용한다. 이는 곧 미국을 보는 그린의 기본적인 시각임을 알 수 있다.

This is the patent age of new inventions
For killing bodies, and for saving souls,
All propagated with the best intentions.³⁶⁾

여기서 “새로운 발명품(new invention)”은 미국이 표방하는 도미노 이론³⁷⁾

35) Suzanne Kedhe, “Engendering the Imperial Subject,” *Fiction of Masculinity: Crossing Cultures, Crossing Sexualities* ed. Peter Murphy (New York: New York UP, 1994): p. 248.

36) Lord Byron, ‘Don Juan’ (1818), I, 110-165.

37) 한 나라의 정치체제가 붕괴되면 그 강한 파급효과가 이웃 나라에 미친다는 이론이다. 1954년 봄 프랑스가 인도차이나에서 베트남(베트남 공산주의 세력)에 패전을 거듭하고 있을 때 미국 지도층은 사태를 방지할 경우 동남아 전체가 공산주의 위협 아래 놓일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이것을 도미노(일종의 서양 장기)에 비유해 최초의 (장기)말이 넘어지면 그것이 옆의 말을 쓰러뜨린다고 설명한 데서 이 이론이 생겨났다. 이 이론에 입각해 미국 케네디 정부는 패퇴하는 프랑스군을 대신해 미군을 베트남에 파견했다. 베트남, 라오스의 공산화 등 인도차이나 반도 3국의 적화는 이 이론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1960년대 미국의 군부

과 같은 새로운 대외 정책 혹은 제 3의 힘을 실현하려고 제조한 폭탄을 의미한다. 이 폭탄은 “인명 살상(killing bodies)”의 도구가 되어 많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비극적 결과를 초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에 가담한 자들은 이 일의 목적은 오직 “영혼을 구하는 것(saving soul)”이며 동시에 베트남을 곤경에서 구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이러한 “좋은 의도(best intentions)”와 순수한 취지는 “명백한 시대(the patent age)”의 산물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정치선전(propaganda)”으로써 전파되어야 할 정치 이데올로기가 된다. 이에 한센은 신념에 충실하고 진지하며 이상주의에 불타는 청년 파일이 정치에 연루되었을 때 오히려 그 순수성과 고지식함이 그를 위태롭게 만든다고 경고한다.³⁸⁾ 결국 파일은 과도한 자만심으로 인하여 베트남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인물이 된다. 전 지구를 개선시키겠다는 세계적 책임감은 자유와 정의의 수호라는 구호로 화려하게 포장되며 성조기를 앞세운 미국의 행보는 종횡무진 온 세계를 누빈다.

그린은 여기서 모든 국가위에 군림하면서 지구의 치안과 안정을 감시하려는 어떤 권한도 미국에게 없음을 일깨우며, 경찰국가처럼 행사하는 그들의 터무니없는 오만과 그릇된 세계관에 대해 질타한다. 또한 제 아무리 훌륭한 이론일지라도 죄없는 사람들의 무고한 희생을 담보해서는 안된다는 잘못된 정치 철학의 맹점을 신랄하게 힐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그린의 지적은 현재 미국의 정책이 과거 영국 제국주의의 행적과 다를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오류만을 부각시킴으로써 상대적으로 영국 제국주의의 과거사를 은폐하고 미국을 적대화하는 이중성을 보인다.

한편 베트남 친구 행과 만난 자리에서 파올러는 파일의 되돌릴 수 없는 과오를 탓하며 앞으로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파일을 저지해야한다고 주

와 정치가들이 미국의 베트남전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 이론을 주장하였다. John Swensson, “Domino Theory,” The Vietnam Conflict, An Academic information portal for education and research, Oct. 2005 <<http://www.deanza.edu>>.

38) Hansen, p. 133.

장한다. 파일의 부질없는 이상주의가 순진과 무지, 무경험에서 비롯되었으며 더 많은 해악을 일으키리라고 판단한 파울러는 이제 그를 살해할 계획을 세운다. 평소에도 파울러는 미국인 파일에 대한 증오와 경멸을 종종 나타내곤 했다.

He looked more than ever out of place: he should have stayed at home. I saw him in a family snap-shot album, riding on a dude ranch, bathing on Long Island, photographed with his colleagues in some apartment on the twenty-third floor. He belonged to the sky-scraper and the express lift, the ice-cream and the dry Martinis, milk at lunch, and chicken sandwiches on the Merchant Limited. (16)

이처럼 파울러가 보기에 그는 아직도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친구들과 어울려 놀거나 한가하게 수영하고 승마나 즐길 어린 아이에 불과하다. 삶의 경륜도 짧은 그가 살벌한 식민지 전쟁에 선불리 뛰어든 것은 주제넘은 미국인의 오만이며 “고국에 남아 있어야만 했다(He should have stayed at home.)”(16)는 파울러의 말은 소위 “양키 고 홈(Yankee go home.)”의 간접적인 경고이다.

한센(Hansen)은 이에 대해 파울러는 파일을 단순히 개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미국을 대표하는, 그 중에서도 그가 가장 싫어하는 계층의 인물로 인식하고 거부한다고 분석한다.³⁹⁾ 파일의 일거수일투족이 못마땅한 파울러는 파일이라는 개인이 퓨옹을 사랑하는 방식이나 미국 경제 관료라는 공인으로서의 그의 처신 모두를 매우 부정적으로 본다. 파울러가 파일에게 염증을 느끼는 것은 예를 들면 남의 애인을 막무가내로 가로채어 결혼하려는 파일

39) Hansen, p. 248.

의 무례함과 남에게 상처를 입히면서까지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려는 뻔뻔함, 지배국의 경제 관료로서 막강한 힘을 행사하려는 거만함 그리고 꺾박받는 민중의 고통에 아랑곳없는 냉혹함 등이다. 이런 파일의 인간적인 약점과 오류는 파올러에게 깊은 적대감을 안겨다주며 그가 대변하는 미국에 대한 노골적인 증오심으로 비약된다. 꾸또의 주장에 따르면 그린은 식민 지배자와 피재배자간의 중개역할을 하는 사람을 싫어했고 그 중에서도 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제 1세계 출신을 가장 혐오했다고 한다.⁴⁰⁾ 또 그 이면에는 제어할 수 없는 힘을 갖고 초강대국으로 급부상한 미국과 점점 쇠퇴일로에 있는 영국간의 변화된 힘의 역학관계 그리고 인정하기 싫은 국제질서의 현실이 들어있다. 작품 속에서 파올러가 느끼는 이러한 불쾌감은 그린이 마땅히 유럽 제국주의자로서 누려야 할 독점욕에 기인한다.⁴¹⁾

파올러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파일은 자신의 왜곡된 신념을 과도하게 밀고나가다 결국 공산주의자들의 손에 죽고 만다. 파일의 죽음을 장렬한 “군인의 전사(A soldier's death)”⁽³¹⁾라고 칭송한 부고를 보고 파올러는 가당치않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파일은 더 이상 아무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다. 그가 죽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되었다(He [Pyle] could harm no one any more. Everything had gone right with me since he had died.)”⁽²⁴⁷⁾라고 흡족해한다. 경찰 비고트(Bigot)는 그의 죽음이 “미국의 원조에 반대하는 시위의 시작(the beginning of a campaign against American aid)”⁽²⁹⁾이라고 말한다. 이는 곧 미국의 일방적 독주에 대한 피 지배국의 제동과 경고이며 더 나아가 미국이 엄청난 군사비를 쏟아 붓고도 끝내 이기지 못한 베트남전의 어이없는 패배를 암시한다.⁴²⁾

40) Couto, p. 155.

41) Hansen, p. 248.

42) 미국은 무려 9000마일 떨어진 인도차이나 정글에서 공산주의와 대치하기 위해 장장 8년을 싸웠다. 이 전투 기간을 포함해서 지난 20년간 군사개입을 계속했던 미국의 가장 긴 전쟁은 1973년 3월 29일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 결코 크지 않은 나라 베트남에서 제 1차 세계 대전과 비슷한

파일이 살해당하고 수많은 미군이 전사했으며 참혹하고 추악한 식민지 전쟁에서 미국이 스스로 철수하도록 만든 베트남 땅은 또 다른 백인의 무덤이 된다. 그러므로 파일의 죽음은 식민통치의 종식과 질서의 회복을 의미하며, 더 이상 개입과 간섭을 통하여 지배 권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조용한 미국인(A quiet American)”⁽¹¹⁾은 경쟁자인 영국 제국주의자 뿐 아니라 피해자인 모든 종속민이 바라는 궁극적 모습이다. 파일의 베트남 도착으로 시작되는 이 소설은 그가 사적, 공적으로 야기시킨 문제로 뒤엉키며 갈등을 겪다가 그의 죽음과 함께 결말을 맺는다.

“말썽 많은 미국인”이 사라짐으로써 파탄직전이었던 퓨옹과 파울러의 관계도 다시 예전처럼 회복되며 미국의 철수와 더불어 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은 승리를 거두어 통일의 숙원을 이룬다. 즉, 미국의 간섭으로 깨졌던 모든 관계는 순조롭게 풀리며 평정을 되찾는다. 따라서 이소설의 제목 *The Quiet American*은 불간섭과 중립의 상징이며 앞으로 미국이 국제 사회에서 지향해야 할 모습이자 미국의 힘의 팽창을 제어하려는 영국의 경고임을 그리는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4. 대영제국의 빛과 그림자

인도차이나에서 전쟁을 취재하는 파울러는 자신의 직업은 어디까지나 리포터이며 그 역할은 객관적 사실을 그대로 보도하는 일에 국한된다고 생각한다. 그가 어떤 사건이나 자신의 입장을 밝히려 하지 않는 것은 “개인이 갖는 의견 역시 일종의 행동(Even an opinion is kind of action.)”⁽²⁷⁾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동료 언론인들이 스스로를 특파원이라 부르는 것과 달리, 리포터라는 호칭을 좋아하는 그는 정치적 사건에 개입하는 것을 꺼려한

5만 6,962명의 미군이 전사했다. Maclear, p. 556.

다. 그가 남의 일에 간섭하고 책임지기를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은 퓨올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결혼이라는 제도에 묶여 있기보다 동거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보도만 할 뿐 논평을 통해 개입하거나 사회적, 정치적 책임을 지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작품의 표제 첫 줄에 인용된 “나는 마음이 동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I don't like being moved.)”라는 구절은 바로 파울러의 성격유형을 나타낸다. 즉, 그는 외부적 상황으로 인해 심리적 자극을 받는 것을 싫어하며 매사에 초연하다. 여자관계나 직업에 따르는 의무감이나 책임의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 하는 그는 종종 아편에 탐닉한다. 그가 아편을 피우는 것은 세상과의 거리를 두고 현실의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수단이다.⁴³⁾

그러므로 세상사와 무관하게 사는 파울러가 파일과 더불어 정치 논쟁을 벌이는 아래 대목은 이례적이다. 파울러는 어느 날 타닌(Tanyin)에 취재차 갔다 돌아오는 길에 초소탑에서 밤을 새우게 된다. 그는 파일에게 베트남 민중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한다.

“They want enough rice,” I said. “They don't want to be shot at. They want one day to be much the same as another. They don't want our white skins around telling them what they want.” (119)

위의 인용처럼 어느 편도 지지하지 않고 객관적 입장을 고수해온 파울러가 여기서 “백인”으로 통칭한 제국주의자를 공격하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이다. 전쟁을 취재하면서도 베트남의 현실에 무관심해 보이는 그는 의외로 베트남 민중이 진정으로 소망하는 것을 잘 파악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식민

43) Hansen, p. 195

지 민중의 바램은 “충분한 쌀”과 같은 일용할 양식이나 “풍족한 하루”와 같은 일상의 평화로움이다. 이들은 오직 작고 소박한 행복만을 추구할 뿐 어떠한 형태의 외국군의 주둔이나 이념전쟁도 철저히 거부한다. 가난한 이들에게 “사상은 사치품(Thought is a luxury.)”(119)이며 이들은 “농부들은 흙으로 된 오두막에 앉아서 신과 민주주의 따위를 고민하지 않는다(The peasants don't sit and think of God and Democracy when they get inside their mud hut.)” (119). 그러므로 “총에 맞고 싶지 않는 사람들(. . . people who don't want to be shot. . . .)”(119)과 “전쟁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 . people who just aren't interested in a war. . . .)”(149)을 볼모로 삼아 명분 없는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믿는 그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베트남을 침략한 모든 식민 세력을 지탄한다. 여기에는 100년 넘도록 베트남을 지배해온 구식민세력 프랑스와 프랑스의 자리를 뒤이어 물려받은 신식민세력 미국이 포함된다. 베트남의 소조차 “유럽인의 냄새를 싫어하며(They don't like the smell of European.)” (119) 짐승들의 눈에도 미국인 과일은 “똑같이 유럽인(You are a European, too.)”(119)으로 보일 것이라고 말한다. 이 말은 프랑스가 저질렀고 이제 미국이 가담하게 될 이 침략전쟁이 결코 정당하지 않으며 민중의 고통을 가중시킬 뿐인 모든 외세는 배척되어 마땅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얼핏 들으면 베트남 민족주의를 대변하는 듯한 파울러의 올바른 주장은 다분히 이중적이다. 그는 동양에 식민지를 거느렸던 “유럽인”의 범주에 마치 영국은 속하지 않는 듯 천연덕스러운 모습을 보인다. “우리는 식민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We were not colonialists.)”(121)라고 말하며 영국의 식민 통치 역사를 은폐하고 다른 유럽인과는 달리 영국이 동양에서 온정정치를 베푼 것처럼 미화시킨다. 게다가 “나는 인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I've been in India.)”(121)라고 말하며 자신을 조상인 영국 제국주의자

와 분리시키며, “나(I)”라는 개인은 과거의 역사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 계속해서 파울러는 베트남에 개입하는 모든 외세는 불순한 세력이며 베트남 문제를 간섭할 아무런 자격과 권한이 없음을 강조한다.

“We've no business here. It's their country.”. . . “I'm too old to run with a rifle. And this isn't my war. Come on.”
(135)

“나의 전쟁”이 아닌 베트남전을 제 3자 입장에서 바라보는 파울러는 이 전쟁이 제국주의 쟁탈전임을 간파한다. 그는 강대국의 군사적 행동을 공격하며 이들의 철수를 촉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울러는 자신의 내면에 감춰진 제국주의적 근성을 숨기지 못한다. “여기는 동양이기 때문에 내가 행동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일이 있다(There are things I might be tempted to do - because here in the East.)”(123)고 그는 분명히 밝힌다. 즉, 파울러는 개입의 유혹을 단지 자제하고 위장하고 있을 뿐 언제든지 동기와 계기가 주어지길 기대하고 있다는 이율배반적인 발언을 한다. 이밖에도 그는 위에서 침략 행위의 부당성을 지적하던 모습과는 정반대로 “나는 착취한 것을 위해 싸우고 그것과 함께 죽는 착취자가 되겠다(I'd rather be an exploiter who fights for what he exploits and dies with it.)”(121)며 제국주의적 본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그의 종잡을 수 없는 태도와 반복되는 발언은 마치 영국이 아끼던 동양의 식민지, 인도를 잃은 후의 후유증을 반영하는 듯하다. 식민지의 유지와 포기 등의 딜레마에 빠져있는 그는 세상일에 대해서도 참여와 관조 사이에서 주춤거리고 망설인다.

어느 날 파울러는 팻트 디엠(Phat Diem)에 취재를 갔다가 대학살 현장을 목격한다. 거기서 느꼈던 전쟁에 대한 염증과 참혹한 광경은 그 후에도 그의 뇌리에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농가의 좁은 개천에 마치 썩은 물고

기처럼 버려진 여자와 6살 난 어린 아이의 시체를 보며 처음으로 “살인에 대한 죄의식과 책임감(the guilt of murder and responsibility)”(63)을 느낀다. 더구나 개인적으로는 파일이 저돌적으로 청혼을 해옴에 따라 본처와 퓨옹 등 여자들과의 느슨했던 관계도 어느 한 쪽을 선택하고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즉, 파올러는 사랑과 정치에 있어서 절대적 중립을 지키기가 사실상 불가능함을 깨닫는다.⁴⁴⁾ 이제 그는 지금까지 지켜왔던 초연한 입장이 얼마나 유효한지를 스스로 자문하는 중요한 순간을 맞게 된다.

참여와 관조의 경계를 줄타기하며 딜레마에 빠져 있던 파올러는 파일이 저지른 폭발 사건을 기점으로 그에 대한 적개심이 극에 달하며 마침내 그를 제거할 계획에 가담한다.⁴⁵⁾ 희생자들의 끔찍한 죽음을 목격한 후 남몰래 숨겨왔던 생각 즉, 언젠가는 파일을 “곤경에 빠뜨려야겠다는 충동(temptation to tease)”(109)이 분출되어 나온 것이다. 이 충동은 식민지의 향수를 잊지 못해 개입하고 싶은 유혹과 함께 오랫동안 고수해온 파올러의 정체성을 무너뜨린다.

이는 바로 그린 자신이 경험하는 정체성의 분열을 의미한다. 그린은 알랭(Allain)과의 대담에서 “나는 미국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앞에선 참여와 관조의 평형을 잃는다.”라고 분명히 밝혔다.⁴⁶⁾ 즉, 정치적 중립성을 운운하며 애매한 입장을 취해온 그린이 유독 미국에 대해 반발을 느끼는 것처럼, 어떤 형태의 개입도 자제해온 파올러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미국의 태도에 대해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다. 파올러는 베트남 현지인에게 파일의 암살을 사

44) Hansen, p. 113.

45) 파탁은 전통비평가들이 텍스트에서 역사적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순수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이 소설을 분석해왔다고 지적한다. 즉, 베트남을 세계사의 아주 작은 부분으로 축소시킴으로써 정치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참여와 관조라는 주제 속에 빈약하게 처리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파탁은 파올러가 참여와 관조의 딜레마를 느끼는 이유와 결국 참여를 하게 되는 동기를 정치, 역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Pathak, p. 202.

46) Marie-Françoise Allain, *The Other Man: Conversation with Graham Greene*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83) p. 90.

주한다. 그리고 파일의 죽음을 계기로 베트남을 구하겠다는 미국의 “철면피 같은 오만(damned impertinence)”(140)은 드디어 고개를 숙인다. 즉, 강자인 미국의 무지와 미숙은 “약자의 무기(the weapon of weakness)”(109)인 영국의 연륜과 경험 앞에 무릎을 꿇는다.

한편 파올러는 식민지 경영에 관한 한 아직도 걸음마 단계인 미국을 비꼬며 미얀마의 식민지 경험을 영국의 훌륭한 통치 사례로 들고 있다.

“Look at the history of Burma. We go and invade the country: the local tribes support us: we are victorious: but like you Americans we weren't colonialists in those days. Oh no, we made peace with the king and we handed him back his province and left our allies to be crucified and sawn in two. They were innocent. They thought we'd stay. But we were liberals and we didn't want a bad conscience.” (121)

위의 인용에서 알 수 있듯이 파올러는 영국의 수준 높은 행정능력을 자랑한다. 비록 영국이 미얀마를 지배했지만 법을 제정하고 현지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등 평화롭고 합법적으로 제국을 관리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필립 다비(Philip Darby)는 표면적으로 같은 제국주의 국가이지만 내용적으로 판이하게 달랐던 미국과 영국의 식민 정책을 다음과 같이 비교한다. 식민 정책에 있어서 비현실적이고 추상적인 원칙만 내세우는 미국에 비해, 지역 정서를 감안하고 다양한 현지 문화를 수용하며 뿌리내린 영국 식민 통치의 우월성을 다비는 강조한다.

The emphasis on the commonality of Anglo-American conceptions of moral responsibility must not obscure the national contrasts. Three were major. First, British ideas and

the sense of commitment which underlaid them were sectional rather than national. The American sense of mission was more broadly based on within the society as a whole. Second, whereas British conceptions were largely tied to the Empire and derived from the experience of empire, American's approach was in essence non-territorial. Finally, the United States was decidedly more optimistic about what could be achieved in the Third World and about the role it could play. Britain made more allowance for Afro-Asian diversity and showed a greater readiness to adjust policies to local circumstances.⁴⁷⁾

그러므로 그린의 순수과 경험 그리고 무지와 연륜을 대비시키며 파일의 서투름과 어리석음을 자주 부각시킨 이유는 앵글로색슨주의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즉, 식민 통치에 관한 한 그 연륜이나 경험에 있어서 영국이 미국보다 훨씬 앞서 있음을 인식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다른 제국들은 “폭정”에 의해 유지되지만 영제국은 “사랑”에 의해 결합되었다는 점에서 영국은 “가장 덜 나쁜” 식민 제국이었고, 식민지 주민의 복지와 안녕을 중요하게 고려했음을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다.⁴⁸⁾

그러므로 그린의 앵글로색슨주의는 단순히 비백인에 대한 백인의 우월만을 주장하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이것은 오히려 다른 백인 인종과도 구분되는 앵글로색슨족의 탁월함에 대한 특별한 신념이다. 그린에게 있어서 다른 백인이란 바로 영국의 자리를 추월한 미국을 의미하며, 그의 강한 반미

47) Philip Darby, *Three Faces of Imperialism: British and American Approach to Asia and Africa 1870-1980* (New Haven: Yale UP, 1987) p. 218.

48) 위에서 지적한 기본적인 통치 이념은 물론 미국과 다른 유럽 제국들이 식민지 개척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갑작스럽게 영토를 획득하거나 상실한 즉흥적인 사례가 많았던 데 비해 영국은 오랜 세월동안 막강한 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고 자부한다. 박지향, p. 263.

의식은 이러한 사상적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이드는 영국을 제치고 신 제국주의국가로 등장한 미국을 향해 세 가지 질문을 제기한다.

And yet do we not tend to regard ourselves as somehow exempt from the more sordid imperial adventures that preceded ours? Besides, is there not an unquestioned assumption on our part that our destiny is to rule and lead the world, a destiny that we have assigned ourselves as part of our errand into the wilderness?⁴⁹⁾

그린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파일의 등장과 그의 행적 그리고 죽음을 통해 낱낱이 보여주고 있다. 첫째, 전 인류를 휩어지고 있는 듯한 책임감을 느끼는 파일은 문명화의 의무를 강하게 인식하며 미국의 “명백한 운명”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둘째, 파일이 소속된 경제지원단은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막대한 원조금과 대규모 군사 작전을 펴기 위해 베트남에 투입된다. 이는 과거 제국주의적 기획과 확연히 구분되는 부분이다. 셋째, 파일이 부르짖는 제 3의 힘은 전혀 새롭거나 개혁적인 것이 아니라 구식민세력의 아류에 불과하며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도구가 아닌 착취와 살인의 수단으로 전략한다.

*Ways of Escape*에서 그린은 파울러의 몇가지 행동은 내 마음의 반영⁵⁰⁾이라고 밝힌 바 있다. 파울러가 곧 그린의 분신(alter-ego)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그린의 반미감정과 세계관이 상당 부분 파울러에게 투사된 것은 사실이다. 이제 파일이란 개인의 약점과 그가 지향했던 미국 정책의 오류를 파헤치며 파울러는 우월감을 느낀다. 그리고 파일의 죽음은 파울러에게 쾌감과 승리감을 안겨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 Quiet American*의

49) Said, *Culture and Imperialism*, p. 55.

50) Graham Greene, *Ways of Escape*, p. 255.

마지막 부분에서 파올러는 “나는 과연 파일과 다른 인물인가(Was I so different from Pyle, I wonder?)”(243)라고 자문한다. 파올러는 늘 자신은 파일과 다른 인물이며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유사성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자신이 바라던 대로 파일이 죽고 난 후에도 파올러의 마음이 개운치 못하고 이처럼 심기가 불편한 것은 자신 안에 파일과의 공통점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평가 케데 역시 파올러는 파일과 자신이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인간임을 밝혀내려고 애쓰며 혹시 둘 간의 유사점이 있지 않을까 신중하게 살펴본다고 했다.⁵¹⁾

영국인 파올러는 프랑스와 미국처럼 베트남의 문제에 “개입하고 싶은 욕구”와 퓨옹과 베트남을 동시에 차지하려는 파일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파일을 “괴롭히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힌다. 이는 차마 드러내지 못하지만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꿈틀거리는 억제된 욕망이다. 그러므로 파올러는 제국주의 입장과 동양에 대한 서양의 지속적인 지배를 들어 파일을 비난하지만 자기 자신도 이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⁵²⁾ 즉, 더 오랜 식민지배의 역사를 지닌 영국인 침략자로서의 자신과 신제국주의자 파일사이에 분명히 존재하는 동질성에 비로소 눈을 뜨게 된다.

이 소설의 결론이자 주요 플롯인 파일에 대한 청부 살해는 파올러가 품은 개인적 원한에서 비롯된 복수극으로만 비춰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복수의 화살은 부메랑이 되어 파올러의 살해 동기를 다시 드러내고 있다. 이것은 바로 세계무대의 뒷전으로 물러선 “조용한 영국인”의 잠재울 수 없는 제국주의적 속성이다. 이 점에서 파올러가 던진 마지막 의문은 영국인 역시 미국인과 다를 게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그러한 이 작품 곳곳에서 가끔은 베트남 민중의 입장에 선 것처럼 보이는 휴머니즘으로, 또 가끔은 제 3자적인 정치적 냉소주의로 자신을 위장시킴에도 불구하고

51) Kedhe, p. 247.

52) Kedhe, p. 250.

궁극적으로는 영국 제국주의에 대한 강한 향수와 본성을 드러내 보인다.

지금까지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비평에서 도외시된 작품의 배경 즉, 베트남이란 오랜 제국주의 세력의 각축장이 그 무대로 설정된 점과 이 소설이 쓰여진 시기가 미국의 본격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기 직전인 1950년대라는 시대적 상황에 특별히 주목하여 개진하고자 했다. 여기서 돈 많고 힘이 넘치는 젊은 파일의 무지와 미숙은 신생국가 미국을 상징하며 늙고 가난한 파울러의 경험과 연륜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영국의 상징이다. 대립과 갈등을 거듭하는 두 상징이 시사하는 바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퓨옹을 둘러싼 두 남자의 다툼은 단순한 애정 싸움이 아니라 강대국 간의 힘의 대결이란 점이다. 또한 이들의 경쟁은 떠오르는 미국 제국주의와 지는 영국 제국주의라는 제국주의의 흥망사를 암시한다. 첨예한 갈등 구조는 파일의 살해라는 파국으로 치달다가 결국 그의 죽음을 계기로 삼각 관계는 끝이 나고 식민통치는 종식된다. 즉, 제 3의 힘과 명백한 운명을 앞세우는 “허황된 미국인”의 꿈은 “조용한 영국인”의 치밀한 복수극에 의해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울러는 제국주의적 본색을 끝까지 감추기 못하며 식민지 시절의 과거에 연연한다. 그는 스스로 반제국주의자로서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파일과의 밀착성과 공통점을 발견하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다.

V. 침몰하는 대영제국과 부상하는 미제국주의:

The Honorary Consul

1969년 그린은 아르헨티나에서 파라과이로 배를 타고 여행하던 중 우연히 들르게 된 작은 강변 마을 코리엔테스(Corrientes)의 조용한 분위기에 사로잡힌다.¹⁾ 이 마을은 한번 다녀간 사람은 반드시 다시 찾아온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곳이며, 그 후 실제로 그린은 비행기를 타고 다시 이 지역을 방문하게 된다.

당시 파라과이의 정치상황은 스트로에스네르(Stroessner)의 철통같은 독재 정권하에 놓여 있었고, 민주화운동이나 반미운동은 완전히 차단되어 있었으며 고작해야 아르헨티나 국경지역에서 출몰하는 일부 소규모의 반정부 게릴라 조직의 미미한 저항만 있었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코리엔테스 근처에서 그린은 엘 리토랄(*El Litoral*) 지방지에 실린 파라과이 영사 피납 소식을 접한다. 게릴라들은 영사를 대사로 잘못 오인하여 납치극을 벌인다. 이 사건은 우연히도 그린의 실제로 꿈은 꾸지 않았던 미국 영사 납치의 내용과 비슷했으며, 더구나 그가 오랫동안 그 꿈을 바탕으로 쓰고자 했던 스토리와 너무나 흡사했다. 게다가 해방 신학을 지지하는 빈민촌 신부들의 추방이나 대주교의 연금, 성당 폭탄 사건 등 당시 계속해서 터진 일련의 사건들은 그린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1973년에 발표된 이 소설은 그린의 가장 쓰기 어려웠던 소설 중의 하나지만 그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라고 스스로 대담집에서 밝히고 있다.²⁾ 이 소설은 후기 작품 중에서 영국 제국주의의 몰락에 대한 그린의

1) Marie-Françoise Allain, *The Other Man: Conversation with Graham Greene*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83) p.62.

2) Allain, p.129.

강한 향수를 짙게 풍기는 작품의 하나이다. 특히 세계의 최강자로 새롭게 등장한 신제국주의 세력인 미국에 대한 그의 적대의식은 이 작품의 곳곳에서 다른 형태로 포장되고 위장되어 나타난다.

1. 고독한 이방인의 인종적 혼종과 정체성


*The Honorary Consul*의 주인공인 에두아르도 플라르(Eduardo Plarr)는 그가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 사회에 동화되지 못하는 고독한 이방인이다. 그는 영국인 아버지와 파라과이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30대 초반의 의사이며, 20여 년 전에 혁명 운동을 하는 아버지를 파라과이에 남겨두고 어머니와 함께 아르헨티나에 망명해왔다. 그의 아버지의 나라인 영국의 국적을 갖고 있는 플라르를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외국인으로 취급한다. 항상 “이방인”으로 사회에서 유리된 가운데 살아가는 그의 신분에 대해 친구 리바스(Rivas)는 질문을 한다.

“What's your other name?” “Eduardo.” “But I thought you were English.” “My mother is Paraguayan.”³⁾

성장할수록 플라르는 자신이 혼혈아라는 태생적 이중성을 점점 인식하게 된다. 인종적 혼종성과 애매한 정체성을 지닌 그는 은연중에 영국적 취향을 많이 갖고 있으며, 갈수록 영국인 아버지에게 강하게 이끌리게 됨을 깨닫는다. 부에노스 아이레스(Buenos Aires)에서 성공한 개업의로 병원을 운영하던 그는 어느날 어머니로부터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떠나고 싶어서 도시 생

3) Graham Greene, *The Honorary Consul* (London: The Bodley Head, 1973) p. 53. 이 후 이 작품에 대한 인용은 쪽수만을 명시한다.

활을 정리한다. “조잡한 거리와 너저분하게 고층건물이 퍼져나가는 수도 (mean streets and the great sprawling muddled capital with its skyscrapers)”(13)의 모습처럼 그의 어머니 역시 중년기로 접어듦에 따라 아름다운 옛 모습을 잃고 만다. 매일 밤 “크림 케이크와 알파호레스(cream cake and alfajores)”(74)를 억척스럽게 먹어치우는 그녀는 “세 겹의 턱과 늘어진 군살, 임신부만큼 배가 나온(three chins and heavy dewlaps and a stomach imitated pregnancy)” (74) 파라과이 여자이다. 이제 젊은 날의 예쁜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늙고 뚱뚱해진데다 불만만 늘어놓는 어머니를 등지고자 플라르는 파라과이 국경지대의 소읍으로 이사한다. 왜냐하면 파라과이는 아버지가 귀화하여 혁명 활동을 했던 제 2의 조국이며, 그곳에 가면 비록 생사는 모르지만 아버지와 가까이 있게 되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20년 전에 헤어진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플라르는 아버지의 모습을 회상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His father was very noticeably English-born. His father belonged by right, and not simply by a passport, to the legendary island of snow and fog, the country of Dickens and Conan Doyle. (10)

영국인인 그의 아버지 헨리 플라르(Henry Plarr)는 “『런던 파노라마』 (*London Panorama*)”(24)라는 그림책을 간직했다가 어린 아들 에듀아르도에게 많은 얘기를 들려주곤 했다. 그는 책장을 넘기면서 “버킹엄 궁전이나 런던 탑, 긴 스커트 자락을 추켜올리고 걷는 귀부인들과 고급스런 사륜마차로 가득찬 옥스퍼드 거리(Buckingham Palace, the Tower of London, Oxford Street filled with horse-drawn cabs and ladies who clutched long skirts.)” (10) 등을 보여 주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통해 영국의 문화 뿐 아니라 생활방식까지도 영향을 받은 플라르는 아버지에게서 배운

대로 야외에서 독서하기를 즐긴다. 그는 디킨즈(Dickens)에 심취한다.

Perhaps reading in the open air was a habit he had acquired from his father who always took a book with him when he went farming, and in the orange-scented air of his abandoned country. Doctor Plarr had got through all the works of Dickens except *Christmas Tales*. People when they first saw him sitting on a bench with an open book had looked at him with keen curiosity. Perhaps they thought it was a custom peculiar to foreign doctors. It was not exactly unmanly, but it was certainly foreign. (15-16)

플라르는 이 도시에서 독서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한다. 강가나 도시 광장에서 이따금 지방 신문 “엘 리토랄(*El Litoral*)”(15)을 읽는 사람은 보았지만 벤치에 앉아있는 연인이나 잠시 쉬어가는 사람들 중 책을 읽는 사람은 결코 보지 못했다고 한다. 영국인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독서습관은 이처럼 현지인들의 문화적 수준에 대한 상대적 우월감과 이들에 대한 멸시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디킨즈나 코넬 도일(Conan Doyle)의 작품을 아버지로부터 받아 읽으며 영국 소설에 익숙해진 그는 자신의 환자이자 남미 작가인 호르헤 훌리오 사베드라(Jorge Julio Saavedra)의 소설을 마치못해 억지로 읽는다. 이는 며칠 후 있을 정기 만찬에서 그가 사베드라에게서 증정 받은 작품에 대해 예의상 최소한 몇 마디라도 언급하기 위해서이다. 그는 환자에 대한 예의로 의무감을 갖고 책을 읽으려고 노력하지만 겨우 몇 장을 넘길 뿐이다. 플라르가 보기에 “대단히 감상적인 문체로 쓰였고 마키즈모⁴⁾

4) 마키즈모(machismo)는 라틴 문화권에서의 남성성에 대한 숭배 사상이다. 남미에서는 과도한 남성주의 즉, 육체적 강인함, 공격성, 여성에 대한 지배 등이 미덕으로 여겨지며 전통적 사회에서의 남성의 보수적 역할과 남성우월주의가 강조된다. “machismo”라는 말은 스페인어 “macho”에서 유래되었으며 이 단어는 영어의 “male” 혹은 “manly”에 해당한다. Robert Oscar Lopez, “machismo,”

정신으로 충만해있는(It was written in a heavily loaded melancholy style, full of the spirit of *machismo*.)” (14) 사베드라의 소설은 어릴 때부터 선호해오던 영국문학에 비해 낯설고 저급한 문화 체험일 수밖에 없다.

플라르는 아버지에게서 영국인의 피를 물려받았을 뿐 한 번도 영국에 간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에서 성장한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이곳의 관습에 적응을 못하고 걸도는 이방인과 같은 생활을 한다. 릴라 간디(Leela Gandhi)의 분석처럼 플라르는 틈에 끼인 비결정의 자리에 놓이게 된 신세이다.⁵⁾ 게다가 경계인인 그는 제 3의 공간 즉, 경계의 간극에 존재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동질화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다⁶⁾. 따라서 그는 비단 독서습관이나 취향 뿐 아니라 남미 현지의 관습이나 일상의 생활방식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부한다.

The men here preferred to stand at street corners and talk, or sit drinking cups of coffee and talk, or lean out of a window and talk. And all the time, while they talked, they touched each other to emphasize a point or just friendship. In public Doctor Plarr touched nobody, only his book. It was a sign, like his English passport, that he would always remain a stranger: he would never be properly assimilated. (16)

이처럼 플라르는 영국에서처럼 서로 만나 점잖게 얘기를 주고받기보다 상대방과의 육체적 접촉을 통해 대화하는 남미 방식에 익숙하지 못하다. 이들

Buffalo Report, November 2003, Sep. 2005 <<http://buffaloreport.com>>.

5) 지배자와 피지배자는 상호 전염과 미묘한 친화관계에 얽혀있으며 이러한 애매한 경계인은 이쪽도 저쪽도 아닌 중간위치에 서있게 된다. Leela Gandhi, *Postcolonial Theory: A Critical Introduction* (New York: Columbia UP, 1998) p. 165.

6) 박상기, 「탈식민주의의 양가성과 혼종」, 『탈식민주의- 이론과 쟁점』 고부웅 외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3) p. 248.

의 생활습관이 어색하고 불편한 나머지 그는 사람들과의 교제를 꺼린다. 마치 물과 기름처럼 이 사회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영국적인 것만을 고수하려는 플라르는 영원한 아웃사이더이다. 따라서 야외에서의 독서, 남미인과의 교제 거부 등은 영국 여권과 마찬가지로 그가 특별한 존재로서 예외적이고 독특하게 살아가는 그의 삶의 방식을 대변한다. 간디가 설명하듯이 플라르는 서로 다른 민족의 부자연스러운 얽힘에서 오는 혼종성과 문화적 잡종에 대한 불안을 심하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⁷⁾

이런 그가 이 도시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은 역시 영국인들이다. 자신도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하면서 10년마다 영국 여권을 갱신해온 플라르는 언제나 스페인계 사람이 아닌 영국인 동료를 만나고 싶어 한다. 이 도시에서 그가 알고 지내는 두 영국인 중 한 사람은 “대학이라고는 문에도 가본 적이 없으면서도 박사의 칭호를 가지고 있는 늙은 영어 선생(an old English teacher who had adopted the title of doctor without ever having seen the inside of a university)”(13)인 닥터 험프리즈(Dr. Humphries)이고, 다른 한 사람은 명예영사인 찰리 포트넘(Charley Fortnum)이다.

플라르를 포함한 이 세 사람은 “앵글로 아르헨티나 클럽(Anglo-Argentinian Club)”(181)의 멤버이다. 이 작품에서 “세 영국인(three Englishmen)”(181)이라는 문구는 계속 반복된다. 클럽이라는 거창한 이름이 무색할 만큼 겨우 3명으로 구성된 모임이지만 이들은 “우리 셋은 영국 식민지의 기둥(We three are the pillars of the English colony.)”(47)이라고 확신하면서 자신들을 식민사회의 버팀목으로 자처한다. 험프리즈가 자신의 낮은 학력을 부풀리고 박사 칭호를 붙이거나 실권도 없는 포트넘이 영사 행세를 하듯이, 이 모임도 인원수에 관계없이 과대 포장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제 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마치 외딴 섬에 갇혀 답답한 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클럽은 유일한 해방구이자 안식처이다. 게다가 이들이 사용하는 모국어인 영어

7) Gandhi, p. 150.

는 서로의 연대감과 동질의식을 확인시키는 매개체가 된다. 상대방을 만지며 이야기하는 남미의 대화법이 아니라 이들은 모국어인 영어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유쾌해한다.

Good to speak occasionally the native tongue - gets rusty
from unuse - the tongue that Shakespeare spoke. (54)

위 대사에서 엿볼 수 있듯이, 이들은 영어를 구사하는 셰익스피어의 후예임을 자랑스럽게 과시한다. 더구나 한번도 가보지 못한 영국을 언제나 동경하며 영국 국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10년마다 여권을 갱신하는 플라르에게 영어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마지막 무기이자 절대적인 수단이다. 비평가 영(Young)이 지적하듯이 토속문화와 식민문화는 서로 마찰을 일으키며, 그 과정에서 식민권력이 갖고 있던 오랜 정치적 억압성과 정통성은 그 힘을 상실한다.⁸⁾ 즉, 대다수 원주민의 문화적 침투에 의해 지배적 식민 문화는 혼종되고 약화된다. 제 아무리 영어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강한 힘을 가졌어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소수 언어로 격하되며 점점 퇴화되지 않을 수 없다.

“국적은 물보다 진하다(Nationality is thicker than water.)”(55)라고 믿는 이들은 중심부 영국 문화를 고수하려고 애쓰며 혼종화를 두려워한다. 다시 말하면 소수의 이 영국인들은 타민족 사회에 얽혀 사는 가운데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을까 초조해 하며 원주민화(nativisation)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간다.⁹⁾ 자신들의 중심부 문화가 상호 작용에 의해 그 자체가 부패되거나 주변부 문화로 편입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항상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다.

8) Robert Young, *Colonial Desire: Hybridity in Theory, Culture and Race* (London: Routledge, 1995) p. 23.

9) Gandhi, p. 165.

이러한 불안 상태는 등장인물들의 삶의 방식에 그대로 반영된다. 플라르는 책상에 놓인 “영국 의학 잡지(*The British Medical Journal*)”(98)를 남미의 대표적 작가 보르헤스(Jorge Luis Borges)의 환상적인 단편소설보다 “더 정확하고 실용적 가치가 있다(more precise and of greater practical value)”(98)고 평가한다. 즉, 감상적이고 환상적인 내용을 다룬 남미의 주요 소설 작품을 영국의 일개 의학 잡지만도 못한 것으로 치부한다. 동료 험프리즈 역시 날씨가 아무리 더워도 언제나 양복에 넥타이를 매고 조끼까지 입고 다닌다. 영국 신사처럼 보이는 그의 모습은 마치 영국 “빅토리아조 문인(a Victorian man of letters)”(21)과 같은 인상을 준다.

그밖에도 플라르의 환자이자 아르헨티나의 소설가 사베드라는 회색빛 머리카락, 회색 양복에 회색 넥타이를 매고 다니는 단정한 용모의 소유자이다. 비록 남미인이지만 그는 영국인 재단사가 지어준 옷만을 고집하며 언제나 깔끔한 맞춤 양복을 입고 다닌다. “믿으실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10년 동안 양복을 안 사도 될 정도였습니다(You wouldn't believe it, but I haven't had to buy a new suit in ten years.)”(63)라고 영국 양복의 품질을 자랑한다.

한편 명예영사인 영국인 포트넘은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로부터 여러 번 파라니 말¹⁰⁾을 배우라고 권고 받았지만 원주민의 말을 몇 마디 밖에 배우지 못했다. 그가 현지에 주재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최소한 자신의 공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언어조차 익히지 않았다는 사실은 영국인의 거만한 자존심을 의미한다. 현지 언어에 미숙한 포트넘은 영국인 동료인 플라르와 험프리즈에게 “선생에게처럼 터놓고 말을 할 만한 사람이 이 도시에는 없다 이 말이오. 모두 스페인계 녀석들 뿐이니까요(I can talk to you, doctor, as I

10) 파라과이의 원주민 언어이며 스페인어와 함께 광범위하게 쓰인다. 파라과이에서는 대부분 스페인어를 사용하지만 중부 지방을 지나면 40-50세를 넘은 사람은 주로 파라니어를 사용한다. 1997년 이후 교육부 정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에서도 파라과이어를 가르치고 있다. “Guarani language,”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Nov. 2005 <<http://en.wikipedia.org>>.

can talk to no other man in this city. Spaniards.)”(53)라고 불평한다. 친 에이커나 되는 마테차¹¹⁾ 농장을 경영하면서도 늘 “진짜 스카치(real Scotch)”(53)만을 즐기는 포트넘은 “영국에서는 마테차 같은 건 마시지 않아요. 아마 그런 이름조차 못들어 봤을거요(Nobody drinks mate in England. Never heard of it probably.)”(58)라며 업신여긴다. 게다가 이곳 사람들은 “가정에 대한 인식이나 부드러운 슬리퍼, 친밀한 차 나눔(sense of home, soft slippers, the friendly glass)”(53)과 같은 영국적 정서나 문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며 무지하다고 비난한다. 그는 이질적 문화와의 괴리 때문에 갈등하며 메워질 수 없는 간극 앞에 자괴감을 느낀다. 자기 방안을 여왕 사진으로 도배한 험프리즈의 행동 역시 고국에 대한 그리움의 반영이다.

Doctor Humphries had pasted a new picture on the wall, from the Spanish edition of *Life*, showing the Queen perched on a horse at Trooping the Colour. The choice was not necessarily a mark of patriotism or nostalgia: patches of damp were continually appearing on the plaster of the room and Doctor Humphries covered them with the nearest picture which came to hand. Perhaps however his choice did show a certain preference for wakening with the Queen's face rather than Mr. Nixon's on the wall. (19-20)

이처럼 본국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림 한 장도 아쉬워 소중히 간직하며 늘 영국 신사 복장을 하고 다니는 험프리즈, 이 도시에서 터놓고 얘기할 사람

11)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브라질 남부에서 소비되는 아르헨티나의 전통 음료이며 다년생 예르바 마테의 건조한 잎과 어린 줄기로 우려낸다. 친한 사람들끼리 한 컵을 이용하여 차를 돌려 마시며 마테컵을 공유하는 것은 친구로 받아들인다는 뜻을 지닌다. 남미에서는 마테 우정을 최상의 우정으로 여긴다. “Yerba Mate,”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Nov. 2005 <<http://en.wikipedia.org>>.

이 없어 모국어를 사용할 기회가 적다고 투덜대는 포트넘, 어머니 나라인 남미에서 자랐지만 아직도 이곳의 문학이나 인사법을 어색하게 여기고 거부해하는 플라르, 이들 세 사람의 공통점은 본국에 대해 상당한 동경과 애착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오랜 타향생활에서 영국성(Englishness)이 퇴색될까봐 노심초사하는 이들은 앵글로 아르헨티나 클럽을 조직하며 소수의 희소 가치에 자족하며 지낸다. 마치 식민지 시대의 영국인들이 자신들의 거주 지역에 “문명 경계선(civil line)”을 그었던 것처럼 이 클럽은 영어와 서양 문화의 본산으로써 자신들만의 배타적인 공간이 된다. 이는 또한 자신들의 영국성을 확인하고 유지하는 유일한 보루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현지의 환경에 동화하고 순응하기는커녕 완강하게 거부함으로써 혼종화를 방지하고자 안간힘을 쓴다. 즉, 저급한 현지 문화에 굴복하거나 토착화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으로 최대한 “주변부 경험”을 배제하며 무엇보다 문화적 전염으로부터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것이다.¹²⁾ 이처럼 그린은 작품의 전반부에서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경계인 플라르와 그의 동료들의 영국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질적인 남미의 타자성(Otherness)과의 대조를 통해 영국성을 더 부각시키고 있다.

2. 앵글로 아르헨티나 클럽과 거꾸로 계양된 유니언 잭

세 명 밖에 안되는 “앵글로 아르헨티나 클럽”의 멤버 중 둘은 나이가 많은 노인이다. 언제나 영국 신사복을 입고 다니는 험프리즈는 “머리는 백발이고, 칼라는 헤어졌으며, 고친지 오래된 낡은 안경(his white hair, his frayed collar and the spectacles which had not been revised for years)”(21)을 쓰고 다닌다. 포트넘 역시 스스로 영사라고 거드름을 피우며,

12) Gandhi, p. 165.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자기에게 도움을 청하라고 말하고 다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실권도 없는 은퇴를 앞둔 공무원이다. 그의 관사라고 해야 “식민지풍의 낡은 건물(an old colonial house)”(54)에 불과하다. 과거의 정력을 잃어 늙고 초라해진 이들은 근근이 체면 유지라도 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불품없는 이들의 행색은 속빈 강정과도 같다.

Doctor Humphries had been established on the plateau for many years, and Charley Fortnum, though he was still on one of the lower slopes, had found a reliable weapon in the fight against senility - he had pickled in alcohol some of the high spirits and the naivety of earlier days. As the years passed, Doctor Plarr could discern little alteration in either of his early acquaintances. (49)



여기서 두 노인은 해외 식민지의 오랜 역사와 경험을 지닌 영국을 대변한다. 즉, 두 노인이 노령기에 접어들어 인생의 내리막길에 들어선 것처럼 오래전부터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막대한 식민지를 거느렸던 대영제국이 이제 고령기를 맞아 쇠퇴일로로 걷고 있음을 암시한다.¹³⁾ 변치 않는 젊음과 정력을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노쇠현상이 찾아오듯, 영국의 기운도 서서히 약해지며 과거의 활력을 잃어버렸음을 빗대어 말하고 있다. “알코올에 절여둔 정력과 탄력”은 이제 더 이상 유력한 무기가 될 수 없는 현실에 봉착한다. 그러므로 이들을 지탱해주었던 우월감과 자만심은 영국이 갖고 있는 국제적 위상의 저하와 국력의 쇠퇴로 흔들리게 된다. 다음의 인용은 그런 세태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13)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계속되는 경제적 난항과 악순환으로 대영제국의 종말론적인 운명에 대한 경고가 대두되었다. 실제로 영국의 국력이 서서히 기울기 시작한 것은 내부적인 사회적 힘의 약화와 대외적인 힘의 역학관계의 변화에서 온 것이다. Tom Nairn, *The Break-up of Britain: Crisis and Neo-Nationalism* (London: NLB, 1977) p. 69.

I wish we had a simpler flag than the Union Jack. I hung it upside down once on the Queen's birthday. I could see nothing wrong with the bloody thing, but Humphries was angry - he said he was going to write to the Ambassador.
(54)

거꾸로 게양된 유니언 잭(Union Jack)은 과거 식민지 절정기에 만방에 휘날리던 영국기와 한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의 영광을 무색하게 한다. 잘못 매달린 유니언 잭은 영국의 기우는 국력과 좁아진 국제적 입지에 대한 회화화이다. 마찬가지로 이 작품의 제목이자 포트넘의 직책인 “명예영사” 역시 정년을 앞두고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공무원을 지칭하는 말로써 이 또한 늙고 무기력하며 꺾이기 쉬운 영국 영사에 대한 빙자이다.

이 작품 전반에 걸쳐 조역에 불과한 포트넘이 작품 제목으로 부상한 이유 역시 그의 인물과 성격에 초점을 두기보다 명예영사로서의 현재 위치와 그를 둘러싼 정치적 현실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즉, 이름뿐인 명예영사라는 자리는 그런이 갖고 있는 정신적 상실감과 박탈감의 은유적 표현이며 국제 사회에서의 영국의 현주소를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트넘이 영사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그 동안 영국 거류민의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었는데 영국 정부가 외교 경비를 줄이기 위해 해외 공관을 폐쇄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영사직을 다른 사람으로 대치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명색이 영국을 대표한다는 영사관은 초라한 하숙집에 비유된다.

Don't go expecting too much. No marble halls, no chandeliers and potted palms. It's only a bachelor's digs - a bureau, a bedroom - all the usual offices of course. The best the buggers at home are ready to provide. No sense of national pride. Penny wise, pound foolish. (53)

이처럼 볼품없는 영사관은 외교 공관으로서의 조건을 갖추지 못했고 포트넘 역시 직업외교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거나 “국가적 자부심(the sense of national pride)”(53)이라고는 전혀 느끼지 못한다. 그는 전직 외교관이라는 자리를 이용하여 2년마다 외제차를 수입하며 생계를 유지한다. 즉, 정식 봉급이 아니라 밀수라는 불법거래를 자행하여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당국은 그의 불명예스런 행적을 알고 있지만 이미 은퇴 직전인 그를 파면할 수도, 전근시킬 수도 없어 난처해한다. 그러던 어느 날 게릴라들이 파라과이에 억류중인 20명의 정치범을 석방해달라는 요구를 내걸어 미국대사 납치극을 벌인다. 그러나 정작 납치한 사람은 그들의 표적이었던 미국 대사가 아니라 영국의 명예영사로 밝혀진다. 휴가 중인 파라과이의 스트로에스네르 (Stroessner) 장군¹⁴⁾은 영국 영사의 납치 소식을 접하고도 “내가 상관할 문제가 아니야. 나는 여기서 낚시를 하고 있는 중이야(This is no concern of mine. I am here for the fishing.)”(117)라고 말하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미국 대사 정도의 주요한 인물도 아니고 더구나 정식 영사도 아닌 이미 쇠퇴해가는 영국의 명예영사 한 사람으로 인해 공연히 복잡한 외교 문제에 휘말릴까봐 아무도 이 일에 개입하려 들지 않는다.

이는 곧 영국이 남겨놓은 경제적 정치적 공백을 이제 미국의 헤게모니가 대신 채우고 있음을 시사한다.¹⁵⁾ 영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가 연루되었나에

14) Alfredo Stroessner (1912~)는 1954년 군부 쿠데타로 집권한 후 헌법을 8차례 고치며 1989년까지 35년간 일인 독재정치를 했다. 20세기 라틴아메리카에서 가장 오랫동안 장기 집권한 권력자이며 나치 옹호자였던 그는 나치 전범을 위한 은신처를 제공하기도 했다. 1970-87년까지 매 3개월마다 비상긴급조치를 발동하여 온 나라를 삼엄한 체제하에 감시했다. 그가 권좌에 있는 동안 건축재정으로 인해 경제는 침체를 면치 못했고, 재선 후 그를 반대하는 게릴라 세력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자 독재 군부의 막강한 권력으로 이들을 소탕했다. 정적과 그들의 가족을 테러하거나 몰살시켰고 피의 복수극이 끊이지 않았다. 많은 정치 사상범들이 정글에 있는 강제 노동 수용소에 감금되었고 이들에게 행해지는 처벌과 고문은 잔인하기로 악명이 높았다. 그의 부패 정권이 오래 연명할 수 있었던 요인은 미군부의 지지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의 주변국가에서 극우 군부집단세력이 잇따라 등장함에 따라 반민주적 통치체제의 분위기가 팽배했기 때문이다. “Alfredo Stroessner,” *Encyclopedia Britannica Online, Encyclopedia Britannica*, Nov. 2005 <<http://www.britannica.com>>.

15) Tom Nairn, p. 69.

따라 같은 사건을 두고도 현지의 반응은 영미간의 세력 차이만큼이나 판이하게 다르다.

In this case, to be quite frank. . . well, an Honorary Consul is not an Ambassador. They feel it would be a bad principle if they interfered. The English are not very popular with the General. Of course if Fortnum were an American he would probably take a different view. (168)

위의 인용처럼 유명무실하고 허수아비같은 명예영사의 존재가치는 납치사건을 통해 여실히 드러난다. 비록 납치 계획에 차질은 있었지만 그나마 영국 외교관을 인질로 삼은 데 대해 납치범은 많은 기대를 걸며 그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믿는다. 또한 자신들의 포획물이 미국 대사만한 거물은 아니지만 이 사건 자체의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납치범들은 영국인 찰리 포트넘이 “미미한 존재(. . . how unimportant he was.)”(40)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모를 만큼 무지할 뿐 아니라 주변 정세에도 어둡다. 그러므로 플라르는 납치범들에게 그들이 취한 수단과 방법이 다 잘못되었음을 계속 인식시킨다.

“Charley Fortnum's no good to you as a hostage.” “He is a member of the diplomatic corps.” Aquino said. “No, he isn't. An Honorary Consul is not a proper Consul.” “The British Ambassador would have to intervene.” “Of course. He would report the affair home. Just as he would for an anyone British. If you kidnapped me or old Humphries it would be much the same.”. . . “But he is a British Consul.” (40)

이처럼 현지 외교관은 단순한 개인이 아닌 본국을 대표하는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명예영사의 납치 사건이 “일반 영국인”과 같은 비중으로 하찮게 다루어지며 국가 간의 문제를 일으키기는커녕 세간의 관심조차 끌지 못한다. 이 사실은 약화된 영국의 외교적 영향력을 시사한다.

에당초 게릴라들은 미국대사를 납치하여 20명의 정치범의 석방을 조건으로 내걸을 계획이었으나 인질로서의 가치가 없는 포트넘은 그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엔 너무도 무기력하고 쓸모없는 존재에 불과하다. 이들이 미국대사를 노리는 이유는 정치범 석방 요구 이외에 “미국인들이 남미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다(The Americans have killed plenty of men in South America.)” (41). 게릴라 두목인 리바스 일당이 게릴라 조직을 결성한 이유도 라틴아메리카의 독재정권을 지지해온 미국과 민중을 억압하는 친미 괴뢰정권에 저항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이들은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것은 바로 미국놈들(They have reduced us to this.)”(42)이라고 미국을 통렬히 비난하며, 비록 인질극을 벌인 이들의 수법이 바람직하지 못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임을 주장한다. 왜냐하면 이들 저항 세력의 목표는 악독한 파라과이 정권에 의해 옥에 갇힌 양심수의 석방과 동시에 그 배후 세력인 미국 축출에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꾸또(Couto)는 그린의 작품에서 라틴아메리카가 새로운 관심지역으로 떠올랐으며, 이는 제국주의적 착취와 슈퍼파워의 대결구도가 새롭게 펼쳐지는 장에 대한 그린의 예리한 감각을 반영한다고 분석한다.¹⁶⁾

물론 이 작품에서는 *The Quiet American*에서처럼 미국인이 구체적으로 등장하지도 않고 상대적으로 노골적인 반미 감정도 드러나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국주의에 대한 반발이 작품에 암묵적으로 강하게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¹⁷⁾ 화자에 의해 잠깐 소개되는 미국대사는 장사꾼으로

16) Maria Couto, *Graham Greene: On the Frontier - Politics and Religion in the Novels* (London: Macmillan Press, 1988) p. 135.

언급되며 그는 농작물 경매에 응하러 국경지역에 나타난다고 회자된다. 그의 지방순시는 “마테차나 그 작물을 시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회 사적을 보러 왔다(The ambassador has come here to see the ruins, not the mate tea or the crop.)”(22)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지며 이는 그가 “사업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학문에 관심이 있다는 인상을 풍기기 위함이다(He wants to show a scholarly interest in our province, not a commercial one.)” (22). 그러나 외교관이 되기보다 장사꾼인 미국대사는 사업적 관심만 있을 뿐 예술과 역사에 무식한 인물임이 드러난다. 이는 미국이라는 철저한 자본주의 사회와 동시에 유럽에 비해 턱없이 빈약한 미국의 예술과 일천한 역사에 대한 비아냥이다. 그린의 대부분의 작품에서 악역을 전담하는 미국인은 여기서도 예외가 아니다. 게다가 사람들의 비난의 표적이자 인질극의 대상인 미국대사는 *The Power and the Glory*에서 경찰에 의해 쫓기는 미국인 강도 칼버(Calver)와 *The Quiet American*에서 베트남에 의해 살해된 파일(Pyle)을 동시에 연상시킨다. 이처럼 그린은 멕시코와 베트남, 남미에서의 미국인의 행적을 예의주시하며 집요하게 추적한다.

그린의 반미의식이 *The Quiet American*에서 정점에 달했다면 약 20년 후에 집필한 *The Honorary Consul*에서는 다소 주춤한 듯이 보인다. 두 작품의 구성과 인물들의 대조를 통해 나타난 많은 유사점과 상이점은 그린의 기본입장과 변화된 의식을 보여준다. 첫째, 두 작품은 한 여자를 사이에 두고 두 남성이 다투는 애정 싸움의 양상을 보이며 이들은 경쟁적인 삼각관계에 놓이게 된다. *The Quiet American*에서 퓨옹이란 현지처를 놓고 영국인 파울러와 미국인 파일이 다투었듯이 *The Honorary Consul*에서의 정부 클라라는 영국인 플라르와 포트넘와 함께 삼각관계를 이룬다. 개인의 사랑싸움이 국가간의 대결 양상으로 탈바꿈한 *The Quiet American*에서 영국과 미국은 불꽃 튀는 경쟁을 벌이며 첨예한 충돌을 자주 일으킨다. 그러나

17) Couto, p. 135.

*The Honorary Consul*에서는 두 남자가 모두 영국인으로 바뀐 점을 미루어보아 심각한 영미간의 갈등에서 이미 벗어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둘째, *The Honorary Consul*에서 사건 해결의 결정적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대사와는 달리 어떤 정치적 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한심한 영국 대사를 등장시킨 것은 이미 약화된 영국의 위상을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듯이 보인다. 더구나 *The Quiet American*의 악역인 파일이 베트남 저항 세력과 파올러에 의해 처참하게 피살당하는 반면, *The Honorary Consul*에서 미국대사는 저항 세력의 추적에도 잡히지 않는다. 이는 감히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된 미국인과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커진 미국의 힘을 뜻한다. 셋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작품의 끝부분에서 젊음과 패기를 지녔던 파일과 플라르는 죽지만 경험과 연륜으로 이에 맞섰던 두 노장은 살아남는다. 이는 곧 늙은 유럽의 힘이 약화되었지만 그래도 계속 명맥은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마지막으로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The Quiet American*의 퓨옹과 죽은 파일 사이에는 아이가 없지만 *The Honorary Consul*의 클라라는 플라르의 아이를 임신한다. 비록 이 아이는 유복자이지만 근근이 영국의 피를 이어받아 3대째 남미의 땅에서 살아갈 것이며 영국의 여력을 발산하게 될 것임을 암시한다. 그러므로 *The Honorary Consul*에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듯하던 그린의 태도는 사실은 포기와 체념이 아니라 정신적 박탈감속에서도 아이를 통해 작은 희망을 밝히고 있음을 보여준다.

3. 고통과 억압의 그린랜드(Greenland)

그린이 *The Honorary Consul*을 쓴 것은 1970-1973년 사이이며 이 당시는 라틴아메리카의 민족해방운동의 열기가 절정을 이루던 때이다. 1959년 피델 카스트로(Fidel Castro)¹⁸⁾가 쿠바 혁명에 성공하고 1967년 체 게

바라 (Che Guevara)¹⁹가 볼리비아 혁명전선에서 사망하며, 중남미 전역이 반독재, 반제국주의를 기치로 하는 소위 제 3세계 민족해방운동의 분위기에 휩싸인다. 민중들은 독재와 빈곤에 시달리며 미국의 사주를 받은 군사독재 정권은 민중탄압과 살상을 자행한다. 그러나 교회는 국민의 대다수가 가톨릭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고통 받는 사회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할 뿐이다. 이로 인해 해방신학²⁰이 등장하고 사제들이 무기를 들고 게릴라에 합류하는 등 현실정치에 의식 있는 사제들의 참여가 증가한다. 특히 까밀로 토레스(Camillo Torres)²¹의 죽음은 교회를 비롯하여 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작품에서 게릴라 전사로 변신한 리바스 신부의 경우도 까밀로

18) 피델 카스트로(Fidel Castro)(1926~)는 1926년 오리엔테 지방의 비란에서 출생하여 아바나 법대 재학 중 정치부패 학생모임에 참여한다. 1952년 바티스타 쿠데타 이후 바티스타 정권에 맞서는 무장반란을 위한 혁명 기구를 조직한다. 카스트로가 요구한 총과업과 민중봉기가 성공하자 1959년 쿠바 반군의 최고 사령관 자격으로 아바나에 입성한다. 1965년 공산당 창립 이후 지금까지 쿠바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 1 비서를 맡고 있다. “Fidel Castro,” *About.com*, New York Times Company, 20th Century History, Sep. 2005 <<http://history1900s.about.com>>.

19) 체 게바라(Che Guevara)(1928-1967)는 1928년 아르헨티나 로사리오에서 출생한 중남미 혁명운동의 상징적 존재이며 이론을 겸비한 직업적 혁명가이다. 그는 아르헨티나 중류 가정 출신의 의사이자 라틴아메리카의 게릴라 지도자이며 1960년대 신좌파 운동 (New Left Radicals)의 영웅이다. 1950년대 후반 그는 쿠바의 바티스타 독재 정권에 대한 카스트로의 게릴라 전쟁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게릴라 투쟁에 대한 이론가로서 중국 혁명의 마오쩌둥과 함께 제 3세계 혁명의 우상이다. 1959년 카스트로가 집권하자 국가 농업개혁 연구소의 산업부장, 쿠바 국립은행 총재, 공업장관 등을 역임한다. 1966년 다시 볼리비아에 잠입하여 게릴라부대를 조직, 통솔하던 중 1967년 정부군에 의해 체포되어 총살당한다. Ariel Dorfman, “Che Guevara,” *Time online*, 1999. 6, The Time 100, The most important people of the century, Sep. 2005 <<http://www.time.com>>.

20) 해방신학은 성서적 메시지를 사회적 차원에 맞춰 하느님의 구원을 정치적 해방운동에 귀착시키는 정치신학이다. 해방신학자들은 사회의 일부인 교회가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은 암암리에 억압자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의 목적은 사회의 개조와 변혁이며 이를 위해 교회의 제도적 힘을 사용할 것을 추구한다. Penny Lernoux, 이부영 역, 『민중의 외침: 라틴아메리카의 인권투쟁』 (왜관: 분도출판사, 1983) p. 383.

21) 까밀로 토레스(Camillo Torres)(1929-1966)는 콜롬비아 출신의 신부이며 벨기에 루벵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공부하면서 라틴아메리카의 정치적, 경제적 질곡을 깨닫고 가톨릭교회가 사회현실과 민중의 고통에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인식하게 된다. 철저한 행동가였던 그는 해방신학을 평화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자신의 노력이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신부복을 벗고 게릴라 군에 합류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966년 콜롬비아 정규군과의 첫 교전에서 37세의 나이로 전사했다. 그의 죽음은 라틴아메리카의 가톨릭교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라틴아메리카의 좌익세력으로부터 곧 순교자로 추앙받게 되었다. Penny Lernoux, p. 53.

또레스 신부가 암묵적으로 그 모델이 된 듯 하다. 모한 라마난(Mohan Ramanan)이 설명했듯이 라틴아메리카는 그린이가 가장 오랫동안 집착했던 화두인 구원과 믿음의 주제를 다루는데 적합한 실험장소가 되며, *The Honorary Consul*에 나오는 리바스는 환속한 신부로서 신앙과 혁명 사이에서 갈등한다.²²⁾

리바스는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불의를 보고 등을 돌리는 것보다 낫다는 확신으로 혁명에 참가한다. “교회가 곧 세상이다(. . . the church is the world.)”(143)라고 믿는 그는 신의 개입의지를 찾아볼 수 없는 절망적인 사회에서 신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해 총을 든다. “암살, 납치, 수감자에 대한 고문이 횡행하는 가난한 불구의 나라(assassination, kidnapping, the torture of prisoners, this poor crippled country)”(68)에서 불의에 저항하려는 그의 의지는 너무도 비장하다. 학창 시절 플라르가 가장 아끼고 신뢰한 친구였던 그는 원래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장차 변호사가 될 꿈을 꾸었었다. 그런 그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하고자 빈민촌의 사제직을 택했을 뿐 아니라 지금은 과제하여 게릴라 활동을 이끄는 모습을 보고 플라르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친구의 기막힌 인생역전에 대해 의아해진 플라르는 다음과 같이 묻는다.

“You were going to be an *abogado* before you became a priest. What are you now?” “A criminal,” Rivas said. . . . “In a wrong society,” Rivas said, “The criminals are the honest men.” (128)

변호사나 신부가 되어 억압받는 사람들 위에 군림하며 비겁한 소시민으로 살기보다 정직한 죄인으로 살겠다는 리바스는 구조적인 사회악에 맞서 용감

22) Mohan Ramanan, “Graham Greene’s Latin America,” *Garcia Marquez and Latin America* ed. Alok Bhalla (New York: Envoy, 1987) p. 117.

하게 항거한다. 그는 빈민촌 교회에서 일할 당시 가난에 지친 배고픈 민중에게 사제로서 치빠(chipa)²³⁾ 한조각의 도움도 되지 못했던 무력감과 당시의 참담했던 심정에 대해 고백한다.

Our people do not starve - they wilt. The words used to stick on my lips - "Suffer little children" and there the children sat in the front row with their pot bellies and their navels sticking out like door knobs. . . . "He who gives to one of the least of these." Gives what? gives mandioca? and then I distributed the Host - it's not so nourishing as a good *chipa*. (144)

리바스는 이처럼 처절하고 비참한 현실 속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자모이신 교회(my Mother the Church)”(142)에 분노를 느낀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사회의 모순과 병폐를 지적하거나 정화시키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부패권력과 결탁하고 야합하는 모습에 환멸을 느낀다. 교회를 떠나 파계한 그는 게릴라 대원으로 변신한 후 결혼한다. 한 때 평화의 사도이자 가톨릭교회의 신부였던 리바스는 범법자의 낙인에 주저함 없이 정직하고 양심적인 삶을 의연하게 택한다. 마치 세상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형을 받았던 예수처럼 악이 판치는 타락한 세상에서 선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자 하는 것이다. 이제 선량한 신부가 아닌 게릴라 저항군이 되어 성서대신 총을 쏘면 그는 “만약 사태가 악화되면 신이 금하는 일이지만 살인범은 내가 될 것이오(If it should ever come to that, which God forbid, I will become a murderer.)”(140)라고 말한다.

23) 치빠는 파라과이 길가나 축구장 등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값싼 옥수수빵이다. 브라질 원산 만디오카로 만든 물렁물렁한 빵이며 대극과에 속하는 만디오카의 뿌리에서 전분을 채취하여 만든다. 전통적으로 사순절 성금요일에 고기 대신 이 빵을 즐겨먹는다. “Chipa,” *Encyclopædia Britannica Online*, 2005, *Encyclopædia Britannica*, Sep. 2005 <<http://www.britannica.com>>.

리바스의 친구이자 같은 행동대원인 아끼노(Aquino)는 원래 “정객 (politico)”(149)이다. 그는 학창시절 아순시온(Asunción)의 신문에다 양키를 비판하는 글을 실어 감옥에 붙잡혀간다. 감옥에서 손가락을 잃어 글쓰기가 불편해진 그는 어쩔 수 없이 짧은 시만을 쓰는 저항시인이 된다. 그나마도 현실은 그로 하여금 한가하게 문학에 전념할 수 없게 만든다. 오직 저항과 투쟁만이 지상목표인 이들에게 더 이상 신앙과 문학은 사치일 수밖에 없다. 다급하고 절박한 현실 앞에서 종교와 시는 민중들의 고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 당시의 군부 독재자 스트로에스네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다. 그러나 30여년 동안을 장기 집권한 그는 반대 세력을 무자비하게 탄압했으며 온갖 테러와 고문, 처형 등의 공포정치로 국민을 두려움에 떨게 했다. 당시 파라과이의 감옥은 잔혹하기로 악명이 높았는데 아끼노의 잘린 손가락은 바로 그 끔찍한 고문의 흔적이다.²⁴⁾ 그러므로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부패한 정권 치하에서 힘없고 소외된 백성들의 삶은 한시도 편할 날이 없다. 빈민촌에 사는 아이들의 울창이처럼 튀어나온 배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에 지친 당시 처참한 상황을 말해준다.

Diego led the way down a side turning where the mud was even deeper. It had not rained for two days, but in this *barrio* of the poor the mud lay permanently until the dry season was well advanced. There was nowhere for the water to drain, and yet, as Doctor Plarr well, the inhabitants had to walk as much as a mile in order to find a tap which gave water fit for drinking. The children - he had treated many of them - were big-bellied from protein deficiency. . . . To them belonged the more serious fight for survival. (35)

24) Ramanan, p. 127.

한편 “한 조각의 치빠”와 “식수 한 바가지”를 얻기 위해 매일 삶과의 전쟁²⁵⁾을 치루어야 하는 민중과는 달리 이들을 책임져야 할 사회 지도층의 호사스러운 삶은 천태만상이다. 대주교는 독재자 스트로에스네르와 함께 “이 구아수 폭포에서 잡아온 좋은 생선과 프랑스 포도주(a fine fish from Iguazú and a French wine)”(143)로 만찬을 즐긴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Sell all and give to the poor.)”(143)는 성서적 가르침과는 너무도 이율배반적인 이러한 모습은 민중에 대한 배신이자 기만이다.

스테판 벤츠(Stephen Benz)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파라과이는 부패했고 그 부패는 사람을 최면에 걸게 할 만큼 유혹적이라고 설명한다. 에텐은 경이롭지만 동시에 타락한 곳이다. 즉, 에텐의 경이로움은 위험한 타락의 유혹으로 바뀐다. 그린은 여기서 파라과이의 정치적 부패만이 아니라 로터스(lotus)를 먹고 괴로움을 잊고 살아가는 자(lotus-eater)의 정신적 타락을 강조한다.²⁶⁾ 즉, 에텐이라는 낙원에서 태평한 삶을 살기 위해 양심을 팔아 버리듯 독재자와 대주교는 파라과이의 로터스 즉, “포도주와 생선”을 먹고 세상의 괴로움을 잊어버린다. 이들은 한번 맛들인 부패와 타락에 계속 탐닉하며 어두운 현실을 외면한다. 이를 두고 벤츠는 떨칠 수 없는 “타락의 유혹(charm of corruption)”이라 부른다.²⁷⁾

25) 파라과이의 보건위생과 복지를 살펴보면 파라과이는 1970년부터 보건위생에 주력했고 의료 종사자수도 2배로 증가했다. 그러나 1977년에도 신생아 예방 접종율은 5%에 불과했고 그나마도 1980년대 경기 침체로 인해 보건위생에 대한 국가예산이 삭감되었다. 1980년대 중반에도 상수도 보급율은 전 인구의 25%에 겨우 미치는 수준이었고, 도시인구의 절반과 시골 인구의 10%만이 마실 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다. 열악한 사정은 주거환경에서도 나타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헛간 같은 집을 지어 살았으나 1982-83년 사이 3대 큰 강이 범람하면서 아순시온과 강 일대의 도시들이 상당히 파괴되었다. 수년간 수재민은 움막에서 생활했고 이들은 쥐와 해충이 서식하는 비위생적인 환경에 그대로 방치되었다. 80년대 이질, 폐렴, 영양실조 등 아이들의 생명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았고 영양실조에 의한 유아 사망률은 10%에 이르렀다. “Paraguay,” Backgroundnote: Paraguay, 2005. 9, Bureau of Western Hemisphere Affairs, *US. Department of State*, Sep. 2005 <<http://www.state.gov>>.

26)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상상의 식물인 로터스(lotus) 열매를 먹는 사람은 이 세상의 괴로움을 잊고 즐거운 꿈을 꾸게 된다고 생각되었다. Stephen Benz, “Graham Greene's Paraguay,” *Nassau Review* 6.3 (1992): p. 57.

27) Benz, p. 57.

그밖에도 고난의 땅에서 현실적 어려움을 전혀 겪지 않고 유복하고 풍족하게 살아가는 예외적인 사람들이 있다. 이 무풍지대의 외계인들은 바로 영국인들이다. 의사 플라르, 명예 영사 포트넘, 영어 교수 험프리즈로 이루어진 앵글로 아르헨티나 클럽은 일종의 사회 특권층으로서 민중들은 엄두도 못낼 많은 기득권을 누리며 산다. 우선 포트넘은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제일가는 영국계 학교(the best English school in B.A.)”(52)를 나왔으며 현재 천 에이커 밭에 마테차를 키우고 있다. 그는 최신형 외제차 캐딜락을 밀수하여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장성들에게 팔아넘기며 그 부당이익을 챙긴다. 방탕한 생활을 하는 그는 과음하는 주벽이 있고 자주 유곽에 드나든다. 게다가 주위의 구설수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거기서 만난 어린 창녀를 자신의 현지처로 데리고 산다. 한편 영어를 가르치는 험프리즈는 호텔에 기거하며 종종 이태리 클럽에서 식사를 한다. 그의 소일거리는 식사 후 플라르와 체스를 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공한 의사 플라르는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개업하고 있는 동안 은행장의 부인을 포함하여 세 명의 정부를 사귀어왔다. 이들은 그가 보던 환자들로서 “값비싼 목욕 향수를 풍기며 풍만한 육체를 사랑하는 유부녀들이며 성숙한 여자들(They are married women, mature women proud of their lush figures which smell of expensive both oils.)”(88)이다.

최근에 플라르는 지방장관과 친근하게 지내는데 장관의 전용기를 타고 마테차 농장에 갈 때마다 진수성찬으로 차린 점심을 대접받거나 낚시를 즐기곤 한다. 아파트에 사는 플라르는 “어느 여름 무시무시한 천둥이 치던 날 그의 아파트 창가에서 갈고리모양의 번개가 차코 강변을 할퀴는 듯한 모습을 즐겨 바라보곤 했다(When the summer broke up at last with an enormous eruption of thunder, he liked watching from the window of his apartment the forked flashes dig into the Chaco shore.)” (73). 강변의 집은 주민들이 영성하게 지은 불량가옥인데 이 일대는 당시 강의 범람

이 잦아 자주 수해를 입었었다. 이와 같이 남미의 현실과는 무관하게 호의 호식하며 살아가는 이들은 대다수 사람들의 고통에 동참하기는커녕 목인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²⁸⁾를 지켜야할 사회 지도층이지만 그 책임을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타락한 고위층과 개인적 친분을 맺으며 안일하고 태평하게 살아간다.

비평가 벤츠는 이에 대해 그린은 가난과 억압이 만연한 곳에서 사회적 고통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특권층들을 꼬집어 겨냥했으며 통신원 출신인 그의 글은 이에 대한 정확성과 진중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한다.²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벤츠가 언급한 남미의 현실에 대한 그린의 시선은 정확하고 진중할 수 있을지언정 결코 따스하거나 인간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고통에 대한 불감증을 엿볼 수 있는 그의 차가운 시선은 앞서 *The Journey without Maps*에서 오귀드(Ogude)가 날카롭게 비판한 “철저하게 냉혹하고 무정한 백인의 시선”에 다름 아니다. 낙후된 후진 사회에서 안락한 생활을 누리는 재외영국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린 역시 라틴민족에 대한 경멸감이 깊어지면서 스스로 앵글로 색슨족으로서의 인종적 우월감에 도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이들은 폭음, 밀수, 불륜, 성매매 등 사회악을 범한다. 즉, 포트넘은 사창가 출신 클라라(Clara)를 현지처로 데리고 살며, 플라르는 그녀를 정부삼아 농락한다. 이들의 성적 노리개인 클라라는 “순수한 인디언 혈통을 지닌 뚜쿠만 출신(Tucuman, Real Indian blood)”⁽⁸¹⁾이다. 그녀는 스무 살도 채 안된 나이에 세뇨라 산체스(Señora Sanchez)의 사창가에 창녀로 팔

28) 초기 로마의 왕과 귀족들은 평민보다 앞서 출선수범과 절제된 행동으로 국가의 초석을 다졌다. 특히 포에니전쟁 때 원로원들은 전쟁세를 신설하여 평민을 대신해 많은 세금을 부담했을 뿐 아니라 목숨을 바치기도 했다. 고귀한 신분에 따르는 도덕상의 의무를 강조하는 이 미덕은 중세와 근대사 이후 조직을 이끄는 리더십의 표본이 되었다. David R. Murray, “Noblesse Oblige,” *Noblesse Oblige, Learning to give, An action of the heart, a project for the mind*, Oct. 2005 <<http://www.learningtogive.org>>.

29) Benz, p. 54.

려간다. 아버지는 시골에서 대나무를 잘라서 세공품을 만들어 생계를 이어가지만 철이 아닐 때는 클라라가 보내주는 돈으로 근근이 살아간다. “내가 없으면 굶어죽을(They would starve if I died.)” (118) 처지에 놓인 가족은 참으로 가난한 민중들이다. 대물림되는 가난에서 헤어날 수 없었던 다른 형제들의 삶은 클라라보다 더 기구하다. 도시에 나와서 일하는 동생에게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몰라서(He did not know how to read or write.)” (118) 편지 한 번 보내지 못한 오빠는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한 문맹이다. 그는 어느 날 새벽 아버지의 일을 도와 대나무를 베러 나갔다가 행방불명이 된다. 언니 역시 가출하여 아기를 낳고 들어온 후 아이를 목졸라 죽이고 자기도 자살하고 만다. 불우한 집안 형편 때문에 어린 나이에 몸을 팔아야했던 클라라는 유곽 세노라 산체스 집에 자주 드나들던 포트넘에 의해 구제된다. 포트넘은 포주 산체스에게 아래와 같이 캐딜락 차 한 대 값을 치루고 클라라를 자신의 정부로 삼는다.

“Yes, you could say he married on his Cadillac. But I'm surprised that woman of his needed the price of a Cadillac. Surely a Morris Minor would have done.” (26)

이처럼 제 3세계의 여성은 언제나 최하위 계급에 속하며 그녀의 가치는 자동차 한대 값도 못한 것으로 환산된다. 여기서 백인 포트넘이나 플라르가 정부를 거느리고 매음굴을 찾는 것은 무절제한 성의 착취이자 제 3세계 여성에 대한 이들의 억압적이고 지배적인 태도를 보여준다. 이는 곧 영국 제국주의 통치하의 역사에서 혼자 지내는 남성 식민개척자들에게 매춘은 제국주의의 한 조건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³⁰⁾ 더구나 창녀 출신 클라라는 단순한 성적 대상일 뿐 아니라 온갖 부패와 질병의 보균자로 나온다.

30) Minh-ha Trinh, *Woman, Native, Other* (Indianapolis: Indiana UP, 1989) p. 82.

그녀는 아버지에 의해 사창가에 팔려갔듯이 이제 포트넘에게 팔려간다. 보잘것없고 철저하게 짓밟히는 하층민 출신 여성에 대해 킬라 간디는 제 3세계 여성은 무지하고 가난하며 덜 교육받고 전통에 묶여있으며 희생양이 되는 존재로 재현된다고 분석한다.³¹⁾ 가난한 죽세공의 딸로 태어나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어려운 집안을 위해 윤락녀가 될 수밖에 없었던 클라라야말로 최대의 희생자이다. 스무 살도 채 안된 나이에 매춘부가 되어 인생에 있어서 가장 비천한 밑바닥 생활을 경험한 후 이제 육십이 넘은 늙은 영국 남자의 정부로 팔려간 그녀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다. 그녀는 여전히 포트넘에게서 받은 돈으로 식구들을 부양한다. 이처럼 서양 남자의 성적 쾌락의 대상인 가난한 제 3세계의 여성은 제국주의와 가부장제라는 이중의 굴레 아래서 신음한다.

어느 날 플라르는 클라라가 아프다는 소식을 받아 포트넘의 집으로 그녀를 왕진하러 간다. 포트넘의 정부가 된 후 더 이상 윤락 행위를 하지 않는 그녀를 검진하면서도 그는 마치 병균의 온상인양 그녀의 몸을 불결하게 보며 위생 상태를 의심한다. 또한 그녀를 “한두 번 매다가 옷장에 던져버리는 넥타이(. . . a tie which I wear it once or twice, then I leave it in the drawer.)”(89)와 같은 일회용 소모품으로 비하한다. 평소 유곽을 자주 찾곤 애인이 많은 플라르에게 클라라는 한낱 옷장 구석에 처박히게 될 또 하나의 넥타이이며 성적 노리개에 불과하다. 왕진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그는 골똥히 생각에 잠긴다.

All down the dark country road he thought of the young woman in the great Victorian bed which had belonged, with the sporting prints, to the Honorary Consul's father. She was like a bird which had been bought in the market in a

31) Gandhi, p. 200.

make-shift cage and transferred to one at home more roomy and luxurious, equipped with perches and feeding bowls and a swing to play on. (87)

플라르는 이와 같이 창녀 출신 인디언 여자가 영사의 정부가 된 사실에 불쾌해한다. 위의 인용에 나타나듯이 새에 비유된 그녀는 새로운 주인을 만나 고급스런 새장으로 옮겨진다. 위의 인용에서 “시장”은 포주에 붙잡혀 그녀가 몸을 팔아야 했던 사창가이며 “화려한 새장”은 영국의 영사관을 의미한다. 플라르가 보기에 빅토리아풍의 화려한 침대와 좋은 음식까지 마련된 새장은 천한 창녀에 불과했던 그녀가 누리기엔 과분한 호사이자 가당치 않는 행운인 것이다. 더구나 “버튼을 누를 때마다 여전히 엘리베이터를 무서워하고 전화도 무서워할 만큼(She was still a little afraid of the lift when she pressed the button and she was afraid of the telephone, too.)” (101) 미개한 그녀는 성적 통제 뿐 아니라 생활 전반에 있어서 서양 남성의 통제와 지시를 필요로 한다. 이처럼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클라라를 통해 백인 남성은 그들의 속박과 지배 체제를 강화시킨다.

한편 그린은 *The Journey without Maps*이나 *The Heart of the Matter* 에서와 마찬가지로 남미의 거친 자연에 주목한다. 즉, 인간에게 전혀 다정 다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해악을 입혀 사람들의 고통을 가증시키는 주변 환경에 눈을 돌린다. 플라르는 남미의 드넓은 땅과 자연의 위용 앞에 완전히 압도당한다.

Here they lived on a continent, not in an island. What a vast area of land, with ill-defined frontiers of mountain, river, jungle and swamp, there was to lose oneself in - all the way from Panama to Tierra del Fuego. (118)

그가 본 남미의 강은 “큰 강의 가장 작은 지류조차도 런던의 템즈 강보다 폭이 크고 가오리떼가 무서워 수영할 수 없는(Even the smallest tributaries of the great rivers were wider than Thames and you couldn't bathe for fear of stingrays.)” (84) 곳이다. 사람을 집어 삼킬 듯 거센 물결은 아버지가 책에서 보여주었던 영국의 “평온하고 잔잔한 냇가(a peaceful and gently running stream)”(84)의 운치는커녕 살벌한 위압감과 공포심을 불러일으킨다. 이처럼 남미의 거대한 강에서 영국책에서 본 신비한 “시적 매력(a poetic charm)”(84)을 찾기는 어렵다. 영국과 같은 작은 섬나라의 잘 정비된 환경에 비취볼 때, 엄청나게 넓은 남미 대륙은 클라라의 오빠가 대나무를 구하러 갔다가 행방불명이 되었듯이 인간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척박하고 위협적인 지리 환경이다. 군부 독재의 낯치와 유배로 수많은 사람들이 행방불명이 되었듯이 인간의 범접을 거부하는 광대한 자연 속에서도 사람들은 죽어간다. 이와 같이 인재와 천재에 의한 이들의 수난은 계속 이어진다.

위의 배경묘사처럼 죄, 고통, 죽음이 만연한 이 곳이 바로 그린랜드(Greenland)이며 남미에 대한 처절한 묘사는 그린이가 갖고 있는 “인간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인식”의 반영이지 단순한 풍경에 대한 묘사가 아니다.³²⁾ 꾸토(Couto) 역시 그린의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그의 소설에서는 인류의 타락상이 마치 “버려진 별”에 사는 끔찍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인공들은 어디에나 만연한 악의 세력으로부터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는 “잔인한 하늘” 아래 내팽개쳐져 있다고 분석한다.³³⁾ 정치적으로 긴장된 그린랜드의 전형적인 모습은 독재 권력의 득세와 이들이 민중에게 가하는 수탈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 작품에서도 30년간의 일인 독재치하에서 민중들은 기아, 빈곤, 질병에 시달리며 이에 저항하는 지식인

32) J. P. Kulshrestha, *Graham Greene: The Novelist* (Delhi: Macmillan, 1977) p. 76.

33) Couto, p. 66.

들은 투옥되거나 처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은 항상 정치적으로 민감한 지역을 소설의 무대로 삼는 이유는 명확하다. 그는 마리아 꾸또와의 대답에서 자신의 심경에 대해 언급했다.

I've often been asked what draws me to these places and the only answer I can think of is that politics out there are not an alternation of political parties but a matter of life and death. I am interested in such politics and I write about such politics.³⁴⁾

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실제로 그린은 1969년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아순시온으로 배를 타고 가던 중 코리엔테스(Corrientes)라는 작은 강변 마을에 들른 적이 있다. 이 마을은 몇 년 후 이 작품의 무대가 되며 이 곳에서 본 신문 머릿기사에서 파라과이 영사의 괴랍소식을 접한 후 그는 이 소설을 착안하게 된다. 그러므로 게릴라 전사로 변신한 해방신학의 신봉자 리바스나, 고문 때문에 손가락 세 개를 잃은 아키노, 영양실조에 걸려 울챙이처럼 배가 나온 아이들, 마실 물을 기름통으로 길던 사람들, 수마가 할퀸 강변의 움막집, 매움굴의 여자들은 역사적 배경과 사건에 근거한 거의 실제에 가까운 인물들이다. 따라서 그린의 그린랜드는 상상력의 산물이 아니라 상세하게 묘사된 실제 상황이며 임의로 정해진 곳이 아닌 정당한 이유에 의해 선택된 지역이다.³⁵⁾ 그린랜드의 암흑 속에서 타락의 달콤한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특권층은 부패의 쳃바퀴에 몸을 의지하며 현실에 대한 책임의식이 마비된다. 마찬가지로 오랜 인권 탄압과 쿠데타에 길들여져 합법적인 정치와 인권의 소중함을 경험해보지 못한 민중들은 암흑의 장막을 걷어낼 힘도 능

34) Couto, p. 217.

35) Benz, p. 55.

력도 상실한다. 이와 같이 그린랜드는 버림받은 사람들이 사는 불모지, “버려진 별”인 것이다.

스릴러(thriller) 소설을 즐겨 썼던 그린에게 긴박한 정치적 상황은 그의 소설을 흥미롭게 만들어줄 하나의 촉매제에 불과하다. 또한 고난의 현장을 찾아다닌 것은 일상의 단조로움으로부터의 탈피이다.³⁶⁾ 그는 역사적 사건의 소용돌이에 서있었지만 그가 목격한 그린랜드의 현실에 몰입되거나 감정적 접근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철저하게 타자화시킴으로써 “그들의 고통”을 관망했을 뿐이다. 그린의 눈에 비친 현재의 고통은 누군가가 무심히 연기한 과거의 연극 한 편에 불과하다³⁷⁾는 아담슨(Adamson)의 지적은 그린의 이런 철저한 냉혹성을 꼬집고 있는 것이다.

4. 대영제국의 전통과 영속성

플라르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으로 아버지가 귀화한 나라 파라과이에 가까운 곳으로 병원을 옮긴다. 국경에 접해 있어 때론 위험하고 빈민이 모여 사는 낙후된 지역이지만 아버지의 제 2의 고향에 인접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는 그 곳을 마치 “내 고향(This is my home.)”(206)처럼 여긴다. 그는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귀부인과 부유층 환자를 보고 있을 때마다 “푸른 눈(his blue eyes)”(206)의 아버지가 자신을 책망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했던 아버지가 의사인 자신에게 원하는 일은 곧 빈민지역에서 아픈 사람을 돌보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그가 옮겨간 “이 지역은 침대보다 관이 더 잘 팔리는 곳(There is a greater

36) Greene, *Ways of Escape*, p. 177.

37) Judith Adamson, *Graham Greene: The Dangerous Edge, Where Art and Politics Meet* (Hampshire: Macmillan, 1990) p. 106.

demand in the barrio for coffins than beds.)”(146)으로 사람들은 웬만한 고통쯤은 묵묵히 견디면서 살아간다. 먹을 것이 없어 영양실조에 걸린 가난한 사람들은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입지 못한다. 이들은 어디가 아픈지, 어떤 증세가 있는지조차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극심한 고통에 시달린다. 아무 말 못하는 환자들을 보며 플라르 역시 그들의 “피부의 경련과 초조한 눈동자의 움직임(a shiver of the skin or a nervous shift of the eyes)”(63)을 보고 나름대로 진단할 뿐이다. 오두막 흙바닥에 누운 이들은 덮을 것조차 없다. 그러나 방관자로서의 플라르는 이들의 고통을 체감하지 못하며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 즉, 사람들이 “냉혈한(a cold fish)”(266)이라고 부르는 플라르는 환자의 고통을 보면서도 인간적 동정이나 비애를 거의 느끼지 못한다. 더구나 그가 병원을 옮긴 이유는 단지 아버지에 대해 느끼는 육친의 정과 일상으로부터의 탈출 때문이지 열악한 의료 현실을 개선하려는 사회적 책임감이나 공명심 때문이 아니다. 치참한 남미 현실을 목격하고도 수수방관하는 그에게 리바스는 불만을 품는다.

“South America is our country, Eduardo. Not Paraguay. Not Argentina. You know what Che said, ‘The whole continent is my county.’ What are you? English or South American?” (130)

리바스가 위에서 지적한 대로 남미인도 영국인도 아닌 모호한 플라르의 정체성은 현실에 대한 무관심과 중립성을 낳는다. 더구나 “절반은 영국인(I am only half English.)”(61)인데다가 어려서부터 영국 취향에 길들여져 언제나 영국을 동경하는 그가 아르헨티나 사회에 대해 의사로서의 책임감을 갖기란 어렵다. 친구의 미온적이고 이기적인 태도가 못마땅한 리바스는 전 남미대륙을 인류애로 열렬히 사랑했던 신화적인 혁명가 체 게바라를 언급한다. 따라서 성직을 포기하고 손가락을 잃어가면서도 체 게바라와 같은 헌신

적 혁명의 삶을 따르려는 게릴라들에게 플라르의 태생적 한계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플라르가 리바스의 게릴라 조직에 연루된 이유는 “아마추어(amateur)”(31)에 불과한 이들의 정치 활동을 과히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으며, 이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은 “우정의 표시(a mark of friendship)”(31)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리바스 일당은 자신들이 인질로 잡아 가둔 자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성공적 작전을 폈다고 자랑한다. 게다가 이 인질을 가지고 협박을 한다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 모든 것은 “오랜 투쟁에서 얻은 전술상의 요점(a tactical point gained in a long war)”(41)이라고 으스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밀한 계획 하에 거물급 인물을 인질로 잡아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려던 이들의 시도는 수포로 돌아가고 만다. 게릴라의 경솔한 행동을 그린은 학창 시절의 *Macbeth* 공연에 비유하고 있다.



He had no more belief in their efficiency that he had when they were students; the organization they had once belonged to in Paraguay, the Juventud Febrerista, had effected little except the death of most of the other members in an ill-advised and ill-led guerrilla action. . . . Indeed it was that very sense of amateurism which had persuaded him to become involved. . . . He hadn't believed in their plans, and to listen to them was only a mark of friendship. When he questioned them about what they would do in certain eventualities the ruthlessness of their replies seemed to him a form of play-action. (30-31)

왕위 찬탈과 정권 전복을 기도하며 소위 쿠데타를 일으킨 맥베드의 반란이

비극으로 끝난 것처럼 이들은 거사를 일으킬 음모를 꾸며놓고도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다. 목숨이 달린 중차대한 정치적 투쟁을 치밀하게 기획하지 못한데다 허술한 전략으로 인하여 이 일은 아마추어 연극처럼 어이없게 끝난다. 문제의 인질을 잘못 납치한 결정적 실수로 말미암아 이들의 활동은 시시한 연극만도 못한 학창시절의 소아적 영웅 행위에 그치고 만다. 즉, 던컨왕의 살해 음모가 드러나고 국가 모반죄로 맥베드 일당이 죽었듯이, 독재자 스트로에스네르와 그를 사주하는 미국 대사를 정치적 곤경에 몰아넣으려던 리바스의 계획은 어이없이 백지화되며 관련자 모두는 군경찰에 의해 소탕된다. 여기서 언급된 맥베드는 장차 실패로 끝날 납치극과 비극적 죽음에 대한 예고이다.

“혁명의 정의(Revolutionary justice)”(36)를 운운하며 시종일관 자신들의 공명정대함을 주장하는 리바스에게 플라르는 “자넨 성직자로 다시 돌아가는 게 차라리 낫겠어. 자넨 납치범 노릇을 할 인물이 못돼(You would do better to go back to the Church. You are not made to be a kidnapper.)”(36)라고 충고한다. 플라르가 보기에 이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희박한 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하려 하며 만일의 실패와 그 결과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갖고 있지 못하다. 이처럼 비현실적인 계획을 밀고 나가려는 리바스의 행동을 플라르는 선부른 아마추어리즘으로 치부한다. 정작 정치 투쟁을 한다는 이들보다 현지의 정치 상황을 더 잘 파악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갖는 플라르는 이들의 행동을 저지한다. 그는 포트넘이 협상카드로 어떤 가치도 발하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인물이며 허수아비같은 명예영사에 불과하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한다. 또한 극악무도한 파라콰이 정권이 한낱 게릴라가 벌인 인질극 때문에 정치범을 쉽게 석방시켜줄 리가 없다고 설득한다.

그러던 플라르가 리바스의 계획에 스스로 말려들게 된 이유는 20명의 정치범 중에 아버지가 끼어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제 그는 “사적으로 이 문제에 관련이 있다(I feel personally concerned.)”(169)고 느끼며 책임감

을 갖는다. 그는 곧 경찰의 미행을 피해 리바스 일당이 은신해 있는 곳으로 찾아가 포트넘을 치료해준다. 며칠이 지나도 영국은 물론 파라과이로부터 아무런 외교조치가 없자 플라르는 영국 대사를 찾아가 포트넘을 석방하도록 여론을 환기시켜줄 것을 부탁한다. 또한 앵글로 아르헨티나 클럽의 이름으로 포트넘의 구명을 위한 탄원서를 신문에 기고하기도 한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은 그 후 아버지가 이미 사망했음을 알고 난 다음에도 계속된다. 아버지를 구출하려는 직접적인 동기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플라르가 이 일에서 발뺌하기 않는 이유는 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즉, 그것은 리바스를 통해 아버지가 귀화한 나라 파라과이에 대해 새롭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비록 아버지가 관여했던 정치 혁명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제 3세계에 사는 백인으로서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싶어서이다.

플라르는 자신이 “영국 식민지 기둥의 하나(one of the pillar of English colony)”(39)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는다. 그가 이처럼 서서히 이 사회의 현실에 눈을 뜨고 깊이 연루된 까닭은 경계인이었던 그가 태어나고 자란 남미에 대해 애착을 느낄 뿐 아니라 자신이 영국 교민사회의 기둥임을 자처하기 때문이다. 물론 포트넘같이 술주정과 성매매, 밀수로 인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자를 굳이 살리려는 그의 노력은 무의미해 보인다. 게다가 포트넘의 눈을 피해 클라라와의 밀애를 즐기고 그녀가 자신의 아이를 갖게 된 이상, 포트넘은 플라르에게 부담스럽고 거추장스러운 존재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연적을 살려내려는 플라르의 숨은 의도는 자기를 대신하여 여자와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이다. 왜냐하면 플라르는 일시적으로 클라라와 육체적 관계를 맺었을 뿐 아이를 원치 않으며 이에 책임을 지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감추어진 저의를 드러내지 않는 그는 “포트넘은 비록 썩기는 했지만 영국 식민지 기둥 중 한 명이다(Fortnum is one of the pillars of English Colony even though he is a fallen one.)”(39)라고 말한다.

마지막 미사를 드리고 난 후 아지트가 포위된 치열한 상황에서 경찰은 포트넘을 풀어주라고 요구하고 게릴라들은 그를 죽일 것이냐 말 것이냐를 놓고 대립하다 결국 경찰과 일전을 벌임으로써 죽음을 맞기로 한다.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플라르는 대령과 안면이 있는 자신이 나가 담판을 짓겠다고 우긴다. 그러나 밖에 나간 순간 그는 경찰의 총격을 받고 쓰러진다. 여기서 포트넘을 외면할 수도 죽게 내버려둘 수도 없어서 호랑이굴에 뛰어들어 플라르의 예상 밖의 행동은 남성성을 강조하는 마키즈모(machismo)의 영향이라 볼 수 있다. 그는 한 때 남미의 미덕인 마키즈모로 가득찬 사베드라(Saavedra)의 작품을 냉소적으로 비웃었고 이 작품의 이질적 경향 때문에 읽기 힘들어했었다. 그러던 그가 자신이 “단순하고(simple)”(14), “괴이하며(bizarre)”(10), “비아냥거렸던 남미의 마키즈모를 역설적으로 마지막에 실천하고 만 것이다.

플라르는 거물급에 해당하는 미국 대사를 납치하여 정치적 협상을 벌리려는 게릴라의 계획이 허무맹랑하다는 것과 이 조직에 가담하는 것이 곧 죽음의 함정에 빠지는 것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만일 그가 목숨을 보전하기 위해서라면 개인적으로 친한 경찰 빠레즈(Perez)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신변 보호를 요청할 수도 있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음을 확인한 순간 게릴라와의 관계를 정리할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썩은 기둥”이라고 조롱했던 포트넘과 “아마추어”라고 경멸했던 리바스를 외면하지 못하고 끝까지 함께 했던 그의 행동과 상황 판단은 곧 감정에 치우친 남미 작가 사베드라의 “정신구조(mental geography)”(16)에 비유된다. 이성적이지 못하고 지나치게 감상적인 사베드라의 문학 작품처럼 플라르의 비이성적이고 충동적인 행동은 그가 오랫동안 경시해온 남미문화에 결국 부분적으로 동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영국인의 용기와 고집과는 다른 “남미 남자의 자존심(the sense of masculine pride in Latin America)”(11)이라 할 수

있는 마키즈모는 남미인들이 매일 접하는 말이다. 이들에게 마키즈모는 마치 “들이마시는 공기와 같은 단어(a word for the air we breathe)”(109)이며 함께 살아 숨쉬는 삶의 미덕이다. 결코 “동화되지 않고 이방인으로 남기를(He would always remain a stranger; he would never be properly assimilated.)” (16) 의식적으로 노력해온 플라르이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 이들의 문화에 어쩔 수 없이 흡수되었던 것이다.

그린은 이 작품의 표제에 “모든 것은 서로 융합된다(All things merge in one another.)”라는 문구를 남겼다. 이는 곧 경계인 플라르를 통한 유럽 문화와 남미 문화의 조화와 융합을 암시한다. 플라르는 이처럼 타자 문화와 자기 문화의 경계에서 조심스럽게 줄타기를 하는 가운데, 그의 행동양식도 초연과 무관심에서 참여와 연대로 바뀌어갔던 것이다. 플라르의 장례식에서 사베드라는 의뢰받은 추도사를 직접 읽으며 플라르가 보여준 용감한 행위는 어머니 나라 남미의 미덕인 마키즈모의 영웅적 실천임을 칭송한다.

It was with a *machismo* worthy of your maternal ancestors who gave their hearts' blood for Lopez - not seeking whether his cause were good or ill - that you walked out to your death from the hut, where these false champions of the poor were gathered, in a last attempt to save their lives as well as your friend's. (320)

따라서 플라르가 그토록 떨시하던 마키즈모를 실천하는 것은 재외 영국인이 제 3세계 국가의 정서에 동화되었음을 시사한다. 그의 마키즈모는 세상일에 대한 더 적극적인 참여와 간섭을 요구한다. 그러나 패권을 상실한 영국인으로서 그 역할이 제한되며 쇠약한 힘으로는 간섭의 범위가 기껏해야 개인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을 수 없다. 초연과 개입의 딜레마 속에서 플라르는 이제 조용히 머무는 것을 스스로 용납하지 못하며 영국의 지배력이 약해지

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플라르의 이러한 태도는 1982년 영국과 아르헨티나 사이에 일어났던 포클랜드 전쟁³⁸⁾을 연상시킨다. 아르헨티나 연안에 위치한 영국령 포클랜드 섬을 아르헨티나가 무력 점령한데서 발단된 75일간의 영유권 분쟁은 양국에 커다란 군사적 손실과 경제적 타격을 입혔다. 비록 본국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 유지비용이 많이 들지만 오랫동안 지배해온 이 섬을 영국으로서는 포기할 수 없었고 적국 아르헨티나의 불법적 군사행동을 좌시할 수도 없었다. 당시 마가렛 대처(Margaret Thatcher) 수상은 쇠약해진 국력을 재정비하고 과거의 영광을 만회하는 계기로 즉각적인 군사 행동을 지시하며 결국 아르헨티나의 항복을 받아낸다.

이와 같이 국제 사회에서 운신의 폭이 점점 좁아지는 영국의 현 위치는 재외 영국인의 삶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파라과이 민중해방운동에 가담했던 플라르의 아버지는 15년을 복역했던 감옥에서 탈옥하다 피살당한다. 20년 전 가족을 아르헨티나에 피신시키고 혼자 남은 그는 가족보다 혁명을 더 소중하게 여겼던 이상주의자였다. 이제 살아 돌아올 가망이 없는 남편을 포기한 플라르의 어머니는 71회 생일을 남편의 기일로 정해 상복을 입는다. 영국인 망명가로서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려던 아버지의 세대는 마감됐고 영국 식민지의 젊은 기둥이던 플라르의 역할도 끝이 났다. 이제 남은 포트넘이라는 늙고 타락한 기둥만이 미약하게나마 이후의 교민 사회를 지켜 나갈 것이다.

38) 포클랜드는 아르헨티나 연안으로부터 약 500km, 영국으로부터 약 13,000km 떨어져 있는 대서양 남단에 위치한 섬이다. 1982년 아르헨티나의 레오폴도 갈티에리(Leopoldo Galtieri) 대통령이 경제 불황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을 무마시킬 목적으로 포클랜드를 침공함으로써 전쟁이 발발하였다. 영국이 오랫동안 지배해온 섬이지만 아르헨티나는 영국의 불법적 점령을 주장해왔고, 반면 영국은 최초로 이 섬을 발견한 이래 합법적 지배를 주장하면서 영유권 분쟁이 계속되어왔다. 영국은 근해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남극 대륙의 주요 전진기지로서의 포클랜드를 빼앗길 수는 없었다. 이들은 곧 기동부대를 파견하여 남조지아섬을 탈환했으며 이 모든 군사행동은 이 섬을 아르헨티나 군사독재로부터 보호하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엔의 조정과 교섭이 실패로 돌아가자 영국은 포클랜드에 상륙하였고 75일간의 격전 끝에 아르헨티나의 항복으로 전쟁이 종결되었다. Gordon Smith, "Falkland war," *Falklands/Malvinas War*, 2005. 4, Sep. 2005 <<http://www.globalsecurity.org>>.

평소 플라르는 아이를 클라라의 몸속에 달려있는 맹장이라 생각했고 그 아이를 책임지기 싫어서 클라라에게 낙태할 것을 종용했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두고 그는 새삼 아이에 대한 걱정과 안타까움을 느끼며 “잘라 내버려야 할 썩은 맹장(. . . a diseased appendix which ought to be removed.)”(265)이 아닌 “불쌍한 자식(the poor little bastard)”(265)이라고 측은하게 여긴다. 더 이상 “한 조각의 살점(piece of flesh)”(265)이 아닌 자신의 분신으로 아이를 인식하기 시작한 그에게 탯줄은 결코 잘라 버려서는 안되는 생명선이며 영국인의 가계를 이어줄 귀중한 연결고리가 된다.

He thought of the tangle of its ancestry, and for the first time in the complexity of that tangle the child became real to him - it was no longer just one more wet piece of flesh like any other torn out of the body with a cord which had to be cut. This cord could never be cut. (265)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염려하는 것은 “복잡하게 얽힌 가계(the tangle of its ancestry)”이다. 왜냐하면 이 탯줄은 전혀 다른 두 조부 즉, 투쿠만(Tucuman)의 대나무 자르는 농부와 파라과이 감옥에서 총살된 늙은 영국인 혁명가에게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플라르는 유곽출신 아르헨티나 어머니와 의사인 영국인 아버지와의 잡혼으로 인해 인종간의 위계질서가 붕괴되고 백인의 우월성이 상실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³⁹⁾ 즉, 그는 타인종간의 결혼으로 인해 혼종성이 발생하면서 명료하게 나뉜 사회적 분리에 혼란이 일어날까 두려운 것이다.

식민사회에서 소수의 지배자가 두려워하는 것은 식민지에서 출생한 혼혈아가 피지배자의 문화에 의해 오염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이러한 우려를

39) Young, *Colonial Desire*, p. 95.

두고 간디는 혼혈아들이 문화적으로 모호한 “뿌리 없음”의 상태에서 “원주민의 환경”에 문화적으로 노출되고 “비도덕적인 어머니들”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한다.⁴⁰⁾ 플라르 역시 영국인도 남미인도 되지 못하는 불안정한 간극에서 자신이 혼혈아로서 겪었던 애매한 정체성과 문화적 갈등을 떠올린다. 문화적으로 낙후된 남미 사회와 유곽출신 비도덕적 어머니 밑에서 자랄 후세에 대한 안쓰러움은 이제 포트넘에 대한 기대로 환치된다. 그는 문득 아버지가 어렸을 때 읽어주셨던 “런던 파노라마”라는 책을 기억해낸다.

It was the child's image, as he grew up under Charley Fortnum's care, which worried him. For no rational reason he pictured the child as a boy, a boy who resembled two early photographs of himself, one taken at four years and one at eight. . . . Charley would be a very kind father. He would never make his son ride a horse. It was even possible that he would give up drink or at least severely reduce the proper measure. Charley would call the boy “old fellow” and pat his cheek and turn over the pages of *London Panorama* before tucking him up firmly in the bed. (270)

그러므로 마지막 남은 문화 전수자인 포트넘에게 이제 플라르의 아버지 헨리(Henry)와 같은 역할이 부과된다. 플라르의 아버지가 어린 시절 아들에게 영국의 언어와 문화를 전수시켜 몸에 배이도록 했듯이, 포트넘에게는 장차 태어날 아이에게 영국식 교육을 시켜 “앵글로 아르헨티나 클럽을 영원히 지속시키는(Anglo-Argentinian club will live forever.)” (321) 일이 요구된다. 클라라 역시 일찍 남편과 헤어진 플라르의 엄마처럼 과부가 된다. 플라르의 엄마가 영국인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혼자서 키웠듯이 그녀

40) Gandhi, p. 143.

에게도 플라르의 아이를 키워야하는 임무가 주어진다.

포트넘과 클라라는 죽은 플라르의 이름을 따서 태어날 아이를 에두아르도(Eduardo)라고 부르기로 결정한다. 물론 이 유복자는 다행히 포트넘이라는 의붓아버지가 있지만 생부 없이 편모슬하에서 커야하는 상황은 플라르와 똑 같다. 플라르의 엄마가 수십년 동안 영국인 남편을 잊지 못해 수절한 것처럼 클라라도 서양 남자 플라르를 그리워하며 그의 죽음을 마음 깊이 애도한다. 이로써 영국성은 대대로 지속되어 그린랜드와 같은 진흙탕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이 된다. 이는 곧 그린의 염원하고 의도하는 바이며 미약하게나마 세습되는 영국성을 통해 몰락하는 제국주의를 그린은 추억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작품은 세계 패권의 중심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옮겨가는 권력 이동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세계의 슈퍼 파워로 급부상한 새로운 강자 “미국”이 남미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함에 따라 영국의 상실감과 반미 감정의 골은 더 깊어간다. 따라서 “거꾸로 계양된 유니언 잭”, “껍데기뿐인 명예영사”, “유명무실한 앵글로 아르헨티나 클럽”, “썩은 식민지 기둥” 등은 예사로운 표현이 아니라 그린의 참담한 심정과 박탈감을 가장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상징이다. 플라르는 아버지 나라 대영 제국의 후예로서 영국성을 고수하며, 이는 인종적으로 혼혈인 그를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된다. 동시에 앵글로색슨족의 우월감은 그로 하여금 남미 문화에 흡수되거나 정체성의 위기에 빠지지 않게 하는 힘이 된다. 정치적으로 무관심하고 인간적으로 냉혈한같은 그가 목숨을 걸고 게릴라 조직에 연루되고 자신이 남겨놓은 아이에 집착하는 것도 재외 영국인으로서의 존재가치를 확인하고 영국성의 계승에 대한 소망을 시사하는 것이다.

VI. 식민지 회복과 새로운 제국의 개척:

Ways of Escape

1971년 그린은 자신의 27년간의 삶을 정리한 자서전 *A Sort of Life*을 발표하고 10년 후 또 다른 회고록 *Ways of Escape*을 집필한다. 그는 이 책의 서문에서 글을 쓰거나, 작곡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의 표현 행위 없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느끼는 광기와 우울증, 권태와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한다. 그린은 글쓰는 행위를 그가 “광기, 우울증, 권태와 공포”에서 벗어나 세상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일종의 “치유의 방편”으로 여긴다.

*Ways of Escape*은 그가 지금까지 찾아 다녔던 제 3세계 국가의 실정과 그 곳에서 겪은 에피소드에 관한 소상한 기록이다. 현실과 허구의 전환 과정을 회고록 형식을 빌려 말하는 이 책은 그가 실제 관계를 맺었던 인물들이 그의 작품에서 어떻게 상상의 인물로 빚어지며, 여러 단편으로 흩어져있던 기억들이 어떻게 하나의 픽션으로 응집되는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일련의 그의 소설들은 허구성의 외피를 두르고 있는 자전적 성격이 짙은 작품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이 마지막 자서전은 그가 평생 권태로움을 해결하기 위해 도피처로 삼았던 제 3세계의 불안한 정치적 현실 뿐 아니라 이런 위기 상황과 전혀 무관하게 개인적 탐닉에 몰두했던 자신의 괴벽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아바나와 사이공 등이 전쟁과 혁명으로 인하여 최악의 혼돈과 갈등으로 치닫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에선 러시아 룰렛, 마리화나, 성매매에 빠진 자신의 방탕한 생활을 거침없이 고백하는 대목은 독자들을 당혹스럽게까지 한다.

1. 그린의 여행과 도피적 글쓰기

그린이 평생 화두로 삼았던 주제는 도피이다. 30대에 아프리카 여행을 시작으로 스위스의 별장에서 생을 마칠 때까지 그의 방랑과 도피는 끝없이 이어진다. 비평가 드비티스(A. A. DeVitis)는 “분쟁 지역으로의 여행, 아편 복용, 글쓰기는 그린에게 도피의 수단이었다(His journeys to the earth's trouble spot, his taking of opium, even his writing have been for him means of evasion.)”라고 설명한다.¹⁾ 1941년 서아프리카, 1951년 말레이시아, 1953년 케냐, 1954-55년 인도차이나, 1954년 푸에르토리코, 1956년 스탈린 지배하의 폴란드, 1958년 벨기에령 콩고의 나환자 수용소, 1960-70년 아바나, 아이티, 라틴아메리카에 이르기까지 세계 여러 곳을 전전하는 그의 도피 생활은 계속된다. 25편의 그의 소설 중 17편은 영국이 아닌 해외, 그 중에서도 혁명, 폭동, 전쟁이 발발한 나라를 주요 무대로 삼으면서 그 곳에서의 경험을 주로 다루고 있다. 꾸또(Couto)는 이에 대해 그린만큼 다양한 경험을 소설의 소재로 활용한 작가는 드물며 주인공의 유배는 그의 소설의 토대를 이루는 원칙이라고 분석한다.²⁾ 정치적, 사회적으로 불안한 제 3세계를 일부러 찾아다니는 방랑벽에 대해 그는 자서전 *Ways of Escape*에서 소상히 밝히고 있다.

I was in that mood for escape which comes, I suppose, to most men in middle life, though with me it arrived early, even in childhood - escape from boredom, escape from depression. . . . I hadn't the courage for suicide, but it became a habit with me to visit troubled places, not to seek

1) A. A. DeVitis, *Graham Greene* (Boston: Twayne Publisher, 1986) p. 21.

2) Maria Couto, *Graham Greene: On the Frontier - Politics and Religion in the Novels* (London: Macmillan Press, 1988) p. 112.

material for novels but to regain the sense of insecurity.³⁾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그린은 새로운 글의 소재를 얻기 위한 목적보다 자신이 겪고 있는 정신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길을 떠난다. 일상의 권태를 이겨내지 못해 자살까지 시도했던 그린에게 도피는 절박하고 중요한 생존전략이다. 따라서 도피는 그린의 자서전의 핵심을 이루는 개념이며, 제목이 말하듯 그는 평생 무엇인가로부터 벗어나려는 충동이 늘 의식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에게 있어서 “소설을 쓰기 위해 새로운 지역을 찾아 나서는 일은 마치 휴가를 떠나는 것”⁴⁾과 같은 것이며 그는 이 자서전에서 자신이 느끼는 일탈의 욕구를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다.

escape from the middle class (12), escape from everyday routine, the sense of failure, the fear of the future (32), escape from boredom, escape from depression (109), desire to escape from London (203), escape from the everyday. (203)

이처럼 모든 것으로부터 탈피하고 싶은 그린에게 여행은 돌파구가 된다. 그린 뿐만 아니라 당시의 젊은 작가들은 새롭고 신기한 소재를 찾아 힘든 여행을 감행했다. “피터 플레밍(Peter Fleming)은 브라질과 만주(Manchuria)로, 이블린 워(Evelyn Waugh)는 영국령 기아나(British Guiana)와 이디오피아(Ethiopia)로 각각 떠났고” (45) 미래를 향한 모든 활로가 유럽에 개방된 듯이 보였다. 꾸또는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에 대해 당시 작가들이 1차대전의 전쟁터만큼 박진감 넘치고 스릴있는 경험을 찾아 식민지 변방으로 떠

3) Graham Greene, *Ways of Escape* (London: The Bodley Head, 1980) p. 139-40. 이 후 이 작품에 대한 인용은 쪽수만을 명시한다.

4) Marie-Françoise Allain, *The Other Man: Conversation with Graham Greene*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83) p. 79.

나는 유행이 있었다고 말한다.⁵⁾

30세 초반까지 유럽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그린은 서아프리카에 오라는 사촌의 초청을 받는다. 1935년 라이베리아와 시에라리온에서의 개인적 체험은 여행기 *Journey without Maps*의 토대가 된다. 본 논문의 2장에서 설명했듯이 그는 첫 여행지 아프리카에서 오지 탐험을 하다가 말라리아에 걸려 사경을 헤맨 일과 죽을 고비를 넘기며 고된 행군을 계속한 일 그리고 부락에서 만나는 미개한 원주민들과 그들의 풍습에 대해 서술한다. 그리고 아프리카를 기억하면 해충이 맨 먼저 생각나고, “바퀴벌레가 아직 훼손되거나 정복되지 않는 미개척지를 대표하는 유일한 상징물처럼 떠오르지만(In retrospect, even the cockroaches seem the only badge of unconquered virginity, never sacked. . . .)” (174) 여전히 광대한 아프리카는 그에게 유혹의 땅이다.

그린은 1941-43년 나이지리아에서 M16에 소속되어 SIS 비밀요원으로 근무한다. 수도 라고스(Lagos)에서 그는 동료와 함께 낡은 경찰 방갈로에서 바퀴벌레를 잡으며 무료한 밤을 지내곤 했다. 30대 초반에 처음 아프리카 오지 탐험을 한 후 그린은 두 번째로 아프리카 방문하며, 두 년 가까이 산이 지역은 그린의 생애에 있어서 많은 시간을 보낸 그린랜드 중 하나이다. 프리타운(Freetown)에서 그가 살던 집 주변의 지저분한 늪지대와 쥐가 들끓는 슬럼가는 그 후 *The Heart of the Matter*의 스코비의 관사로 재현된다. 당시 그린을 충실하게 시중들어준 오지 출신 요리사와 집사 또한 *The Hear of the Matter*에 나오는 알리(Ali)의 모델이 된다. 여행 중 Father B. 라는 신부와 만난 일은 나중에 *The Heart of the Matter*에서 펨버튼(Pemberton)의 자살을 조사하기 위해 스코비가 신부와 함께 밤바(Bamba)로 가는 장면으로 패로디된다. 그린은 점심식사 후 가장 덥고 습도가 높은

5) Couto, p. 115.

시간에 낮잠을 자곤 했는데 그때마다 “납고 부러진 우산처럼 양철지붕에 앉아 있다가 그의 낮잠을 방해하는 독수리떼(. . . the vultures on the iron roof above my head perched up there, like old broken umbrellas disturbed my sleep.)” (96) 역시 그의 많은 소설에 등장하는 상징이 된다. 예를 들면 “가게의 사이길, 길 한가운데 놓인 죽은 흑인 꼬마의 시체와 그 위를 나는 독수리(The small black kid dead in the middle of the road between the shops, and the vulture hopping round.)”(115)라는 묘사처럼 독수리는 황량하고 스산한 분위기 그리고 죽음의 이미지와 연결된다.⁶⁾ 이처럼 SIS 요원 시절의 평범한 일상과 그곳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람들은 그린의 작품 속에서 다시 재현된다.

*The Lawless Road*는 1938년 그린의 멕시코 일부 지역을 잠깐 여행했을 당시 개인적 감상을 적은 여행기이다. 당시 멕시코는 칼레스(Calles) 대통령의 통치 하에 혁명이란 이름으로 무시무시한 탄압과 숙청이 자행되고 있었다. 멕시코의 빌라모사 호텔(Villamosa Hotel)에서 만난 스코틀랜드 출신 패트릭 박사(Dr. Roberto Patrick)는 그린에게 파나마 신부(Padre Rey of Panama)와 그의 처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여기서 그린은 *The Power and the Glory*의 호세 신부(Father Jose)를 구상한다. 또한 그는 브리짓타(Brigitta)라는 아이의 아버지이자 늘 술에 취한 신부의 얘기를 들으며 주인공 위스키(Whisky) 신부의 이미지로 반영시킨다. 이밖에도 야자론(Yajalon)마을에서 바보같은 웃음을 지으며 누런 송곳니를 보이던 메스티조(Mestizo)인 경찰서장은 *The Power and the Glory*의 혼혈아로 변신된다.

6) 또 다른 예로 이 독수리들은 *The Power and The Glory*의 첫 부분에 나타나는데 이들의 등장으로 소설의 서두는 음산한 분위기가 조성되며 죽음의 이미지가 강조된다. “이글거리는 멕시코의 태양, 뽀얀 먼지, 무심한 듯 땅위를 내려다보는 지붕위의 독수리, 독수리의 밥, 죽은 사람의 흉상, 먹이를 쫓는 상어떼 (. . . blazing Mexican sun, the bleaching dust, a few vultures looked down from the roof with shabby indifference, its carrion, the bust of ex-human being, the sharks looked after the carrion. . . .)” 등 허기에 굶주린 독수리들은 언제나 죽은 시체를 겨냥한다. Graham Greene, *The Power and the Glory* (New York: Penguin Books, 2003) p. 7.

“흰 테니스 셔츠의 맨 윗부분을 풀어헤쳐 몸을 긁어대던 이 남자와 일주일 을 같이 지내고 난 후, 나는 이 자를 버릴 수 없게 되었고 그는 내 소설의 유다가 된다(He wore a white tennis shirt open at the front and he scratched himself underneath it. After a week of his company I would find it impossible to abandon him for ever, and so he became the Judas of my story.)”(84)라고 그린은 밝힌다.

그러므로 수십 년간의 여행을 통해 얻은 경험들은 *Journey without Maps*처럼 오지 탐험 여행기가 되거나, 여행 중 만난 인물들과 에피소드들이 엮어져 *The Power and the Glory*나 *The Heart of the Matter*와 같은 소설로 탄생된다. 그중에서도 그린의 늘 찾아다녔던 멕시코나 아프리카 등 황량하고 가난한 그린랜드는 그의 작품의 토양이며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박해받는 신부와 자살한 식민 행정관, 죽음을 연상시키는 독수리 떼들은 그런 곳에서 고통당하는 희생물이다. 여행 중 그는 부패와 질병을 목격하며 무지하고 혐오스런 원주민을 대면한다. 그리고 그린의 눈에 비친 원주민의 모습은 그의 작품 도처에서 “누추함(seediness)”, “비참함(misery)”, “초라한(seedy)”, “보잘것없는(miserable)”이란 단어들로 표현되며, 이 어휘는 식상할 만큼 빈번하게 사용된다. 이는 고통과 타락이라는 주제에 집착하는 그린의 일면을 반영한다. 따라서 그린의 발길을 붙잡았던 그린랜드는 고통과 억압의 땅이며, 그의 작품배경은 그 토양의 성격상 음산하고 무거우며 죽음과 부패의 이미지로 가득하다.

아프리카 출신 비평가 오귀드(Ogude)가 지적했듯이 아프리카라는 그린랜드에 대한 가난과 고통, 황폐, 비참함 등의 이미지를 떠나서 그린의 작품을 생각할 수 없으며, 그린랜드의 영역과 경계를 유달리 아프리카에만 한정짓는 그린의 태도는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난다.⁷⁾ 일반적으로 그린랜드에서의 고통은

7) S. E. Ogude, “In Search of Misery: A Study of Graham Greene’s Travel in Africa,” *Odu (Ile-Ife, Nigeria)* 11 (1975): p. 45.

이념이나 피부색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인간적 연민을 일으키게 마련이며, 적어도 지식인들에게는 그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이 요구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Journey without Maps*, *The Heart of the Matter*, *The Quiet American*, *The Honorary Consul*에 대한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런 자신이 수없이 많은 고통의 현장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 받는 이들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이나 동정어린 시선을 그의 작품에서 찾아보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이런 고통을 일으키는 사회악과 그 원인에 대한 치밀한 분석은 커녕 최소한의 책임의식조차 그린에게는 없어 보인다. 오귀드는 이에 대해 “그린이 가학적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를 마음이 온화하고 따뜻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은 드물다(Although Greene is not exactly sadistic, few people will describe him as being tender hearted.)”⁸⁾라고 설명할 정도이다. 게다가 그린에 대한 아담슨(Adamson)의 날카로운 비판은 위에서 언급한 오귀드의 입장을 더 뒷받침한다. 즉, “그린의 역할은 오로지 사태를 관망하고 기록하는 일이다. 그는 식민지 상황이 그의 아버지 세대만큼 순조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한다(Greene's own role is to observe and record and he takes a certain pleasure in pointing out that things in the colonies were not running as smoothly as his father's generation had intended.)”라고 아담슨은 신랄하게 비판한다.⁹⁾

기존의 비평가들은 그린 작품에 나타나는 고통과 연민, 책임의식 등의 주제를 가톨릭의 테두리 안에서만 고찰해왔다. 예를 들면 드비티스는 그린의 선과 악 사이에서 끊임없이 동요하는 타락한 인물들을 고안하는 것은 그린의 주요 관심이 죄 많은 인간과 그의 구원 가능성에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¹⁰⁾ 중

8) Ogude, “In Search of Misery,” p. 46.

9) Judith Adamson, *Graham Greene: The Dangerous Edge, Where Art and Politics Meet* (Hampshire: Macmillan, 1990) p. 106.

10) DeVitis, p. 23.

교편향주의에서 벗어난 꾸도조차 악으로 물든 세상이 그린 작품의 배경이 되는 이유를 암울하고 절망적인 그린랜드에서 더 뜨거운 신앙을 경험하기 위한 역설적 의도라고 해석한다.¹¹⁾ 물론 가톨릭 신앙이 그린으로 하여금 죄의식과 타락한 세상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게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사실은 2, 3, 4, 5장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가 이러한 고통과 죄의 문제를 능숙하게 다루되 믿기 어려울 만큼 냉담하고 무관심한 태도로 초연했다는 점이다. 오귀드는 이러한 그린의 태도에 대해 아프리카를 무대로 한 소설에서 그린은 불행, 절망, 죄를 화두로 삼고 있지만, 아프리카에 대한 동정심을 내비치지 않으며 오히려 이 주제에 대한 편집광적인 집착을 충족시키되 감정적으로는 초연한 입장에 있다고 설명한다.¹²⁾ 다음의 그린 자신의 고백은 감정에 치우치지 않는 그의 놀라운 객관성을 드러낸다.

“This is Indo-China,” I want to claim, “This is Mexico, this is Sierra Leone carefully and accurately described. I have been a newspaper correspondent as well as a novelist. I assure you that the dead child lay in the ditch in just that attitude. In the canal of Phat Diem the bodies stuck out of the water. . . .” But I know that argument is useless. They won't believe the world they haven't noticed is like that. (77)

소설가이면서도 동시에 통신원인 그린은 인도차이나나 멕시코 현지에서 어떤 비극적 사건이 벌어질지라도 그저 “신중하고 정확하게” 보도할 뿐 “이에 대한 논의는 불필요하다”고 밝힌다. 실제로 패트 디엠에서의 경험을 소개한 *The Quiet American*에는 그린의 쓴 어떤 소설보다 직접적인 르포르타지의 내용이 많다. 더구나 이 작품의 화자를 저널리스트로 선택한 것은 화자로

11) Couto, p. 66.

12) S. E. Ogude, “Graham Greene's Africa,” *Odu (Ile-Ife, Nigeria)* 14 (1976): p. 45.

하여금 사건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전달자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함으로써 르포지타지의 활용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그린 역시 대담집에서 글 쓰는 순간은 스스로 냉정해지려고 애쓰며 감정에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밝힌바 있다.¹³⁾ 이러한 그의 서술 전략으로 인해 그는 제 3세계의 어두운 현실 앞에서도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거나 초연함을 잃지 않는다. 실제로 작가 뿐 아니라 주인공 역시 몸도 마음도 고향으로부터 멀리 떠난 유랑객처럼 떠돌아다니며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객관적이고 초연한 자세를 견지한다.

그린은 끊임없이 고통과 불행의 문제에 몰두한다. 그러나 그의 태도는 마치 용감한 중세 기사가 고통에 처한 처녀를 구하러 나서는 선행과는 거리가 멀다.¹⁴⁾ 그는 대담집에서 “실제 상황이 벌어지는 장소 -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공포보다 객관적이고 정치적인 공포 - 에 관심이 있다(I'm interested in the places where things are happening - not an abstract or metaphysical horror, but an objective and political horror.)”라고 말한 바 있다.¹⁵⁾ 스스로 밝힌 고백처럼 그가 끔찍한 고통과 불행에 유달리 집착하는 이유는 이를 통해 따분한 일상에서 활력을 되찾고 자신이 앓고 있는 정신적 문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그의 확신에 기인한다. 따라서 권태, 불안, 자살충동 등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그린은 제 3세계를 도피처로 선택한다. 이는 유럽에서 실연과 좌절을 겪은 후 아프리카에서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려는 *A Burnt-out Case*의 퀘리(Query)의 의도와 흡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은 제 3세계로 향하려 했을 때 모든 미래를 거머쥔 듯이 보였던 유럽의 앞날에 이미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음을 깨닫는

13) Allain, p. 81.

14) Ogude, “In Search of Misery,” p. 46.

15) Allain, p. 70.

다. 그는 “1940년 유럽을 향해 열려 있던 문은 영원히 잠겨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는 충격을 받았다(In 1940, it was a shock to realize that the door to Europe was closed, perhaps forever.)”(45)라고 말한다. 꾸또가 언급했듯이 끝없는 유배와 방랑의 주제는 그린의 소설의 패턴을 이루며, 전후 시대부터 시작된 그린의 유랑은 1차 대전 이후 영원한 미아가 된 영국인의 반영이다¹⁶⁾. 그러므로 *Journey without Maps*에 나오는 젊은 그린은 닫힌 문 앞에서 오갈 데 없이 서성거리는 영국인의 모습이며 가장 영국인다운 전형적인 인물이다. 게다가 그린의 50-60세를 맞아 불안과 방황을 겪은 것은 50-60년대 영국이 급속하게 식민지를 상실한 시기와 일치한다. 여기서 그린 개인의 고통은 시대적 아픔과 일맥상통한다.

결국 그린랜드에 묘사되는 고통은 제 3세계 뿐 아니라 식민지를 잃은 제 1세계가 안고 있는 고통으로 귀착된다. 그 까닭은 그린의 작가로 활동할 무렵이 이미 제국주의가 기울어 쇠퇴일로로 걷고 있었고 더 이상 제국은 영국의 사회악을 발산시키고 정화시킬 수 있는 배출구 역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¹⁷⁾ 화려하고 거창한 제국주의 담론에 편승했던 선배작가와는 달리 그린의 입지는 불안정했고 그만큼 운신의 폭도 좁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제국의 관문이 폐쇄되었음을 깨달은 그는 낭패감과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대안적 글쓰기를 모색해야 했고 이를 위한 그럴듯한 대의명분과 정당한 이유가 필요했다.

동시대 작가들이 상실의 시대를 여행과 글쓰기로 만회하려 했듯이, 이 과정에서 그린의 대안으로 삼은 글쓰기 전략은 제 3세계를 소외되고 고통받는 곳으로 고착시키기 위해 이전보다 고통을 더 강조하는 것이었다. 이는 제 3세계가 식민지에서 독립한 이후보다 영국 치하에 있을 때가 쌍방에게

16) Couto, p. 143.

17) C. C. Eldridge, *The Imperial Experience: from Carlyle to Forster* (New York: St. Martin's, 1996) p. 31.

모두 호시절이었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이다. 그린의 제 3세계에 대한 배타적인 관점을 견지하며 그린랜드의 고통을 처절하게 묘사한 것은 이러한 배경 때문이며 이는 곧 신식민주의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결국 “글쓰기와 여행은 도피와 치유의 방편(My travels, as much as the act of writing, were ways of escape and therapy.)”(9)이라는 말은 중년을 맞은 그린의 개인적 방황과 제국 상실 후의 사회적 혼란을 극복하고자 하는 하나의 방책이며 쓸쓸한 노스탤지어에 불과하다.

2. 도피처, 제 3세계의 실상과 현실

그린이 작품 활동을 시작한 초창기는 2차 대전 이후 세계 질서의 급격한 변화가 일던 시점과 일치한다. 신생독립국의 출현과 더불어 식민지를 거느렸던 서방 세계는 뒤바뀐 질서를 다시 개편하고 상실한 세력을 만회할 필요성을 절감한다. 그린은 이러한 새로운 시류를 누구보다 앞서 간파했고 그린의 의미에서 그의 작품은 전후 시대의 지배국과 피지배국간의 서로 이질적이고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한다. 그가 찾아다닌 신생독립국은 정치적 안정을 누리는 유럽과는 달리 스스로를 다스려본 정치적 경험이 없는 열악한 후진국이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공통적으로 지닌다.

첫째, 일인 독재자에 의한 독재정치이다. 쿠바의 바티스타(Batista), 파라과이의 스트로에스네르, 파나마의 토리호스(Torrejos)와 아이티의 듀발리에(Duvalier) 등 이 중에서 프랑스로부터 아이티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오랜 스페인의 식민지이다. 이들 국가는 정작 독립을 맞이했지만 국가 관리 능력의 부재로 잇따르는 내전과 군사 쿠데타, 그 후 일인 독재라는 정치적 비극을 낳는다.

둘째, 공산주의와 좌익 세력의 출현이다. 비상계엄하의 말레이시아에서는

영국 지배에 대한 저항 운동이 게릴라에 의해 주도된다. 베트남 역시 공산주의 이념으로 무장한 호치민(Ho Chi Minh)에 의해 구식민지 프랑스를 상대로 저항 운동이 펼쳐진다. 또한 소련과 중국을 모델로 삼은 피델 카스트로는 바티스타 정권에 대항하며 1959년 쿠바의 대통령이 된다. 쿠바 혁명의 여파로 남미에서는 해방신학을 신봉하는 과격한 좌익 운동이 가톨릭교회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된다.

셋째, 미국의 영향력 하에 놓이게 된다. 식민지에서의 해방은 곧 미국의 개입과 속박으로 이어진다. 미국은 공산주의 퇴치와 경제적 지원 등을 병자하여 이들 나라에서 새로운 지배력을 확보하려고 한다. 군사초강국 미국은 영국에 이어 후기 식민 세력으로 등장하며 미국 중심의 세계 구도 속에 이들을 통제한다. 신생독립국은 해방 후에도 그린랜드에서 탈피하지 못하며 온갖 고통의 집산지로서 가난과 종속과 같은 제 3세계의 패턴을 여전히 답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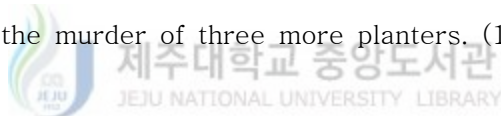
그린이 통신원으로 머물며 취재를 했던 이 제 3세계 나라들을 차례로 살펴보면, 우선 1951년 그린은 말레이시아에서 선데이 타임즈(*The Sunday Times*)와 피가로(*Le Figaro*)의 기자로 활동한다. 2차 대전 후 많은 식민지가 독립을 선언했지만 당시 말레이시아는 여전히 영군정 하에 있었다. 사실상 영국이 말레이시아를 식민지로 삼은 것은 18세기 말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나라의 주요자원인 주석과 고무를 얻기 위해 영국은 인도에서 많은 노동자를 데려다 노동인력으로 투입한다. 여기서 나오는 주석과 고무는 세계 전체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말레이시아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1957년 이 곳에서 공산당 폭동사건(Communist Insurrection)¹⁸⁾이

18) 1940년대 말 세계는 공산주의 열기에 휩싸인다. 호치민의 지휘 하에 게릴라들이 프랑스와 대적하고 중국 공산당은 대륙에서 내전을 치른다. 말레이시아 공산당 역시 말레이 반도에서 영국을 몰아내고자 게릴라전을 펼친다. 말레이시아 공산당은 대부분 중국인이며 광산 노동자로 이주해온 사람들이다. 돈을 벌어 고향으로 돌아갈 꿈을 가진 이들은 낮은 임금과 혹독한 노동에 대해 불만을 품는다. 이들은 광산촌에서 파업을 일으키며 유럽인 사업주와 잦은 갈등을 빚는다.

“Communist Insurrection,” *Bartleby.com, Great books online, The Columbia Encyclopedia*, Sixth Edition, 2001-05, Columbia University Press, Sep. 2005 <<http://www.bartleby.com>>.

터지며 세 명의 유럽인 고무 농장주가 공산당에 의해 살해된다. 영군정은 이에 비상사태를 선포하는데 그린은 당시 상황을 소상히 전한다.

Of all civilians in Malaya the rubber planter was in the position of greatest danger. One aim of the Communist commandos was to ruin the country economically, to make it a territory not worth while maintaining, and the wealth of Malaya was chiefly tin and rubber. A tin mine compared to a rubber estate was relatively easy to defend, and so the main attack was directed against the planter. . . . One morning he and I were half an hour late in returning, and his wife waited with the anger of love for the sound of engine, until he was safely back in the prison of wire. That night the radio announced the murder of three more planters. (143)



말레이시아 정글에서 활동하는 공산 게릴라의 “95퍼센트는 중국인이고 상당수는 인도네시아 테러리스트(. . . ninety-five percent of the enemy combatants were Chinese and the greater part were Indonesian terrorists.)”(146)이다. 그린은 머물렀던 농장주의 밭도 이들의 공격을 받는다. “트라팔가 광장만한 그의 밭(The size of his plantation is that of Trafalgar Square. . . .)”(142)은 공산당에 의해 나무 한 그루 없이 썩밭이 된다. “100야드 정도 집밖을 나갈 때도 자동 권총을 가지고 다녀야 할 만큼(When he moved outside only a hundred yards away, he carried an automatic pistol.)” (142) 이곳은 말 그대로 “생사의 최전선(the front line for life and death)”(142)이다. 그러나 긴박한 상황을 전하는 그의 글에는 공산당의 소행에 대한 비판만 있을 뿐, 이들의 행동 동기나 원인에 대한 규명은 찾아보기 힘들다.

비상사태 하에서 수십만의 말레이시아 무장경찰과 25,000명의 영국군이 동원된다. 공산당 특공대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그린은 “영국의 양심은 올바르다. 우리는 결코 말레이시아인을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산주의와 이를 추종하는 중국인들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Our British consciences could be clear - we were not holding down the Malays; we were fighting with them against Communism and its Chinese adherents.)”(146)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세기 말부터 말레이시아의 주석과 고무 생산을 관할하며 이득을 챙겨온 영국이 과연 순수하게 말레이시아인을 위해 공산당을 물리치고 이들의 천연자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문의 여지를 남긴다. 왜냐하면 “영국의 양심”이 깨끗하고 이들의 말레이시아에 대한 방위가 정당한 것이라면 공산당으로부터 영국이 축출당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비평가 아담슨은 이에 대해 그린은 말레이시아의 정치에 대해 역사적, 현실적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했으며 비상사태에 이르게 된 사회 경제적 이유에 대한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¹⁹⁾

한편 그린은 말레이시아 정글을 종군하며 이곳의 환경이 악조건임을 불평한다.

One had to spend at least a few days in the Malayan jungle to realize its difficulties and its tediums. A far denser jungle than that of Burma, it restricted movement to less than a mile an hour. Visibility was sometimes twenty feet. Almost everyday water poured down upon it, making the steep slippery slopes of the innumerable hills a cruel effort to climb. One was never dry and at night one was never in quiet - the ugly din of insects came between the newcomer and sleep. When you paused for a halt on the march you

19) Adamson, p. 100.

could see the leeches make for your boots - thin matchsticks looping with blind purpose across the wet leaves, later to swell into fat grey slugs if they found an opening in your clothing. And always there was the jungle stench - the heavy odor of decaying vegetation. It clung to your clothes. When you came out, your friend would avoid you until you had bathed and changed. (147)

이처럼 혹독한 지리적 여건에서 “영국의 양심”은 여지없이 무너진다. 무장하지 않거나 경찰의 호위 없이는 다닐 수 없는 정글에 그린은 이력을 내며 울창한 숲으로 이루진 정글을 “적개심을 품은 시퍼런 장벽(the dark green hostile wall)”(146)이라고 느낀다. 더구나 “25년 만에 쏟아진 최악의 폭우(. . . the rain came, the worst for 25 years. . . .)”(144)로 홍수, 정전, 도로유실, 기차 탈선 등 자연 재해를 틈타 공산당 출현이 잦아진다. 따라서 위의 인용에서 언급된 그린의 불평은 이들의 주된 목적이 결코 순수한 양심에 의한 것이 아님을 반증한다. 영국은 이타심이나 혹은 토착민에 대한 관심 때문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이익을 위해 제국의 길로 나아갔던 것이다. 제국의 목적은 실리주의 즉,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며 결코 약소국에 대한 자선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해진다.

말레이시아에 이어서 아프리카 케냐 역시 영국의 보호령에서 독립한 나라이다. 케냐는 1895년 이래 영국의 식민지였고 많은 영국인이 이곳으로 이주하여 경작지를 차지함으로써 원주민과의 마찰이 일어난다. 1940년대 영국에 대한 반발과 적개심이 비등해지며 급기야 1953년 마우마우의 독립투쟁이 시작된다. 이 당시 그린은 케냐의 선데이 타임즈에 근무하며 반백인 비밀결사대인 마우마우 (Mau Mau) 폭동 사건²⁰⁾을 보도한다. 그는 china(China) 강 건너

20) 마우마우 운동은 키쿠유부족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케냐의 경작지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고 땅의 대부분은 유럽인이 소유하고 있었다. 1945년 말 나이로비에 있는 식민지 정부에 불만을 품은 아프

마우마우 본거지와 라리(Lari) 대학살 현장을 둘러본다. 이곳에서 키쿠유(Kikuyu) 부족의 부인과 아이들 150명은 자신의 남편과 아버지가 영국과 결탁한 민병대원이라는 이유로 마우마우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당한다.

그린은 “불타버린 오두막, 숯 덩어리가 된 여자의 시체, 창자가 드러난 몸통, 허리가 두 동강 난 어린 아이, 손발이 잘린 채 아직도 살아있는 식민 관료(. . . the group of burnt huts, the charred corpse of a woman, the body robbed of its entrails, the child cut in two halves across the waist, the officer found still living with a hand and foot severed.)” (186) 등 끔찍한 광경을 목격한다. 그러나 그는 “단지 배우의 움직임이나 분위기를 조금 더 볼 수 있었을 뿐 이 연극의 의미나 뒷 배경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다(I could see a little more - not of what the play was about but of the movements and moods of the players.)”(187)라고 담담하게 말한다. 아담슨은 이에 대해 그린은 공포와 잔인한 장면, 이해할 수 없는 대사로 가득한 연극을 보고 있지만 스스로 이 연극의 내용을 볼 수 없는 위치에 서서 배우들의 몸짓과 기분만을 파악한다고 설명한다.²¹⁾ 마우마우 비밀 결사대는 영국에 충성하는 원주민은 물론 영국 정착민에 대한 공격도 서슴지 않는다. 두려움에 떠는 정착민은 이곳을 떠나거나 혹은 스스로를 방위하며 살아간다. 자신이 데리고 있는 시종이 마우마우 대원이며 불시에 자기를 해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영국인들은 침실문을 잘 단속하며 머리맡에 총을 두거나 개로 하여금 밤새 지키도록 한다. 그린은

리카인은 조모 케냐타(Jomo Kenyatta)의 지도 하에 케냐 아프리카 연합(Kenya African Union, 일명 KAU)을 결성한다. 전국민의 높은 호응을 얻은 이들은 흑인이 정착할 권리를 주장하며 무력을 통한 독립 쟁취를 다짐한다. 이들에 의해 발생한 비상사태는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들의 업적은 케냐인으로 하여금 그들의 권리를 확실하게 인식시키고 영국으로 하여금 식민통치의 폐단을 인정하도록 만든 데 있다. 즉, 소수 백인 지배하의 형식적 독립이 아니라 케냐인에 의한 자주 독립을 인정하도록 만든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Erik E. Brown, “Mau Mau,” The early days of the Mau Mau insurrection, 1988. College of computer and information science, Northeastern University, Oct. 2005 <<http://www.ccs.neu.edu>>.

21) Adamson, p. 106.

이에 대해 “너무도 끔찍한 무자비함과 공포(too much bewilderment and too much fear)”(187)가 만연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도 앞서 말레이시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마우마우 조직에 대한 배경설명이나 투쟁목적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런 자신의 얘기처럼 학살극은 단지 의미를 알 수 없는 연극에 불과하며, 아프리카인들이 끈질기게 저항하고 과격단체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이유는 목살된다. 이처럼 그린의 안일하고 솔직하지 못한 태도에 대해 꾸또는 그린처럼 정치적 현실에 대하여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작가가 영국 제국주의와의 갈등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은 놀라운 사실이라고 비판한다.²²⁾ 오히려 그린은 마우마우 비밀 결사대의 횡포로 고통에 시달리는 백인을 동정한다.

The Mau Mau stole and slashed, the best labour disappeared. Fear of ruin was to most farmers worse than the fear of death, for their whole life had to be lived here. This was their burial ground. They had been settled, in some parts of Kenya, a third as long as the Kikuyu. In England they would be exiles. (191)

여기서 영국인들이 케냐에 불법 이주하여 경작지를 강제 점유한 것은 식민지에 대한 당연한 권리 행사가 아니라 아프리카의 토지와 자원에 대한 명백한 수탈이자 착취이다. 그린은 여기서 모든 갈등의 진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회피하며 오로지 현상적 사실만을 바라볼 뿐이다.

한편 이 즈음 옥스퍼드 대학동기인 로버트 스콧(Robert Scott)이 나이로비에 최고 관무관으로 부임해온다. 스콧은 자신의 관사를 “스코틀랜드 귀족의 영지(Scotch Baronial)”(207)라고 부르며 그린을 자주 초대한다. 어느 날 스콧은 욕실에서 넘어지면서 유리 비누통을 깨뜨리고 이 때문에 심하게

22) Couto, p. 117.

다친다. 시종이 들어와 바닥에 흘린 피를 보고는 마우마우의 소행으로 판단하여 겁에 질려 도망친다. 의사가 와서 열두 바늘을 꿰매는 동안 정전이 되자 판무관 자신도 마우마우의 짓으로 추측한다. “귀족의 영지”라는 그의 관사도 마우마우의 습격에 노출되어있다. 이처럼 케냐의 치안상태는 최고 판무관마저 신변의 위험을 느낄 만큼 심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린은 이 사건을 에피소드처럼 가볍게 다루고 있으며 나머지 부분은 친구와의 학창시절에 대한 회상에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작품에서 마우마우의 치열한 독립투쟁과 영국의 탄압 등 지배국과 피지배국 간의 첨예한 대결 양상²³⁾은 고사하고 식민지 사회 기저에 흐르는 최소한의 긴장감조차 찾기 어렵다. 그러나 그린은 이러한 자신의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자신은 불의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묘사할 뿐이라고 항변한다.²⁴⁾ 식민지 현실에 대해 지식인으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그린의 태도에 대해 비평가 아담슨은 그린의 정치적 안목으로 보아 수백명이 죽어가는 아프리카의 현실을 영국 사람들에게 일깨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굳이 독자의 관심과 동정을 끌어내려고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아프리카에 대한 뿌리깊은 차별적 태도를 지닌 그에게 이런 일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언급한다.²⁵⁾

23) 백인 축출을 통한 독립을 기도하며 1947년 결성된 무장세력 마우마우는 염소의 피와 자신의 피를 섞어 충성을 맹세한다. 이들은 영국 식민지 정권에 부역하고 결탁한 토착민을 대상으로 첫 공격을 개시한다. 그 중에서도 키쿠유 내의 반역자 색출작업이 무자비하게 진행되었다. 1948년 경찰서와 관공서 백인의 정착촌 습격을 시발로 독립 전쟁이 발발한다. 1952년 당시 총독 이블린 베어링(Sir Evelyn Baring)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KAU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마우마우의 투쟁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1953년 라리 대학살과 유럽인 학살로 인하여 많은 정착민이 케냐를 떠났고 영국군대와 원주민 민병대에 의한 마우마우 소탕작전도 격화되었다. 그러나 1955년까지 영국군은 최신무기를 동원해도 이들을 제압하지 못했고 싸움은 장기적으로 계속되었다. George Simpson, “Mau Mau and UK,” *Mau Mau and Kenya: An Analysis of a Peasant Revolt*, *Journal of Third World Studies*, Spring 2002, Oct. 2005 <<http://www.findarticles.com>>.

24) 그린은 여기서 “내 목적은 현실에서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데 있다(My aim is not to change things but to give them express.)”라고 덧붙여 말한다. Allain, p. 78.

25) Adamson, p. 111.

식민지로부터 해방되어 자치권을 부여받은 앞서의 다른 나라들과 달리 베트남은 프랑스에 이어 미국을 상대로 한 길고 긴 독립전쟁을 치른다. *The Quiet American*에서 묘사되었듯이, 그린은 인도차이나에 머물렀던 1951-55년은 프랑스군이 철수를 하고 미군의 개입이 서서히 확대되던 시점이었다. 공산주의 세력의 출현을 빌미로 내정간섭을 하려는 미국은 호치민이 이끄는 민족해방전선과 그를 추종하는 베트콩세력을 표적으로 삼는다. 실제로 그린은 베트남에서 미국경제원조단을 만나며 내정 간섭을 위한 이들의 출현과 향후 활동에 대해 두려운 눈으로 관망한다.

I shared a room that night with an American attached to an economic aid mission the members were assumed by the French, probably correctly, to belong to the CIA. My companion bore no resemblance at all to Pyle, *The Quiet American* of my story - he was a man of greater intelligence and of less innocence, but he lectured me all the long drive back to Saigon on the necessity of finding a "third force in Vietnam." I had never before come so close to the great American dream which was to bedevil affairs in the East as it was to do in Algeria. (163)

여기서 그린은 미국인 경제 관료가 베트남에서 실현하려는 “아메리칸 드림” 즉, 제 3의 힘으로 미국의 지배력을 굳히고 나아가 동양을 정복하려는 야심 차고 노골적인 계획에 적잖이 놀란다. 이제 “아메리칸 드림”은 새로운 기회의 땅, 미국에서 이룩하려는 순수한 소망이 아니라 세계를 제패할 엄청난 야망으로 둔갑한다. 미국인들은 도탄에 빠진 베트남을 구하고 프랑스 구제국주의와 중국 공산주의를 타파할 새로운 물결로 제 3의 힘을 내세운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이 후기 식민주의 메카니즘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허울 좋

은 슬로건이며 그 속성도 과거 제국주의와 별로 다를 것이 없음을 그린은 간과한다. 그린은 베트남에 체류하는 동안 베트남에 의해 살해된 두 명의 미국 여성의 시체가 지프차에서 발견되며 미 대사관 당국에서 이들의 사체를 수거한 사건이 발생한다. 이들은 분명 베트남에 의해 살해된 것이다. 또한 밤늦게 다카우(Dakow)로 가는 다리에서 플라스틱 폭탄을 자신의 차에 실은 미국 영사가 체포된다. 그러나 이 두 사건은 보도되지 않았으며 외교상의 이유로 묵인된다. 그린은 당국에서 묵인한 미국인의 죽음에 주목하며 여기서 *The Quiet American*의 주제를 떠올린다. 이 작품에서 파일은 바로 체포된 이 영사를 패로디한 인물이며 플라스틱 폭탄 사건의 주범인 그는 영사가 붙잡힌 다카우 다리에서 똑같이 살해당한다.

1956년 *The Quiet American*이 *The New Yorker*에 소개되었을 때 독자들은 그린은 미국인을 죽였다고 비난했다.²⁶⁾ 이에 그린은 “엄청난 폭탄사건에 대한 책임을 미국인에게 물었기 때문(Since I had attributed to the Americans the responsibility for the great explosion.)”(163)이라고 해명한다. 여기서 미국인 살해는 영국의 자존심 회복과 설욕을 의미한다. 즉, 인도에서 자신들이 실패했듯이 너희도 베트남에서 속히 철수해야 한다는 경고이며 제국주의 공멸에 대한 예고이다. 이처럼 그린의 반미의식은 단순히 미국에 대한 경계 태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극도의 증오와 살인으로 치닫고 있다. 그린은 알랭과의 대답에서 “내가 가장 혐오하는 것은 미국의 자유주의이다(What I truly detested is American liberalism.)”²⁷⁾라고 공언한다. 이는 자유와 민주를 표방하는 미국의 위선적인 대외정책에 대한 반감을

26) 2002년 미라맥스(Miramax)사에 의해 제작된 영화 “The Quiet American”이 영국에서 개봉되었을 때 미국에서는 상영 금지조치가 내려졌다. 9.11 테러 이후 사태는 더 악화되어 시사회에서 반애국적 정서를 부추킨다는 부정적 반응이 잇따르자 이 영화는 거의 폐기처분되는 듯했다. 이 책이 처음 출판되었을 때 당시 미국에서 그린은 반미 작가로 낙인찍혔고, 최근에 행해진 영화에 대한 이같은 정치적 검열은 1950년대와 똑같은 상황의 재현이라고 볼 수 있다. Richard Phillips, “A haunting portrait of US-backed terror in Vietnam,” *World Socialist Web Site*, Dec. 2002, Nov. 2005 <<http://www.wsws.org>>.

27) Allain, p. 90.

보여준다.

실제로 1938년 멕시코 여행에서 그린은 미국의 지배 하에 놓인 멕시코의 현실을 직시한다. 그 후 그는 미자본주의와 미제국주의에 대해 한결같이 적대적인 입장을 취해왔으며 이에 대한 공격을 서슴지 않았다.²⁸⁾ 이제 영국이 제국을 거느릴 힘을 잃은 상황에서 새로운 경쟁국인 미국에 대한 적개심은 더욱 커지며, 제국에 대한 미련과 안타까움은 신제국주의 국가에 대한 엄중한 경계와 저주의 형태로 나타난다. 제국주의 국가간의 세력다툼에서도 적자생존의 논리는 철저히 적용되며, 역사의 부침 속에 미국의 부상과 영국의 침체는 엄연한 현실로 드러난다. 그러므로 *The Quiet American*은 이러한 역사의 파노라마를 실감나게 보여준 소설이며 *Ways of Escape*은 작가의 작품 구상 동기와 구체적 사건의 고증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밖에도 악명 높은 독재자 듀발리에(Francois Duvalier)²⁹⁾ 정권하의 아이티는 *The Comedian*(1966)의 무대가 되며, 정치적 부패와 사회적 불평등이 심각했던 비상사태하의 바티스타(Batista) 정권은 *Our Man in Havana*(1958)의 탄생배경이 된다. 또한 *The Honorary Consul*은 스트로에스네르(Stroessner)의 오랜 군사독재와 인권 탄압이 고질적으로 자행됐던 파라과이와 그 당시 정황을 소재로 삼은 것이다. 그러므로 그린의 주로 돌아다녔던 제 3세계의 국가의 특징은 오랜 식민지에서 벗어났지만 자치 능

28) Allain, p. 90.

29) 1915년 미국은 반란을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아이티를 침공하며 6만여 명의 아이티인을 학살한다. 19년간 미해군에 의한 군사적 점령이 계속되는 동안 미국은 “민주주의”의 명분으로 미국의 임무에 충실할 허수아비를 대통령 자리에 앉혔고 아이티의 세관, 국립은행, 금 보유고를 장악함으로써 나라의 경제권을 쥐었다. 또한 훗날 무자비한 억압으로 악명 높았던 신군부를 창설하여 이들을 훈련시켰다. 1956년 프랑수아 듀발리에(Francois Duvalier: 일명 Papa Doc)는 미국의 지지 하에 군사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했고 미국은 공산주의 쿠바에 대한 대항세력으로 그의 독재정권을 지원했다. 통통 마구뜨(Tontons Macoute) 민병대의 도움 하에 듀발리에의 독재체제를 수립했고 1971년 “베이비 독(Baby Doc: 아들 장 클로드 듀발리에의 별명)”에게 정권이 넘겨져 1986년까지 계속 된다. 이 기간동안 수만 명의 아이티인들이 학살되었고 수억 달러의 국가재화가 수탈되었다. Tracy Stacy, “Francois Duvalier,” *Webster online*, Spring, 1992, Attempts to Overthrow Papa Doc Duvalier, Sep. 2005 <<http://www.webster.edu>>.

력이 없는 나라이며 군사 쿠데타에 의한 독재자의 일인 장기집권이 계속된다. 이러한 정치적 혼란을 틈타 제 3세계의 약소국가 국민들은 미국의 간섭과 통제를 받게 되며 안타깝게도 또 다시 식민지로 전락하는 악순환을 거듭한다. 이에 미국을 위시한 신제국주의 국가는 인권탄압과 치안부재의 공포정치를 일삼는 제 3세계의 정치적 낙후성을 탓하며 반민주 정권을 좌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제국주의자들이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들 나라에 대한 간섭이 불가피함을 합리화시키며, 이 기회를 자신들의 재정복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속셈이야말로 상습적이고 교활한 술수임을 알 수 있다.

3. 제국주의에 대한 향수와 회상

그린은 여든 살이 넘은 나이인 1980년대에 이 자서전을 집필한다. 이 회고록에서 그린은 여행과 통신원 생활을 통해 직접 겪은 해외 경험과 이를 바탕으로 쓰여진 작품들에 대한 설명 그리고 작가로서의 그의 안목과 관점을 술회한다. 그러나 오랜 해외 생활과 다양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각은 여전히 폐쇄적이며 그가 접하는 새로운 세계의 이질성을 열린 마음으로 포용하지 못한다. 즉, 80년대라는 개방된 역사적 시점에서 그는 타자의 목소리에 초점을 맞추는데 인색하며 계속 비서양에 대한 타자화를 고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린은 1930년대 첫 여행지 아프리카에 갔을 때와 똑같은 관점을 50년이 지난 후의 회고록에서도 계속 견지하며 결코 타자에 대한 배타성을 극복하지 못한다. 오히려 서양과 비서양간의 메울 수 없는 괴리를 더 부각시키며 열등한 비서양을 담보로 서양의 우월성을 증폭시킨다. 그는 첫 여행지인 아프리카 오지 탐험에서 극단적인 “문명의 대조(the contrast civilization)”

(174)를 적나라하게 경험한다.

I remember on my first journey to Africa, when I walked across Liberia, I used to dream of the delights of a hot bath, a good meal, a comfortable bed. I wanted to go straight from the African hut with the rats running down the wall at night to some luxury hotel in Europe and enjoy the contrast of civilization. (174)

이처럼 쥐가 돌아다니던 아프리카의 헛간에 누워 유럽의 고급 호텔을 그리워했다는 그린에게 비서양은 서양의 타자일 뿐 결코 동등한 파트너가 아니며, 그 후 비서양에 대한 그의 편견적 서술은 오랜 세월 동안 변치않고 반복된다. 즉, 이분법의 구축을 통해 일단 불평등한 위치에 놓이게 된 비서양은 서양의 우월성과 힘을 떠받치는 도구로 전락되어 일련의 부정적인 용어로 묘사되는 것이다.

심지어 아프리카 인종 중 가장 유럽인과 유사하다는 키쿠유(Kikuyu)조차 “과학 탐구자(scientific inquirer)”(201)는 커녕 간단한 숫자 개념도 없고 자연의 질서도 이해 못하는 무지한 민족으로 소개된다. 예를 들어 나무가 어느 해는 9피트 자라고 또 다른 해는 17피트를 자란다는 이치를 그들은 전혀 납득하지 못한다. 그린에 따르면 이들은 신앙심이 깊어 불변의 신을 믿기 때문에 “변화와 불확정(change and indecision)”(200)이란 개념을 받아들이지 못하며 해마다 나무의 성장 길이가 달라지는 현상을 이해하지 못한다. 무식한 이들은 때로는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unanswerable questions)”(201)을 하곤 한다. 즉, “신이 백인과 흑인에게 공평하게 땅을 주었고 서로 침략하지 못하도록 바닷물을 채우지 않았느냐(Didn't God make a land for each people to live in, black and white, and didn't he put the sea between us so that we shouldn't interfere with each

other?)”(201)며 영국의 지배를 순진할 만큼 단순하게 해석한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한 해석은 그린의 관점일 뿐 정작 키쿠유 족들에게는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일 수 있음을 그린은 간과하고 있다.

초기 작품인 *Journey without Maps*에서 문명화된 백인과 비문명화 상태에 있는 야만인이라는 단순한 인종적 구분은 말기 작품인 *Ways of Escape*에 와서 더 교묘한 형태로 발전한다. 즉, 비서양인의 정치와 신앙을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관행으로 단정지으며, 이러한 속성 때문에 이들은 정치적으로 공산주의를 더 지향하며 신앙적으로도 기독교가 아닌 이교에 빠져있다고 강조된다. 그린은 말레이시아 사람을 “공산당 도적떼(the bandits Communist)”(144)라고 부르며 인도차이나의 카오다이스트(Caodaist)교를 “이상한 사이비 종교집단(the strange religious sect)”(155)으로 치부한다. 이들을 악의적으로 표현하는 이유는 말레이시아에서 유럽 농장주가 공산 게릴라에 의해 살해당했고 카오다이스트군의 장교인 때 장군 역시 프랑스에 저항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식민주의를 반대하는 민족주의자나 공산주의자들은 그린에 보기에 모두 저지되어야 할 세력이며, 이들의 득세는 제 1세계의 입지를 위태롭게 하므로 신속하게 막아내야 한다고 그린은 믿고 있는 것이다.

그린은 현지의 지도자들을 사적으로 만났지만 이들의 개인적 능력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이들과의 만남이 유익했다는 내용은 고사하고 상당부분이 삭제되고 생략된다. 초창기와 비교했을 때 그의 관심사가 단순한 그 나라의 자연 풍광과 지리 환경에서 사회 정치 현실로 옮겨간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ourney without Maps*에서 라이베리아의 족장에 대해 얘기했던 것보다 *Ways of Escape*에서 호치민과 키마치 장군(Kimathi) 등 제 3세계 지도자를 경멸하는 태도가 역력하다. 예를 들면 인도차이나에서 프랑스의 드 라트르(De Lattre)와 나바르(Navarre)장군이 호치민에게 실패한 이유를 순전히 “어쩔 수 없는 험난한 지형(hopeless

geographical terrain)” (138) 탓으로 돌린다. 마찬가지로 케냐에서 영국군이 고전한 까닭도 일만 피트 고도에서 제대로 된 작전을 수행할 수가 없었고 “빽빽한 대나무 숲과 사나운 맹수들(the depth of bamboo forest and the wild animals)”(196)이 악재로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그린은 기술할 뿐이다. 즉, 호치민과 키마치의 성공은 이들의 뛰어난 능력 때문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익숙한 지형을 활용하여 외세를 물리친데 불과하다고 분석한다.

제 3세계에서 그린의 접촉하는 인물들도 백인 정착민과 식민 통치의 핵심 인물에게만 국한된다. 그는 멕시코에서 독일계 기독교인 레르(Lehr) 가족을 만나 며칠간 따뜻한 대접을 받는다. 인도차이나에서는 프랑스인과 자주 식사를 하며 하노이 대사로 온 트레보 윌슨(Trevor Wilson)과는 오랜 친구 관계이다. 특히 듀퐁씨(Monsieur. Dupont)는 그린을 “아버지로서의 책임감(paternal responsibility)”(159)을 갖고 매사 보살피주었다. 케냐에서도 그린은 영국 정착민 집에 자주 머물렀으며 학교 동창인 총독과 가깝게 지내곤 했다. *Ways of Escape*에서 종종 언급되는 이들과의 만남과 교제는 대부분 긍정적으로 묘사된다.

반면 현지인은 백인의 부속물이자 그림자 같은 존재로 규정된다. 이 자서전에서 그린은 실제 자신을 아편굴로 데려다 준 이름모를 중국인 친구와 그에게 능숙한 솜씨로 최고급 아편을 준비해주던 남자(Mr. X)에 대해 잠깐 얘기한다. 이들은 제 3세계를 찾아간 백인을 도와주는 협조자 역할을 한다. *The Quiet American*에 나오는 봄베이 출신 도밍구에즈(Dominguez)는 파울러의 조수로서 전신소와 검열소에 그의 기사를 전달하는 심부름꾼이다. 파울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회견장(the less important Press Conference)”(QA 157)³⁰⁾에 조수를 내보내어 그로 하여금 떠도는 소문이나 정보를 수집하게 한다. 도밍구에즈가 소개한 중국인 친구 행(Heng)도 많은 중요한 정보를 파울러에게 제공한다. 행은 위험을 무릅쓰고 파일의 폭탄제

30) 이 장에 한하여 *The Quiet American*에서의 인용은 책 제목을 줄인 QA와 쪽수를 명시한다.

조 현장을 비밀리에 안내해주며 파올러가 목격자로서 이 일을 잘 보도해줄기를 기대한다. 현지인을 무시하는 파올러는 베트남 경찰이 자신을 소환하러 왔을 때조차 침대에 누워 일어나지도 않는다. *The Quiet American*에 묘사되었듯이 카키색 반바지를 입고 “알아들을 수 없는 베트남식 프랑스어 (almost unintelligible Vietnamese French)”(QA 9)를 구사하는 현지 경찰은 취재실에서 커피 심부름을 한다. 반면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지만 프랑스인 비고(Vigot)는 영어를 잘 구사하며 화려한 금발이고 “파스칼의 팡세(Pascal's *Les Pensée*)”(QA 10)를 읽을 만큼 지적인 인물로 그려짐으로써 현지 경찰과 대조를 이룬다.

더욱이 현지인들은 모두 무명이고 어떤 인격도 부여되지 않으며 다만 백인에게 이용 가치가 있는 존재로만 등장한다. 그 중에서도 *Journey without Maps*의 짐꾼들은 구체적 인격체가 아닌 하나의 인종적 집단으로 묘사된다. 그린은 짐꾼들을 주인의 기분에 따라 조작할 수 있는 장난감 기계처럼 여긴다. 반항하는 짐꾼을 다루는 그의 능력 또한 탁월함을 알 수 있다. 당시 짐꾼들은 빅토리아 여왕의 얼굴이 새겨진 3페니 짜리 동전 밖에는 몰랐고 더 비싼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그는 고백한다. 즉, 겨우 3페니의 일당으로 노역을 시키면서 이들을 부당한 예속관계에 묶어두고 있는 사실을 그린은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들을 적절히 이간질시키고 통제함으로써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갈라놓는다. 더구나 그린은 목적지인 문명 세계에 도착하자 짐꾼들을 낫선 땅에 버려두고 떠난다. 시에라리온에서 라이베리아까지 오지를 뚫고 짐을 날라다준 이들의 노고와 고향을 멀리 떠나와 돌아갈 길조차 모르는 이들의 안전에 대해선 전혀 관심이 없다. 이들이 선택한 해변을 따라가는 귀향길은 라이베리아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며, 마을 사람들이 “총 없이는 아무도 가지 못한다(. . . none went that way unless he carried guns.)”(JM 265)³¹⁾라고 경고하는 길이었다.

31) 이 장에 한하여 *Journey without Map*에서의 인용은 책 제목을 줄인 JM과 쪽수를 명시한다.

이에 대해 오귀드는 1720년 다니엘 디포(Daniel Defoe)가 60명의 죄수 출신 짐꾼들을 실컷 부리고 난 후 그냥 버린 이야기인 *Captain Singleton*을 자신의 상상에 의해 쓴 데 반해 그린은 1935년 여행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기록했다고 비난한다.³²⁾

케냐에서도 영국인은 식민지 체제 유지를 위해 현지인을 고용한다. 자신들을 몰아내려는 마우마우 비밀결사대와 싸우기 위해 영국인은 현지인으로 구성된 민병대를 구성한다. 키쿠유민족은 친영(親英)과 반영(反英)이란 상반된 입장에 의해 내부적으로 분열된다.

The Home Guard increased his own danger with every exaction and always at the back of his mind was the fear of the future. . . . he had the praise of the white men and the official chiefs and headmen, but white men have short memories, they do not harbour blood feuds, and officials change. (199)

그러므로 아프리카인으로서 동족을 배반하고 친영 조직에 가담한 민병대원은 영국인들로부터 자신의 공로로 칭찬을 받지만 언제나 마우마우의 후환을 두려워한다. 영국인은 이들을 총알받이로 이용할 뿐 그 후에 발생할 아프리카 민족간의 내분이나 반목 등의 문제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처럼 그린은 제 3세계 국민이 백인을 위해 노동력은 물론 목숨까지도 바쳐야하는 사실

32) *Robinson Crusoe*를 쓴 지 1년 뒤인 1720년 다니엘 디포는 아프리카를 배경으로 한 *Captain Singleton*을 발표했다. 주인공 싱글턴은 상선의 반란사건으로 동료들과 함께 마다가스카르 섬에 상륙한다. 섬사람들은 다행히 식인종은 아니었으나 무지하고 탐욕스러웠으며 도무지 인간이라고 볼 수 없는 모습이었다. 당시 아프리카는 인간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으로 알려졌으나 노예, 황금, 상아 등의 특산품 때문에 모험가들의 도전정신을 자극했다. 싱글턴 역시 아프리카 횡단계획을 세우고 무기와 탄약을 나르기 위해 수십명의 흑인을 노예로 부린다. 총의 위력에 압도된 흑인들은 도주할 생각조차 할 수 없었고 처음부터 유럽인을 숭배하거나 무서워했다. 소설의 주인공 싱글턴은 리빙스턴의 “위대한 탐험”보다 155년 앞서 아프리카 횡단에 성공한다. Ogude, “In Search of Misery,” p. 56.

을 당연지사로 여긴다.

한편 그린은 1953년 사이공 퓨메리(Fumerie) 거리를 헤매며 아편을 피우러 다니던 당시를 회상한다. “쓰레기가 여기저기 뒹굴고 그 사이로 쥐들이 오가며 사람들이 지저분한 모기장 속에 누워있던(. . . a lot of dustbins, a rat moving among them, and a few people lay under shabby mosquito-nets.)” (177) 모습을 떠올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더러운 아편굴이 있는 사이공에 대해 특별한 향수와 애착을 보인다.

Peace-time Malaya would surely have been no more interesting than a round of British clubs, of pink gins, of little scandals waiting for a Maugham to record them. But in Indo-China I drained a magic potion, a loving-cup which I have shared since with many retired *colons* and officers of the Foreign Legion whose eyes light up at the mention of Saigon and Hanoi.

The spell was first cast, I think, by the tall elegant girls in white silk trousers, by the pewter evening light on flat paddy fields, where the water-buffaloes trudged fetlock deep with a slow primeval gait, by the French perfumeries in the rue Catina, the Chinese gambling houses in Cholon, above all by that feeling of exhilaration which a measure of danger brings to the visitor with a return ticket. (154)

실제 그린 자신도 바로 그 “마법의 독약(a magic potion)”에 이끌려 네 차례나 베트남을 방문한다. 그는 도박과 여자 그리고 아편에 탐닉했던 당시를 기억하며 “나의 육체적 쾌락을 위해 불러온 여자(a girl who had been summoned for my pleasure)”(175)와 “그의 깡마른 손가락으로 쾌락의 갈

색 씨앗을 반죽해준(his bony fingers kneaded and warmed the brown seed of contentment)” (172) 어떤 남자를 떠올린다. *The Quiet American*에서 파울러 역시 베트남 여자들을 “날씬한 미녀들(lovely flat figures)”(QA 12)이라고 했고 “이 지역을 영원히 떠나게 되었을 때 느끼게 될 향수를 가지고 베트남 여자들을 바라본다(I watched them with the nostalgia. I knew I would feel when I had left these regions forever.)”(QA 25)고 말한 적이 있다.

여기서 제 3세계는 이국적 여성에 비유되며 성적인 이미지와 많이 연관되어 있다. 사이드(Said)는 서구 남성의 성적 억압이 되는 제 3세계 여성에 대해 “그들은 무한한 관능의 매력을 발산하고 다소간 어리석으며, 무엇보다도 순종(They express unlimited sensuality. They are more or less stupid, and above all they are willing.)”하며³³⁾, 이러한 현상은 동양의 “여성적 피침투성(feminine penetrability)”과 “무기력한 순종(supine malleability)”이라고 설명한다.³⁴⁾ 따라서 식민지 개척 시절의 여성이 거센 저항을 보이는 처녀라면, 이제 식민지 해체 이후의 여성은 더 이상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육체적 쾌락을 제공하는 편안한 성적 파트너로 변한다. 식민지 개척자들이 영토를 탐험하고 자원을 착취한 후 이용가치가 없어지면 과감히 폐기처분했던 것처럼 제 3세계 여성도 같은 순환 패턴을 밟다가 버려진다. 그러므로 그린의 *Journey without Maps*에서 노예로서의 가치가 없어졌을 때 짐꾼을 버렸듯이, *Ways of Escape*에서도 제 3세계와 그 여성을 이용하다 버리는 그의 습관은 상습성을 보인다.

마찬가지로 위의 인용에서 언급했듯이 비상시 말레이시아의 긴장감이 마치 “미인을 처음 보았을 때(the first sight of a beautiful woman)” (167)의 흥분을 일으키게 했다면 안정을 찾은 후의 말레이시아는 무미건조하고

33) Edward Said, *Orientalism* (New York: Vintage, 1979) p. 207.

34) Said, *Orientalism*, p. 206.

따분한 상대로 전락한다. 즉, “평화 시의 말레이시아는 더 이상 흥미로운 곳이 못되고(Peach-time Malaya would surely have been no more interesting. . . .)” (154) 그의 관심 밖으로 밀려난다. 갈등 상황이 없는 제 3세계는 그린에게 아무 매력이 없다. 그러므로 고통이 사라진 제 3세계는 그에게 소설의 소재도 제공하지 못하고 그의 정신적 권태를 해결할 수도 없는 장소가 되어 짐꾼이나 여자들처럼 버려지고 만다.

또한 그린은 인도차이나의 패트 디엠 전투에서 지뢰가 터져 죽을 뻔했고 아이티의 공포 정치를 보고 “아이티 신문에 나오는 머릿기사는 그야말로 악몽이었다(Haiti was really the bad dream of the newspaper headlines.)”(206)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할수록 그가 더 가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것은 그곳으로의 여행이 흥분과 재미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지독한 두려움에 싸여있을 때 그는 오히려 정신적 불안, 우울, 권태에서 해방된다. 따라서 제 3세계 즉, 그린랜드의 여행 목적은 고통을 함께 나누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관망하고 즐기기 위해서이다. 사이공만큼 위험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가 아바나를 즐겨 찾았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I had visited Havana several times in the early fifties. I enjoyed the *louche* atmosphere of Batista's city and I never stayed long enough to be aware of the sad political background of arbitrary imprisonment and torture. I came there for the sake of Floridita restaurant, for the brothel life, the roulette in every hotel, the fruit-machines spilling our jackpots of silver dollars, the Shanghai Theatre where for one dollar twenty-five cents one could see a nude cabaret of extreme obscenity with the bluest films in the intervals. (240)

당시 “모든 죄악이 허용되고 모든 거래가 가능했던(. . . every vice was permissible and every trade was possible.)” (240) 색다른 도시 아바나에서 그린은 개인적 쾌락을 만끽한다. 또한 바티스타의 테러정권 당시의 삼엄한 경계는 오히려 무료한 일상에 원기를 불어넣는다. 이처럼 제 3세계는 고통과 환락이 동시에 공존하는 공간이지만 감각적 쾌락을 위해 모든 무게고 진지한 정치적 주제는 일단 보류된다.

인도차이나에서 네 번의 겨울을 지내는 동안 아편에 빠져있던 그린은 “파이프는 일상의 짜증과 무력감을 없앤다(Pipes took away the sickness and inertia.)”(166)라고 말한다. 이처럼 아편으로 인해 제 3세계의 “힘든 일상은 모두 잠재워진다(. . . sleep all tiredness away.)” (131). 따라서 *Journey without Maps*에서의 아프리카의 역할이 모험의 장소였다면, *Ways of Escape*에서 제 3세계는 단지 그의 정신적 피로감을 씻어주고 치유해주는 도피의 장소가 된다.



4. 은밀한 제국주의의 옹호자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영국의 위상은 급격히 기울어진다. 장기간의 전쟁은 영국 경제 침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³⁵⁾ 양차 대전 사이에 영제국은 국내외적으로 상당한 압력에 시달린다. 국내에서는 사회 보장에 대한 더 많은 지출을 요구하였고, 국제적으로는 주변 경쟁국들이 날리 뺏어있는 영제국의 속령에 새로운 위협을 가했다. 영국의 피폐와 함께 인도의 식민지적 가치가 감소함에 따라 남은 속령들의 가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³⁶⁾ 국

35) 영국의 국가 재산 가운데 25%가 1939년에서 1945년 사이에 손실된 것으로 추정된다. 많은 해외 자산이 수입품 지불을 위해 청산되었으며 전쟁 기간 내내 영국의 수출액은 전쟁 전 수준의 40%로 떨어졌다. Simon Smith, *British Imperialism, 1750-1970* (Cambridge: Cambridge UP, 1998)

내의 이러한 여론과 더불어 식민지 민족주의의 성장은 제국의 종말에 더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아프리카 식민장관들 역시 영국이 더 이상 아프리카 민족주의를 억누르고 통제할 수 없으며 탈식민화를 인정할 것을 주장했다. 이처럼 제국주의의 정당성이 그 허구를 드러낸 데 대해 대영제국주의가 스스로 무덤을 파다는 비난과 더불어, 서서히 침몰하는 제국의 운명에 대해 종말론적인 사양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예고가 영국의 지성인들 사이에서 자주 언급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대외적 주변 여건이 오랫동안 버텨온 제국의 붕괴를 야기하리라고는 예측하지 못했다. 자국의 탄탄한 사회 구조 체제를 갖고 세계적 불황을 잘 견뎌낼 것으로 보았다.³⁶⁾ 그러나 결국 1960년에 이르러 인도는 물론 남아있는 속령까지 빠른 속도로 포기하면서 화려했던 제국의 드라마는 막을 내린다. 16세기 이래 서양 문명의 기반으로써 같이 공존해온 식민지가 차츰 독립해나가며 서구는 붕괴된 체제와 인식 구도를 다시 정비해야 할 필요에 봉착한다. 즉, 어쩔 수 없는 권력이양으로 불명예스러운 종말을 맞게 된 제국은 후기 식민주의 이후 또 다른 제국의 담론을 모색해야 했다.

바로 이 시기의 담론을 맡았던 그린은 닫힌 문 앞에서의 당혹스러움을 감추고 새로운 제국의 수사를 구상하게 된다. 초기 *Journey without Maps*이나 *The Heart of the Matter*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초조함과 허탈함이 식민지 해체 이후의 다른 작품에서 역력히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사이드에 따르면 19세기 중반부터 영국의 상상력은 식민지로 인하여 놀

36) 1957년 헤럴드 맥밀런(Herald Macmillan) 수상은 취임한 지 며칠 만에 “제정과 경제적 견지에서 식민지의 이탈로 이익을 볼 것인지 손해를 볼 것인지를 더 잘 측정할 수 있도록 식민지 각각에 대한 대략적인 손익계산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했다. 인도와 영국의 오랜 관계가 불명예스러운 종말을 가져올 것이라는 영국 각료들의 걱정대로 영국에 경제적 위기가 닥치고 인도의 제국적 가치가 쇠퇴함에 따라 마침내 영국은 인도를 포기하게 된다. Smith, p. 186.

37) Tom Nairn, *The Break-up of Britain: Crisis and Neo-Nationalism* (London: NLB, 1977) p. 69.

라울 만큼 발전하면서 1880년 이후 소설에 이색적인 타국의 풍경 묘사와 사회적 관계의 극적인 확장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소설의 변화는 제국의 절정기와 거의 정확하게 부합한다고 주장한다.²⁹⁾ 그의 지적처럼 영국소설은 제국의 확장과 더불어 여러 국가의 이색적 “풍경”과 다양한 “사회적 관계”가 작품 속에 새롭게 삽입된다. 예를 들어 *The Heart of the Matter*의 첫 부분의 배경은 상당히 영국적이다. 식민관료 윌슨(Wilson)의 눈에 비친 베드포드 호텔(Bedford hotel), 본드 거리(Bond Street), 고등학교와 성당 등의 정경은 마치 검은 대륙에 세워진 조그만 영국 마을을 연상시킨다. 이처럼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배경으로 쓴 소설은 멀리 아프리카까지 확장된 영국의 팽창력을 뒷받침한다. 제국의 위세에 힘입어 그린의 상상력도 고무된다.

At four thirty I would have tea, then take a solitary walk along an abandoned railway track once used by European officials, halfway up the slopes below Hill Station. There was a wide view of the huge Freetown bay where sometimes the *Queen Mary* would be lying at anchor as though she had been hijacked from the North Atlantic, and the old *Edinburgh Castle* - now a naval depot ship - lay rotting on a reef of empty bottles. As the sun began to set, the laterite paths turned the colour of a rose. It was the hour and the place I liked best. (96)

여기서 언급된 “퀸 메리 호”와 “장밋빛 오솔길”은 곧 영국 여왕과 영국 국화를 상징한다. 이 인용이 눈길을 끄는 이유는 *The Heart of the Matter* 전체를 통해 아프리카의 풍경을 가장 아름답고 낭만적으로 묘사한 예외적인 대목이기 때문이다. 언제나 죄의식과 중압감에 시달려 아프리카를 부정적으

29) Edward Said, *Culture and Imperialism* (New York: Vintage, 1994) p. 163.

로 바라보는 스코비가 여기서 만큼은 이 곳을 가장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그가 짊어진 삶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제국의 건재는 유일한 기쁨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귀드는 빅토리아 여왕 시절의 시대정신은 젊은이들을 매료시켰고 식민 관료직을 동경하게 만들었는데, 그런 역시 이 위대한 시대의 제국의 의무를 결코 망각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³⁰⁾ 반대로 이제 제국이 해체되면서 팽창되고 고조되었던 상상력은 위축되며 소설의 토대는 지각 변동을 경험한다. 제국 절정기의 소설이 식민지 지속을 위해 공헌했듯이 제국 해체기의 소설은 식민지 회복과 부활을 획책하는데 기여한다. 소설의 무대가 축소되며 그린의 운신의 폭도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는 익숙한 “풍경과 사회적 관계”를 찾아 제 3세계를 탐방한다. 그는 접근하기에 용이할 뿐 아니라 심리적 부담감이 적은 한 때 속국이었던 곳을 찾아다닌다.

그린은 *Ways of Escape*의 첫 표제에 “내 몸은 현재 이 곳을 여행 중이지만 마음은 끊임없이 과거로 돌아가며 그 곳에 묻힌다(As my body continues on its journey, my thoughts keep turning back and bury themselves.)”라는 내용의 글을 실었다. 이는 곧 과거 식민지국가를 두루 다니며 비록 몸은 현실에 묶여있지만 생각은 끊임없이 옛 추억과 향수에 잠기는 작가의 태도를 대변한다. 화려했던 식민지 역사의 자취는 사라지고 없지만 그린은 그 위용을 항상 머릿속에 그리며 정신적 충족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55년 프랑스 패배 이후 그린은 4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인도차이나에 들러 하노이를 돌아본다. 쓸쓸한 마음으로 자주 갔었던 카페와 호텔을 둘러보며 그는 감상에 젖는다.

I went back to Indo-China for the fourth and last time in
1955 after the defeat of the French in the north, and with

30) Ogude, “Graham Greene's Africa,” p. 42.

some difficulty I reached Hanoi - a sad city, abandoned by the French, where I drank the last bottle of beer left in the cafe which I used to frequent with Monsieur Dupont. I was feeling ill and tired and depressed. I sympathized with the visitors, but I sympathized with the French too. The French classics were yet on view in a small secondhand bookshop which Monsieur Dupont had rifled a few years back, but a hundred years of French civilization had fled with the Catholic peasants to the south. The Metropole Hotel where I used to stay was in the hands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Viet Minh sentries stood outside the building where de Lattre had made his promise, "France will never leave. . . ." (165)

여기서 “프랑스인들이 버리고 간(. . . abandoned by the French.)”이란 표현은 인도차이나의 소유권이 아직도 프랑스에 있다고 생각하는 작가의 마음을 반영한다. 프랑스는 수백년 간 이곳을 통치했지만 인도차이나를 소유할 권리도 더구나 “버릴 권리”도 없으며 다만 “떠날 의무”만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 라트르(de Lattre) 장군은 “프랑스는 절대 떠나지 않는다(France will never leave.)”며 포기할 수 없는 강한 집착과 미련을 보인다. 그린은 한 때 머물렀던 프랑스령 북부 지방을 다시 찾아 갔으나 “며칠이 지나는 동안 나는 억지로라도 호치민의 실체를 확인해보려 했으나 마음이 착잡하게 가라앉았다(Day after day passed while I tried to bully my way into the presence of Ho Chi Minh, I was depressed.)”(165)라고 밝히고 있다. 통일 베트남을 돌아보며 그는 보잘것없는 “문명의 잔해(the debris of civilization)” (171) 즉, 잃어버린 식민지의 자취에 안타까움과 허탈감을 느낀다. 그가 “프랑스인들에 대해 느끼는 동정심(I sympathized with the

French.)”은 식민지 해체 후 상실감에 젖어있는 영국인이 갖는 동병상련이다. 그러므로 릴라 간디가 언급했듯이 식민직후는 식민주의를 종식시키지 않는다.³¹⁾ 제 3세계가 독립을 쟁취한 후에도 식민 점령 당시 지배국으로부터 받았던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손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모순에 빠지듯, 제 1세계 역시 식민지 포기 이후에도 오랫동안 박탈감과 자괴감에 시달리며 권력에 대한 향수를 느낀다.

메콩강 사구에 있는 도시 비엠티안(Vientiane)에서 그린은 “딱 한군데의 유럽식 식당, 찌그러진 치약, 지저분한 시장에 놓여있던 파리에 뒤덮힌 생선과 쌀로 만든 메스꺼운 떡(. . . one European restaurant, withered tubes of toothpaste, fish covered with flies and sickly cakes made out of rice in the usual grubby market.)” (171) 등 문명의 흔적을 본다. 프랑스군이 철수한 뒤 낙후된 도시를 보며 그는 새삼 격세지감을 느낀다. 이처럼 그린은 같은 지역을 시차를 두고 여러 번 방문하지만 그의 글에서 신생독립국의 발전 양상이나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찾기 힘들다. 오히려 좋은 면은 삭제되며 제 3세계에 대한 그린의 부정적 내러티브는 과거와 변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혁명을 치루었지만 그 상황이 종전과 별 차이가 없다는 멕시코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도 마찬가지 예이다.

I went back to Mexico City more than a dozen years ago on my way to Havana. Mexico too has changed, though perhaps not in essentials - not in the cruelties, injustices and violence. All successful revolutions, however idealistic, probably betray themselves in time. (81)

그러므로 제 3세계에서 가난과 억압에 허덕이는 민중을 목격하면서 그린은

31) Leela Gandhi, *Postcolonial Theory: A Critical Introduction* (New York: Columbia UP, 1998) p. 20.

좌익 성향으로 기울며 사회 혁명에 호의적으로 변한다는 아담슨의 지적은 설득력이 없다.³²⁾ 오히려 그린은 사회 혁명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으며 제 3세계의 구조적 모순과 총체적 질곡의 원인이 제 1세계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는 혁명 후의 멕시코와 베트남을 둘러보며 서양 권력의 부재와 지배력의 상실을 눈으로 확인한 후 식민지의 추억과 향수를 더 강하게 느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의 내러티브는 제국주의자의 겉과 속이 다른 양면성을 드러낸다. 즉, 감춰진 의도는 피지배국의 자원을 송두리째 착취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스스로 문명화를 이룰 수 없는 이들의 미개함을 깨우쳐 주기 위해 서양 통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는 곧 후기 식민주의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식민 종식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린의 의식 상태를 말해준다. 이런 상황에서 “문학은 원주민의 야만성이라도저히 개화시킬 수 없으며 이들의 계몽을 위한 유럽인의 노력은 계속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If literature can demonstrate that the barbarism of the native is irrevocable, then the Europe's attempt to civilize him can continue indefinitely.)”라고 잔모하메드(JanMohamed)는 풀이한다.³³⁾

지금까지 살펴본 5편의 작품에서 엿볼 수 있듯이 그린은 영국 식민주의를 옹호하고 프랑스 식민주의는 동정하며 미국 식민주의에 대해서는 비판을 가한다. 이미 패권은 미국으로 넘어갔고 영국은 이제 유럽 국가의 한 일원으로 전락했지만 그렇다고 미국에 대한 경계 태세를 늦추지는 않는다. 1963년 그는 아이티를 떠나며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듀발리에 정권과 싸우기로 작정한다. 즉, 타임지에 아이티의 현실을 기고하여 대학살 사건을

32) Adamson, p. 161.

33) Abdul R. JanMohamed, “The Economy of Manichean Allegory: The Function of Racial Difference in Colonial Literature,” *“Race,” Writing, and Difference* ed. Henry Louis Gates, Jr. (Chicago: Chicago UP, 1986) p, 81.

보도하며 이에 대한 CIA의 연루 사실과 독재 정권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폭로한다.³⁴⁾ 이와 마찬가지로 베트남을 미국의 간섭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한 그의 고민의 흔적은 *The Quiet American*에서도 역력히 나타난다. 또한 그린은 개인적으로 남미에 상당히 관심이 있으며 자신의 오랜 희망은 미국을 등에 업은 소모사 일가(Somoza family)가 쿠바에서 축출되는 것이라고 밝힌다.³⁵⁾

이처럼 그는 약화된 영국의 위상을 만회하기 위해 속국에 대한 최소한의 대안적 역할을 모색한다. 즉, 구식민세력인 영국은 민주주의의 이상적인 모델임을 자처하며 여전히 우월성과 기득권을 쥔 채로 공산주의 위협으로부터 제 3세계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자 한다. 여기서 서양과 비서양의 이분법적 구도를 유지하기 위해 비서양은 공산주의에 넘겨줄 수 없는 대상이다. 이를 위해 비서양의 고통과 질곡은 더 강조되며 이들이 고통과 질곡을 모두 극복하여 안전한 타자가 될 때까지 서양의 간섭은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일찌기 영국만큼 제국주의에 대해 의존적이며 많은 이득을 취한 나라는 없었다. 영국작가는 해외를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며 해외를 “마음대로” 억압하고 어떤 식으로든 조절할 수 있는 “우리의 것”으로 생각했다.³⁶⁾ 과거의 속령을 아직도 “영국의 것”으로 여기는 그린은 그 곳을 거리낌 없이 왕래한다. 게다가 식민지 해체 이후에도 은근히 이분법적 구도를 유지하고 싶었던 그는 해외 식민지 상실에 대한 보상으로 또 다른 참여를 원한다. 즉, 제국주의의 쇠퇴와 붕괴를 나라 안팎에서 경험했던 그린이야말로 세상의 바뀐 구도를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느낀 작가였고

34) 그린은 그의 대담집 *The Other Man*에서 “한 자루의 펜은 총알처럼 유혈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A pen as well as a bullet can draw blood.)”(82)고 말하며 작가들이 갖고 있는 펜의 힘이 총에 못지않은 위력이 있음을 시사한바 있다.

35) Allain, p. 102.

36) Said, *Culture and Imperialism*, p. 105.

주도권을 상실한 현실에 어쩔 수 없이 순응하면서도 “타자”를 놓치지 않고 우등과 열등이라는 관계를 지속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는 제국의 야욕을 버리기 힘들었고 과거 속국에 기생해야하는 제국의 메카니즘에 집착했으며 과거처럼 지배국과 속국이 한 유기체로 다시 환원하여 공생의 구조로 복귀해야한다고 믿었다. 그러므로 그가 제 3세계를 전전하며 작품 활동을 한 것은 한가한 산천 유람이 아니라 독립국이 속출하는 가운데 이들 나라의 문화적, 정치적 불안정한 상황을 비집고 또다른 제국을 개척하여 새로운 백인의 임무를 탐색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린은 1930년 이후 세계의 지정학적인 힘의 이동을 용의주도하게 파악하며, 그를 둘러싼 넓은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그 속에 살아가는 인간에 대한 탐구를 자신의 주제로 삼는다. 꾸또는 그린에 대해 이데올로기와 역사 자체보다 그 배경 하에 놓여진 구체적인 인간의 삶에 주안점을 두며, 광범위한 무대를 바탕으로 폭넓은 현실 인식을 갖고 있는 유일한 영국 작가로 평가한다.³⁷⁾ 게다가 그린의 시각은 식민지 상황을 사회 정치적인 조건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인간의 조건으로 해석하며 편협한 문화 제국주의와 인종차별주의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분석된다.³⁸⁾ 이처럼 꾸또는 넓은 세상, 그 중에서도 특히 피지배국가에 대한 그린의 관심과 집착의 이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옹호하면서 중립적 평가를 내린다.

그러나 그린의 대한 꾸또의 온건한 평가는 그린 작품에 나타난 제국주의적 성향을 간과하는 것이며 그의 한계를 파악하지 못한 오류를 남긴다. 식민지에서 고통받는 “인간의 조건”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고통이 아니라 정치 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강요된 것이며 개인의 힘과 의지로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피지배 국민의 고통을 단순히 누구나 겪는 인간적 고통 즉, 지배국가의 국민도 똑같이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호도하는

37) Couto, p. 3.

38) Couto, p. 125.

꾸또의 분석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왜냐하면 이는 고통의 경중을 따지거나 고통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문제의 근원이 지배와 피지배간의 적대적 관계에서 발생한 것임을 묵과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The Heart of the Matter*가 처음 출간되었을 때 오웰은 그린에 대해 날카롭게 비판했다.

Why should this novel has its setting in West Africa? Except that one of the characters is a Syrian trader, the whole thing might as well as happening in a London suburb. The Africans exist only as an occasionally mentioned background, and the thing that would actually be in Scobie's mind the whole time - the hostility between white and black, and the struggle against the local nationalist movement - is not mentioned at all. Indeed, although we are shown his thoughts in considerable detail, he seldom appears to think about his work, and then only of trivial aspects of it, and never about the war, although the date is 1942. All he is interested in is his own progress toward damnation.⁴⁰⁾


즉, 그린은 스코비란 한 인간이 겪는 갈등이나 회의에 열중한 나머지 대다수 아프리카인의 고통과 질곡은 그저 배경으로 처리될 뿐이다. 따라서 오웰의 비판처럼 그린은 인간의 삶을 제국주의의 상황 속에서 조명하지 못하며 오히려 그 갈등구조의 심각성을 희석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그린의 작품에는 약소국민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결핍되어 있으며 가해자의 참회나 피해자에 대한 동정도 엿보이지 않는다.

40) George Orwell, "The Sanctified Sinner," *Graham Greene: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Samuel Hynes (New Jersey: Ea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1973): p. 106.

그린에 대해 지금까지 강도 높은 비판을 해온 오귀드는 “고통과 죄의 문제를 능숙하게 처리하는 그린의 노련함은 바로 냉담의 경계에 선 그의 초연함 (His masterly handling of problems of pain and sin suggests a detachment that borders on callousness.)”이라고 그린을 분석한다.⁴¹⁾ 그린 역시 대담집에서 소설가의 위치란 불의와 정의 그리고 회의와 명확함의 경계에 놓여있으며 굳이 양심을 철저히 지키거나 지조를 굳게 지킬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⁴²⁾

그린은 작품의 첫 페이지마다 반드시 표제를 실었는데, 그 인용구절들은 그가 소설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한마디로 대변하는 상당히 무게 있고 함축적인 구절이다. 그는 주로 다음의 시에서 표제에 쓰일 인용구를 발췌했으며 그런 점에서 이 시는 그린의 정신세계와 의식 구조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응결체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Our interest's on the dangerous edge of things
 The honest thief, the tender murderer,
 The superstitious atheist, demireps
 That love and save their souls in new French book
 We watch while these in equilibrium keep
 The giddy line midway.⁴³⁾

이 시에 나오는 “정직한 도둑(the honest thief)”이나 “상냥한 살인자(the tender murderer)”처럼 지금까지 분석한 그린의 진면모는 상반되고 모순된 양가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충성과 불충의 좁은 경계(narrow boundary between loyalty and disloyalty)”⁴⁴⁾에서 서성이는 그는 비록

41) Ogude, “In Search of Misery,” p. 46.

42) Allain, p. 79.

43) Robert Browning, ‘Bishop Blougram's Apology’ (1855).

“내면의 모순(minds' contradiction)”⁴⁵⁾을 겪으면서도 자신과 정치, 자신과 종교 사이에 완충 지대를 두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 그는 정치와 종교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 도그마에 전적으로 함몰되지도 경도되지도 않는다. 애매한 정체성을 띤 그린의 모습은 때론 온화한 식민주의자나 비도덕적 인본주의자로, 때론 무책임한 역사주의자나 비정한 기독교주의로 비춰진다. 이처럼 분명한 색깔을 드러내지 않아도 무방한 모호성은 자신의 제국주의적 성향을 은닉할 수 있었던 구실이 된다. 그러므로 수많은 역사 현장의 중심에 있었으면서도 식민지 현실을 등한시하고 단지 그곳을 등장인물이 살아가는 공간으로 처리하는 그의 균형감과 중립성은 그가 오랫동안 은밀히 제국주의를 옹호할 수 있었던 테크닉으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 *Ways of Escape*을 근거로 그린의 고난의 땅, 그린랜드를 찾아 나선 이유와 도피의 실체 그리고 그린랜드의 실제 상황을 정치, 역사적 측면에서 조명해보았다. 그 결과 그린의 방랑벽은 새로운 글의 소재를 얻고 정신적 권태에서 탈출하려는 도피 행위가 아니며, 더욱이 방랑의 목적지였던 그린랜드는 단순히 선악의 문제와 도덕적 갈등이 적나라하게 표출되는 곳으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 곳은 폭력이 난무하며 쿠데타와 혁명이 빈발하고 독재와 절대 빈곤에 신음하는 “식민지”이며 수난당하는 이들의 고통은 “식민 역사”에서 유래된 것이다. 따라서 식민지 해체 이후 그린의 글쓰기와 도피는 접근이 용이한 과거 식민지, 그린랜드를 활동무대로 삼아 식민지 부활의 일익을 담당하고 새로운 제국을 개척하기 위함이다.

44) Adamson, p. 1.

45) Adamson, p. 1.

VII. 결 론

가톨릭에 기반한 인본주의적 작가로 인식되어 온 그레엄 그린에 대한 비평은 오랜 기간동안 종교적 주제와 인간의 근원적 문제에 한정되어 평가되어 왔다. 정치 이데올로기와 신앙의 갈등이 나타나는 그의 후반기 작품조차 결국 신앙에 초점을 맞추는 비평 경향이 주류를 이뤄왔다. 이러한 분석들은 그린 당대의 시대적 요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또한 그의 작품의 무대를 이루는 그린랜드에 대한 고정 관념을 답습하는 맹점을 갖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그린의 작품 *Journey without Maps*, *The Heart of The Matter*, *The Quiet American*, *The Honorary Consul*, *Ways of Escape*을 포스트콜로니얼리즘적 관점에서 심층 분석, 연구하고 비서양인의 시각으로 “그린 다시 읽기”를 시도함으로써 그린 문학에 대한 기존의 평가를 넘어서고자 하였다. 즉, 그의 작품들에 나타난 주제, 구성, 인물, 언어, 기교, 비유 등을 자세히 검토하였고, 연대기별로 배열한 그린의 다섯 작품을 순차적으로 연구하면서 역사의 퇴행 속에서 변화를 겪은 작가의 의식과 서술 테크닉을 분석하였다.

첫 작품인 *Journey without Maps*에서 그린은 철저하게 냉혹하고 무정한 백인 식민주의자의 시선으로 아프리카를 관찰하며, 그의 눈에 비친 아프리카의 자연과 문화, 원주민은 야만과 원시의 집합체로 왜곡되어 나타난다. 이 작품은 서양의 우월성과 서양인의 선민의식을 통하여 그린의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이 형성되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인다. 그린은 아프리카 오지탐험을 고통스럽고 끔찍한 경험으로 기억하지만 여전히 그는 광대한 미개발의 오지에 대한 식민지적 환상과 정복욕에 사로잡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작품인 *The Heart of The Matter*에서는 그린의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을 유지하면서 유색인종에 대한 타자화와 부정적 이미지를 고착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비평들이 주인공 개인의 인간적 고뇌와 죄의식, 종교성의 관점에서 이 작품을 다루었다면, 본 논문에서는 아프리카와의 관계 속에서 백인 식민관료들을 식민지 변방인 아프리카 사회와 연결시켜 분석했다. 그린은 아프리카라는 그린랜드의 사회적, 물리적 상황을 암담하고 절망적으로 몰아가며 백인들의 타락의 동기를 어쩔 수 없는 상황적 불가피성으로 보이도록 유도한다. 이로써 면죄부를 제공받은 백인들은 모든 도덕적 책임을 아프리카로 전가하며 자신들의 인간적 과오를 묵인시키고 있는 것이다.

한편 *The Quiet American*에 대한 분석에서 본 논문은 기존의 비평에서 도외시되어온 작품의 배경이 오랫동안 제국주의 세력의 각축장이었던 베트남이란 점을 염두에 두었다. 또한 이 소설이 쓰여진 시기가 미국의 본격적인 개입이 이루어지기 직전인 1950년대라는 시대적 상황에 특별히 주목하여 개진하고자 했다. 퓨옹을 둘러싼 파일과 파울러의 대립과 갈등은 떠오르는 미제국주의와 저물어가는 영제국주의라는 제국주의의 흥망사를 암시한다. 파울러는 제국주의적 본색을 끝까지 감추지 못하며 식민지 시절의 과거에 집착한다. 그는 스스로 반제국주의자로서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파일과의 밀착성과 공통점을 발견하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네 번째 작품인 *The Honorary Consul*은 세계 패권의 중심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옮겨가는 권력 이동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세계의 슈퍼 파워로 급부상한 새로운 강자 “미국”이 남미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함에 따라 영국의 상실감과 반미 감정의 골은 더 깊어간다. 그린은 이 작품에서 “거꾸로 계양된 유니언 잭”, “찢테기뿐인 명예영사”, “유명무실한 앵글로 아르헨티나 클럽”, “썩은 식민지 기둥” 등의 상징적 표현들을 통해 그의 참담한 심정과 박탈감을 가장 압축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남미인도 아니고 영국인도 못되는 주인공 플라르가 혼혈아로서 겪는 애매한 정체성과 문화적 갈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재외영국인으로서 “남미에 대한

타자화”를 멈추지 않는 그가 중심부 문화에 머무르기 위해 영국성(Englishness)을 계속 고수하고 집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린의 자서전 *Ways of Escape*에서는 그린의 고난의 땅, 그린랜드를 찾아 나선 이유와 도피의 실체 그리고 그린랜드의 실제 상황을 정치, 역사적 측면에서 조명해 보았다. 그린의 방랑벽은 새로운 글의 소재를 얻고 정신적 권태에서 탈출하려는 도피 행위만은 아니며, 더욱이 방랑의 목적지였던 그린랜드는 단순히 선악의 문제와 도덕적 갈등이 적나라하게 표출되는 곳으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그곳은 폭력이 난무하며 쿠데타와 혁명이 빈발하고 독재와 절대 빈곤에 신음하는 “식민지”이며 이곳에서 수난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은 “식민 역사”에서 유래된 것이다. 따라서 식민지 해체 이후 그린의 글쓰기와 도피는 접근이 용이한 과거 식민지, 그린랜드를 활동무대로 삼아 식민지 부활의 일익을 담당하고 새로운 제국을 개척하고 재건하기 위한 몸부림임을 알 수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그린은 평생을 그린랜드를 찾아다녔다. 그의 호기심에 찬 식민지 탐험은 첫 여행지 아프리카를 기점으로 시작된다. 그러나 *Journey without Maps*에서 많은 짐꾼을 거느리며 총과 나침판을 들고 오지를 누비던 용감한 탐험가의 모습은 세월이 지나며 점점 쇠약해진다. 작품 속에서 주인공들은 *The Heart of the Matter*의 무능하고 타락한 식민지 관리자, *The Honorary Consul*의 유명무실한 해외공관을 지키는 힘없는 명예영사 그리고 *The Quiet American*의 패배의식에 젖어있는 우유부단한 특파원 등으로 변신한다. 즉, 초기 *Journey without Maps*나 *The Heart of the Matter*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초조함과 패색이 식민지 해체 이후 다른 작품에서 역력히 나타남을 볼 수 있다. 그의 내러티브는 단순한 제국의 노스탤지어가 아니라 역사적 변화에 순응하려는 몸부림의 결과였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작품에서 제 3세계를 배경으로 설정한 이유는 전후의 변화된 정치적 상황에 대한 그린 자신의 입장을 재정립할 필요성 때문이었다. 그의

소설들에는 이런 필요성을 요구하는 주인공이 등장하며 각 주인공들이 결국 영국으로 귀속되는 결말로 끝을 맺는다.

특히 영국이 제국의 힘을 상실하고 식민지를 포기한 후, 그린의 식민담론에서 타자의 존재는 더욱 중요하게 나타난다. 그것은 지배자 서양의 정체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당연한 결과이다. 게다가 공식적인 지배 관계가 종료되었지만 영국인들은 철수하지 않고 오히려 작품 속에서 세계 곳곳에 배치된다. 특히 복잡한 역사적 배경과 관련이 있는 그의 말기 작품에는 항상 영국인들만이 거주하는 공간(English corner)이 배타적으로 설정된다. 그것은 비록 이들의 정치적 역할은 애매하지만 식민담론 속에서 이들 제외 영국인들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국력의 상실로 인해 과거 피지배국에 대한 정치적 개입의 기회도 줄어들었다. 이들은 원주민과 거리를 두고 지내며 애써 정치적 문제에 초월하려 애쓰지만 관조와 참여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며 딜레마에 봉착한다. 은근히 참여와 개입의 기회를 엿보는 이들에게서 그 명분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러므로 식민지에 동화되거나 연루되기를 거부하면서도 관여하지 않고 견디지 못하는 제외영국인들이 그린의 각 작품에 포진된다.

여기에서 그린은 제외영국인들이 살고 있는 나라의 정치적 상황이 그들로 하여금 참여를 불가피하도록 몰아감으로써 제외영국인들의 행동을 영웅적으로 묘사한다. 즉, 그린은 멀리 해외에 나가있는 주인공들을 통해 대리 만족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묘사는 아직도 역사의 주체임을 믿고 싶은 독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며 언제나 건재한 영국성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처럼 그린의 작품에는 과거의 영광을 만회하려는 영국인들의 절박한 욕구가 언제나 고동친다.

식민지 팽창기에 고조를 이루던 제국에 대한 충성과 애국적 정서는 빅토리아 시대 이후 과거의 구질서가 소멸됨에 따라 곧 제국주의에 대한 믿음의 붕괴와 권력의 이탈로 이어진다. *The Heart of the Matter* 이후에 나타나

는 어두운 분위기는 제국주의의 쇠퇴와 연결되며 주인공들은 제국주의 절정기의 소설과는 다르게 힘과 열정이 결여된 나약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게다가 그린은 1950년대 케냐의 정치적 독립 투쟁을 보며 영국의 쇠락을 느낀다. 그것은 그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따라서 식민주의에 대한 뼈아픈 통찰과 반성 그리고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대한 재고의 과정을 그의 작품에서 더듬어보기는 힘들다. 설상가상으로 그의 후기 작품들은 구 식민 체제가 빈사상태에 빠진 틈새를 타고 민주주의 이론을 표방한 미국의 초강력 제국주의가 부상한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패배감에 싸인 채 그가 세계 곳곳을 유랑했듯이 인정할 수 없는 정치 현실과 이를 형상화할 적절한 내러티브 사이에서 그는 끝없이 방황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린 소설의 근간에는 식민 지배자의 뿌리 깊은 의식이 깔려 있으며 대부분의 서구 작가들이 그랬듯이, 그린도 서구의 독자만을 염두에 두고 글을 썼다. 그런 그의 내러티브는 식민지배자의 말에 대해 식민지인이 복종하는 언어로 코드화되어 있다. 또한 식민지에 대한 끝없는 착취와 사회적 억압은 공공연히 정당화된다. 유럽의 우월성이 변함없이 강조되는 과정에서 굴욕과 복종만을 겪어 온 식민지인들의 고통과 비참함은 잊혀지고 무시된다.

*Orientalism*의 서문에서 사이드는 “순수한 지식”과 “정치적 지식” 사이의 구분을 부정한다. 식민지 착취에 대해 비판적인 작가도 사회의 대세에 휩쓸리지 않을 수 없으며, 더욱이 법적, 제도적으로 이런 사회에 연루된 작가는 식민지에서 얻은 특혜와 이득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떤 작가나 학자도 자신들을 둘러싼 환경 속에 윤리적으로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린은 자신이 물려받은 사회적 가치의 위선과 불합리성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뛰어넘거나 벗어날 수는 없었다. 이것이 제국주의적 멘탈리티를 소유한 작가, 그린의 한계임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인본주의적, 종교주의적 분석으로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던 그린의 윤리성과 정치성은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의 잣대로 분석했을 때 비로소 그

윤곽이 분명해진다. 본 논문을 통해 장르와 시기를 막론하고 외관상 비정치적으로 보이는 소설이나 심지어 자서전까지, 그리고 초기부터 말기 작품까지, 그린의 인식론적 배경에는 비서양에 대한 편향적인 오리엔탈리즘이 자리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제 3세계의 암울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의 인식론적 한계와 식민담론을 평생 답습해온 그린의 태생적 한계를 명확히 지적할 수 있었다. 그의 텍스트 속에 잠재된 이와 같은 억압적 담론 구조를 밝히는 것은 가톨릭시즘과 휴머니즘에 매몰된 중심부 비평에서 이탈하여 주변부의 시각에서 포스트콜로니얼리즘을 도구로 삼아 그린을 파헤친 결과 얻어낸 성과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린 연구에 있어서 서양 학자들에 의해 주도된 가톨릭시즘과 휴머니즘 일반도의 비평이 주류 담론이었다면, 비서구에 의한 포스트콜로니얼리즘적 비평은 아직까지도 열세이며 비주류 담론이다. 또한 포스트콜로니얼리즘적 비평이 그 대항적 담론으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문학에 대한 포스트콜로니얼리즘적 연구는 단지 비난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속에 나타난 제국주의의 잔재를 명확히 분석하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 문화 속에서 재생산되고 실천되고 있는지를 깨닫고 반성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한 가지 밝히고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그린에 대한 포스트콜로니얼리즘적 연구가 그의 작품에 대한 문학과 고전으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비난의 수사학”으로 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그린을 “다시 읽음으로써” 권력의 언어를 거부하고 의식을 변화시키는 데 그 의의가 있는 것이다. 즉, 서구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고자 “다른 방식으로 읽는 능력”을 키우는 데 포스트콜로니얼리즘 연구의 그 궁극적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서양 고전을 비서양인의 입장에서 다시 읽는 작업은 소외되고 배제되어 온 주변인으로서의 자아 성찰이며, 주변과 중심의 자리바꿈의 시도이고 우리의 주체 의식을 바로 세우려는 노력의 일환이 될 것이다.

Bibliography

1. Primary Sources

Greene, Graham. *The Man Within*. London: William Heinemann & the Bodley Head, 1976.

_____. *A Gun for Sale*. London: William Heinemann & the Bodley Head, 1973.

_____. *Journey without Maps*. London: The Bodley Head, 1978.

_____. *The Lawless Road*. Harmondsworth: Penguin Edition, 1939.

_____. *Brighton Rock*. London: William Heinemann & the Bodley Head, 1970.

_____. *The Power and the Glory*. New York: Penguin Books, 2003.

_____. *The Ministry of Fear*. London: William Heinemann & the Bodley Head, 1973.

_____. *The Heart of the Matter*. New York: The Viking Press, 1952.

_____. *The Third Man*. New York: Viking Press, 1950.

_____. *The Lost Childhood and Other Essays*. London: Eyre & Spottiswoode, 1951.

_____. *The End of the Affair*. London: Heinemann, 1951.

_____. *The Living Room*. London: William Heinemann & the Bodley Head, 1955.

_____. *Loser Takes All*. London: William Heinemann, 1955.

_____. *The Quiet American*. London: William Heinemann, 1955.

- _____. *Our Man in Havana*. London: William Heinemann & the Bodley Head, 1970.
- _____. *A Burnt-Out Case*. London: Heinemann, 1961.
- _____. *A Sort of Life*. London: The Bodley Head, 1971
- _____. *In Search of a Character: Two African Journals*. London: The Bodley Head, 1961.
- _____. *A Sense of Reality*. London: The Bodley Head, 1963.
- _____. *Carving a Statue*. London: The Bodley Head, 1964.
- _____. *The Comedians*. London: The Bodley Head, 1966.
- _____. *Collected Essays*. London: The Bodley Head, 1969.
- _____. *Travel with My Aunt*. London: The Bodley Head, 1969.
- _____. *The Honorary Consul*. London: The Bodley Head, 1973.
- _____. *The Human Factor*. London: The Bodley Head, 1978.
- _____. *Doctor Fisher of Geneva*. London: The Bodley Head, 1980.
- _____. *Ways of Escape*. London: The Bodley Head, 1980.
- _____. *Monsignor Quixote*. London: The Bodley Head, 1982.

2. Secondary Sources

- Adamson, Judith. *Graham Greene: The Dangerous Edge, Where Art and Politics Meet*. London: Macmillan, 1990.
- Allain, Marie-Françoise. *The Other Man: Conversation with Graham Greene*.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83.
- Azim, Firdous. *The Colonial Rise of the Novel*. London: Routledge, 1993.

- Atkins, John. *Graham Greene*. London: Calder and Boyars, 1957.
- Barrowclough, Nikki. "Graham Greene." *HEAT* 7 (2004): 27-49.
- Bawer, Bruce. "Graham Greene: The Politics." *The New Criterion* 8.3 (1989): 34-41.
- Beer, Patricia. review of Sherry, Norman. "*The Life of Graham Greene: vol. 2, 1939-1955.*" *London Review of Books* 17:14 (1995): 21-22.
- Benz, Stephen. "Graham Greene's Paraguay." *Nassau Review* 6.3 (1992): 54-67.
- _____. "Taking sides: Graham Greene and Latin America." *Journal of Modern Literature* 26.2 (2003): 113-28.
- _____. "Graham Greene's narrative art: a case study in analyzing nonfiction prose." *CEA Critic* 60.2 (1998): 6-16
- Bergonzi, Bernard. "In search of a beginning: my life with Graham Greene." *Commonwealth* 131.18 (2004): 28-30.
- Bhabha, Homi. *The Location of Culture*. London: Routledge, 1994.
- Bhalla, Alok, ed. *Garcia Marquez and Latin America*. New York: Envoy, 1987.
- Bierman, Lisa. "Scobie Reconsidered: A Casualty of Catholicism or Conscience?" *Renaissance* 1 (2000): 65-77.
- Blake, Susan. "Travel and Literature: the Liberian Narratives of Esther Warner and Graham Greene." *Research of African Literature* 22.2 (1991): 191-203.
- Blcok, Ed. Jr., ed. "Recent Critical Perspectives on Graham Greene." *Renascence* 55.1 (2002): 3-104.
- Bloom, Harold, ed. *Graham Greene*. New York: Chelsea House Publishers, 1987.

- Boardman, Gwenn. *Graham Greene: The Aesthetics of Exploration*. Gainesville: Florida UP, 1971.
- Boehmer, Elleke. *Colonial and Postcolonial Literature*. Oxford: Oxford UP, 1995.
- Boening, John. "Into Thin Air: The Ocean Voyage in the Travel Writing of Graham Greene." *Studies in Comparative Literature* 33 (2000): 205-19.
- Bolton, Jon. review of Sherry, Norman. "*The Life of Graham Greene: vol. 2, 1939-1955.*" *Texas Review* 16.1-4 (1995): 152-54.
- Bonny, William. "Politics, Perception, and Gender in Conrad's Lord Jim and Greene's *The Quiet American*." *Conradiana* 23.2 (1991): 99-122.
- Bosco, Mark. "From *The Power and the Glory* to *The Honorary Consul*: the development of Graham Greene's catholic imagination." *Religion and Literature* 36.2 (2004): 51-74.
- Bradbury, Malcolm and Christopher Bigsby, eds. *Graham Greene: Contemporary Writer*. London: Methuen, 1983.
- Brantlinger, Patrick. "Victorians and Africans: The Genealogy of the Myth of the Dark Continent." "*Race,*" *Writing and Difference* ed. Henry Louis Gates, Jr. Chicago: Chicago UP, 1986. 185-222.
- Brennan, Michael G. "Graham Greene, Evelyn Waugh and Mexico." *Renascence* 55.1 (2002): 5-23.
- Brown, Tony. review of Smith, Graham. "*The Achievement of Graham Greene.*" *Essays in Graham Greene* 3 (1992): 159-62.
- Burgess, Anthony. "Politics in the Novels of Graham Greene." *Journal of Contemporary History* vol. 2 (1967): 120-148.

- Caie, Graham, Micheal Chesnult and Lis Christensen, eds. *Occasional Papers 1976-1977*. Copenhagen: Copenhagen UP, 1978.
- Christensen, Peter G. "The Art of Self-Preservation: Monsignor Quixote's Resistance to Don Quixote." *Essays in Graham Greene: An Annual Review* 3 (1992): 25-42.
- Couto, Maria. *Graham Greene: On the Frontier - Politics and Religion in the Novels*. London: Macmillan, 1988.
- Creasman, Boyd. "Twigs in the Spokes: Graham Greene's Anti-Americanism." *Studies in the Humanities* 14.2 (1987): 106-15.
- Creese, Richard. "Graham Greene and Modern Narrative Practice." Diss. UCLA, 1984.
- Cziesla, Wolfgang. "Haiti: Government by Terror and Resistance, the Duvalier Regime in Novels by Graham Greene and Rene Depestre." *Studies in Comparative Literature* 26 (2000): 289-98.
- Darby, Phillip. *Three Faces of Imperialism: British and American Approaches to Asia and Africa 1870-1970*. New Haven: Yale UP, 1987.
- _____. *The Fiction of Imperialism: Reading Between International Relations and Postcolonialism*. London: Cassell, 1998.
- DeVitis, A. A. *Graham Greene*. Boston: Twayne Publishers, 1986.
- Doyle, Michael. *Empires*. New York: Cornell UP, 1986.
- Eagleton, Terry. Fredric, Jameson. and Edward, Said, eds. *Nationalism, Colonialism and Literature*. Minneapolis: Minnesota UP, 1990.
- Eldridge, C. C. *The Imperial Experience: from Carlyle to Forster*. New York: St. Martin's, 1996.
- Elliot, Nathan. review of Baldridges, Cates. "Graham Greene's fictions:

- the virtues of extremity.” *Religion and Literature* 34.2 (2002): 133-35.
- Erdinast-Vulcan, Daphna. *Graham Greene's Childless Fathers*. London: Macmillan, 1988.
- Evans, Robert, ed. *Graham Greene: Some Critical Consideration*. Kentucky: Kentucky UP, 1963.
- Fanon, Frantz. *The Wretched of the Earth*. New York: Grove Press, 2004.
- Franklin, Ruth. “God in the Details: Graham Greene's Religious Realism.” *New Yorker* 80.29 (2004): 100-104.
- Gann, L. H. & Peter Duignan. *The Rulers of British Africa, 1870-1914*. London: Croom Helm, 1978.
- Gandhi, Leela. *Postcolonial Theory: A Critical Introduction*. New York: Columbia UP, 1998.
- Gibson, Andrew. review of Couto, Maria. “*Graham Greene: On the Frontier: Politics and Religion in the Novels*.” *English* (Leicester) 38.162 (1989): 273-77.
- Granqvist, Raoul. “Stereotypes in Western Fiction on Africa: A Study of Joseph Conrad, Joyce Cary, Ernest Hemingway, Karen Blixen, Graham Greene.” *Umea Papers in English* 7 (1984): 1-39.
- Greene, Martin. *The English Novel in Twentieth Century: The Doom of Empire*. London: Routledge, 1984.
- Harber, Herbert. “The Two Worlds of Graham Greene.” *Modern Fiction Studies* III (1957): 256-68.
- Harper, Graeme, ed. *Colonial and Postcolonial Incarnation*. London: Continuum, 2001.

- Harrington, Tetlow. "British Writers in Tropical Africa, 1936-1985: Cultural Crossover in the Travel and Fictional Works of Elspeth Huxley, Graham Greene and V.S. and Shiva Naipaul." Diss. U of Maryland, 1996.
- Hansen, Niels Bugge. "The Unquiet Englishman: A Reading of Graham Greene's *The Quiet American*." *Occasional Papers* eds. Graham D Caie, Micahel Chesnet, Claus Fairch, Lis Christensen. Copenhagen: Copenhagen UP, 1978: 188-201.
- Hazen, James. "The Greeneing of America." *Essays in Graham Greene* ed. Peter Wolfe. Florida: Penkeville, 1987. 1-24.
- Heron, George. "Imperial Fictions: Graham Greene, *The Heart of the Matter*." *Wasafiri* 4 (1986): 15-19.
- Hestenes, Mark. "To See the Kingdom: A Study of Graham Greene and Alan Paton." *Literature & Theology: An International Journal of Theory, Criticism and Culture* 13.4 (1999): 311-22.
- Higgins, Michael W. "Greene's priest: a sort of rebel." *Essays in Graham Greene* 3 (1992): 9-23.
- Hill, William Thomas. "The Search for Dwelling and its Relationship to Journeying and Wandering in the Novels of Graham Greene." Diss. U of Nebraska, 1994.
- _____. "Journeying toward the Deep Incurable Egotism of Passion in Graham Greene's *Travels with My Aunt*." *Studies in Language and Literature* 32 (1997): 19-45.
- _____, ed. *Perceptions of religious faith in the works of Graham Greene*. New York: Frankfurt: Lang, 2002.
- Hoffer, Bates. "Shuusaku Endo and Graham Greene: cross-cultural

- influences in literary structure.” *Language and Literature USA* 28 (2003): 127-33.
- Hyam, Ronald. *Reappraisals in British Imperial History*. London: Macmillan, 1975.
- Hynes, Samuel, ed. *Graham Greene: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agle Wood Cliffs: Prentice-Hall, Inc., 1973.
- Jacob, George C. “The child/woman as femme fatale in Graham Greene's trilogy.” *Notes on Contemporary Literature* 29.1 (1999): 6-8.
- JanMohamed, Abdul. “The Economy of Manichean Allegory: The Function of Racial Difference in Colonial Literature.” *“Race,” Writing, and Difference*. ed. Henry Louis Gates, Jr. Chicago: Chicago UP, 1986. 78-106.
- Judith, Wilt. “The Cave of the Body: *The Heart of the Matter*.” *Religion and the Arts* 1.3 (1997): 73-95.
- Katz, Wendy. *Rider Haggard and The Fiction of Empire*. Cambridge: Cambridge UP, 1987.
- Kedhe, Suzanne. “Engendering the Imperial Subject.” *Fiction of Masculinity: Crossing Cultures, Crossing Sexualities*. ed. Peter Murphy. New York: New York UP, 1994. 241-54.
- Kelly, Richard. *Graham Greene*. New York: Frederick Ungar Publishing Co, 1984.
- Kennedy, B. Phillip. “Cultural Critical and Catholic Politics: A Dialogic Re-reading of the Novels of Graham Greene.” Diss. U of Miami, 1993.
- Kennedy, Brian. “Knocking over the Statue: Graham Greene's Politics

- of Engagement.” *Cresset* 58.4 (1995): 19-22.
- King, Adele, ed. *Camus's L'Étranger: Fifty Years On*. New York: St. Martin's, 1992.
- Kulshrestha, J. P. *Graham Greene: The Novelist*. Delhi: Macmillan, 1977.
- Kunkel, Francis. *The Labyrinthine Ways of Graham Greene*. New York: Paul P. Appel, 1960.
- Kunkel, Francis L. “Graham Greene: the staying power and the glory.” *Critic* 45.4 (1991): 48-55.
- Lewis, Kevin. “The Third Force: Graham Greene and Joseph L. Mankiewicz's *The Quiet American*.” *Film History* 10.4 (1998): 477-91.
- Lodge, David. “Graham Greene: a personal view. Encounters between two Catholic novelists.” *Times Literary Supplement* 12 (1991): 9-10.
- Lodge, David. “The Lives of Graham Greene.” *The New York Review of Books* 42.11 (1995): 25-30.
- Malamet, Elliott. “The World Remade: Graham Greene and the Art of Detection.” *American University Studies IV: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183 (1998): 700-41.
- _____. “Penning the Police/Policing the Pen: The Case of Graham Greene's *The Heart of the Matter*.” *Twentieth Century Literature: A Scholarly and Critical Journal* 39.3 (1993): 283-305.
- Masterman, Charles Fredrick. *In Peril of Change*. London: T. Fisher Unwin, 1905.
- Matt, Steinglass. “*The Heart of the Matter*.” *The Nation* 281 (2005):

30-37.

- McCarthy, Patrick. "Camus, Orwell and Greene: The Impossible Fascination of the Colonised." *Camus's L'Étranger: Fifty Years On*. ed. Adele King. New York: St. Martin's, 1992. 221-31.
- McEwan, Neil. *Graham Greene: Macmillan Modern Novelists*. London: Macmillan, 1988.
- McLeod, John. *Beginning Postcolonialism*. London: Macmillan, 2000.
- Mesnet, Marie-Beatrice. *Graham Greene and the Heart of the Matter*. London: The Crescent Press, 1954.
- Meyers, Jeffrey, ed. *Graham Greene: A Revaluation*. New York: St. Martin's, 1990.
- Miller, R. H. "Graham Greene's Saddest Story." *Renascence: Essays on Values in Literature* 51.2 (1999): 133-43.
- Monnier, Yean-Yves. "Myth and Reality: Graham Greene's View of Africa in *Journey without Maps*." *Commonwealth Essays and Studies* 11.1 (1988): 61-69.
- Nairn, Tom. *The Break-up of Britain: Crisis and Neo-Nationalism*. London: NLB, 1977.
- Ogude, S. E. "In Search of Misery: A Study of Graham Greene's Travel in Africa." *Odu (Ile-Ife, Nigeria)* 11 (1975): 45-60.
- _____. "Graham Greene's Africa." *Odu (Ile-Ife, Nigeria)* 14 (1976): 41-65.
- Olsen, Thomas. "Unquiet Americans: Pual Theroux's Saint Jack and the re-vision of Graham Greene." *Symbiosis* 2.1 (1998): 75-90.
- Orwell, George. *The Road to Wigan Pier*. London: Penguin Books, 1978.

- _____. "The Sanctified Sinner." *Graham Greene: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Samuel Hynes. New Jersey: Ea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1973. 105-109.
- Pathak, Zakia. "The Prisonhouse of Orientalism." *Textual Practice* 5.2 (1991): 195-218.
- Pendleton, Robert. "Arabesques of Influence: The Repressed Conradian Masterplot in the Novels of Graham Greene." *Conradiana* 25.2 (1993): 83-98.
- _____. *Graham Greene's Conradian Masterplot: The Arabesques of Influence*. New York: Macmillan, 1996.
- Pennycook, Alastair. *English and the Discourses of Colonialism*. London: Routledge, 1998.
- Pratt, Mary. "Scratches on the Face of Country: What Mr. Barrow Saw in the Land of Bushman." "Race," *Writing, and Difference*. ed. Henry Louis Gates, Jr. Chicago: Chicago UP, 1986. 138-62.
- Price, Matthew. "Sinner Take All: Graham Greene's Damned Redemption." *Book Forum: The Review for Art, Fiction, Culture* 11 (2004): 8-11.
- Ramanan, Mohan. "Graham Greene's Latin America." *Garcia Marquez and Latin America* ed. Alok Bhalla. New York: Envoy, 1987. 116-28.
- Reeves, Troy. "Duty and Heroism in *The Power and the Glory*." *Conference of College Teachers of English Studies* 63 (1998): 43-49.
- Rosenkranz, Harris. "Graham Greene's Travel Writings: Sources of His Fiction." Diss. U of Michigan, 1978.

- Ruskin, John. "From Lecture on Art - Imperial Duty." *The Norton Anthology of English Literature* 7th ed., Vol, 2 eds. Abrams, M. H., et al. New York: Norton, 2000. 2019-20.
- Said, Edward. *Culture and Imperialism*. New York: Vintage, 1994.
- _____. *Orientalism*. New York: Vintage, 1979.
- Schwartz, Adam. "From Granite to Grass: Graham Greene, Travel and the Primitive." *Renascence: Essays on Values in Literature* 55.1 (2002): 25-45.
- Sedlak, Valerie. "Graham Greene's Forgotten Man." *A Journal of the College English Association* 16 (2003): 58-69.
- Sejourne, Philippe. "Graham Greene (1904-1991)." *Journal of the Short Story in English* 41 (2003): 201-14.
- Scannell, James. "The Method is Unsound: The Aesthetic Dissonance of Colonial Justification in Kipling, Conrad and Greene." *Style* 3.3 (1996): 409-32.
- Schweizer, Bernard. "Graham Greene and the Politics of Travel." *Prose Studies* 21.1 (1998): 95-124.
- Sharrok, Roger. *Saints, Sinners and Comedians: The Novels of Graham Greene*. Notre Dame, IN: Notre Dame UP, 1984.
- Sherry, Norman. *The Life of Graham Greene: vol 1, 1904-1939*. New York: Penguin, 1989.
- _____. *The Life of Graham Greene: vol 2, 1939-1955*. Toronto: Key Porter Books, 1989.
- _____. *The Life of Graham Greene: vol 3, 1956-1991*. New York: Penguin, 1994.
- Smith, Graham. *The Achievement of Graham Greene*. Brighton: The

- Harvester Press, 1986.
- Smith, Simon. *British Imperialism, 1750-1970*. Cambridge: Cambridge UP, 1998.
- Spurling, John. *Graham Greene*. London: Methuen, 1983.
- Spivak, Gayatri Chakravorty. *In Other Worlds: Essays in Cultural Politics*. New York: Methuen, 1987.
- Tomlinson, John. *Cultural Imperialism: A Critical Introduction*. Baltimore: John Hopkins UP, 1991.
- Tracy, Laura. "Passport to Greenland." *College Literature* 12.1 (1985): 45-52.
- Trinh, Minh-ha. *Woman, Native, Other*. Indianapolis: Indiana UP, 1989.
- Viswanathan, Gauri. *Masks of Conquest: Literary Study and British Rule in India*. Oxford: Oxford UP, 1998.
- Walia, Shelley. *Edward Said and the Writing of History*. New York: National Book Network, 2001.
- Watts, Cedric. "The Heart of the Matter and the Later Novels of Graham Greene." *Blackwell Companions to Literature and Culture* 28 (2005): 278-88.
- West, Richard. "Graham Greene and *The Quiet American*." *The New York Review of Books (NYRB)* 16:38.9 (1991): 49-52.
- Wolfe, Peter, ed. *Essays in Graham Greene*. Florida: Penkevill, 1987.
- Wolfe, Peter. review of Sherry, Norman. "*The Life of Graham Greene: vol. 1, 1904-1939*." *Essays in Graham Greene* 3 (1992): 178-83.
- Woodcock, George. *The Writer and Politics*. Michigan: Porcupine Press, 1948.
- Young, Robert. *Colonial Desire: Hybridity in Theory, Culture and*

- Race*. London: Routledge, 1995.
- _____. *White Mythologies: Writing History and the West*. London: Routledge, 1990.
- 박상기. 「탈식민주주의의 양가성과 혼종성」. 『탈식민주의 - 이론과 쟁점』. 고부웅 외. 서울: 문학과 지성사, 2003.
- 구스타보 구티에레즈. 『해방신학』. 성념 역. 왜관: 분도출판사, 1977.
- 마이클 메클리어. 『베트남 10,000일의 전쟁』. 유경찬 역. 서울: 을유문화사, 2002.
- 박지향. 『제국주의: 신화와 현실』.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0.
- 박홍규. 『셰익스피어는 제국주의자다』. 서울: 청어람디미어, 2005.
- 바트 무어-길버트. 『탈식민주의! 저항에서 유희로』. 이경원 역. 서울: 한길사, 2001.
- 스벤 린드크비스트. 『야만의 역사』. 김남섭 역. 서울: 한겨레 신문사, 2003.
- 앤드류 포터. 『유럽 제국주의 연구의 현황과 과제』. 석화정 역.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1.
- 에드워드 사이드. 『도전받는 오리엔탈리즘』. 성일권 역. 서울: 김영사, 2001.
- 오인영. 「포스트식민주의 이론의 이해와 수용」. 『동양학』. 제 32호 (2002): 70-82.
- 이석호. “포스트콜로니얼리즘 미학의 양가성.”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논문, 1996.
- _____. 「다문화시대의 문화교육: 포스트콜로니즘의 관점으로 본 정전 다시 읽기의 의의」. 『영미문학교육』. 제 4집 (2000): 37-50.
- _____. 「과농의 민족문화론과 근대성」. 『역사비평』. 1호 (2000):

236-50.

최재석. 『그레엄 그린 연구』. 서울: 한신문화사, 1993.

_____. 『그레엄 그린의 소설과 우나무노』. 서울: 한신문화사, 1992.

_____. 「그레엄 그린의 체험적 신앙」. 『문학과 종교』. 제8집 1호 (2003): 63-80.

_____. 「그레엄 그린의 주요 소설의 공간적 구조」. 『한국 영어영문학』. 제 45집 3호 (2003): 67-93.

치누아 아체베. 『제 3세계 문학과 식민주의 비평』. 이석호 역. 서울: 인간사랑, 1999.

페니 러녹스. 『민중의 외침: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인권투쟁』. 이부영역. 왜관: 분도출판사, 1983.

프란츠 파농. 『검은 피부 하얀 가면』. 이석호 역. 서울: 인간사랑, 1998.



3. Electronic Sources

“Alfredo Stroessner.” *Encyclopedia Britannica Online*. 2005. *Encyclopedia Britannica*. Nov. 2005 <<http://www.britannica.com>>.

Brown, E. Erik. “Mau Mau.” The early days of the Mau Mau insurrection. 1988. College of computer and information science. Northeastern University. Oct. 2005 <<http://www.ccs.neu.edu>>.

“Cecil John Rhodes.” *Bartleby.com. Great books online. The Columbia Encyclopedia*. Sixth Edition. 2001-05. Columbia University Press. Sep. 2005 <<http://www.bartleby.com>>.

“Chipa.” *Encyclopedia Britannica Online*. 2005. *Encyclopedia Britannica*. Sep. 2005 <<http://www.britannica.com>>.

- “Communist Insurrection.” *Bartleby.com. Great books online. The Columbia Encyclopedia*. Sixth Edition. 2001–05. Columbia University Press. Sep. 2005 <<http://www.bartleby.com>>.
- “David Livingston.” *Wholesomewords*. Christian Biography Resources. Nov. 2005 <<http://www.wholesomewords.org>>.
- Dorfman, Ariel. “Che Guevara.” *Time online*. 1999. 6. The Time 100. The most important people of the century. Sep. 2005 <<http://www.time.com>>.
- “Fidel Castro.” *About.com*. 2005. New York Times Company. 20th Century History. Sep. 2005 <<http://history1900s.about.com>>.
- “Guarani language.”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Nov. 2005 <<http://en.wikipedia.org>>.
- “Guinea.” *U. S. Department of State, Bureau of African Affairs*. Sep. 2005 <<http://www.state.gov>>.
- “Henry Stanley.” *BBC online*. BBC Historic Figures. Sep. 2005 <<http://www.bbc.co.uk/history>>.
- Lopez, Oscar Robert. “Machismo.” *Buffalo Report*. November 2003. Sep. 2005 <<http://buffaloreport.com>>.
- “Manifest Destiny.” *The Great Nation of Futurity. The United States Democratic Review* Vol. 6.23 Cornell University. Nov. 2005 <<http://www.mtholyoke.edu>>.
- “Mungo Park.” *About.com*. 2005. New York Times Company. African history resources. Sep. 2005 <<http://africanhistory.about.com>>.
- Murray, R. David. “Noblesse Oblige.” *Noblesse Oblige. Learning to give. An action of the heart, a project for the mind*. Oct. 2005 <<http://www.learningtogive.org>>.

- “Paraguay.” *U. S. Department of State*. Backgroundnote: Paraguay. 2005. 9. Bureau of Western Hemisphere Affairs. Sep. 2005 <<http://www.state.gov>>.
- Phillips, Richard. “A haunting portrait of US-backed terror in Vietnam.” *World Socialist Web Site*. Dec. 2002. Nov. 2005 <<http://www.wsws.org>>.
- “Rudyard Kipling.” *The Literature Network*. Sep. 2005 <<http://www.online-literature.com/kipling>>.
- Shermis, S. Samuel. “Social Darwinism.” Introduction to Social Justice. 1998. Purdue University. North Carolina. Oct. 2005. <<http://www.ioa.com/~shermis>>.
- “Sierra Leon.” *U. S. Department of State*. Bureau of African Affairs. Sep. 2005 <<http://www.state.gov>>.
- Simpson, George. “Mau Mau and UK.” Mau Mau and Kenya: An Analysis of a Peasant Revolt. *Journal of Third World Studies*. Spring 2002. Oct. 2005 <<http://www.findarticles.com>>.
- Smith, Gordon. “Falkland war.” *Falklands/Malvinas War*. 2005. 4. Sep. 2005 <<http://www.globalsecurity.org>>.
- Stacy, Tracy. “Francois Duvalier.” *Webster online*. Spring. 1992. Attempts to Overthrow Papa Doc Duvalier. Sep. 2005 <<http://www.webster.edu>>.
- Swensson, John. “Domino Theory.” *The Vietnam Conflict*. An Academic information portal for education and research. Oct. 2005 <<http://www.deanza.edu>>.
- “Thomas Arnold.” *Encyclopedia.com*. *The Columbia Encyclopedia*. Sixth Edition. 2001–2005. Sep. 2005 <<http://www.encyclopedia.com>>.

Veinotte, Barry Wayne. “Charles Baudelaire.” *Empirezine.com*. The Poetry Empire. Oct. 2005 <<http://www.empirezine.com>>.

“Yerba Mate.” *Wikipedia*. 2005. 11. The free encyclopedia. Nov. 2005 <<http://en.wikipedia.org>>.



Abstract

Graham Greene's Novels and Postcolonialism

Park Ahn-Ja

Dept. of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or : Prof. Kim Sun-Hee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re-read Graham Greene from the perspective of postcolonialism. An important aspect of Greene's writings is that they straddle two epochs in Britain's history. The first epoch is before and after the second world war and the second epoch encompasses the several decades after the war during which the empire disintegrated and Britain went through a change in international status.

Studying his discourse on colonialism is tantamount to sifting through the vestiges of his anguish over the historical changes. It is rewarding in that to research his colonial discourse provides an opportunity in which one can witness the difficulties of a sensibility

attempting to adjust to a considerable alteration in Britain's international status. Especially, during the 50's and 60's when Great Britain lost its former power in the international arena, Greene came to realize how hard it was to continue to write while adhering to the former traditions. The new historical situation makes it difficult for him to take for granted the older polarities of the west and the non-west even though he most strongly desires them. Therefore, the disappearance of the dichotomy between the conqueror and the conquered impelled Greene to search for new writing strategies.

After the fall of Great Britain, the Englishmen have to see themselves as mere “expatriates” and they are relegated to being strangers in the third world. In each writing, the British are delineated as foreigners exposed to the local culture. However, the expatriate Englishmen show their excellence and uniqueness in foreign lands. The intention of Greene's colonial discourse is to show the superiority of Great Britain as a previous ruler. Whether these Englishmen live or die, Greene seems fascinated by the ultimate validation of their Englishness. In each novel, the Englishness is possessed as a distinct and distinguishing heritage and carried on by the Englishmen who continue to hold on to the unique British traits. However, Greene acknowledges that in the third world Englishmen lost their past political responsibilities, with a few ordinary and powerless citizens bearing a part of the responsibilities.

If one looks for a sense of resolution to Greene's problematic of the Englishman in need of the Third World Other, it is to be found in Greene's later novels, especially those written in the late 60's and

the early 70's. With these novels, Greene attempts to accommodate what are obviously surrendered to a changed history. He makes sure that this in no way reduces the Englishness of characters. Greene's attempt to express the importance of the third world is manifested in his later novels and he tries to justify meddling and intervention acquiescing to the changes. In such an aspect, it shows the conflicts and harmony between the political situation and the desire to rule.

Since imperialism started, Great Britain's history was no longer that of just Great Britain, but that of the world. The British people's pride is manifested by their conquests throughout the world. The British sense of historical pride is predicated on distant wanderings, which are difficult to give up. The imperial pride of Britannica is also manifested by Greene, who traveled all over the world and wrote novels about foreign lands; he was extremely proud of Great Britain, which was at the center of the world. Greene's long period of vagrancy was both a yearning for the empire and an attempt to adapt to the times. Furthermore, Greene's imperial fictions provide opportunities for vicarious travel to places that Englishmen have always travelled to.

In conclusion, his colonial writing discloses both the author's discomfort during the latter part of the colonial period and his ideological anguishes. Re-reading his writings from the postcolonial perspective is also an attempt to illuminate his technique of concealing the imperialistic mentality.